

建築士

■ 등록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제 라-1251
 ■ 1985년 12월 31일 제 3종 우편물(나)급인가 ■ 우편번호/137-070
 ■ 1990년 4월 15일 발행 ■ 통권 252 호 ■ 발행/대한건축사협회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강 플로트
리는 투명도,
도, 평활도가
들어납니다.

을
로 생산합니

한분야에서만
보적 노하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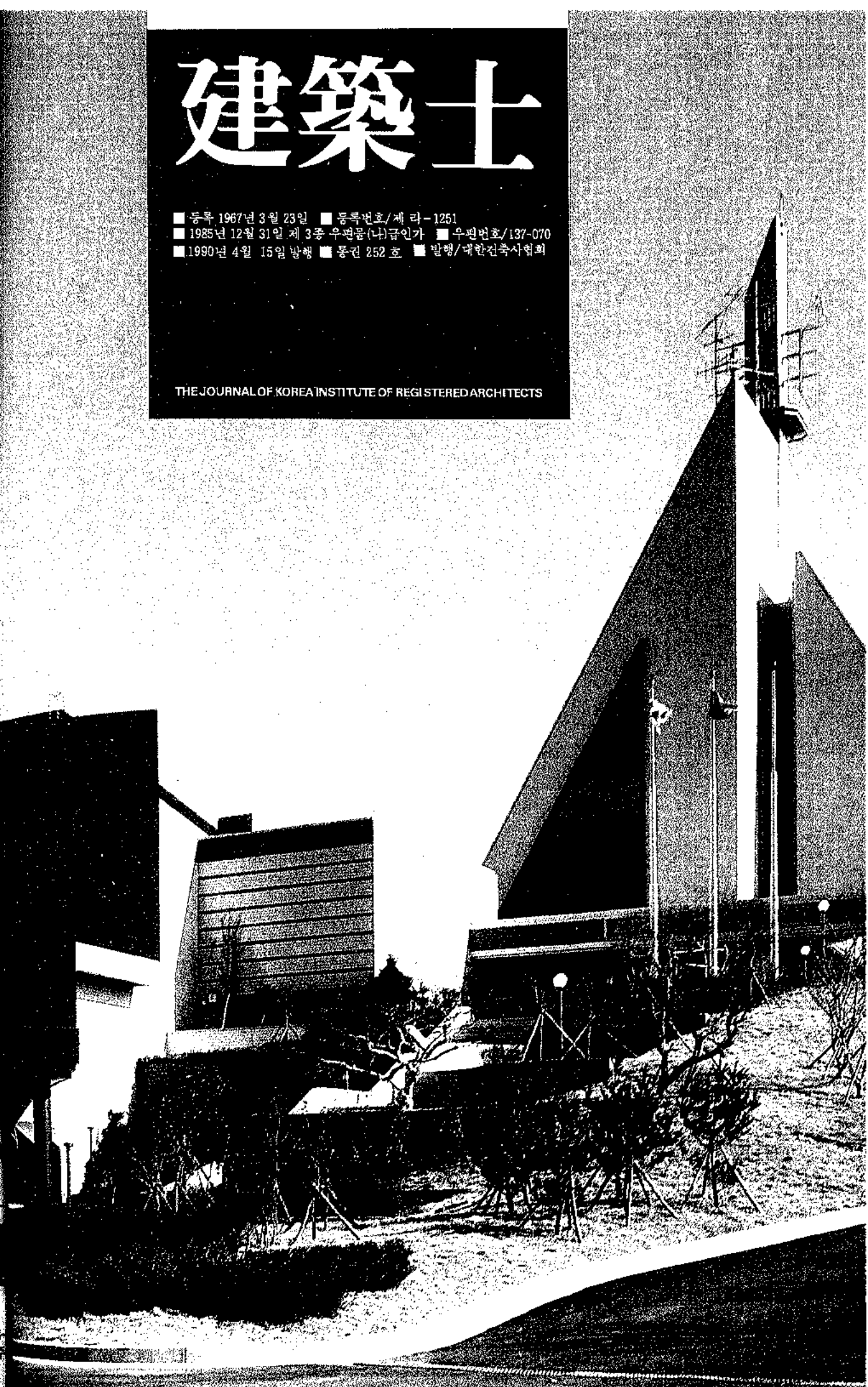
단위 유리 공장을
랑스 생고방의
금강 플로트 유리를

법으로 생산되는
특히 평활도에서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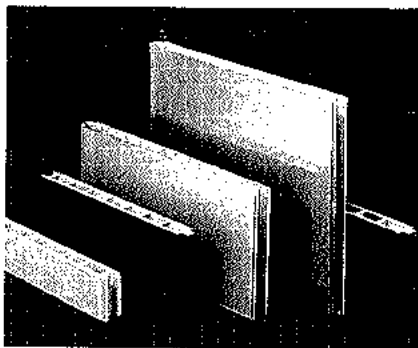
유리

35-5001~3 • 대전 284-
0 • 진주 55-5800 • 제주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²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 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칸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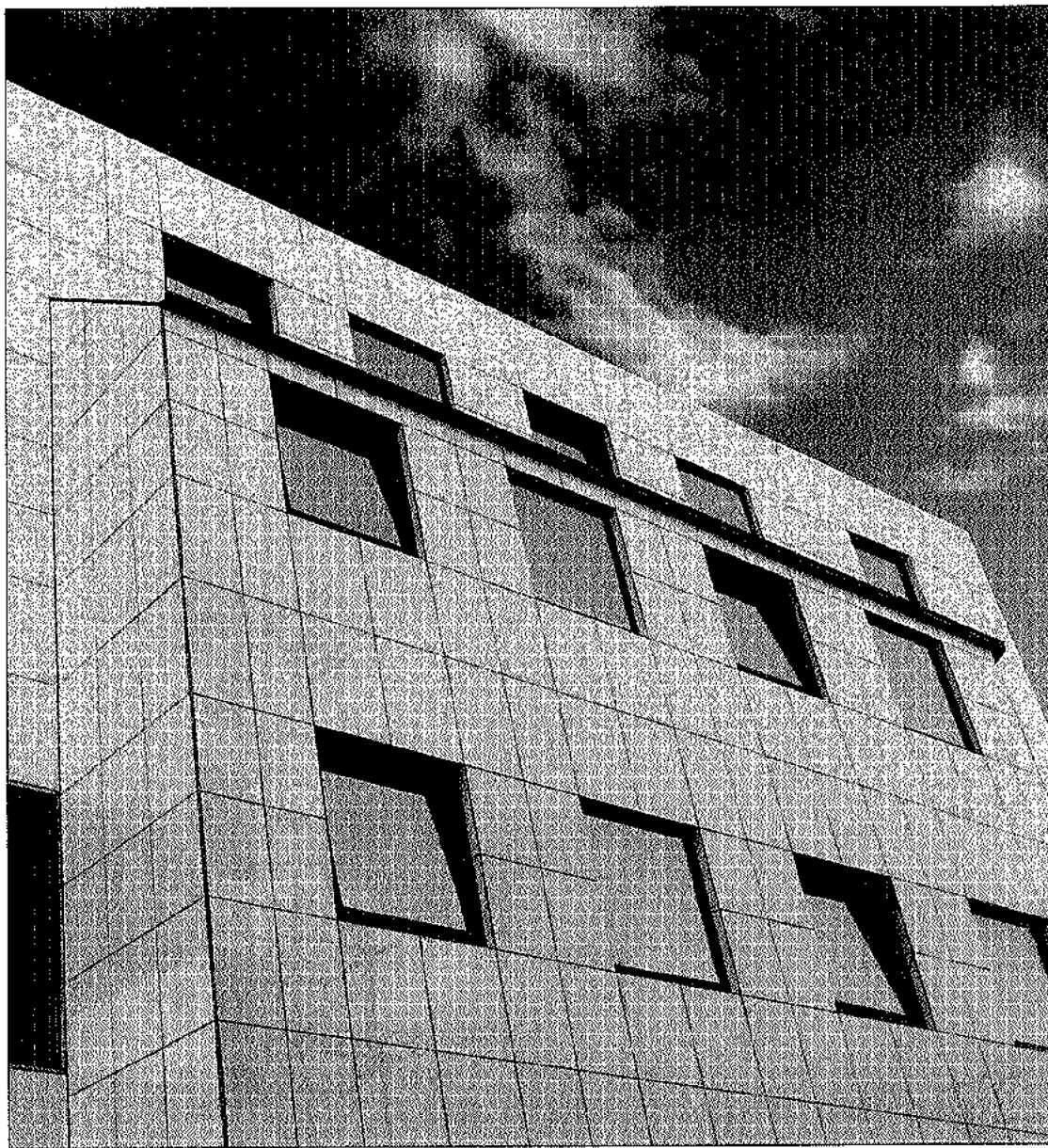
최적의 사무공간을 만들어주는 명품창문, 이건창호는 OFFICE BUILDING 에서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 시공사례 - 오피스빌딩편

역삼동에 위치한 '안·텍스' 사옥 —
눈부시게 하얀 타일의 건물에
악센트를 주는 빨간색 창문이
이국적인 색의 대미를 이룬다

외부는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알루미늄 소재를,
내부는 차분하고 품위있는 사무실 분위기의 목재로 —
하나의 창문으로 실내·외 소재와 질감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이진창호를 고른 사람의
센스가 돋보인다

특히, 조용하고 쾌적한 사무환경을 고려하여
뛰어난 방음 기능과 편리한 환기시스템을 갖춘
이진창호를 선택하였다는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배려가 한껏 느껴진다



최고의 오피스빌딩을 만드는 명품창문

디자인·소재에서/이진창호는 형태와 크기, 소재 결합이 자유롭고 알루미늄칼리와
목재의 종류가 다양해 건물 분위기에 따라 자유자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방음·보온에서/이진창호는 이중유리와 밀폐성 높은 가스켓, 열전도를 차단하는
신소재를 사용하고 컴퓨터 정밀 설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가능이 뛰어나고 특히 바깥 소음의 차단 효과가 큼니다
환기·개폐에서/이진창호는 개폐방식이 독특하여 환기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전에서/이진창호의 이중유리와 8개의 감금장치, 독특한 가스시스템은 사무실
문단속을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이진 시스템 윈도우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 540 - 2071 ~ 9 FAX : 540 - 2080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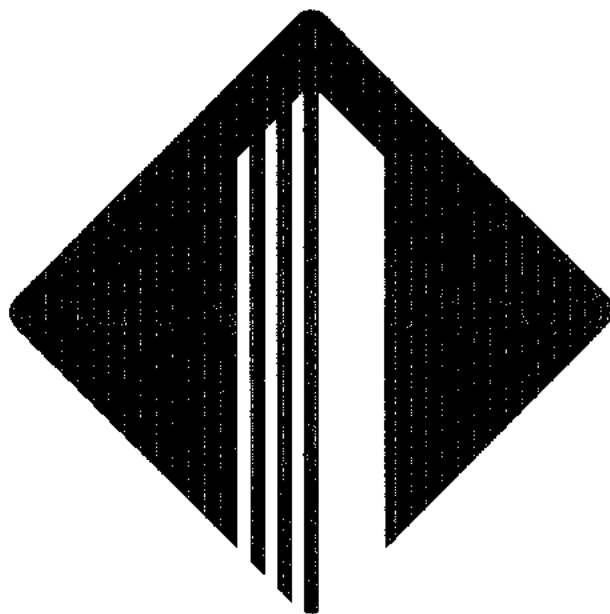


이진창호



◆심볼에 담긴 의미

새로운 심볼은 정상의 기업 이미지
다이아몬드 FRAME으로 담아내고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第一主義로서의 No.1이 함께
구성되어, 심볼 전체로는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는 연합인슈의 진취적이고
패기있는 기업정신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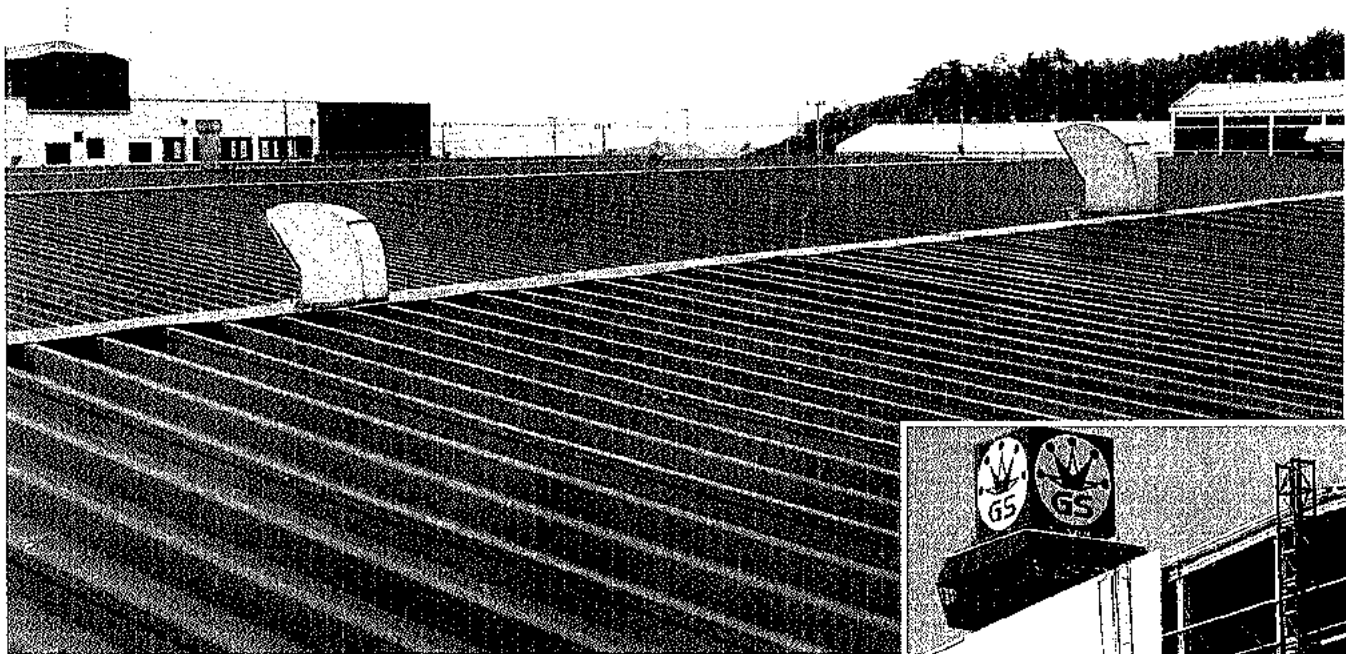
연합인슈

**연합인슈파넬주식회사가 더욱 힘찬
도약을 위해 시명과 심볼을 새롭게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단열파넬을 선보인 이래 오직 첨단
건축자재 생산에만 심혈을 기울려온 결과 업계
최초로 K.S 마크를 획득하고 기업공개로 통해
신뢰성을 드렸던 연합인슈파넬 주식회사, 이제
그간의 경험과 기술력을 담아 최고의 품질·
최고의 기술·최고의 서비스를 지향하는
第一主義의 의지로서 힘차게 뻗어나가기 위해
새이름·새얼굴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제
주식회사 연합인슈는 더욱 더 새로운 창조 의지,
第一主義 의지로 건축문화의 신기원을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선언! 21세기 신건축문화 창조

인슈파넬시스템



■ 인슈파넬 시스템이란!

최첨단 자동화시스템으로 생산되는 우수한 건축자재로서 Expanded poly-Styrene(ESP)에 우수한 재질의 Pre-coated Steel을 특수접착방식으로 라미네이팅한 Sandwich type 강도높은 조립식 단열 파넬입니다.

(인슈파넬 완공전경)

(인슈파넬 시공전경)

■ 인슈파넬의 특징점

- 에너지절감 / 봄은 비닐의 21.5배나 되는 단열효과로 냉·난방비를 30% 이상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형태의 선택 / 건물의 용도 기능 및 수용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세팅하실 수 있습니다.
- 견고하며 다양한 마감 / 매우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강하고 난연성이 탁월하며 간단한 기조 구조물에도 고강도의 견고성이 유지됩니다.
- 공사가간 단축 / 완전조립식 구조로 신속한 설치, 해체 및 이동이 가능하므로 시공기간 및 시공비를 단축시킵니다.
- 완벽한 방수·방습 / 습기흡수율이 제로(0)에 가까운 EPS를 사용 접합부분의 기밀이 철저하므로 완벽한 방습·방수 효과가 있습니다.
- 고도의 위생성 / 표면에 특수처리가 되어 변하지 않고 썩, 벌레가 서식할 수 없으며, 물세척도 가능하여 항상 깨끗합니다.

■ 인슈파넬의 용도

1. 일반 산업용 공장
일반공장, 기계공업공장, 섬유공업공장, 식품공장, 정밀기계공장.
2. 크린룸
무균·무진실, 항온항습실, 병원 수술실, 의약품 제조실, 전자반도체공장.
3. 냉동·냉장 저온 창고
냉동·냉장 급속 동결실, 방열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직공 저장고.
4. 주거시설
조립식주택, 기숙사, 군마사, 별장 및 방가로.
5. 공공시설
화물터미널, 체육관, 지하철역사, 강당, 목욕시설, 각종 심회 시설, 위락시설.
6. 기타시설
사무실 내부파티션, 노어, 상점, 이동사무실, 도난·방화·경비초소, 화장실, 각종 건축물, 부속시설.



주식회사 인합인슈



본사및공장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리리 39-2
T E L : (02) 745-0687, 아전 : (0336) 32-4635 ~ 6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인합인슈빌딩
T E L : (02) 555-6891, FAX 553-1651



좋은 설계를
위하여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청사진 복사기 pd 1180i
암모니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Convenience Engineering
Copier with Automatic Original Print Separator

AMMONIA가 필요없는,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MECHANISM의 결정체입니다.

COPINICA PD 118은 종전의 AMMONIA를 사용하던
복사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독특한 System인 1R, 2B, P
현상방식과 원도자동분리방식을 채택한 건식 청사진복사기
입니다. (복사폭 680mm)

지금까지 청사진 복사기의 최대 난점이었던 AMMONIA를
사용하지 않고 대기시간이 필요없이, 누구나 쉽게 스위치
한 동작으로서 작동되는 COPINICA PD 118은 어느 업종,
어느 장소에서나 효율적인 작업을 약속합니다.

Items

- Dazoprinter
- Wide-width Plain Paper Copier • Copy Paper
- PD Copier • Film Sepia • Tracing Paper
- Sensitive Paper (blue, black line, PD, etc.)
- ALL REPROGRAPHICS EQUIPMENTS



(株) 龜 映

The Pros in Reprographics in Korea.



신문지 한장에 자동차 한대씩— 삼성타워파킹

**국내최초로 초고속형, 텐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10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삼성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의 주차난에
가여하고 있습니다.

1. 공간이용의 극대화 실현
2. 다양한 기종
3. 컴퓨터로 제어되는 완전주차
4. 국내최고의 기술과 실적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텐테이블
내장형, 이중탑재형, 엘리베이터방식
- 다중순환방식 : 2, 3단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수직순환방식

대형채인에 차를 싣는 상자(Cage)를
매달아 순환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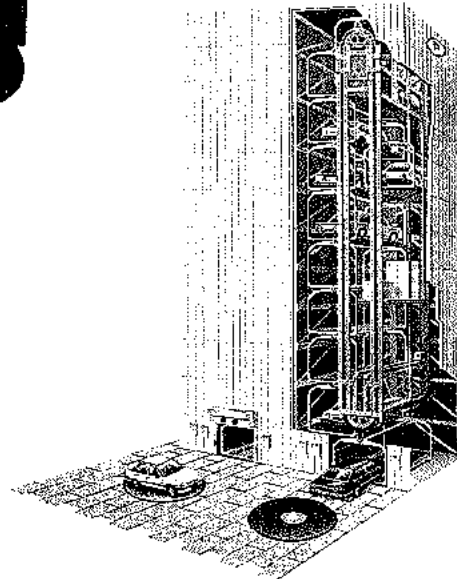
1. 초고속형 : 입, 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텐테이블 내장형 : 전, 후, 좌, 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2대주차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고속으로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방식 (횡식, 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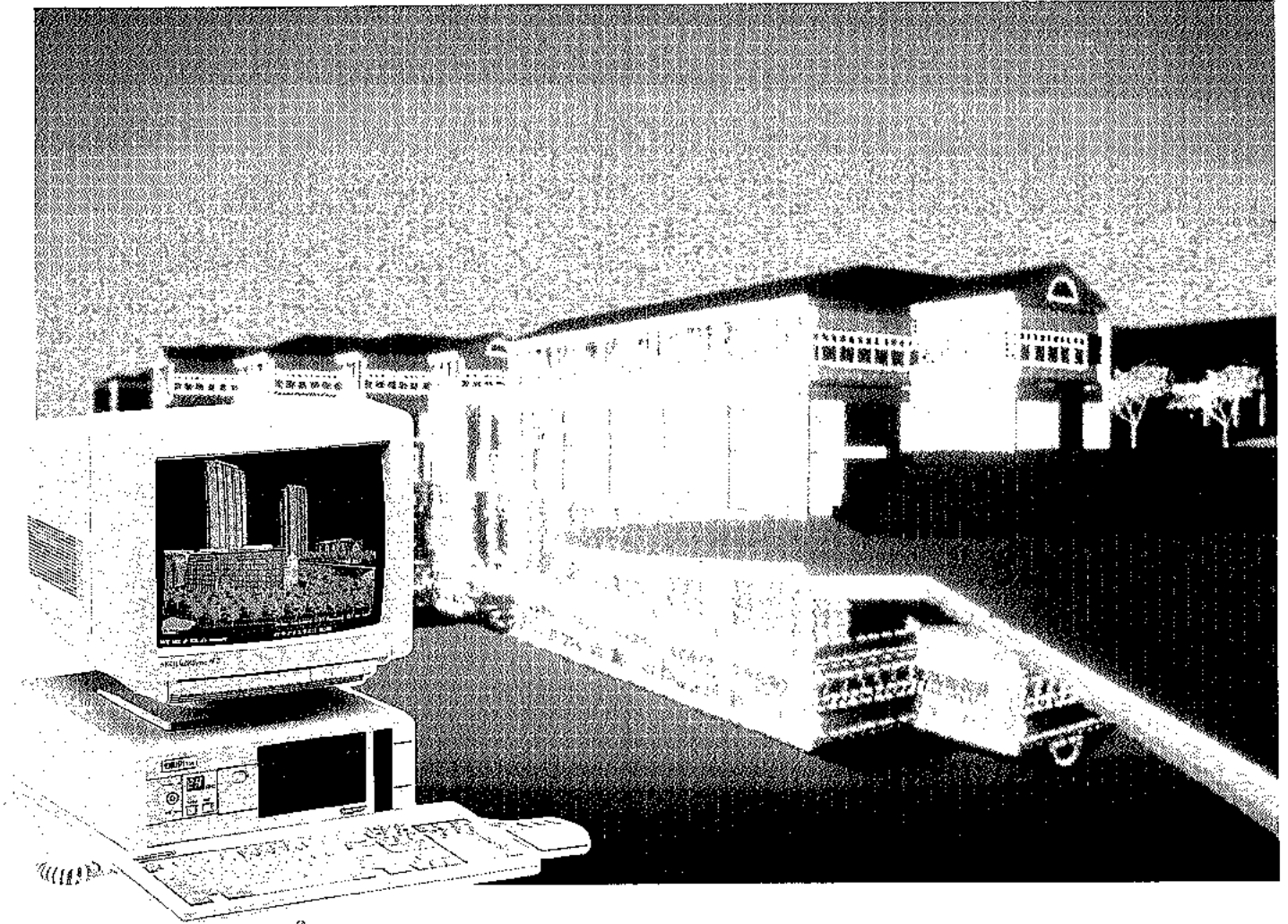


三星立體駐車設備

TOWER
PARKING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Sun-α^{PLUS}

SUNPOWER 386과 ARRIS의 만남.

가 / 격 / 혁 / 명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디자인 전용" CAD 시스템

AR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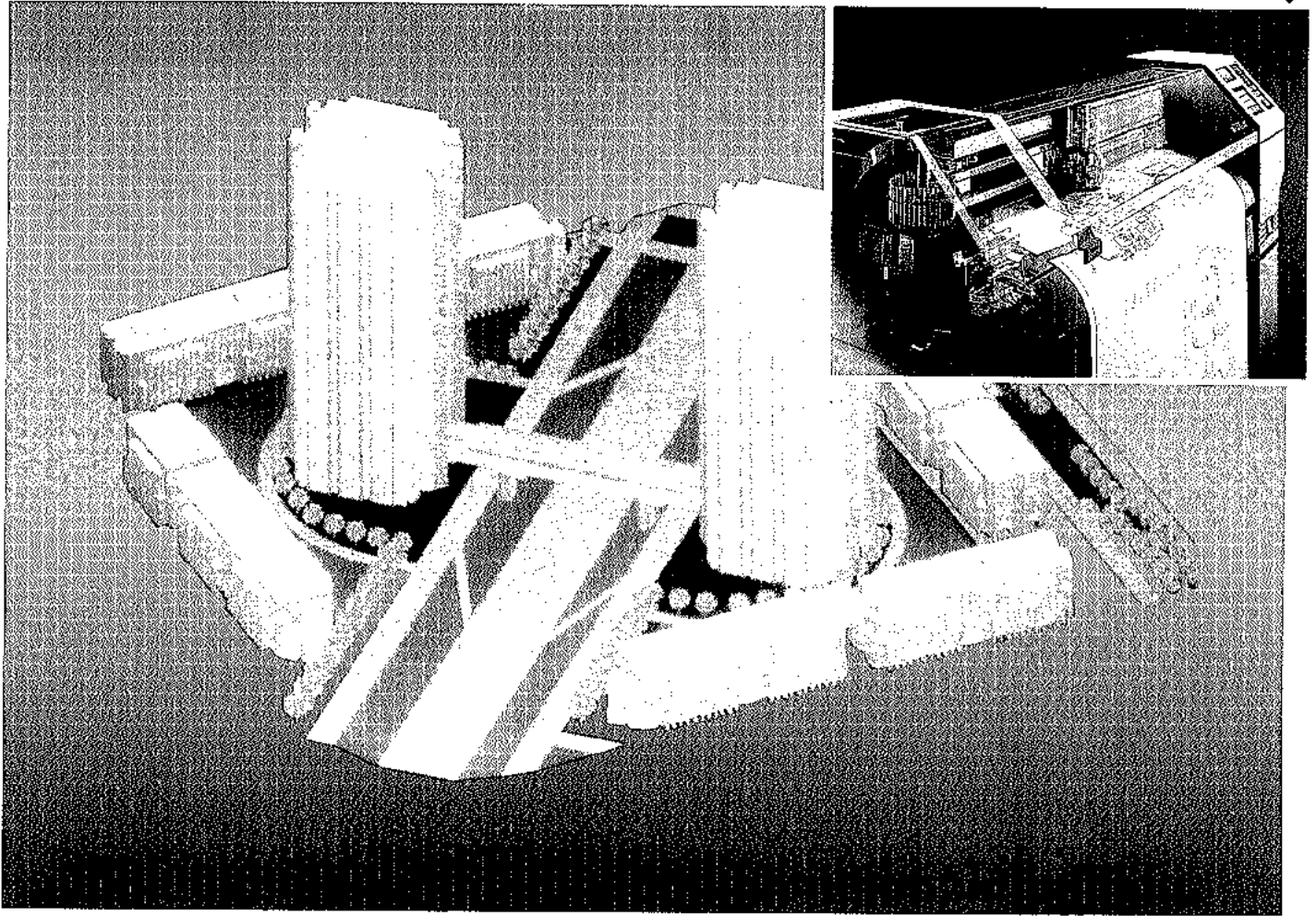
ARRIS의 특징

- ☉ 뛰어난 성능에 비해 가격이 저렴합니다.
- ☉ 디자이너를 위한 전문 CAD입니다.
- ☉ PC LEVEL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므로 경제적입니다.
- ☉ O/S로 XENIX를 사용하므로 작업능률이 뛰어납니다.
- ☉ 설계 Process를 Macro Program으로 사용하여 자동화 하였습니다.
- ☉ Pop-Up MENU가 Icon으로 나타나 간단히 조작 할 수 있습니다.
- ☉ Isometric, 조감도, 내, 외부 투시도 등 완벽한 3-D 및 광원과 조도를 변경시키며 Shade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 ☉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 1,600만 종류 이상의 다양한 Color가 표현 됩니다.
- ☉ 반복 작업 및 수정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생산성이 보장됩니다.
- ☉ 프레젠테이션 등에서 최대의 전시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CAD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부담없는 선택

286
386 PC!

Sunpower Global Family



Sun- α PLUS

디 / 자 / 인 / 혁 / 명

SUN- α PLUS WORKSTATION

H/W

SUNPOWER-386 SUPER

- Intel 80386-33MHz
- 4MB RAM
- 5.25FDD
- 80/100MB HDD
- Co-Processor
- Xenix
- MS-DOS
- 한글 Card
- 14" Monitor
- PC Mouse

DISPLAY

NEC XL MULTISYNC MONITOR

- 19 Inch Size
- 1024 x 768 Resolution with VMI Graphic Board
- 256 Color

S/W

BD & D + AD&D + M&D + 한글

OPTION

H/W

- Memory 8/16MB 확장
- 3.5 Inch FDD
- 5.25 Inch FDD

PLOTTER

- F-910E(A0)
- iP-530EL(A0)
- iP-530E(A1)

DIS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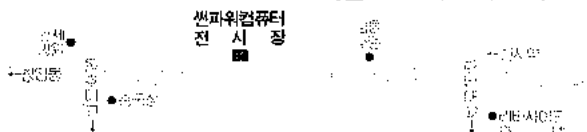
- 2A(800×600)
- 3D(1024×768)
- 4D(1024×768)
- 5D(1280×1024)

TABLE

- TB-8830

매주 금요일 SUN- α PLUS 설명회 개최

장소: 썬파워 컴퓨터 전시장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서통 시사업부 675-0621

Head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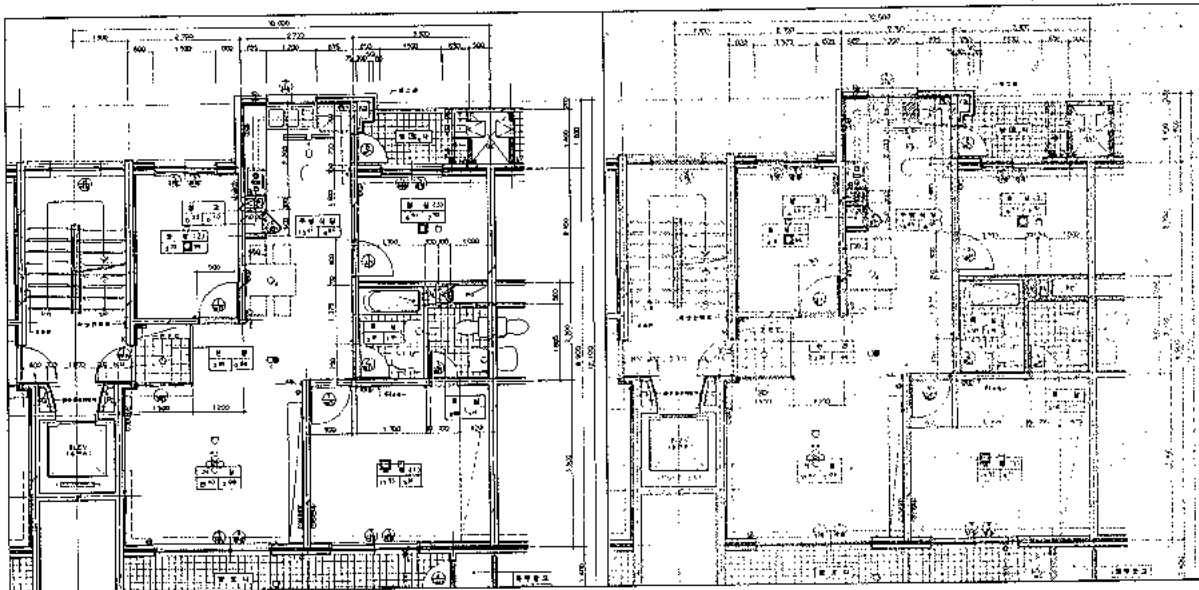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32서동빌딩
Tel (02) 675-0621 (代) Fax (02) 675-9260

A/S Center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썬파워 컴퓨터센터
Tel (02) 5140-396 (代) Fax (02) 515-0296

〈XEROX 2510도면〉

〈청사진 도면〉



아직도 번거롭게 청사진기를 쓰십니까?

도면복사의 혁신, XEROX 2510탄생

XEEROX 2510판의 특징

선명한 화질 도면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선명하게 재현하고, 보통용지는 물론 트레이싱지 필름지등 어떠한 용지에도 선명한 복사가 가능하며, 변색이 없어 서류보관이 용이합니다.

A6까지 복사가능 기존 청사진기에서는 불가능한 A6까지
복사가 가능해 어떤 크기의 도면도 단1번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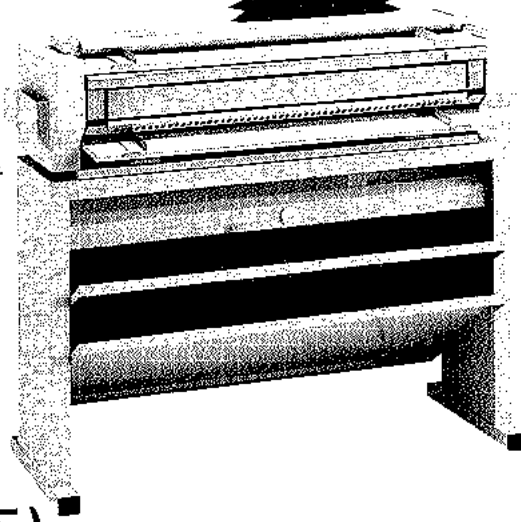
획기적인 저가실현 기존의 대형도넛복시기와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저가를 실현하였습니다.

간편한 조작 별도의 Operator 없이 초보자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워터치 마트트 조작 및 사용시 냄새가 전혀 없고 주변이 청결하여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실현했습니다.

컴팩트타입 사무실 어디에 놓아도 알맞는 컴팩트 타입 설계 이므로 최소공간에서 최대의 작업효율을 얻을 수 있으며, 별도로 복사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완벽한 서비스 7만의 제록스 팬으로 불리는 코리아 제록스만의 A/S 시스템은 신속하고 완벽한 서비스로 항상 최상의 기기상태를 보장에 노력합니다.

신제품



코리아 제록스(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20 TEL. 777-5739

전국영양망

서론지역 중앙: 275-8691 광동: 542-5643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중부: 754-7821 서부: 809-4633 상남: 542-5643 안천: 426-9337 춘천: 51-3870 대전: 253-5571 부산: 463-2531 울산: 72-3331 광주: 365-3500
 중부: 737-6896 동부: 232-1551 남부: 782-1442 수원: 45-1821 강릉: 44-3870 청주: 55-5860 마산: 55-7845 대구: 423-0117 전주: 72-0551

창간 15년의 결정!

정통의 주택전문지에서 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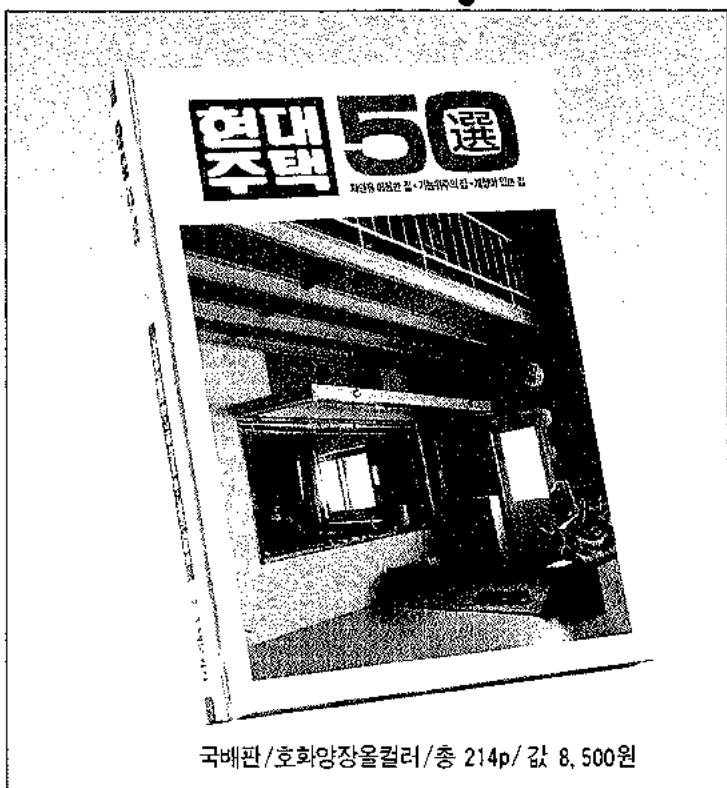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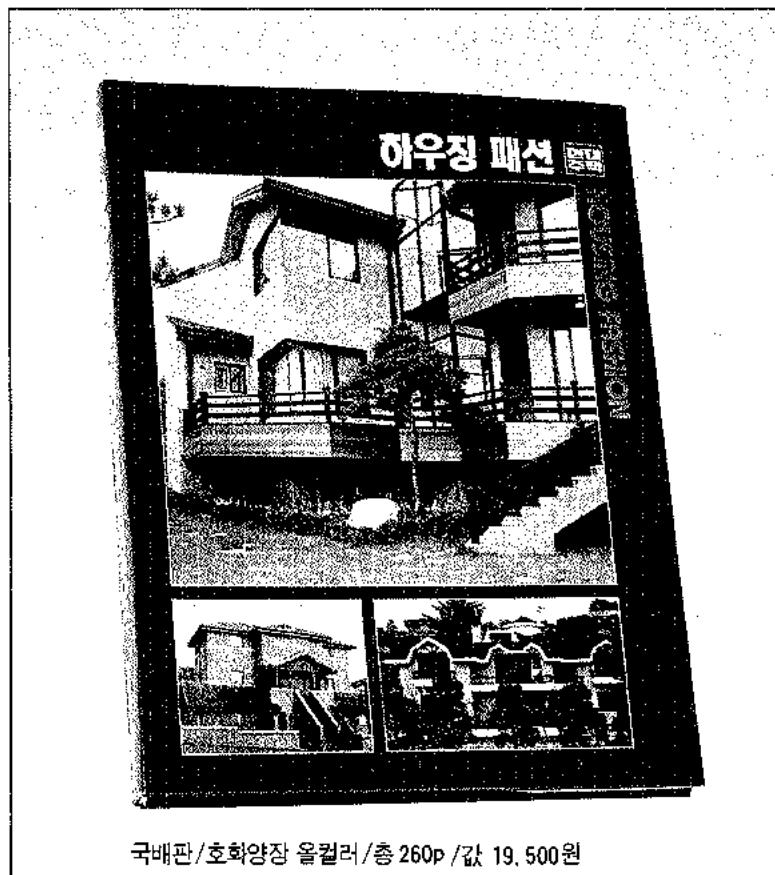
하우징 패션 HOUSING FASHION

세계 각국의 주택외관에서 부터
주택의 부위별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1천여컷의 다양한 스타일을
총망라한 주택패션 컬러화보집

1. 세계의 주택스타일 동남아 · 북미 · 유럽지역의
배어난 주택들 2. 주택외관 디테일 대문 · 담장 ·
지붕 · 창 · 차고 · 계단 3. 리빙에리어 현관 · 거실
침실 · 욕실 · 주방 · 식당 · 아이들방 · 서재 · 취미실
4. 인테리어 조명 · 커튼 · 바닥재 · 쿠션 · 벽난로 ·
수납가구 5. 실내외 조경공간 테라스 · 발코니 ·
온실 · 정원 6. 특별부록 (명단) · 주택전문설계사
무소 · 주문주택 전문 시공업체 · 주택관련 인테리
어업체 · 우수 건축 자재업체 · 우수중소주택 건설
업체 · 주택건설 지정업체

월간 현대주택 정기구독자에게는
정가의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택패션
컬러화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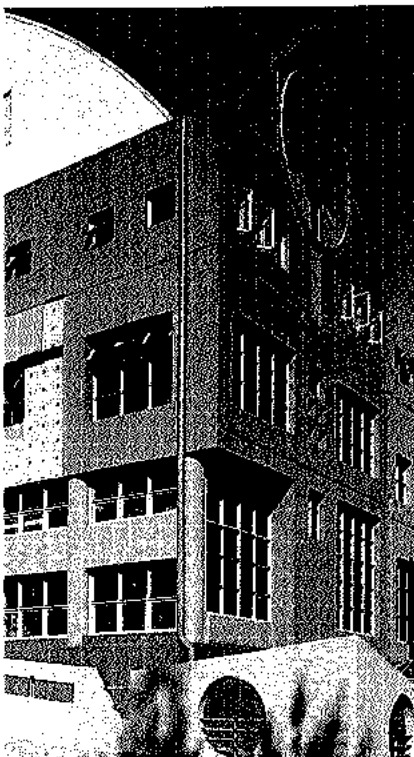
현대주택 50선

주택의 모든 유형이 다채롭게 담겨있는
컬러화보집. 미적이며 기능적인 집들의
내 · 외관과 관련 설계사무소 명단수록

1. 자연을 이용한 집 전원주택 · 별장주택 · 태양열주택
2. 기능위주의 집 복합주택 · 다세대주택 · 조합주택 · 증개
축주택 · 기능이 편리한 집 · 취락구조 개선주택 · 조립식주택
복토주택 · 공동주택 3. 개성이 있는 집 건축가의 집 · 분위
기 있는 집 · 돌집 · 담장이 낮은 집 · 외부와의 연계가 잘된 집
경사지주택 · 오픈 스페이스가 풍부한 집 부록 내 집 짓기의
모든 것 · 설계사무소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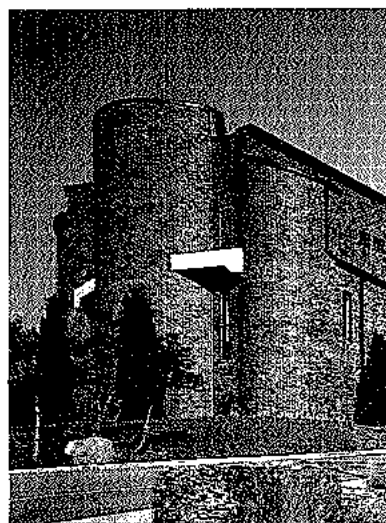
주식
회사 **주택문화사**

서울 · 영등포구 당산동 4가 92-5
영등포 우체국 사서함 150 FAX 679-6145
TEL 671-3201~4/633-9256, 1106



차례/1990년 4월호 통권 제252호

화보	'90全國建築士大會	
	協會長 開會辭	14
	建設部長官 祝辭	16
	“우리의 決意”	17
	사진으로 보는 '90全國建築士大會	18
會員作品	KBS 여수방송국/鄭德薰	20
	코오롱스펙스/朴容秀+郭成文	22
	천주교 인보성체 수도회 수련원/閔承烈	24
	스포츠타운 다이아몬드/閔承烈	26
	신한인터내셔널 사옥/朴昌浩	28
	평택 K종합사무실/鄭求殷	30
	광주 도원빌딩/崔英集	32
나의 스케치	다락이 큰 집/崔勝元	34
誌上中繼	200만호 주택공급 정책을 위한 건축계의 제안	36
研究	한국의 전통건축(24)-朝鮮시대의 建築/張慶浩	46
	일본의 현대건축 20선/金文德	55
	복합용도 건축물의 발전경향(Ⅳ)/吳德成	64
	독일의 현대건축을 찾아서/閔相忠	80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3)/金正泰	86
이달의 詩	목척다리에서/李瑛淳	95
회원동정		94
자료	1990년 2월분 도서신고현황	96
	질의회신	98
協會消息		100



표지: KBS 여수방송국
(설계: 鄭德薰)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喆,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珪/沈文精版社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eun/ Park, Seo-Hong/ Oh, Teak-il
 /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 Park, Yeon-Sim/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Lee, Chang-Sik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 oon Printing Co.)

CONTENTS Vol. 252, APRIL 1990

SPECIAL ISSUE

KIRA CONGRESS 1990

Presidential Opening Address	14
Congratulatory Address	16
Scene on the KIRA CONGRESS 1990	18

WORKS

Yeosu KBS Broadcasting Station/Jung, Duk-Hoon	20
Kolon Spolex/Park, Young-Soo & Kwak, Sung-Moon	22
Blessed Sacrament Novitiate House/Min, Seung-Ryeol	24
Sports Town Diamond/Min, Seung-Ryeol	26
Shinhan International Co. Blds./Park, Chang-Ho	28
Pyungtaek K' Colligation Office/Jung, Koo-Eun	30
Kwangju Dowon Building/Choi, Young-Jeep	32

MY SKETCH

A House of Large Garret/Choi, Seung-Won	34
---	----

TABLE TALK

Suggestion for the Policy of 2 Million Housing Supply	36
---	----

REPORT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Chang, Kyung-Ho	46
Best Selection 20 of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Kim, Moon-Duk	55
Planning Tendencies of Mixed Use Complex in Korea/ Oh, Deog-Seong	64
Modern Architecture in West Germany/Min, Sang-Choong	80
Artrium as Emerging Daylighting System(3)/Kim, Jeong-Tai	86

POF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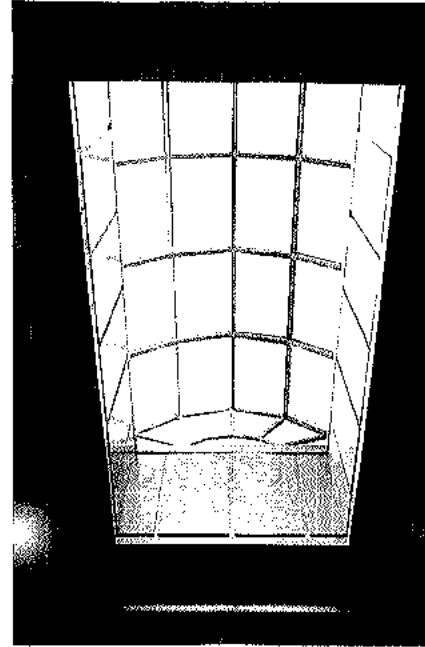
/Lee, Young-Soon	95
------------------	----

MATERIALS

	96
--	----

KIRA NEWS

	100
--	-----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달일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초기초동1603-55, 581-5715~8,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화동169-25, 333-6421,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781, 634-2143,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강서분소 / 강서구외곡동1105-05, 604-7168,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종로분소 / 종로구청전동201-1, 738-5416, 마포분소 / 마포구 성산동275-1, 333-5251,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중구분소 / 중무로2가49-11, 279-1415,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9-22, 712-7647,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80, 은평분소 / 은평구북면동79-32, 352-6720,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중랑분소 / 중랑구목1동171-12, 973-4921, 성북분소 / 성북구삼전5가110, 923-4401,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강동12가(부산대파트내) (051) 246-6294~5,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3가11-8, (053) 72-5141~2,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 동흥동694-10, (062) 521-0025 (FAX) 521-0026,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직할시중구대흥동437-1, (042) 254-2441, 경기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24-5, (031) 47-6129~30, 직할분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가-R, (031) 42-6490, 7072,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98, 2-0012, 부천분소 / 부천시시민로74-6, (032) 63-5144, 성남분소 / 성남시신정동5512, (0342) 2-5445,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동182, (031) 2-1083, 송탄분소 / 송탄시신정동21, (0333) 4-6153,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읍유교리38블럭16북동, (0344) 63-8902,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8112, 이천분소 / 이천군이천읍중리216-8, (0336) 2-3396, 광명분소 / 광명시원당동464-7, 682-2875, 안산분소 / 안산시고잔동531-5, 82-2820,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천안시유천동39-5, (0361) 54-2442, 원주분소 / 원주시일산동206, (0371) 42-3257,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14, (0339) 12-2262,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6-33, (0392) 13-5081,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 12-3106,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월1리960-12, (0372) 43-265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가116-168, (0431) 56-2752, 53-7342,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673-1, (0441) 2-3082, 제천분소 / 제천시외의동8-8, (0443) 2-6253,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양동222-206, (0475) 32-9997,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0417) 2-4551,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32-2853,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 12-2217,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34-3367, 충청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흥빌딩508), (0652) 87-6007,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 52-3304,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17가10-11, (0654) 12-4060,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6-2, (0671) 2-6002, 충청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73-2(후선화관) (062) 364-7567, 33-9944,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1동1, (0631) 43-3348, 순천분소 / 순천시장전동51-11(0661) 13-2457, 여수분소 / 여수시관동441번지, (0662) 64-7023, 충청남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285번지, (053) 425-4004, 포항분소 / 포항시북동43-22, (0562) 44-6029,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42-2(0561) 13-3638,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6) 52-6351, 안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2-5703, 김천분소 / 김천시방화동280-1, (0547) 2-2541, 영주분소 / 영주시표천2동295-2, (0572) 2-4566, 청송분소 / 청송시중앙동280-3, (0581) 2-2706,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2-4306, 충청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 46-4530~1,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 174-8836,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7-23, (0531) 2-6403, 충무분소 / 충무시서호동163-18, (0557) 43-3577, 2-7420,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48-101, (0594) 12-6114, 밀양분소 / 밀양군삼동184-108, (0527) 53-2110,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동양리274-3, (0598) 12-7090,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 84-3050, 거제분소 / 거제군신원읍고현리139-2, (0558) 84-3432, 2-3372,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동곡동91-6(0593) 12-3591, 제주주도지부 / 제주주도제주시도1동1289-6, (064) 22-3248, 52-3248,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 32-7777

開 會 辭



宋基德 會長

오늘 全國 建築士가 한자리에 모여서 開催하는 '90全國建築士大會를 맞이하여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하여 參席하여 주신 來賓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大會는 全國 3千3百餘 建築士가 協會를 中心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權益을 지키고자 하는 決然한 意志를 다져가는 機會가 되어질 것이며, 같은 分野의 같은 職種에 從事한다는 共同體의 一體感속에 '大和合의 場'으로 이어져 協會의 發展을 圖謀하는 觸媒劑로서의 役割을 다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先進 建築技術과 情報를 習得, 交換하는 機會로 活用되어져 建築士 各自의 自己發展 實現과 나아가 이 社會속에 보다 成熟한 모습의 建築士像을 定立해 나가게 될 것이며, 이는 곧 보다 快適한 生活空間의 創出로 이어져 國民의 便益과 福利增進에 寄與하고 나아가 後代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時代의 象徵的 建築文化를 훌륭하게 심어가는 데에 寄與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意義는 실로 크고 所重하다고 생각합니다.

會員 및 内外貴賓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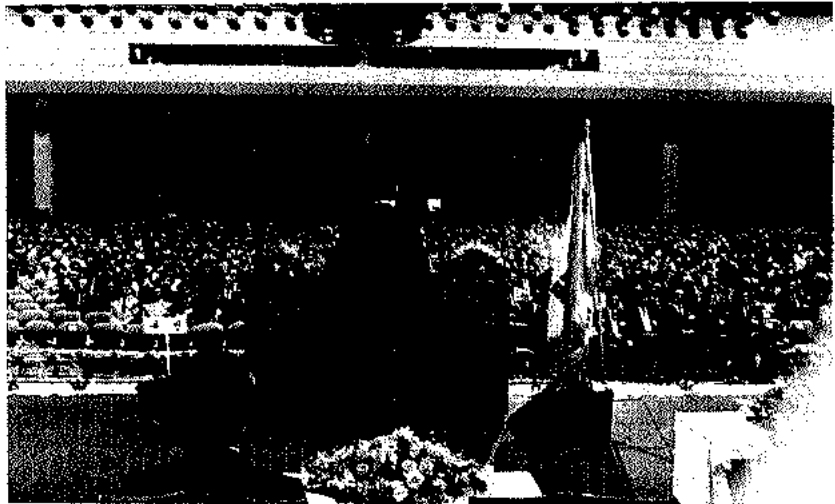
이렇듯 뜻깊은 오늘의 이大會가 盛大한 幕을 올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聲援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한번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大會가 해를 거듭할수록 보다 훌륭한 우리나라 建築文化 暢達의 產婆의 役割을 다하고 우리 建築士는 勿論 建築關係人 모두가 아무런 부담없이 스스로 參與할 수 있는 祭典으로 昇華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關心속에 많은 聲援과 指導 鞭撻을 부탁드립니다.

尊敬하는 建築士 여러분!

저는 오늘 全國 各處에서 모이신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平素에 우리 모두가 함께 共感해 왔던 것들 중 우리만의 權利를 찾기 위한 一方의인 主張이 아닌 이 땅에 眞正 참다운 建築文化가 꽃피도록 하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몇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建築士는 專門人으로서 높은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주어진 業務를 誠實하게 遂行해야 하겠습니까. 建築士의 業務는 이 社會의 어느 分野보다 앞선 높은 技術과 創意力, 그리고 藝術性을 要하고 있으며, 그 일을 遂行하고 있는 우리 建築士야말로 그러한 能力을 國家로부터 인정받은 높은 技術人이자 造形創作 藝術人이라고 自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社會속에서 眞正 尊敬받는 建築士가 되기 위해서는 各自 自家撞着하여 逢着하여 自慢해서는 안되며 우리에게 주어진 責任과 義務를 다하는 가운데 맡은 바 所任을 誠實히 遂行하게 될 때만 實現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建築士는 우리의 業務와 關聯된 非現實的, 非合理的인 各種 建築關係 法令制度의 改善을 爲하여 努力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우리 建築士들이 國民의 便益에서, 그리고 建築文化 暢達을 위하여 아무리 努力한다 하더라도 非現實的, 非



合理的인 行政規制와 統制속에서는 그 뜻을 펼 수 없음을 勿論 우리의 權益 또한 恒常 威脅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最近에 우리에게 深刻한 問題로 擡頭되었던 建築行政事項中 建築許可와 竣工檢査時 現場確認 業務를 公務員을 代身하여 建築士로 하여금 代行토록 하게 하고 그에 따른 責任 또한 建築士에게 轉嫁시킴으로써 많은 會員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이는 우리 모두 決然한 意志로 힘을 모아서 반드시 是正 改善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協會를 求心體로 全國 3千 3百餘 會員의 뜻과 마음이 一致하여 우리의 權益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굳은 意志로 強力한 힘을 發揮할 때만이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專門分野에 대한 技術開發과 그 育成 支援策의 講究를 政府에 強力히 促求하고자 합니다. 특히, 建築設計는 우리 建築士의 固有業務로 높은 創意力과 藝術性을 必要로 하기 때문에 不斷한 自己努力은 勿論 그에 따른 國家的 次元의 技術開發과 支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난해 政府 發議로 推進코자 했던 '綜合建設業 免許制度'에서 建築設計의 創作藝術性을 排除한 채 設計와 施工 그리고 監理를 一括 受注토록 하고 있음은 이 사회에서 지탄의 對象이 되고 있는 財閥企業의 門어발식 企業擴張 行態를 政府가 助長하는 行爲로 이 나라 建築文化의 먼 將來를 어둡게 하는 所致라고 생각하며 우리 全國建築士 一同은 이의 導入을 反對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尊敬하는 全國의 3千3百餘 會員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友情을 나누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矜持와 意志와 欲求를 한데 묶어서 스스로 다짐하며, 對内外에 한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오늘의 이 大會는 全國建築士가 主體가 되는 前進大會로서 이러한 行事를 通하여 우리의 團合된 힘으로 우리의 協會를 힘있고 강한 協會로 變貌시켜 나갑시다. 그렇게 될 때 恒久的으로 滿足할 成果를 올리는 次元높은 協會가 되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參席해주신 여러분과 여러분 家庭에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開會辭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1990. 3. 22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建設部長官 致辭

오늘 '90全國建築士大會에 참석하여 宋基德 會長을 비롯한 전국의 建築士 여러분과 建築界人士 그리고 民自黨 金鍾泌 最高委員을 대신하여 오신 朴俊炳 事務總長님, 平民黨 金大中 總裁님, 國會建設委員長을 대신하여 나오신 李麟求 議員님을 비롯한 貴賓여러분을 모시고 致辭를 드리게 된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行事를 마련한 大韓建築士協會는 창립된지 24년만에 3천3백여 회원을 포용하게 되고, 전국규모의 盛大한 行事를 개최할 수 있는 力量을 가진 建築界의 代表的 職能團體로 발전한 모습을 볼때, 그 동안 貴協會의 任職員과 會員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致賀의 말씀을 드리느바 입니다.

建築士 여러분!

建築物은 바로 인간생활을 담는 그릇인 동시에 우리시대의 거울로서, 한 國家의 文化水準을 재는 尺度의 하나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歷史的, 文化的 유산으로서 後孫에게 길이 전승되는 文化財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全國 각호에 세워지는 크고 작은 建築物들이 여러분의 손에 의하여 하나 하나 創造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建築士의 社會的, 歷史的, 文化的 役割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분은 建築物의 設計 및 工事監理業務에 있어 創意性과 專門性의 발휘를 통하여 바로 國民生活의 質向上과 民族文化 暢達에 先導的役割을 하게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親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建築士의 社會的 責任과 役割에 대한 再認識이 어느때 보다 요구되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國家의 發展으로 볼때도 先進國으로 進入與否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民族史的 轉換期로서, 한편으로 社會各階層에서 分配와 福祉에 대한 과도한 욕구의 自制가 요청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배전의 努力과 가일층의 奮發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政府는 國民生活과 밀착되어 있는 分野인 建築行政의 基調가 民主化, 自律化, 地方化 그리고 國際化라는 時代의 흐름에 副應하고, 建築士 여러분이 創意性과 專門性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現行 建築法令과 建築士法令의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不合理한 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一線行政機關의 慣行도 國民便益爲主로 전환해 나가는 方案을 講究中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建設部 建築行政組織을 補強하고자 이미 기구 개편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地方建築職公務員을 전문화하는 등 制度的 뒷받침을 持續해나갈 계획임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建築士 여러분!

이러한 轉換期의 상황에 처해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때, 이번에 개최되는 建築士大會에서 그 주제를 “建築環境과 國民意識”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建築士의 社會的責任과 役割” 및 “住居環境과 우리 社會”라는 현안문제를 놓고 전국의 3천여 건축사 여러분의 衆智를 모으게 된 것을 매우 時宜適切하게 생각하며, 여기에서 論議된 결과는 政府政策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디 이大會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의 意志와 力量을 하나로 결집시켜 建築士에 대한 社會的 認識과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짐은 물론 여러분의 權益이 크게 伸張되고 建築界가 도약하는 새로운 轉機가 마련되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建築士大會가 건축인 여러분의 祝祭로 승화되기를 기대하며, 大韓建築士協會의 무궁한 發展과 建築士 여러분의 앞날에 끝없는 繁榮과 幸運이 늘 같이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90. 3. 22

建設部長官 權寧珏

우리의 決意

오늘 우리 全國 3千3百餘 建築士는 專門人으로서의 自矜心과 社會的 責任感을 痛感하고 스스로의 權益을 지키고자 團合된 意志를 모아서 「우리의 決意」를 表明하고자 한다.

우리 建築士는 建築文化 暢達이라는 말은 바 所任을 통하여 民主福祉社會 建設에 同參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하며, 慢性的 行政規制를 國民便益爲主의 民主建築行政으로 改善하게 함으로써 合理的인 風土속의 참다운 建築文化 暢達에 앞장서는 發展된 建築士像을 定立해 나가하고자 한다.

이는 이 땅에 훌륭한 建築文化를 심고자 하는 專門人으로서의 召命意識의 發露이며 이는 바로 우리 建築士의 權益向上과 社會的 役割의 참된 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全國建築士 一同은 統一된 意志를 모아서 다음과 같이 「決意」한다.

하나: 우리 建築士는 專門人의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21世紀의 새 時代를 創造한다.

하나: 우리 建築士는 非合理的인 各種 建築關係法令 및 制度의 改善에 앞장서서 國民의 實質的 利益을 爲하여 最善을 다한다.

하나: 우리 建築士는 大型建設業體가 建築物의 設計와 工事監理業務까지 獨占하려는 「문어발式 企業擴張」의 發想을 沮止하여 우리 스스로가 國民의 福利增進에 寄與하도록 우리의 固有業務를 誠實히 遂行한다.

하나: 우리 建築士는 造形創作藝術人으로서 新技術과 創意力을 發揮하여 國家와 民族의 發展에 魂神의 努力을 다한다.

1990. 3. 22

大韓建築士協會 全國 會員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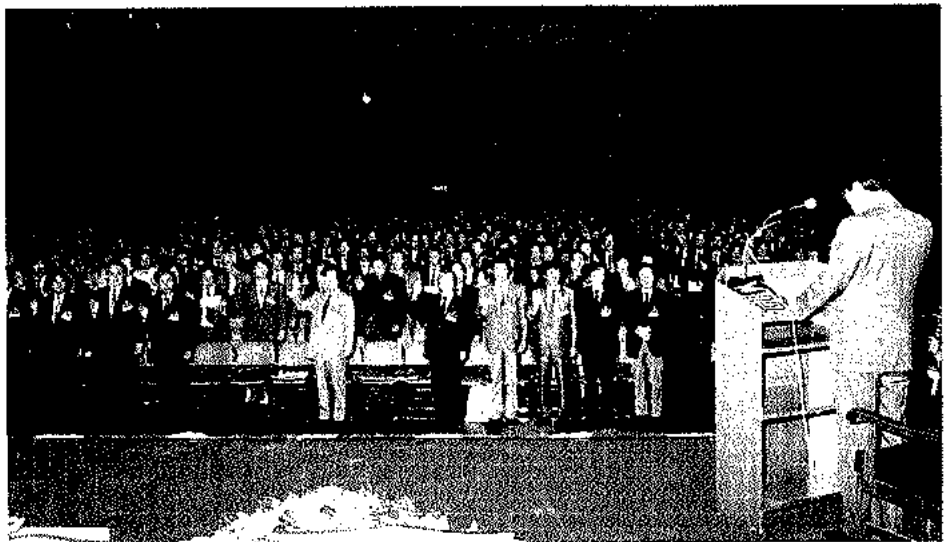


1

“건축환경과 국민의식”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3월 22, 23 양일간에 걸쳐 한국종합전시장 대서양관에서 개최된 '90 전국건축사대회는 건설부와 각 정당대표, 전국 3천3백여 건축사 회원과 건축관련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연수, 친목도모뿐 아니라 건축사의 지위 향상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건축제도의 점진적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과 건축문화의 지역적 균형 발전도 모의 장으로서 마련된 이번 대회에서는 정부의 2백만호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축계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개회식에서 宋基德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가 「전국 3천3백여 건축사가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다져가는 기회가 될 것이며, 같은 분야의 같은 직종에 종사한다는 공동체적 일체감 속에 「대화합의장」으로 이어져 협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되어질 것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우리의 단합된 힘으로 우리의 협회를 힘있고 강한 협회로 변모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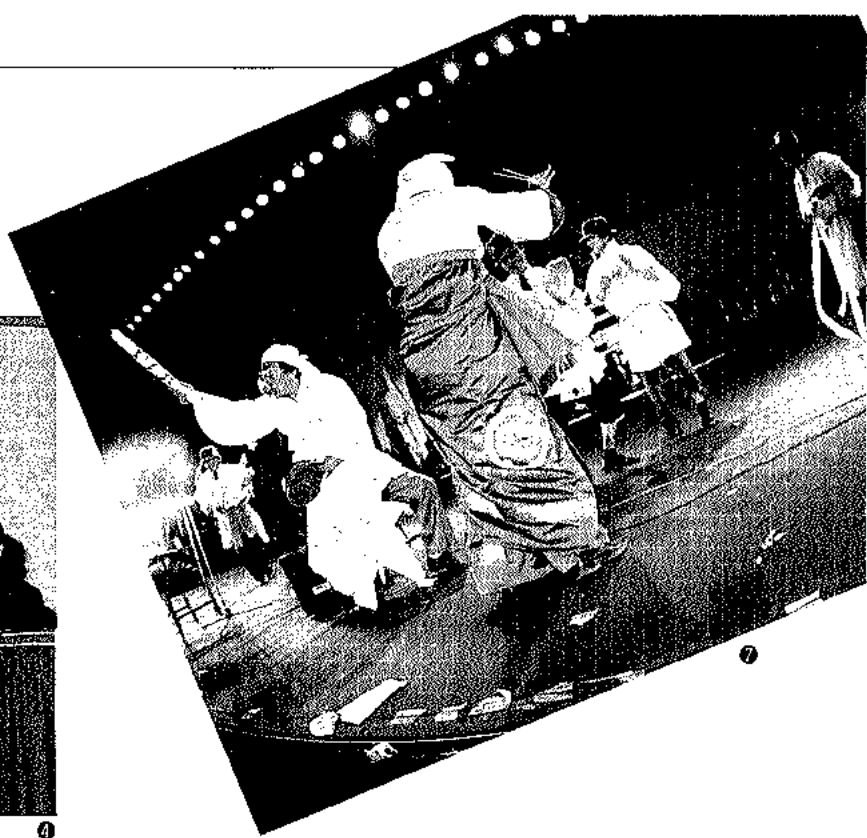
3

住宅供給 政策을 위한 建築界의 提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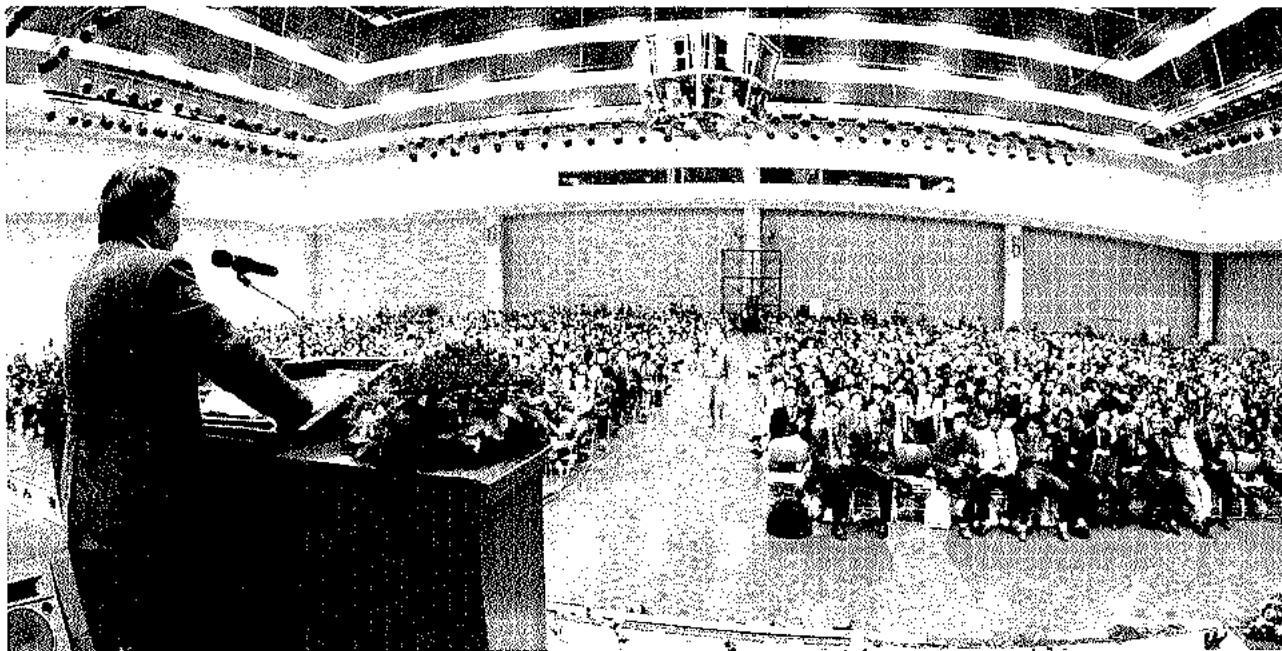
3.23 大韓建築士協會



4



7



5



6

- ① '90 전국건축사대회 개막식
- ② "우리의 결의" 채택
- ③ 정부 및 각 정당 대표들이 전국건축사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였다.
- ④ 열면 토론을 벌인 "2백만호 주택공급정책을 위한 토론회"의 광경
- ⑤ 특별강연 - 연세대 김동길교수
- ⑥ 3개 주제로 개최된 특별강좌에는 하나의 정보라도 더 얻으려는 회원들의 움직임이 부산했다.
- ⑦ 건축인의 밤 - 각 지부별 정기자랑이 흥을 더 했다.

KBS 여수방송국

Yeosu KBS Broadcasting S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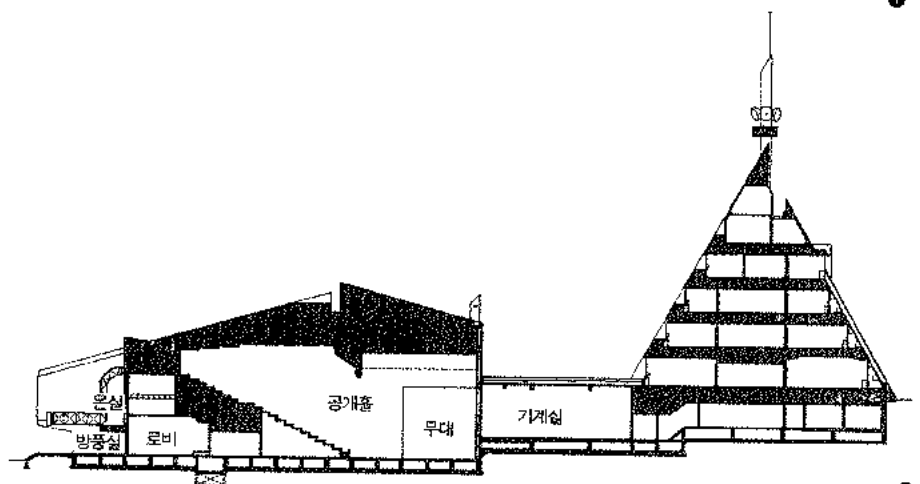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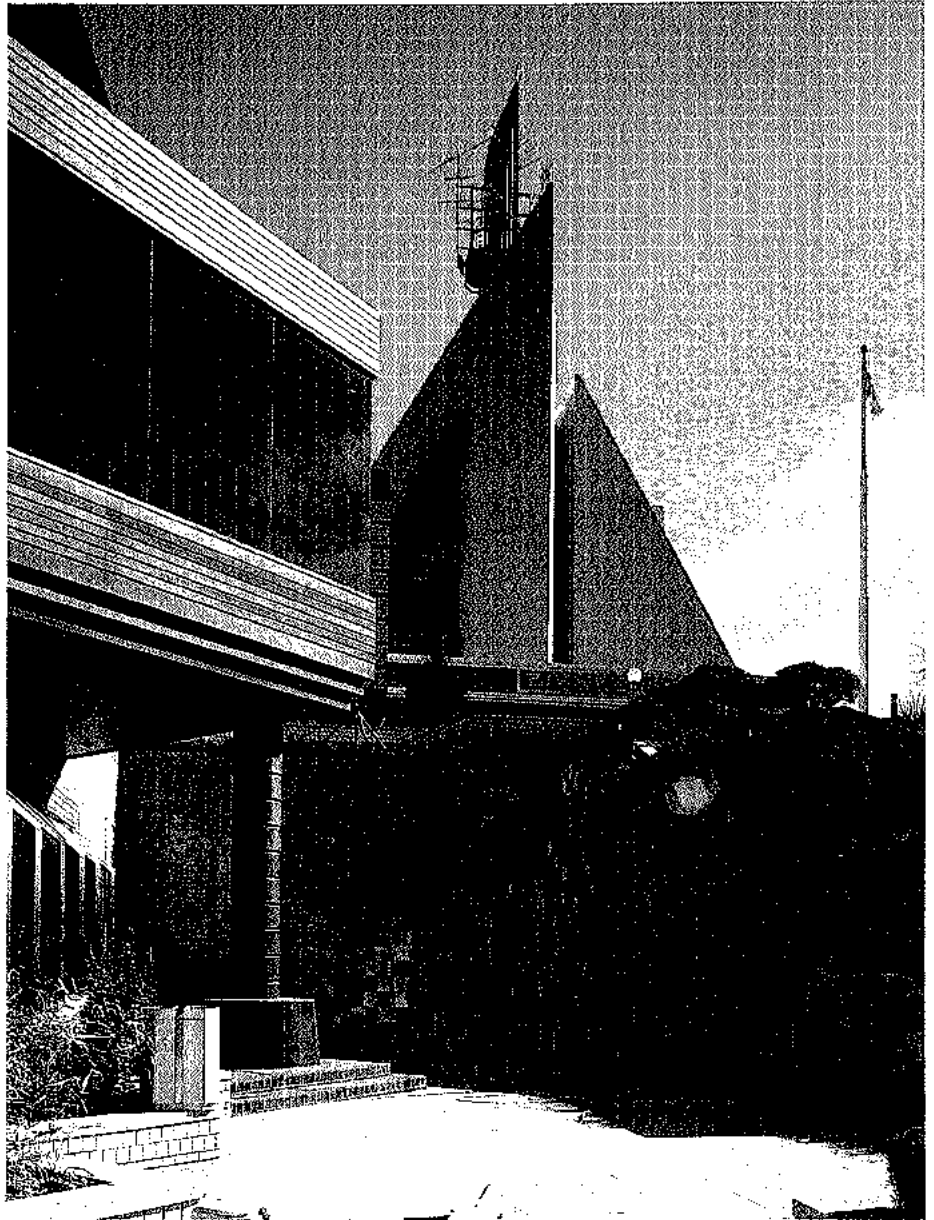
대지위치/전남 여수시 관문동 8-7
지역, 지구/주거지역, 방송통신시설지구
대지면적/18,050㎡
건축면적/2,573㎡
연면적/4,528㎡
건폐율/15.25%
용적율/25.08%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AL커튼월
(자연형 태양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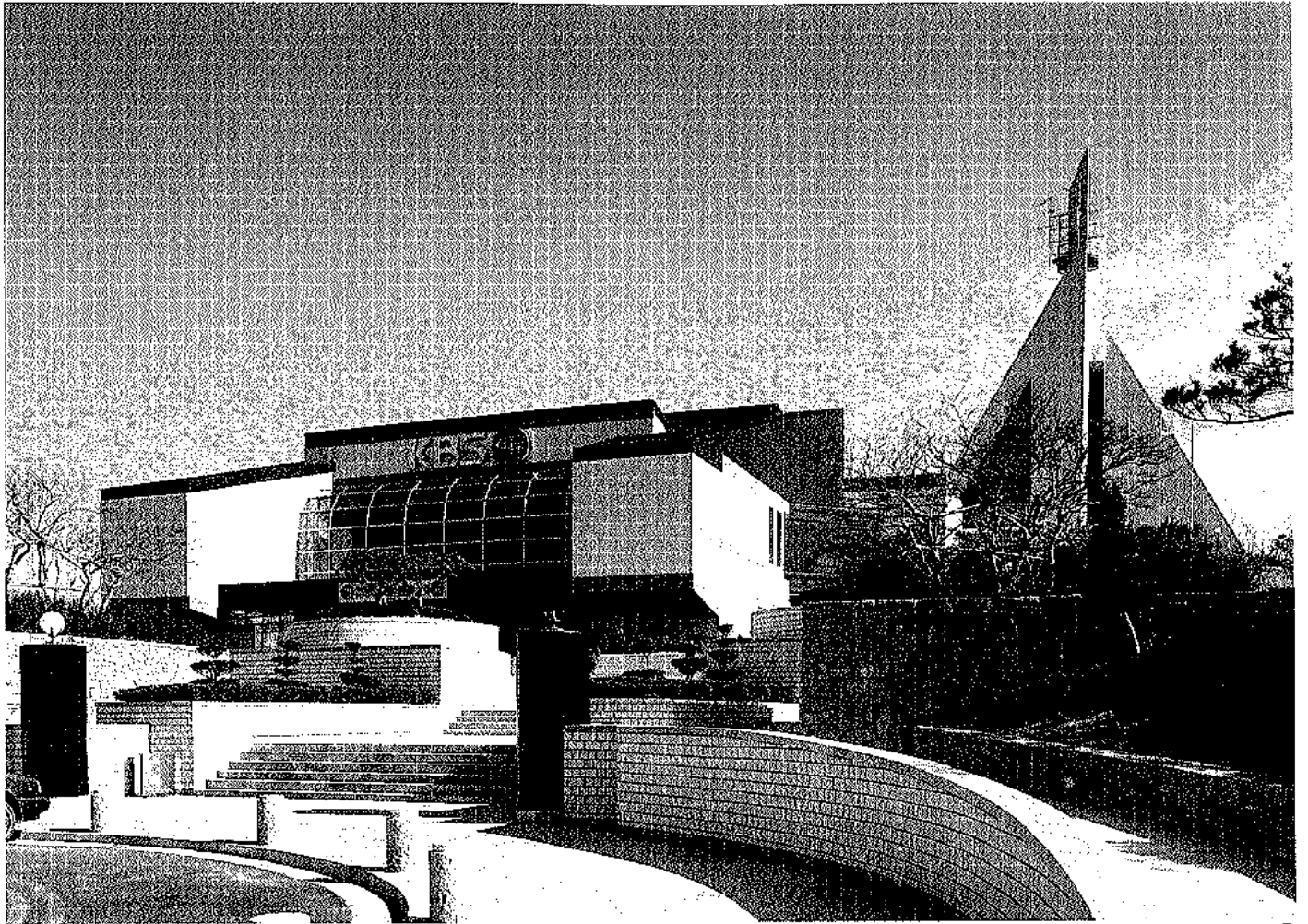
설계소요

본 프로젝트는 여수시와의 우연한 만남(여수시청 콤플렉스)에서 비롯된 일련의 연작으로, 한 지역사회에 전통건축 요소와 기하학적 형태미를 표현할 수 있는 호기가 되었다. 자칫 박스형으로 전락하기 쉬운 방송국의 일상적 형태에서 벗어나 남도 항구도시에 뜻단배 내지는 요트를 띄워 보고자 삼각형의 조합을 형상화 하였다. 따라서 여수시에 있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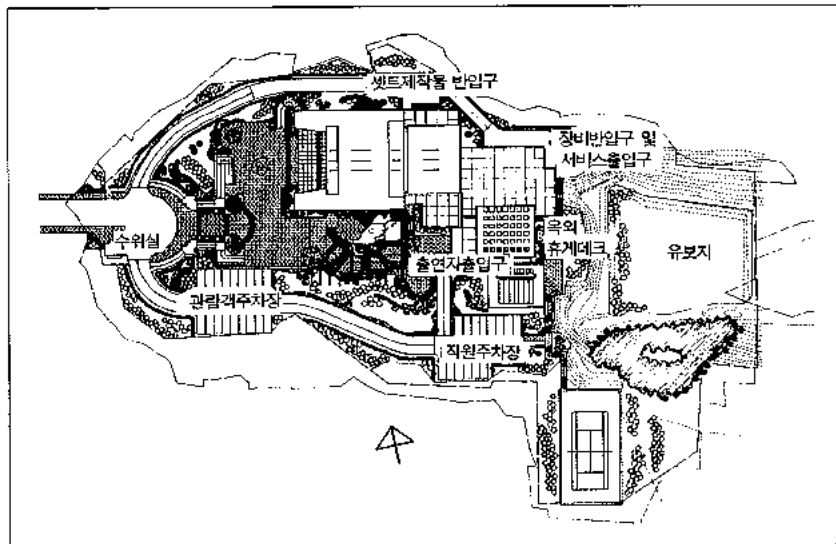
과거에 석재를 채취(여수 청석)하던 본 대지를 처음 접했을 때의 느낌(일명 돌산)은 실제·시공의 전과정을 통해 항상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진입부와 이용가능한 대지의 레벨차는 13m가 넘었고 순수한 암(岩)으로 이루어져 있어 평면개념보다는 단면개념이 전체 배치계획을 좌우하였다. 이러한 대지의 고저차 및 Pocket 등의 자연공간 활용은 새로운 환경미를 느끼게 한다. 관람객은 전면 플라자를 통해 공개홀로 진입토록 유도하였고, 방송국의 고유공간은 우회하여 별개의 공간구성요소(선극축 부계단)로 동선을 분리하였다. 아울러 두 공간의 사이에는 출연자 및 직원동선을 연결하였다. 또한 제작·운반·장비반입·서비스동선은 좌회토록 하였으며 주차동선은 우회하여 동선분리를 꾀하고 있다.

鄭德薰/중환건축사사무소 동영건축
Designed by Jung, Duk-H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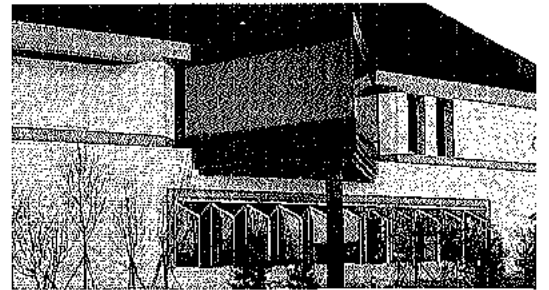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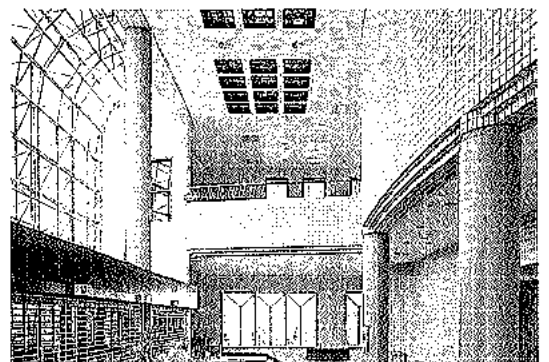
2



6



3



4

- | | |
|------------|--------|
| ① 사무동 진입부 | ④ 1층로비 |
| ② 전경 | ⑤ 단면도 |
| ③ 공개홀 측벽상세 | ⑥ 배치도 |

코오롱스포렉스

Kolon Sp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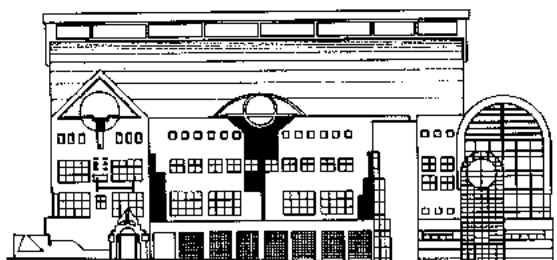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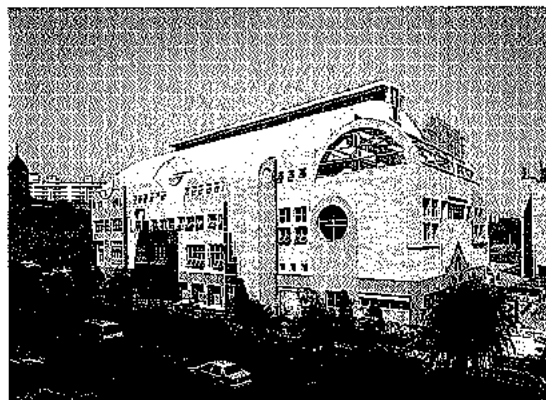
대지면적/5,588㎡
건축면적/2,152㎡
연면적/9,776㎡
건폐율/37.78%
용적률/115.21%
규모/지하 1층, 지상5층
외부마감/외벽단열 시스템
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용도/실내수영장,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실내테니스장, 스포츠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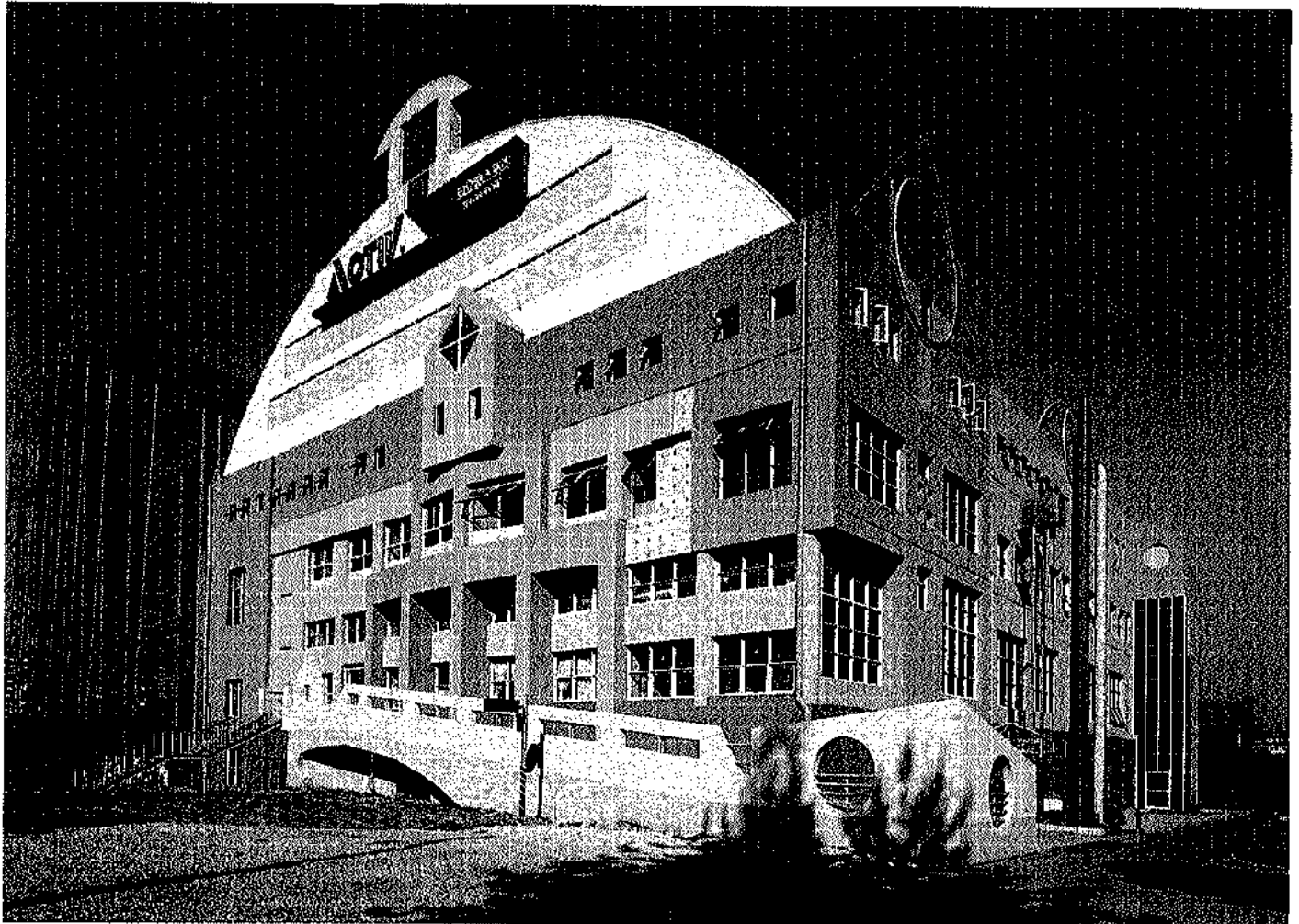
설계소요

본 프로젝트는 기존 코오롱 스포렉스 이면대지위에 위치하게 되어 단순한 기초 I 관의 확장이 아니라 실내 수영장장과 실내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스포츠 클리닉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새로운 이미지의 복합 스포츠센터로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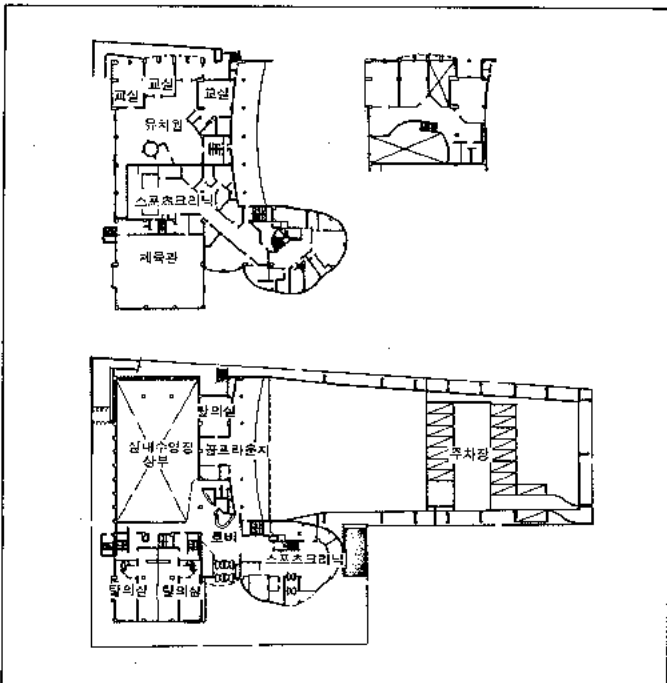
건물이 들어선 대지는 기존 I 관과 같이 주진입로에 접해 있지 못했으므로 I 관 주차출입구와 좌측이면 도로를 양분시켰는데 그것은 전면 구진입로 편에 위치한 기존 주택지에 의해 필연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그 결과 주출입의 방향은 I 관 좌측진입로 사이로 나게 되어 여유있는 장면정보다는 좁은 어프로치를 통한 상승감이 유도되었다. 이러한 비정형의 대지와 어려운 진입설정은 다기능을 효과있게 엮어 놓아야 할 공간구성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조직성향을 갖게하였다. 따라서 단면구성과 함께 계획된 평면을 큰 Zoning 으로 구획함으로써 엇갈리는 동선을 방지하고 1층 로비에서 전체가 계획함으로써 같이 행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외관 매스와 입면의 설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표출보다는 확고한 장소성의 개념이 배려되었다. 이렇게 나타난 매스를 보면 행위의 수렴과정과 발전적 성향이 파면하게 외부로 변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조금은 특이한 기능들이 일반적인 스포츠센터의 정직된 형태에 수용되는 것에 반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 수용문제를 풀어나가게 한나는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것은 단순히 표피의 중첩과 왜곡 과정이라는 성급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질지라도 실제 상황에서 보면 장소성과 역할분담은 가능케 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다. 결국 사용자의 액티비티가 I 관과 함께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 코오롱 스포렉스 신관은 사업자의 충분한 감도가 이 건물을 이끄는 방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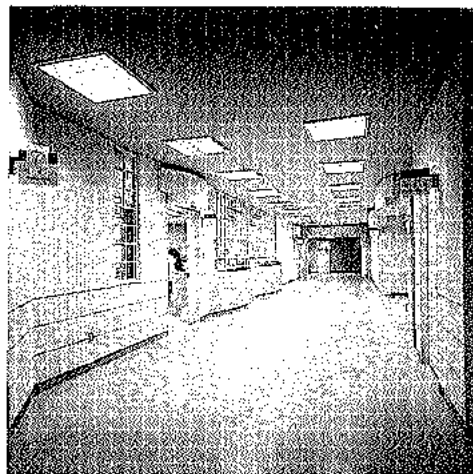
朴容秀+郭成文/종합건축사사무소 두우건축
Designed by Park, Yoong-Soo & Kwak, Sung-Moon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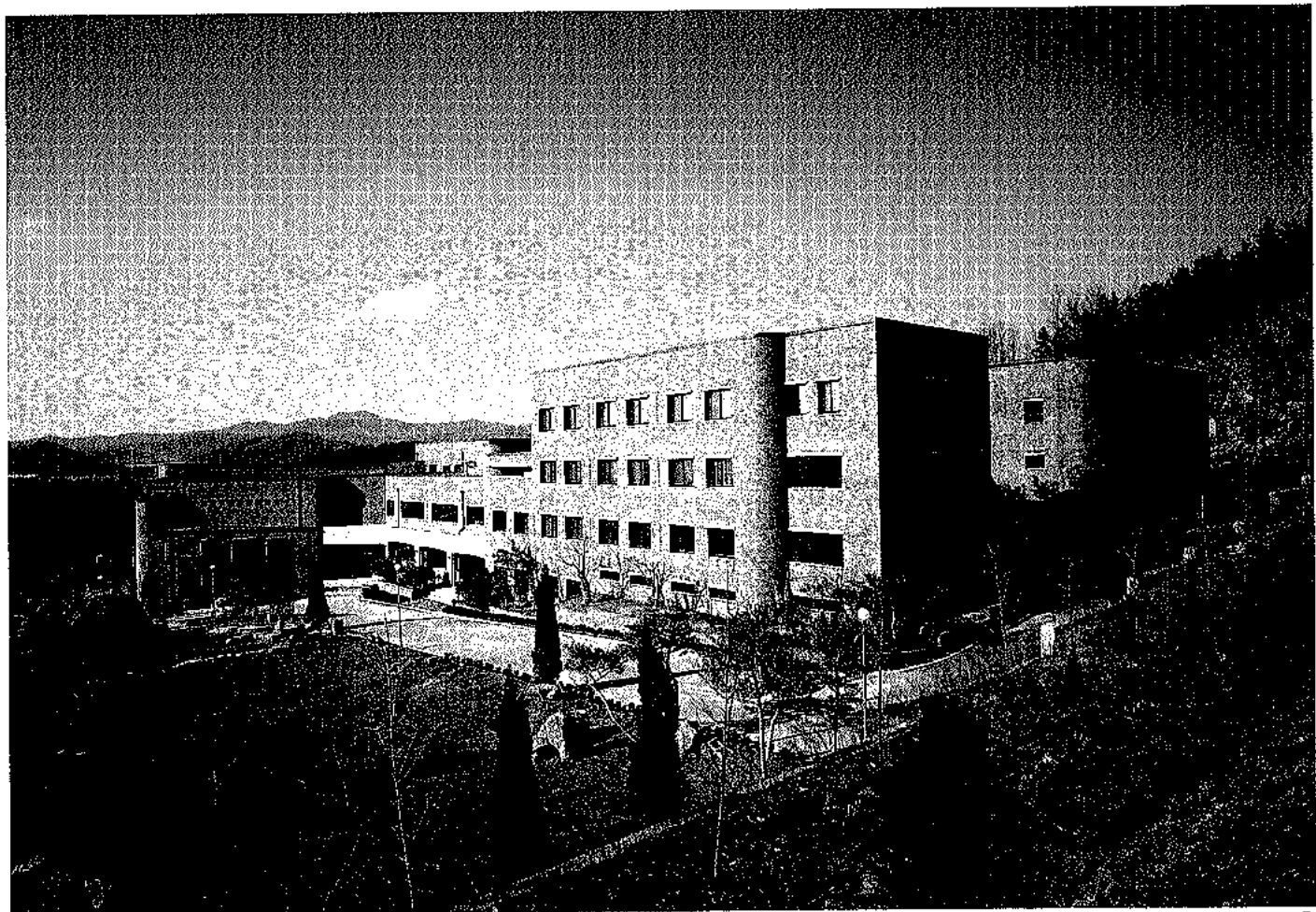


6

- ① 유치원 내부
- ② 남동측 전경
- ③ 남측입면
- ④ 전경
- ⑤ 1층(下) 및 2층(上) 평면도
- ⑥ 2층 스포츠클리닉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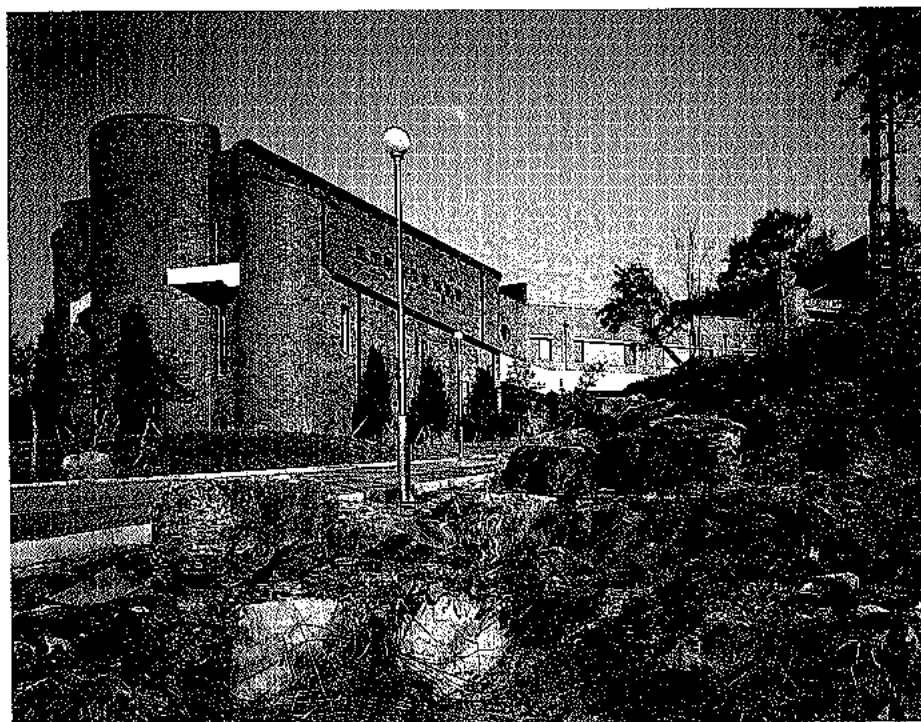
천주교 인보성체수도회 수련원

Blessed Sacrament Novitiate House



1

대지면적/41,653㎡
건축면적/2,044.3㎡
연면적/5,057.4㎡
건폐율/4.91%
용적률 : 11.41%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지붕)
주차대수/1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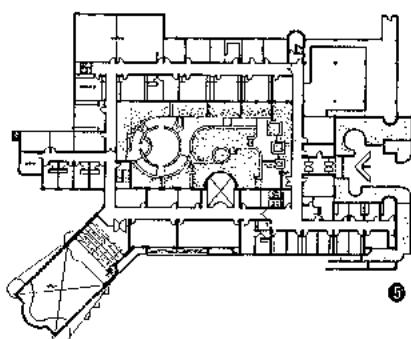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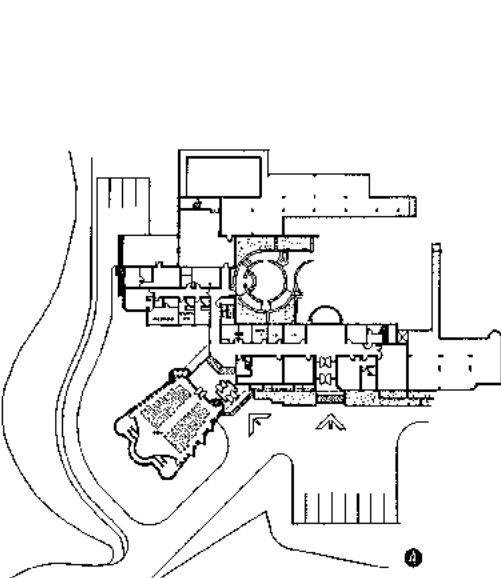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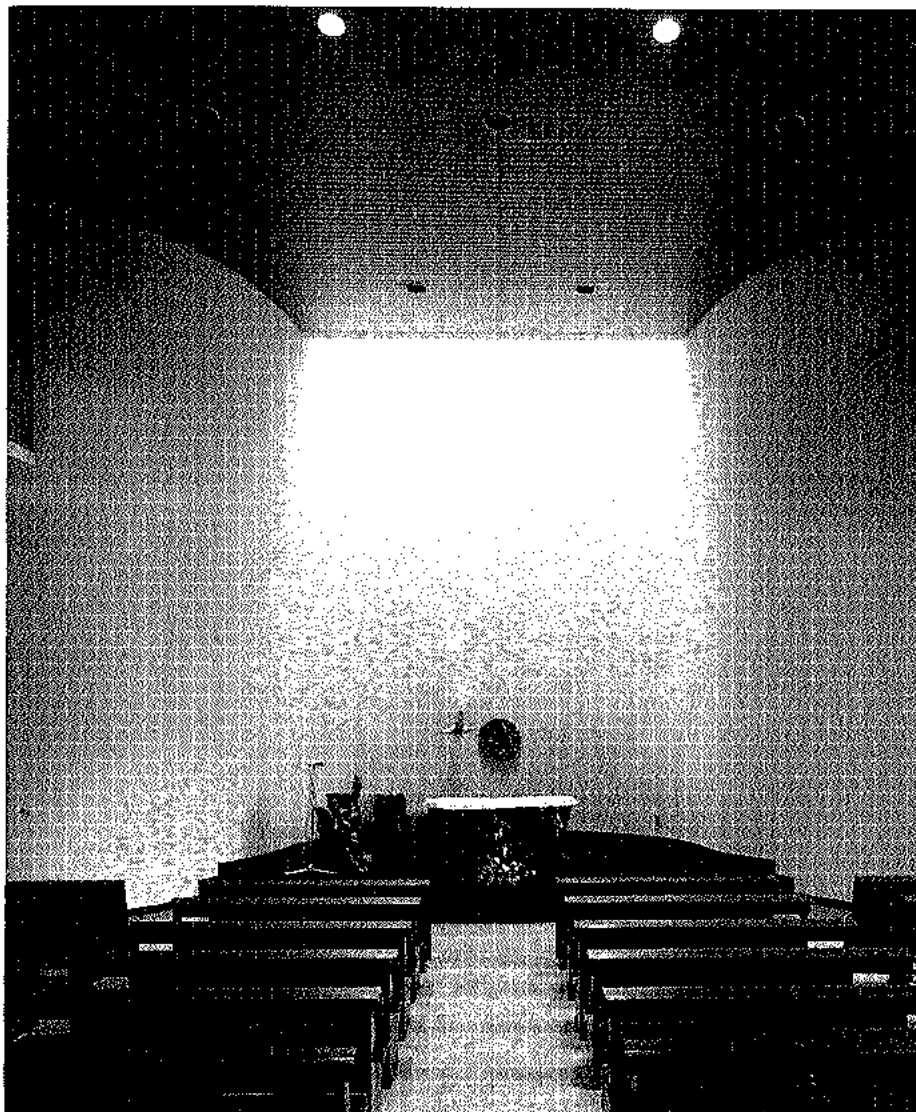
2

閔承烈/종합건축사사무소 빔
Designed by Min, Seung-Ryeol



■ 설계소문

전주교 수도단체중 하나인 인보성체수도회가 시행한 이 프로젝트는 뇌성마비 장애인 치료 및 그 지원이 주사업목적으로 설정되어 뇌성마비 장애인 치료를 위한 시설, 이들의 치료를 지원할 봉사자들을 위한 시설과 수녀수련원 및 부속성당, 봉사자들의 노후를 위한 양노원, 지역주민을 위한 성당, 신자들의 교육을 위한 피정센터 등 각각의 기능을 가진 수개의 건물군으로 마스터 플랜이 계획되어졌다. 본 건물은 이러한 단계적 시행목표를 갖고 설정된 사업복합적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을 주도해나갈 수녀수련원 및 부속성당이 우선 착수된 것이다. 산중턱에 자리하게 되는 시설군의 배치계획은 각 동별기능의 유기적 관계를 최대한 도모하며 공적공간 (Public Space) 을 조성, 옥외공간을 환성화하여 단지내 구성원들간의 만남 및 행사의 장소성을 부여하고 각 기능간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여 뇌성마비 장애인 치료 지원을 위한 원활한 연결을 고려하였다. 또한 우선 시행되는 수녀원의 기능적 폐쇄성을 고려하여 부지의 후면 고지대에 배치하여 수녀원만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녀원의 기능은 주거기능이 주거기능이며 이는 수련자수녀, 허원자수녀, 선생수녀, 참사수녀 등으로 분류·구성되는 각각의 조우닝 (Zoning) 을 가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수도생활의 지원을 위한 서비스기능, 교육기능, 부속성당의 고유기능 등으로 분류된다. 평면계획에 있어 50여개의 개별실을 갖도록 해야하는 내부기능 수용을 위해 부지의 경사면을 적절히 이용하며 □자의 평면을 구성, 남측햇살과 중정의 자연스런 도입을 피하여 각 개별실의 고른 환경조성을 고려하였다. 공사비의 경제성을 위해 기능에 순응한 입면계획을 갖도록 노력하였으나 주전입부의 부속성당 벽면의 곡선은 남측으로 배치된 침실들의 사각형 창이 일률적으로 배열된 벽면의 지루함에 대응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었으나 동판지붕을 얹은 매스 (Mass) 의 분절, 동형인 사각형창의 반복사용으로 이질적 느낌을 배제하고자 했다.



- ① 전경
- ② 남서측 근경
- ③ 성당 제단부

- ④ 배치 및 1층평면도
- ⑤ 2층평면도
- ⑥ 중정

스포츠타운 다이아몬드

Sports Town Diamond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1
지역, 지구/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2,411.6㎡

건축면적/882.73㎡

연면적/6,570.5㎡

용도/수영장, 헬스센터, 은행, 볼링장

규모/지하 3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외장/외장용 자기질타일

閔承烈/종합건축사사무소 빗

Designed by Min, Seung-Ryeol



설계소묘

이십년 동안 아동복 사업을 해 오셨던 건축주의 사업전환으로 본 Project를 임하게 되었다. 스포츠타운 다이아몬드라는 사업명을 결정하고서 건축설계를 시작하였으며 외류 Designer 이신 부부 건축주는 건축물 Design 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 주셨다. 또한 Design Concept 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토론을 나누었던 작품이다.

실시 설계가 마무리 되었던 1차 설계에서는 지상층이 Office 였으나 Office 대신 3·4층에 볼링장을 설치 하겠다는 계획변경으로 2차 설계를 하게 되었다. 복잡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유있는 Parking Lot 을 마련한 것은 사업목적 이전에 건축주 스스로 교통체증을 유발 사카는 요인을 줄이겠다고 앞장선 훌륭한 시민정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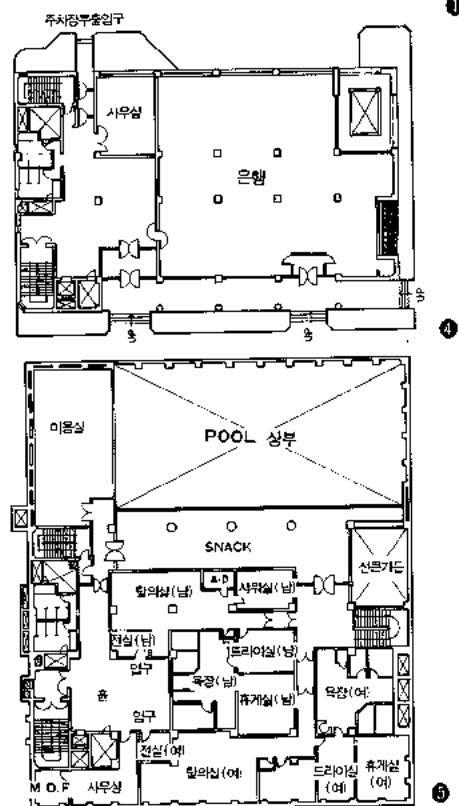
엄청나게 비싼 대지를 구입하면서 까지...

수영장을 지하에, 볼링장을 지상에 구분 계획하였으며 수영장 진입부에 Sunken Garden 을 마련한 것은 외부에서 갖는 여유있고 훌륭한 조경공간을 내부에까지 끌어 들여 복잡한 도심에서 조금이나마 탈피할 수 있는 여유를 보여주고 빛의 도입이란 신비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몇년동안 천안농장에서 애지중지 키워왔던 예쁜 수목들을 도시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옮겨심은 옥외조경은 삭막한 도시에 시각적 휴식공간을 제공한 크나큰 역할인에 틀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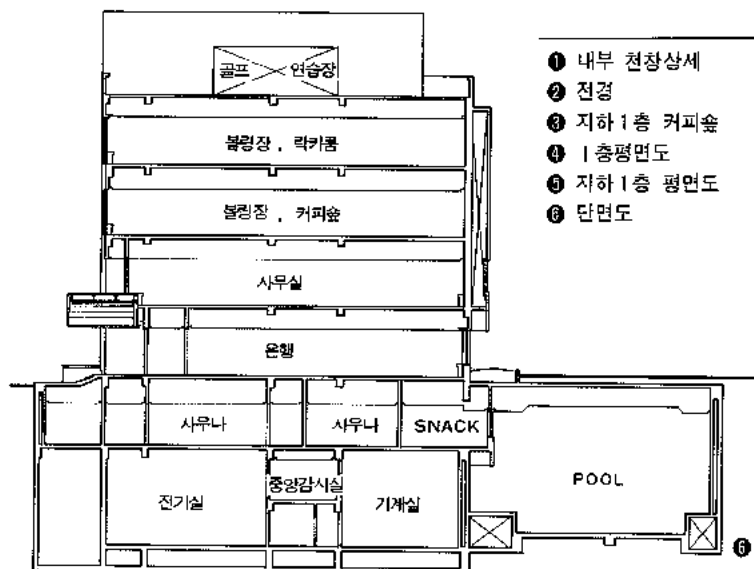
물론 지상층 볼링장이란 특수성으로 인해 무창층이 형성되었지만 굳더더기가 없는 외관 창출은 부부 건축주의 깔끔한 성격에서 출발했다고 본다.

지나치게 경직됨을 완충하기 위해 채용된 반원형 Canopy 와 일부 커튼월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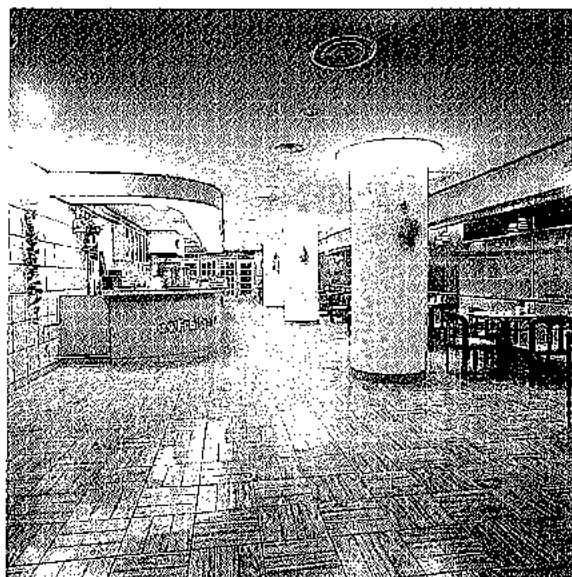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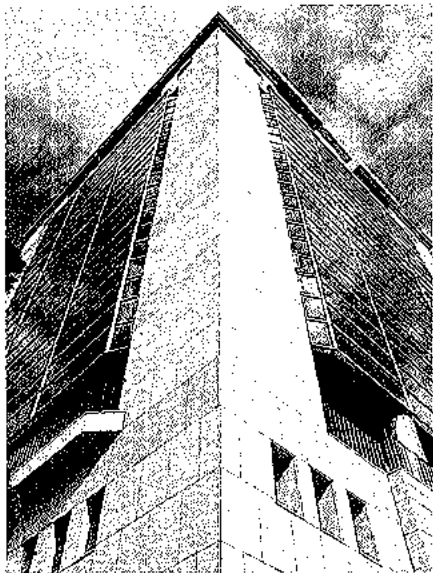


- ① 내부 천장상세
- ② 전경
- ③ 지하 1층 커피숍
- ④ 1층 평면도
- ⑤ 지하 1층 평면도
- ⑥ 단면도



3

신한인터내셔널 사옥 Shinhan International Co. B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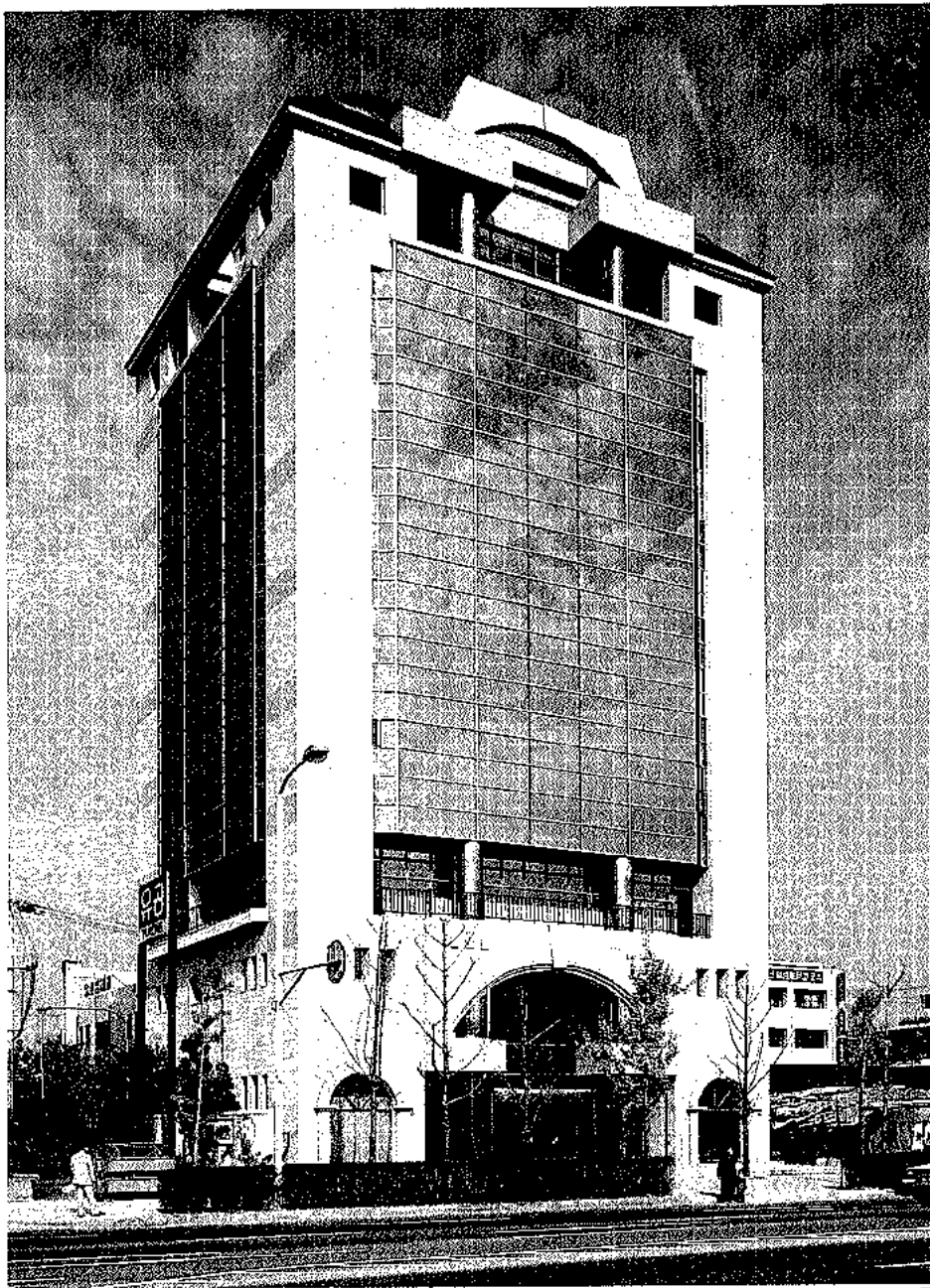
①

대지위치/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0-4, 8
 대지면적/798㎡
 건축면적/297㎡
 연면적/4,067.44㎡
 건폐율/37.22%
 용적률/249.70%
 규모/지하 4층, 지상 9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리멘조
 외부마감/화강석바너구이, 18mm복층반사유리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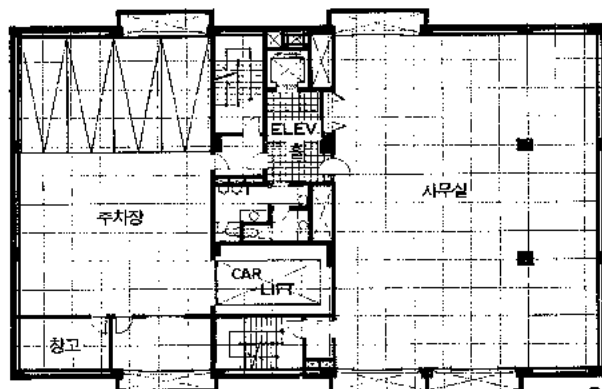
김포공항을 통하여 도심권에 접근하는 길목에서 늘 접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부딪쳐야 하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을성싶다. 그런데도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이 지역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청기와주유소”라느니 어쩌구 하는 별명을 갖게된 장소이다. 그런가하면 아쉽도록 지역개발이 안되어졌고 또 버려진 것 같은 쪽이나 안스럽고 흐트러진 이웃을 벗어나고 있어 무엇인가 가장 사랑스럽고, 정감어린 건축물을 이곳에 천연덕스럽고, 외젓하게 세워보고 싶은 욕망이 건축주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성원이 함께 이루어 이 건물을 완성하게 되었다. 허나 무엇인가 허전하고 아쉬움은 아직도 함께 한채로...

朴昌浩/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스페이스 5
 Designed by Park, Cha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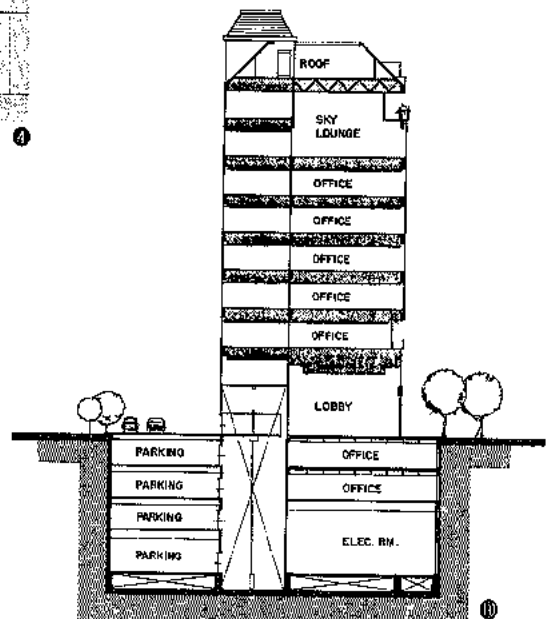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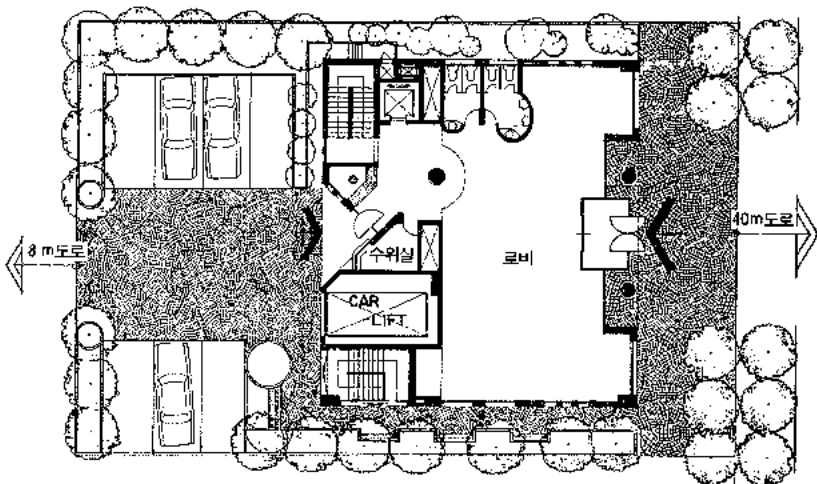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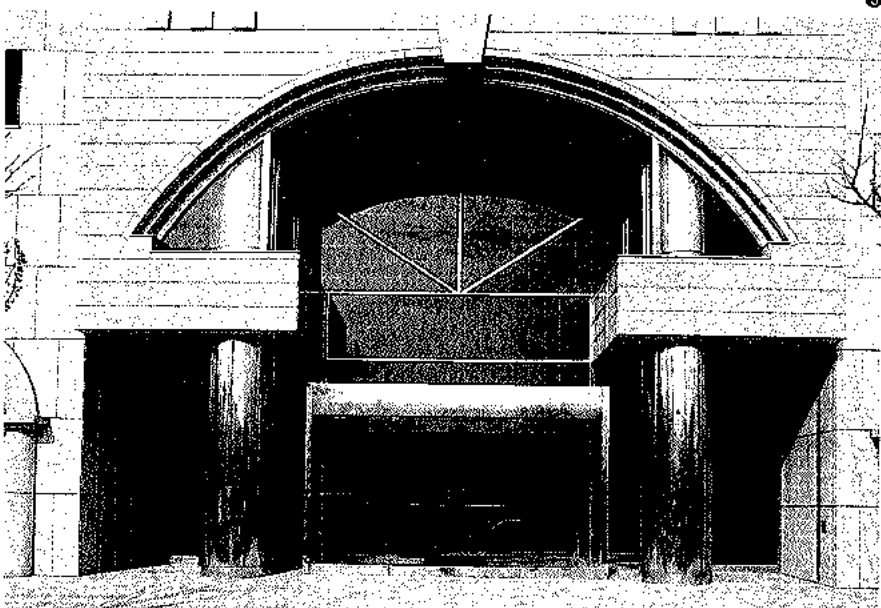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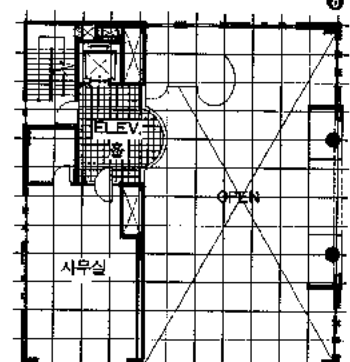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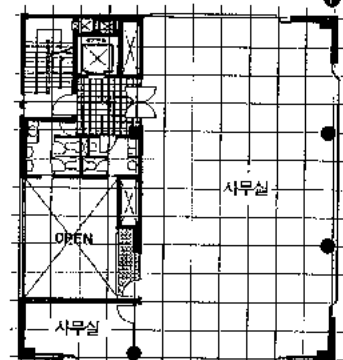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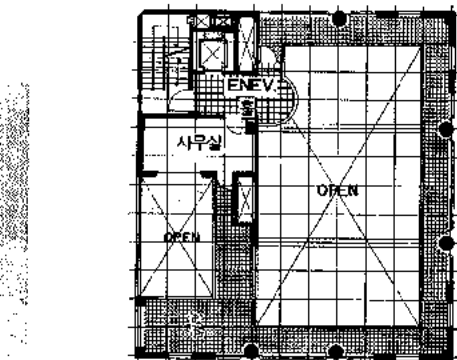


②

- ① 외벽 모서리 상세
- ② 전경
- ③ 외벽상세
- ④ 주출입구측 상세
- ⑤ 지하 1, 2층평면도
- ⑥ 배치 및 1층평면도
- ⑦ 9층평면도
- ⑧ 4~8층 평면도
- ⑨ 2층평면도
- ⑩ 단면도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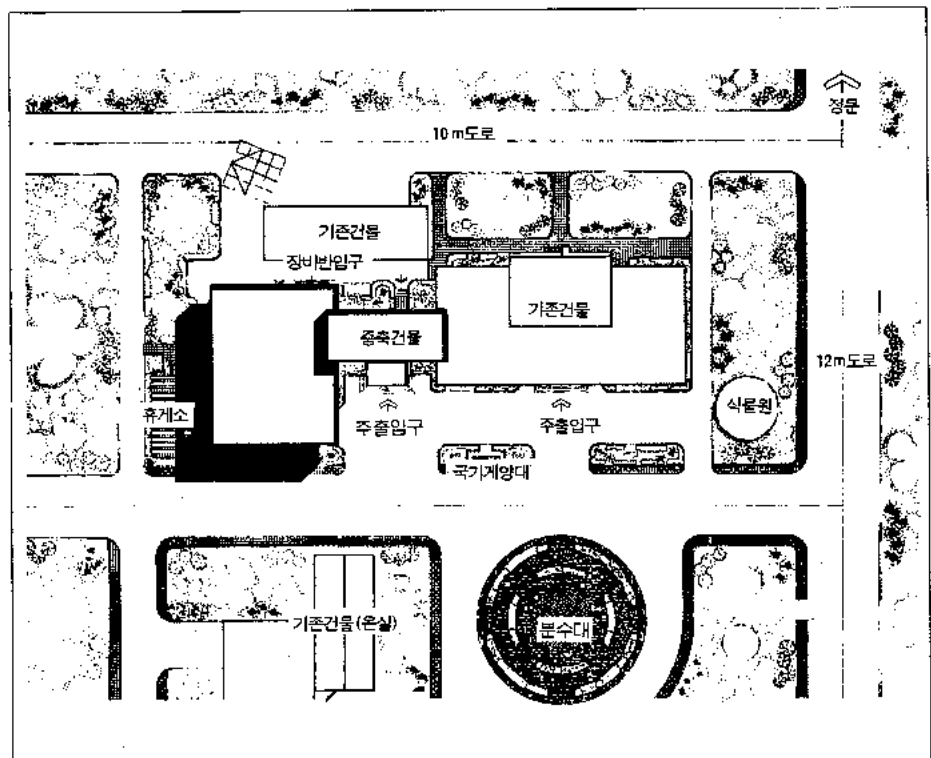


평택 K종합사무실

Pyungtaek K' Colligation Office



대지위치/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지역, 지구/도시계획 이외지역
건축면적/1,470.96㎡
연면적/4,671.58㎡
건폐율/6.02%
용적률/14.06%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자기질 외장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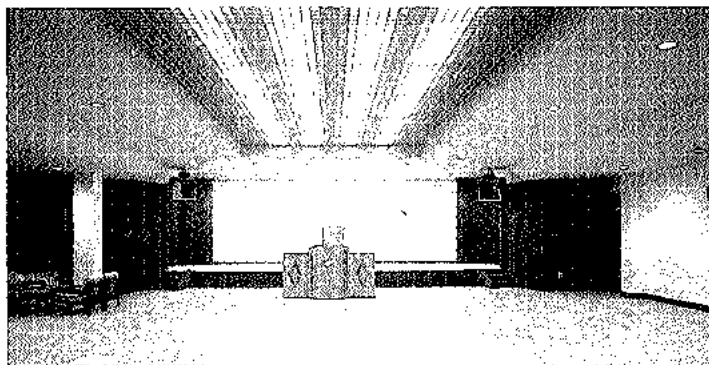
鄭求殷/삼예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Jung, Ku-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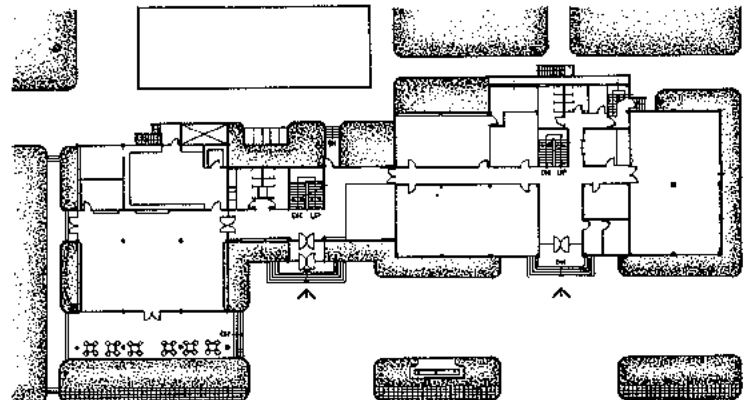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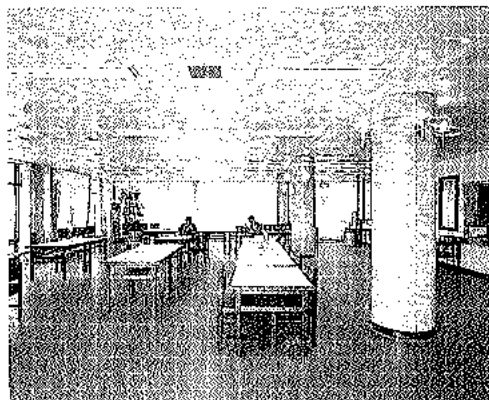
■ 설계소요

본 프로젝트는 기존건물의 협소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현상공모된 것으로서 증축 및 리노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계획 설계였다. 따라서 기존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일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했기에 대지에 대한 순응성 및 기존 건물과의 조화 여부가 큰 관점이었다. 또 본 건물의 위치가 평택시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주 이용되지는 못하지만, 건물의 성격상 이미지 부각이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분석함으로써 주변환경과의 조화, 합리적인 동선계획, 조형성 및 실질성의 추구라는 계획의 기본방향이 수립되었다.

평면 및 입면계획은 기존건물과 증축 건물 기능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중심 부분에 코어를 배치함으로써 공유면적의 최소화를 꾀하였다. 또한 1층에는 식당과 휴게공간을 배치하고, 그 외부를 열주형식의 피로티로 처리하여 완충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기존건물과의 조화에 역점을 두어 기존 건물의 Design Factor 를 반복 대입하였다. 그리고 연결부인 코어 부분을 전문유리로 오픈시켜 두 매스의 자연스러운 결합을 유도하였다. 특히 전면면을 점층적으로 Set Back 시켜 원기둥을 노출시킴으로써 상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시각적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시선의 흐름을 유도하였다.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옥외조형물과의 조화
- ④ 3층강당
- ⑤ 1층식당
- ⑥ 1층평면도



광주 도원빌딩

Kwangju Dowon Building



1

대지위치/광주시 북구 중흥동 279-60

대지면적/720.1㎡

건축면적/400.54㎡

연면적/1,954.5㎡

건폐율/55.57%

용적률/217.80%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적벽돌치장쌓기, 일부 에폭시페인트

설계소요

북구청앞 로터리변, 광주지합시 북구의 중심지, 그동안 이렇다 할 건축적 랜드마크없이 구청사만 검은 적벽돌이 옷을 입고 외로웠었는데, 마주보며 대화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 보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청사에서 느끼는 무거운 권위와 상업건축에서 보여주는 경쾌함과 친근감의 대비도 재미있고, 같은 적벽돌의 사용으로 통일성을 주면서도 벽돌색깔과 줄눈 색깔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큰 느낌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나 하는 실험도 꽤 흥미있는 일이었다.

가로건축의 새로운 표정의 연출... 이 일을 진행하면서 줄곧 염두에 두었던 명제이다. 이렇다할 용도의 개성이나 공간적 특성을 갖지 못하고 또 가질 수도 없는 중·소규모 상업건축의 계획에서 그나마 새로운 건축적 표정을 연출하는 일과 건축적 감동을 전달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그것은 성실히 수행되어야 할 특권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다보니 공공건물보다는 개인건물, 대지본의 건축보다는 소자본의 건축을 많이 다루다보니 자신의 성격과도 같이 과시형보다는 실용형을, 호사스러움보다는 소박함을, 사치보다는 실속있는 경제성 위주의 계획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내집 짓는 것같은 알뜰함으로 디자인이나 재료·니테일 모두 낭비없이 경제성과 효율성 있게 계획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작가적 영웅주의부터 버려야 하는 일이나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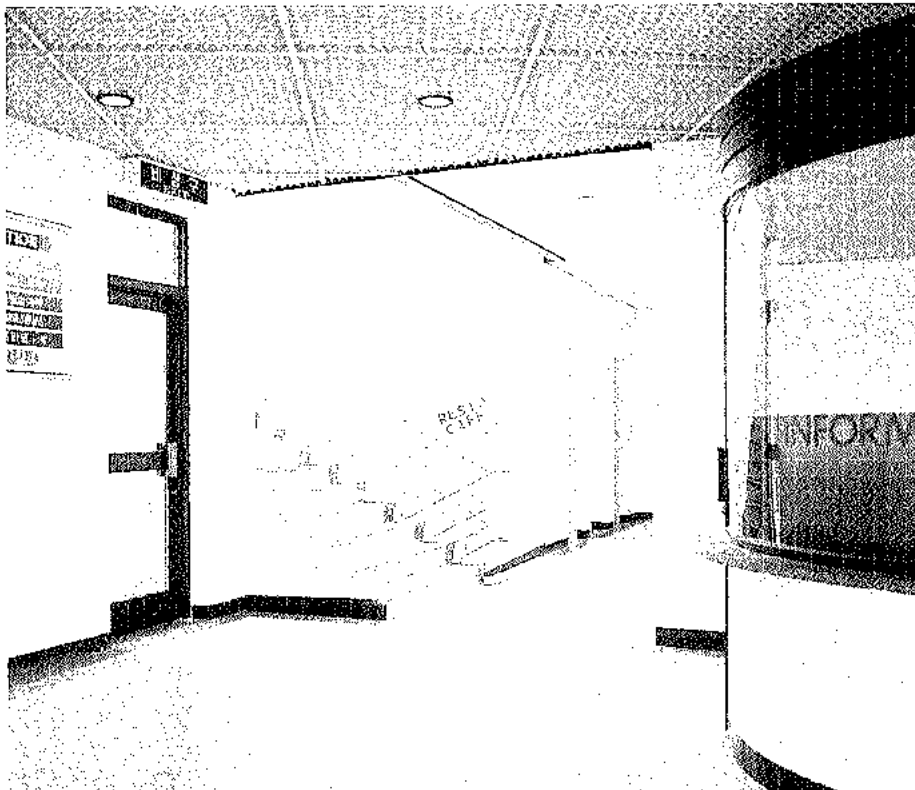
도원빌딩은 그러한 면으로 많은 것을 생각한 건물이다. 은행의 독립성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 냉난방실비 기능을 고려한 날렵한 사이드발코니, 주 진입부분의 조경과 솟을대문, 그리고 밝고 투명한 현관 등 매우 의도적인 연출을 보여주려 하였다. 간판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한데, 그것도 고심 끝에 건축적 해결의 한 방안으로 층간 처마를 만들어 간판부착 위치를 정해주면서 야간 조명효과와 강한 수평면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함께 모색해 보았다.

崔英集/종합건축사사무소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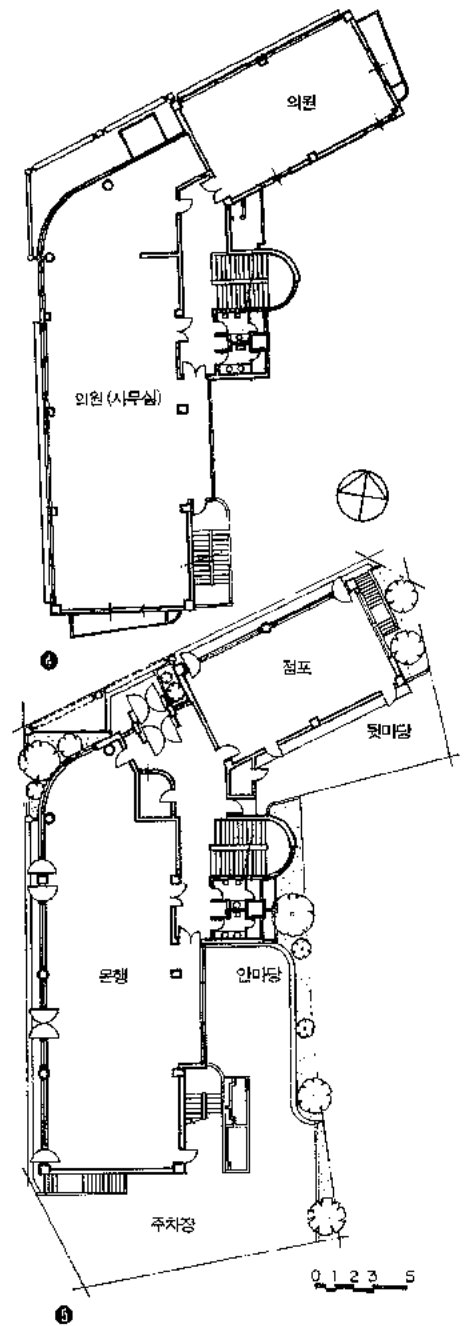
Designed by Choi, Young-Jeep



②



③



- ① 전경
- ② 배면 전경
- ③ 2층 내부
- ④ 기준층 평면도
- ⑤ 배치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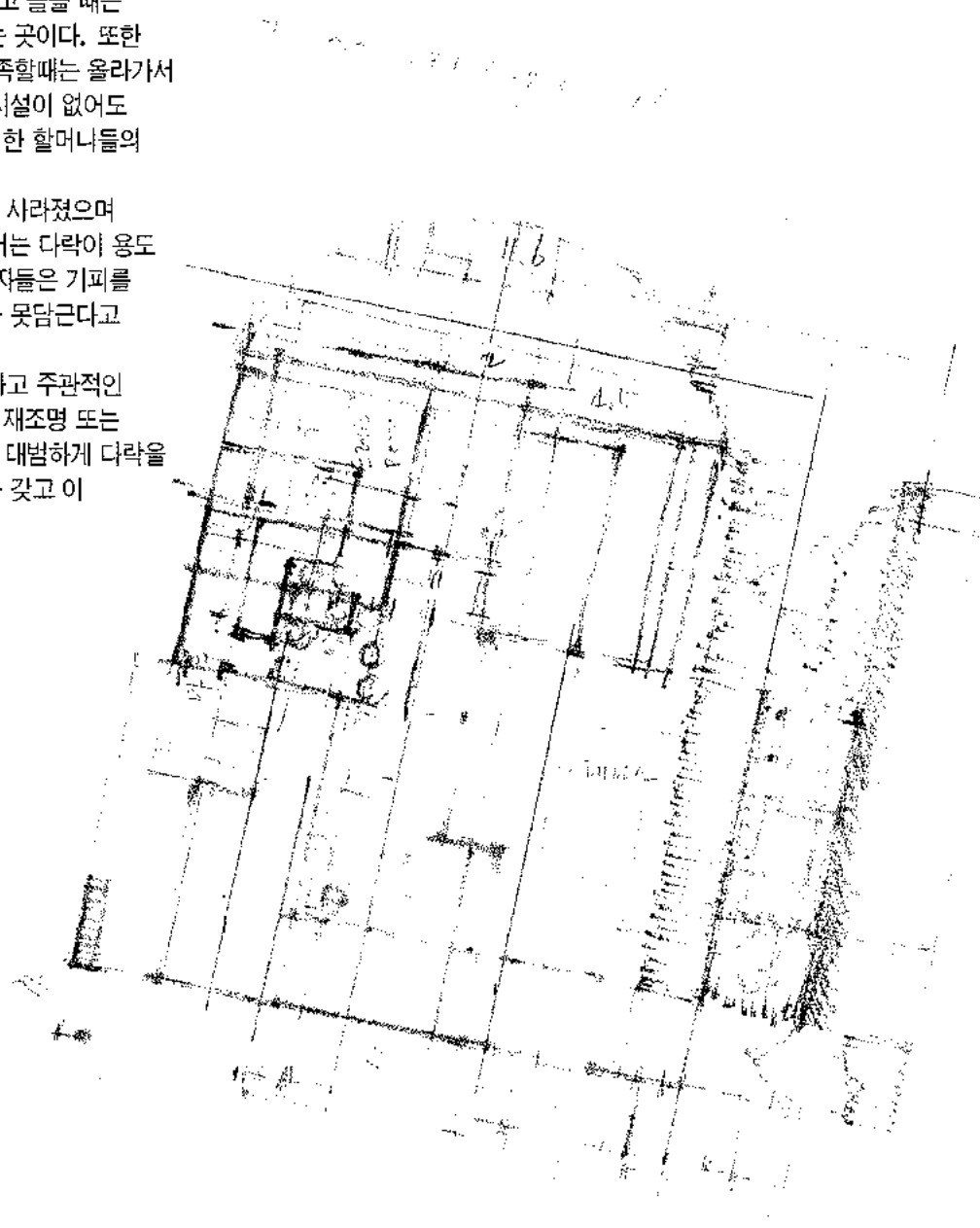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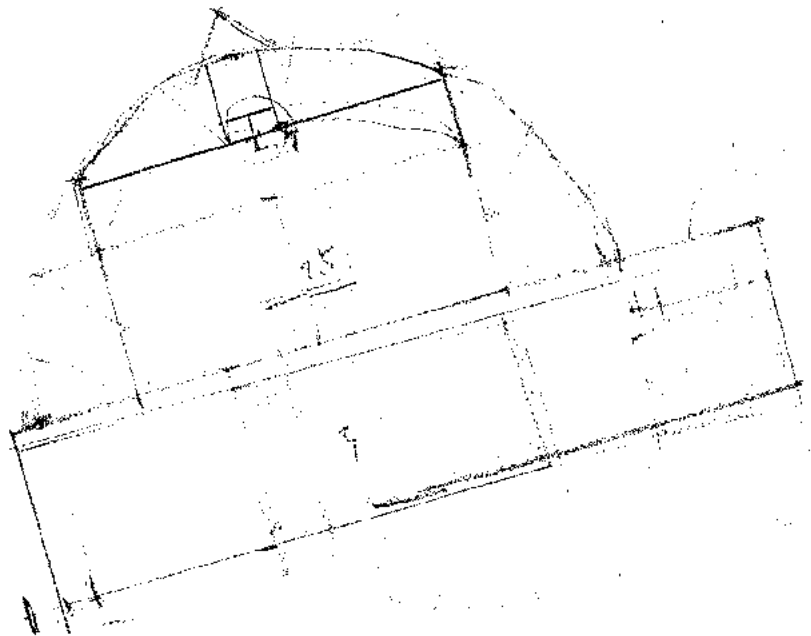
다락(多樂)이 큰 집

나는 다락을 좋아한다. 한옥은 다락이 필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유년기에 자주 올라 다닌 곳이다. 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슬픔이나 기쁨을 같이 하였던 공간이다. 귀중한 물건(중지등) 맛있는 음식등을 보관하기도하고 슬플 때는 올라가서 울기도하고 위험할 때는 숨기도 하는 곳이다. 또한 올라가서 공부도하고 손님이 오셔서 방이 부족할 때는 올라가서 간이 침실로 쓸 수도 있는 공간이다. 냉난방 시설이 없어도 시원하고 춥지 않은 곳이며, 아울러 손자를 위한 할머니들의 따뜻한 체취가 전달되어 내려오는 방이다.

요즘 아파트에서는 다락생활의 희노애락이 사라졌으며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주택에 있어서는 다락이 용도 변경등의 변수가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기피를 하기 때문이다. 속담에 무엇이 무서워서 장을 못담근다고 전해내려오는 말을 음미해보자.

즐거움이 많은 공간으로 한자로는 多樂이라고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있다. 사라져가는 언어와 공간을 재조명 또는 재발견(Les Trouaillies)으로 현대주택에서도 대범하게 다락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 Sketch 는 다락이 큰 집으로 의도되었다.

崔勝元 / 奧加圖建築事務所



2백만호 주택공급 정책을 위한 건축계의 제안



◎ 좌장

강병기 / 한양대 교수

◎ 발표자

李永熙 / 본협회 서울지부회장

朴贊茂 / 명지대 교수

張常吉 / 현대산업개발 부장

◎ 토론자

趙德圭 / 건설부 주택국장

金正澈 / 정림건축회장

朱鍾元 / 서울대 교수

呂鴻九 / 한양대 교수

李丙澤 / 현대산업개발 전무

田坂永 / (주)우성건설 이사

第1課題

既存都市의 住宅政策 改善

좌장 : 오늘 이자리는 '90 전국건축사대회의 일환으로 200만호 주택 보급 정책에 대한 건축계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미 이 정책은 시행되고 있기에 정책의 시비를 가릴 시기는 지났으나 보다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주택정책으로서 건축기술의 발전과 거주 환경 개선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건축계의 제안과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1과제의 발표는 말은 이영희 서울지부 회장의 발표를 들겠습니다.

이영희 : 도시 주거정책 개선이란 과제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공공베이스 차원의 원활한 택지공급,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주택재정지원, 도시구조의 개편, 주거개념의 재정립 등에 대한 언급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한된 시간관계로 본론에서는 그간 우리는 너무 토지를 낭비하여 왔다는데 초점을 모아 논조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몇번씩이나 서울의 강변도로를 지나 다니면서 저 거대한 콘크리트 숲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을까하고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만일에 강변의 아파트 군이 30~50층 탑형 초고층 형태로 떠떠떠 군을 이루어 보다 넓은 도시의 빈공간이 녹지와 더불어 확트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개방된 지면을 걸어다닐 수 있었다면 서울의 「이미지」는 판이하게 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의 접근방향을 극히 한정된 국토의 이용효율을 포괄적으로 제고하고 도시구조를 소핵으로 다분화된 적정밀도를 유도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팽창을 지양함으로써 총체적 도시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을 제고하며, 단위주거의 소유개념에서가 아니라 이용·사용의 측면에서 주거패턴을 재 정립하여, 부족한 주택 공급에 일익을 담당코자 현행관계법제의 체계전환을 제안코자 합니다.

현재의 이나라 정책입안 결정권자나 막강의 자문 위치에 있는 사제 전문가들은 이나라의 국토가 극히 좁다는 절대적 명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는 평소의 느낌이었습니다.

인구 8백만에 우리 경기도 만한 면적을 형유하고 있는 L.A 시와 같은 도시구성 여건에 대한 향수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이나라 도시의 근간문제 해결을 위해 한 발자국도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인구 1,000만이상으로 세계 대도시중 5위를 랭크하며 시가화된 면적의 인구밀도는 24,145명/km²으로 이웃 동경의 11,298명에 비해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감각을 도외시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여유있는 도시공간이란 일반론적인 접근방법은 하루 빨리 지양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근원은 수요에 총당할만큼 공급이 절대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구나 경제규모에 비례한 적정한 공급을 허용할 만큼 우리의 국토는 넓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토지는 가장 귀중한 재화이며 귀중한 재화일수록 근심절약하여 소유개념에서가 아니라 이용적 측면에서 되도록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규모의 팽창과 하루가 다르리만큼 격동하는 사회적 환경변환 속에서 이나라 도시·건축행정은 불투 터지듯 밀어닥치는 많은 물량을 감당키는 역부족이었으며, 그 결과

시장경제의 자연발생적인 흐름에 맹목하는 식의 후속 정책이 줄어들었고 소수의 공권력으로 많은 물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일변도의 경직된 법제운영이 연결되어 왔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반세기동안 법제의 개정내용이나 현금의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라는 주거의 형태를 규정짓는 법적 신용어의 탄생이 그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가야 서울의 경우 70년대후반 1년에 인구 50만이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장기 안목에서의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 입안될 수 있었겠느냐하는 자위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 2천년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90년대의 초입에 서서 우리만이 갖고있는 자연·인문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도시주거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입안하여야 할 역사적 시점에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 시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분담하고 있는 40만호를 건설키 위하여는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화 가능한 자연녹지면적의 73%를 택지로 개발해야 된다는 심각한 국토여건을 감안할 때 신시가지·신주거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시가지지를 개량하여 도시의 평면적 팽창을 예방하고 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하여 시장경제의 순리에 따라 주택보급에 그 일익을 담당코자 현행의 비과학적이고 한정된 국토여건이 배제된 법체계에 대한 대변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한정된 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는데 모든 방법을 강구하자.

도시의 평면적 과밀을 방지하고 입체화 건축을 유도하여 용도지역및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밀도를 연동제로 부여하여 가급적 많은 시민이 지면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제의 보완이 요구된다.

○기존 단독주택단지의 개량유도
기존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밀도는 평균 용적율 100%내외로 극히 저밀하나 토지 이용적 측면에서는 폐쇄적이고 엄청나게 과밀하다. 이를 대지면적 3천평~5평 규모로 중소단위 블록화하여 도시설계기법을 통해 기초 생활편익이 자급될 수 있는 저층 공동주거 형태나 연립주택(빌라)형태로 개량하여 부분적으로는 용적율 400%로 다소 고밀화하고 전체 블록별로는 200~300%정도의 중밀도가 유지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한 주민 자율적 합의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자와 국가가 공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조권·건폐율·용적율의 차등적용제 도입
주택부족난을 해소키 위해서는 최소단위의 소형주거 형태가 다량으로 공급되어야 함이 절대 명제이다. 대지의 크기가 기존시가지이거나 신개발단지에 관계없이 일정규모이하(전용면적 12평이하)의 주택을 건축할시는 그것이 공동주택이던 다가구주택이던 간에 구분치 않고 단위주거의 면적에 비례한 적정보너스제를 도입함이 요구된다.

예시하여 단위주거전용면적 12평 이하일때 법정 건폐율, 용적율 2/10까지 완화·일조권 규정의 5/10까지 완화를 적용함으로써 소단위 주거공급이 적극 장려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소대지면적의 하향조정

현행 신축이 가능한 최소대지 면적은 27평, 기존주택을 개축할 시는 18평으로 규정되어 있다. 우리 고유의 한옥 민가의 평균대지면적이 20평 내외임을 참고하지 않더라도 도시의 자투리 땅을 규모있게 활용하고 소형주택보급을 장려키 위해서는 최소면적 27평은 너무 낭비이므로 18평으로 하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건폐율·용적율의 보너스제 도입

지면상의 일부 혹은 전부(필로티형태등)를 일반 보행자를 위해 개방하였거나 시민의 휴식공간(아트리움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중·공익을 위해 할애하였을시는 그에 상응하는 건폐율·용적율 산정에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지면상의 일부 혹은 전부(필로티 형태등)를 일반 보행자를 위해 개방하였거나 시민의 휴식공간(아트리움등)을 제공함으로써 공중·공익을 위해 할애하였을시는 그에 상응하는 건폐율·용적율 산정에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함으로서 생명력있는 도시공간이 창출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의무화된 부설 주차장 면적 역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현실적으로 소규모 주택공급이 확충될 것이다.

둘째/도시심 고밀도 주거용 건축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적주근접의 차원에서 도시교통난을 해소하고 생활권역의 편의를 제공함과 아울러 도심공동현상을 배제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심 혹은 역세권에서 고밀 주거 복합용 건축을 촉진하여야 함은 현대 대도시 정책의 기본방향이라 사료되나, 현행의 법규정은 복합건축을 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주거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당해건물 용도에

건폐율을 선정함에 있어
대지내의 고저차에 의한
가중치를 기준하는
미온적인 방법보다
인공대지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공간개념으로
재정립함이 타당하다.

다른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 인동거리등)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성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비효율적이고 거형적인 건축형태를 유발케하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도시 고밀도 주거용 복합건축을 촉진키
위해서는 당해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건축과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에 대한 법규정만 충족되면
건축이 허용되도록 반드시 법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지방면기구를 완화하는 정도의 시행령 개정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권이 고밀화되고 단위건물이 대형화되면
교통유발의 근본원인이 된다는 일반적 상식논리는
장기적 안목으로 현대 대도시 교통 정책을 입안하는데
한치의 도움도 못한다는 점을 이자리에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서울시립대학의 손정목 교수의 지론에 의하면 향후 이
나라의 대도시, 나아가 전국토에 이르러
자가용승용차가 출퇴근용이나 업무용으로 활용될 수
없다는 지적을 상기해야만 될 것입니다.

현금의 도시주차행정은 도시교통 정비법이란 악법을
근거로 하여 일정규모이상의 건물을 신축할시는 소위
교통영향 평가를 단위 건물별로 실시하여 전체
건물면적 40% 이상을 주차를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재정낭비를
자초하는 누를 범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교통문제
해결에 저해요인이 됩니다.

대도시 교통정책의 근본 지침은 일반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에서 부터 접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1가구 2주택 개념의 재정립

소득 재분배를 도모하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평형을 유지키 위해 제정된 현행 양도소득세법중
1가구 2주택에 대한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재
정의함으로써 주택공급에 일익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1가구가 일정규모 이하(예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여러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소유하였을시는 2주택
개념에서 제외시킴으로 해서 소규모 민간 개인단위의
주택건설 투자욕을 제고시켜보자.

○1가구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전액을 주택건설에
재 투자하였을시는 양도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강구해보자.

넷째/건폐율 개념의 재정립

○현행 건폐율 산정방법은 지면에서 10.0미터 이상

돌출한 건조물 부분은 획일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바
○경사 구릉지가 많은 우리의 내지 현황에서는 외국의
주거단지와 같이 「테라스하우스」 등의 주거계획
기법이 성립될 수 없으며 대형 건축물인 경우 일단의
대지내에서 저층(1~2층)과 고층(15층이상)이 적정하
배분된 활기찬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수반됨으로

○건폐율을 산정함에 있어 대지내의 고저차에 의한
가중치를 기준하는 미온적인 방법보다 인공대지
개념을 적극도입하여 공간개념으로 재 정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공동주택의 경우 재 건축을 활성화하고 배형 초고층 건축을 촉진토록 하자.

○토지 이용 효율이 극히 저용이고 노후화된 기존
공동주택은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야만 한다는
까다로운 절차없이 도시구조와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주민의 합의에 의하여 재 건축을 촉진케
함은 시장경제의 요구로 본다.

○탑형 초고층 공동주택을 유도함은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는 가장 근원적 접근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하에서는 설계기법상 많은 어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높이에 비례한 대항부의 인동간
이격거리(높이의 0.8배)규정은 절대거리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높이에 비례하여 무한정 이격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독립성과 시각보호를 위한 절대 이격 거리가
몇 미터나 하는 것이다.

통상의 체험으로 40미터를 권장하고 싶다.

○따라서 절대거리제를 도입하고

용적율(예 : 300%)만 규제하여 주거단지 계획에
다양한 패턴을 융통성있게 부여함으로써 설계상의
창의력을 도출하고 적의적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학문적 체계에 바탕을 둔것은 아니지만
전문 직능인으로서 사실적 체험을 통해 국토의 좁음을
직감하고 두서없이 열거하였습니다.

단편적입니다만 정책 입안에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그
보람을 찾겠습니다.



제 1 과제 발표자
이명희 서울지무회장

좌장 ; 시간절약요 토론회의 토론 둘째줄, 주택국장의 토론부터

조덕규; 전국의 건축사 협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 건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이의 확실한 실현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주어 정부의 관계자로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의 내용은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시말하면 표현 방법이나 수준의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건설부 내에서 토론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하면 발표자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우선 건축법의 기준이나 제도는 항상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상민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든가 어떤 규범 및 틀에서 경직하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현실시장 운영을 보면 법률적인 기준이나 제도를 초월해서 어떤 자생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도도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것을 우리가 도외시하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도시의 주택난이 심각하고 또 신규 주택을 건설할 택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지의 재개발 고밀도 이용이란 것은 정부의 의지나 방침을 제도적으로 맞추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것과 같이 자생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되따라서 모든 제도가 그렇게 맞추어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와같은 힘이 건축법이나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을 지도하고 이끌어 갑니다. 법률적인 제도가 건축기준의 여러가지 운용을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통의 경우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택난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혁해 나가야할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세계적인 선진외국에서도 개발지역을 재개발해서 토지의 밀도를 높여서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은 어디가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런부분에 관심이 희박하고 또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의 활성화가 서울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건축기법이나 여러가지 아이디어의 고갈이 아니고 사실상 주택시장 환경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86년 재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20년 재건축기한을 기한 없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 여론이 기존 주택값을 올려서 전세입자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키고 주거환경, 주거생활을 불안하게 했다는

비난에 의해서 20년으로 묶었습니다.

요즘 15~20년에 가까운 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이것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여러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년 재건축 제도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시장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또한가지 이유는 세입자들의 보호문제입니다. 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 하루아침에 집값이 2배로 뛰고 따라서 전세값도 배로 뛴다는 문제가 있고, 또 세입자 스스로가 단합을 해서 재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현실상의 여건이 저항력을 일으키고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잘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재건축은 발표자의 의견대로 자유훈에 맡길 시기가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중에 예를 들면 주차장을 용적률에서 제외하든지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당해건물 용도에 따른 적용만 받자 또 한가지는 절대 거리를 설치하자 또 대도시 교통정책의 근본 지침을 일단 승용차 도심진입을 억제 부터 해야 한다든지 그 내용이 매우 좋습니다.

또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도 발표했는데 1가구가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직접 건설할 경우에 그것을 주택개념에서 제외시키자는 것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임대주택은 국세청에 등록을 하면, 5년간 임대한 주택은 임대후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10년간 임대한 주택은 100% 감면해 주어 임대주택용으로 한다면 아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개혁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재건축, 재개발이다. 선진국에서도 개발지역을 재개발해서 토지의 밀도를 높여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은 어디가나 볼 수 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식적인 임대주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음성적인 단독주택 또는 APT 물 전세로 주고 세금을 안내고 국세청에서 세원포착도 안되는 그런 주택을 말한다면 이전 사실상 정부가 조장하기는 힘듭니다. 그런점에서 조세감각과 걸리는 사항은 제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1가구가 양도차액에 대해서 소득 전액을 주택 건설에 재투자했을때 양도세를 감면하자는 문제도 총론적으로는 이의가 없는데 사실상 세무 기술상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얼마에 팔았는지 얼마를 새주택 짓는데 들었는지 도저히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2주택 개념의 재정립이란 것은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덕규 주택국장



김정철 회원

좌장 : 감사합니다. 김정철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김정철 : 과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건축설계를 주로하는 건축가로서 정책문제라든가 도시문제 또는 주택의 부정문제를 대해서는 특별한 일가견이 없습니다. 토론자로서 제한된 내용을 읽어보고 학술적이거나 수치적이거나 연구적인 입장을 떠나서 평소에 생각하는 바를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설부 산하에 주택청을 독립시켜서 주택정책을 앞으로 잘 세워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행정기구의 보완을 강력히 건축 3단체의 이름으로 전 건축계에 이름으로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이런 기구가 하루아침에 생기고 고치지는 어렵다지만—과연 거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얼마만큼 표현해 주는냐는 것은 극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정부에서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은 물론 이상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대도시 집중적인 주택공급정책이 아닌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서울에 200만호 중에서 70만호가 서울주변에 세워진다고 할 때 이것은 주택공급계획을 도시의 적정 규모를 먼저 결정해 놓고 거기에 생활하는 인구에 따라서 인구비례로 주택 공급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인구는 갈수록 도시로 집중하여 도시는 비대해가는 인구중심으로서의 주택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만일에 그러한 계획이었다면 앞으로 좀더 지방으로 이러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될수 있도록—연구기관에서 연구, 또한 정부 당국에 대해 건의를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 전반이 골고루 인구가 퍼져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주택정책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말하자면 중앙집권적인 제도의 개선 지방의 모든 권한과 편의의 이양, 이러한 문제들이 다 수반이 되고 또한, 교육, 문화 편의 시설등 모든것이 관계되리라 보지만, 결론적으로 그러한 상설 연구기관을 두어서 전문인들이 대거 참여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모두 우리 주택이 태부족인 상태를 공감하고 있다. 이것을 충족시킬 방법은 지금 우리의 주택 개념이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정책당국에서는 많이 유도해줘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젊은층에서 주택을 살 돈이 있으면서도 주택을 임대 하고 나머지로 차를 구입하고 가족과 함께 주말을 즐기는 이러한 경향은 어떻게 보면 사치, 향락적인 경향이 있는것 같지 않은 주택의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넘어가는 발전적인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자위를 해봅니다.

우리나라 옛 주거문화를 보면 온돌방 하나에서 이불을 피면 침실, 상을 차리면 식당이 되고, 경상을 놓고 책을 놓으면 공부방이 되고, 가족이 모이면 전체적으로 가족의 단란실이 되는 다목적의 공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서양문물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독립된 방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방은 두터운 벽으로서 서로 칸을 막으므로써 그 기능이 허다하나 독립되므로써 규모가 자꾸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비교하면 주택의 규모가 우리가 일본보다 2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분양 Apt 내지는 민간이 분양한 Apt에서도 방을 완벽하게 구획해서 분양하므로써 입주자가 비싼값을 주고 매입하여 자기용도에 맞게 시설한 모든 벽을 헐고 고치는 사항 또한 우리 자원의 낭비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최소한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통적인 인식을 갖도록 우리 옛날 주거 문화처럼 작은 공간에서 여러 기능을 다할 수 있었던 쪽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2년전 싱가포르에서 정부에서 모든 재원을 대서 주로 임대 Apt 를 지어서 무주택자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임대 주택의 확대—대량 공급에 대한 좋은 묘안이 없나 이러한 면에서 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고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절대 공급면적 양증에서 이것을 규모를 줄이고 또 그러한 것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저소득자들이 많이 이것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만호 중에서 70만호가
서울 주변에 세워진다고 할 때
인구는 갈수록 도시로 집중하여
도시는 비대해가는 인구중심으로서의
주택정책을 세워 나가는 것은
아닌지…….

좌장 :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제안중 주택국장이 나오셨으니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안이 있으면 방청석에서 한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치 : 발표자의 얘기는 무조건 주택공급이 모자라니까 주택을 많이 지어서 충족시키자는 단계에 왔는데 그런것을 무시하고 국가 정책에 의해 주택을 많이 짓자고만 하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사실 주택공급이란 것은 수요를 충족 못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전 같은 경우 Apt 를 지어 분양해도 남아돌아 2차 3차까지 분양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층에서 집을 지으려면 분당에 대형으로 신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자재 물량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재 및 인력의 고갈로 서민층에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 도시의 개방감이 없다는 말은 싱가폴은 Apt 의 1층은 전부 오픈되어 단지안이 전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와같이 우리나라도 개방감의 확대를 위해 1층 전부는 오픈시켜야 하고, 그러면 많은 주택환경의 질을 높이면서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지 무조건 주택 공급만을 위해 하겠다는 것은 우리 건축문화에 상당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철 회원이 말한대로 연구기관을 두고 좀더 긴 안목을 두고 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대학교 교육으로 수만명이 서울로 공부 때문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강원도나 지방에 기숙사를 잘 지어 해 놓으면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인구가 분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경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뉴욕, 행정을 담당하는 도시 워싱턴, 교육을 담당하는 도시 무엇 무엇 이렇게 인구분산책이 되가지고 만약에 서민층이 집못짓는 결과도 안나올 것이고 또 모든 것이 200만호, 300만호 계속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안나오지 않겠냐하는 얘기를 드리고 습니다.

그다음 요즘 교통이 복잡해서 직장인들이 새벽같이 직장 근처에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아침먹고 시간이 되면 출근한다고 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시내 큰 건물을 복합건물로 지어서 오피스빌딩 위에는 임대주택으로 해서 그런분들이 살 수 있게 한다면 교통문제, 주택난도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발표하신 분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안이었었는데 문제가 된것은 정부쪽에서 나온 조국장님은 사회적 여론이 한쪽에 일어나면 정책은 그것에 끌려간다고 말했는데, 김정철 회장은 끌려가지 말고, 중장기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똑바로 가자고, 그러한 상반적이고 서로 보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 대전회원께서 환경의 질을 걱정 했으나

그 문제는 두번째 과제에서 언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발표자나 커멘테이터가 지적하지 않았던 문제로서 이 주택 200만호 건설이 서울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기때문에 지방에서의 주택건설 사업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하는것은 주택국장 차원에서 부처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좌장 강병기 교수

第2課題

新都市와 大型住宅團地 設計方法

박찬무 : 신도시 건설계획을 위한 개발계획 사업이 정부로부터 국토개발 연구원이 의뢰받아 개발주체인 토개공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형식으로 신도시(분당·일산)설계계획에 착수했고 평촌·산본지구는 주공이, 중동지구는 공개 설계경기 당선안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의 단지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사는 물론 역대에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도시설계형 대형단지들이 기획되고 있으며 무주택 도시민이 감소하지 않는 지속될 정책으로 전망됩니다.

'80년초 파천·목동·상계동 대형단지 도시들이 30만, 77만, 50만 여평씩 서울의 하숙촌도시로서 주거공급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 5만, 12만에 1.3만호, 2.6만호, 3만6천호 단위로 수도권내에 생산녹지를 형질,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법적근거는 주축법, 택촉법 등으로 양분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택지·주택촉진 공화국이다라는 전제와 앞으로 문제에 대한 시행과제의 검토·분석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형단지 스케인의 도시들이 주택단지 위주로 계획·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전 평가·분석이 시작되기 전에 평촌·산본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및 건설부 사업승인 절차가 끝나서 개발사업 착수가 시간 문제인 상태에서 분당·일산·원당·용인·이천·의정부등이 거론되고 그중 분당·일산이 주택가격 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전격적으로 추진된



제2과제 발표자
박찬무 교수

밀실계획이 진행되어 이러한 사례는 통치권자들의 정책메뉴로서 60년대말 3공화국때 울산공단·신시가지(현상 설계근거 회박)이후 구미·과천·임시 행정수도·반월·창원등 신도시개발을 끝으로 70년대말 정치·경제적 위기의식이 팽배한 시국이었으며 5공화국때 목동, 상계동지역의 단지개발은 주택건설 500만호, 6공출범후 수립된 200만호 공급계획 달성을 위한 정치적인 산물로서 중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왔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학계에서는 「목표달성」보다도 어떠한 「접근방향」을 제시하느냐는 과정이 관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즉 수도권「국토이용과 지역개발 종합계획」이 “주택정책(수급)과 신도시 기능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사회·경제·재정 수급계획이 검토된 다음 「도시설계적 물리계획·설계방법」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토지공개념, 사회·경제 정의 실천만큼 국토·건축계의 사명이라 봅니다.

그러면 도시설계 학문적 방법과 이론상 접근이 가능한가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는 상황은 우리모두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방법론적 접근으로 이런 단계에서 건축계의 단합된 결의나 집합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건축설계가 개인적인 작품위주·외장 효과나 선전자료형 단독 건물로 건설되는 동안 집합 건축·주거·단지·도시계획 분야는 상당히 앞질러 가 버리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배경과 사회적 혼란상태가 바로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니 무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법과 신도시 개발계획이 그것이며 이에 건설기업(APT 건설업체)들이 지명되어 토개공 주최로 공모안이 작성된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학문적으로 자체 평가·시험이 되기전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상업단지·도시 건축대상물이 전설 경제적 부동산 투자기회로 추월 당해 버린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학문 내적으로 설계방법이나 기술문제보다 학리적으로 사회식성에 대한 학계의 탐색능력·소외된 전문가들의 수용노력·기득권 계층의 타협의지 부족등 부조화에서 온 건축직능 소의 현상으로 보아집니다.

두번째 학리적 배경과 실재를 위한 직능여부로서 도시의 본래 개념·그로부터 설정되는 맥락에서 “지역·지구”와 그중 특별한 지구발전애 우선하여 “단지”가 시행수단으로서 도시를 이루는 현상이 도시개발실무에서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문제 중심의 탐색보다 외국의

사례(단지라는 개념이 도입된 배경·이론적 근거가 단절된 상태)가 각수입된 과정으로서 도시계획의 개론적 도입만으로 도시설계 이론은 현실과 실제에 있어 과리되기 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건축학내에서 집단적인 조화(도시설계)·타당성있는 단지의 방향제시가 그 시대적 배경에 합당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부응한다면 소외된 건축의 사회적 직능 문제도 해소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우선 교육현장에서 제도적인 전문화 즉 「건축·도시(직능)전문대학의 단일화 과제」도 계열화 하지 못하는 직능상 문제가 큼니다. 즉 구미의 건축·도시·환경 대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단과대학으로서 부재한 상태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이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이 서울에 가득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도시상은 어떠하며, 현실과는 얼마만큼의 괴리가 있는가를 전문직능으로써 기록·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는 원래 이조시대때 도회지라는 데서부터 유래되었으나 서구사람들의 국가(Police State)와는 달리 평면적으로만 확장되고 쌓아놓은 결과 정부는 서울에는 이제 더이상 개발의 여지가 없다면서 인구집중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하고 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개발의 여지는 없는 것일까, 집적함으로써 이익은 없고 불이익만 남게 되는가를 신도시 개발계획과 그 배경논리를 통하여 비교·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도시계획 전문분야에서 하나의 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①그 도시의 역사와 현실적인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②서로의 보완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③몇개의 가능한 대안을 주민에게 예고한 후 대안별로 주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④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인협의체·의결기관을 거쳐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장치가 민주적 뿌리에 근거를 두고 사회·도시·국가로서 접근할 때 이상적인 도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 도시의 계획과정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상향과 같은 상태이며, 따라서 끝과 속이 다른 「계획도시형 건설계획」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그같은 과정의 부재원인으로 써 첫째, 역사적으로 도시의 삶과 흥망성쇠에 대한 「미래지향적 안목」의 결핍을 들고 싶습니다. 비근한 예로, 항간에 떠도는 말에 의하면 강남아파트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대량공급하면 가격조절효과가 전계층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볼 때, 왜 강남의

주거환경에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주안점이 무엇인가를 좀더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윤인주 교육수준(학군·일류병)을 높게하면 입주 희망자의 주거수요가 증가하여 강남의 주택난과 수요집중이 완화되리라는 발상의 근거는, 새로 태어나기 위한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근거에서의 신도시 계획이라면, 논리적 배경과 가정이 실제문제에서 배제된 건설기획형 도시일 뿐 우리의 「현실과 이상」의 실현을 위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아니게 됩니다.

둘째, 도시계획은 기본계획만 하고
 묵동·상계동처럼 분양할 목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시키면 토지·부동산투기에 대한 가격 안정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든가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아파트 투기는 과거 정권의 기획경제를 주도했던 고위층이 주체가 되어 시작되었고, 따라서 언제나 그 시대의 업적으로 도시개발·아파트·고속도로가 미명(美名)으로 포장되게 마련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 서울의 판자촌과 청계천의 무허가촌을 정리하기 위해 대신 불량 시민아파트(금화·와우지구 등)와 성남·광명시가 만들어졌고, 절대 개발불가지역인 묵동·상계동 등의 생산녹지지역에서 현지 정착주민을 이주시키고 파분한 아파트단지로 개조한 것이, 어디 한사람의 권한으로 가능할까 하는 질문으로서도 그것은 명확해집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사회퇴보적 도시개발 과정에서, 참여자 측에서는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든가 변명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 600년 천도 후 이만큼 풍족한 생활과 높은 수준의 시기가 언제 있었다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이는 운동권이나 노사문제보다 더 크게 답을 쏘는 일이 아닐까 자기 구상의 폭을 무리하게 주입하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계획도시가 실체인 주민들의 이상향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버린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독선적인 타성으로부터 의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지금까지 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과 정반대인 입지와 중상층 아파트는 민간시장에 맡기고 저소득층에 주력하여 주공의 이익금을 투자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모순점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배경과 문제점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새로운 도시건설이 전면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새롭게 태어나려는 정부의 정책이라면 이상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렴·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백지화가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도시를 수정·보완하려는 「이상적인 방법」에의 접근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역사·현실적 접근방법과 도시지역의 성격 제안으로 우선 택지조성사업이나 단지개발사업으로 도시를 만들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그간에 지어온 주택단지가 방만하게 확장됨으로써 해서 비롯된 개발의 충격을, 최근 사례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검토·분석해 보고, 그것으로 인한 악영향을 종합·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도 종전에 행해왔던 환경·교통영향 평가식이 아니라, 당시 개발주체의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는 객관적인 사회 연구단체가 검토하여 당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시설 측면에서 평가한 계획기준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단지계획은 규모를 크게 하기 마련인데, 당해 지역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 전체를 좀더 광역화하여 국토개발계획과 연계시켜 인접주변도시와 계획·행정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당해 시의 경제·사회적 발전계획과 보조를 맞추어 조화를 이루게 하면, 개발충격은 완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과정이 공개되고 연관도시들과 합의하여 이루어진 도시라면 서울의 아웃인 수원·용인·성남과 함께 이상적인 개발이 현실화될 줄로 압니다.

종전에 행해왔던 환경·교통영향 평가식이 아니라, 개발주체의 영향권에 들어 있지 않는 객관적인 사회 연구단체가 검토하여 당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과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시설 측면에서 평가한 계획기준에서 검토해야

이를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지나간 과거사례만을 방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발후 주변지역 도시들과의 형평·분배 정책상의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개발 효과와 분배측면이 당해 시·지역주민에게 보다 공평하다면, 방법과 기술상의 문제를 당해 시 자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자구책이 강구될 것이며, 충격의 반발도 저감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새로운 도시는 서울이 안고있는 문제, 즉 투기심리나 아파트가격 양등억제의 시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아울러 근본적인 도시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수도권에 형성되는 새로운 도시에는 상의하달식의 특별법이라는 명분이 주입되어서는

수도권 당해 지역의
영향권 내의 대학·
국토개발원·건설부·내무부
등이 우선 서로 협의하여
기존의 조직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안되며, 환경·교통 및 인접도시와 수도권 정비계획에의 충격완화방안 및 평가서를 당해 시·도 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그 저감대책을 심사받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환경청·경기도 등 당해 시의 그간의 영향평가의 심사 및 행정계획상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10,000㎡(3,000평)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정부나 당해 시·도에서 수행함으로써 조정·지침을 주어야 하는 공공적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간에게 부담시켜 수행케 한다면, 그 많은 골프장·유원지 등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물밑듯한 심의신청을 해결하는데 환경청 당국도, 민간개발 주체도 양자 모두 문제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 절충방안과 평가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를 그대로 진행하다간 우리나라는 아파트·골프장·유원지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규제하고 유도하기 위한 대안이 종합적으로 도시환경계획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효과와 환수방안」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지방도시계획 심의상 행정절차만 거치면 되는 신도시 건설과 검토와 위치 선정기준 및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수도권 당해지역의 영향권 내의 대학·국토개발원·건설부·내무부 등이 우선 서로 협의하여 기존의 조직과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조직·법체제안에서의 조정방안과 제도개선, 새로운 수도권 도시개발 종합계획의 타당성 검토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들의 구체적인 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아파트단지·주택공급을 위하여 희생된, 지역성(지역사회의 조직, 자연·인문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종합개발 계획」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적인 협조를 얻는다. 즉, 과거의 지역성이나 수도권(인구분산)정책으로 분산된 대학(35개 대학)을 연계시켜 향후 지자제(90~91년도)에 대비한 「도시환경 연구협의체」를 건축·국토학회에서 구성하여 국토개발원·주민과의 협의·건축 3단체와 협조체제로서(시장단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와 대등한)주민·전문가팀(기획단)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수도권 종합계획 수립의 목표는 지자제로 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자립도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겠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역성과 대수도권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교육·사회·경제성 제고는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에 두고, 수단적 주택공급이나 택지개발방법 등의 전적인 이익집중적 내용은 공개적인 「단지 설계경기방법」을 택하여 건축·국토학회등과 같은 전문학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전 법체제나 제도의 조정방안을 통해서라면, 진정한 지역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검토와 변경은 근대 건축사의 세계적인 흐름에서 건축가의 사회적인 직능이 뚜렷이 부각되고 있는 C.I.A.M. (근대건축가 회의, Congre's Internationaux Architects moderne) 운동과 그 후학들이 Team 10 X GEAM 등 건축연구 그룹을 형성하여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안 우리사회와 건축계는 어떠했는가 하는 질문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잘 말해준다고 봅니다.

1. 그 많은 출신교 중심의 모임들, 연구회, 협의회, 비평 운동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학연, 동창회 성격의 친목단체들이 어떠한 작업과 기록이 있어왔는지 학회에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발과정에서 한번의 성명서라도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2. 한편 건축의 건설현장 주요대상인 신도시·주택단지형 설계부문이 건축사(협회)의 연구·용역 범위에서 미흡한 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기존 건축사 사무소의 운영방식에 문제와 실제 건축계획·설계와 도시·환경분야의 개발(실무현장)계획 사업이 서로 연결되도록 정책평가단이 협회내에 지원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시·환경 연구위원회를 대한건축사협회장 자문기구로서 발족한바 있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얼마나 사회적 인정을 받기위한 연구와 실적이 요구되는데 회원 여러분의 협력이 관건이 됩니다. 어떤든 도시정책 분야의 속도와 결정과정에 참여 방안이 모색되어야겠습니다.

3. 이러한 노력은 사실 세대간 인식의 차이로서 그간의 근대화 과정에 노력한 일세대 건축가들의 후학과 연대의식 강화에서 시작된다고 보아 건축에서 출발한 도시·환경 연구조직과 두뇌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입니다.

넷째 결론적 제안으로 새로운 삶의 터전과 재생방법은, 물리적이고 외형적인 점철에 우선한 개발정책에 의해—지역주민이나 도시의 주민들의 단체적인 삶의 형태·지역의 특성과 자부심까지도—희생되고 말았습니다. 더우기 다수의 삶을 좌우하는 經濟民民하여야 타당할 경제정책이

특정그룹·대상을 위해 존재한 까닭에,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이라는 충격까지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과거와 연결한 미풍양속에 담긴 동네와 거리를 알고 있는 외국의 잘 보존된(그네들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명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회정의·형평과 양식을 가진 다수의 보이지 않는 힘이 행동하는 자성으로 나와 음률을 트고 방향제시를 하는데 농감해야 하고 나아가 학제나 기성 건축사 및 청견협등 모두가 일치된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는데 공감대를 이루는 노력과 증거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사중 세세사에 있어서의 새로운 도시건설 사제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정신의 키브츠, 프랑스 파리 수도권 주위의 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신도시 집합주택, 영국 런던 주변 뉴타운, 그리고 마닐라 주변의 달동네 신도시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에서라면 새로운 도시환경 연구단체는 이웃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를 우선으로 할수 있다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① 설립목적과 범위 및 접근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참여「전문가협회」들도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현성 있는 대안제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협회 지부와 지방도시 계획위의 연계방안으로서 「도시·지역간 연계계획의 검토」

② 지방정책과 도시부문 지원책의 강화로서 도시환경위 조직의 수도권권교대학 중심으로 환경개선협의체 기능을 보장하여 「대형선형도시권개발」

③ 도시환경 개선방안으로서 주변 연결도로 기반(급배수·오물)처리시설 및 교통영향을 검토하여 대상지의 서어비스 수준(교통·통학·교육 및 기반시설)을 제고시키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시켜야 한다. 「지방도시주거수준 평가」

한편 광역도시 환경의 문제와 제안에 대응해서 「차세대 건축을 위한 문제」와 현실적으로 행정적 모순부터 정리하여야 대안적 접근방법이 제안됩니다.

우선 정치·경제 민주화에 비하여 건축행정은 개방노력이 미흡하고 인접도시 관련분야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행정은 수도권 인구분산정책만 있고 진정한 대학건축 교육에 관해서는 행정의 전문화 기술 및 과학화에 따르는 정책형성 기능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 부서에서는 첨단기술·지방자치등 정책발전과정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비할 기구 제도적 장치·행정절차에 대한 법적통제 기능이



없이 건축계는 약화되고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간 '80년대에 사회·교육·학술활동의 요구와 미진했던 내용·문제와 대안적 접근제안 건축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각종 시책개선이 추진중에 있으나 앞으로 시기를 놓친다면 어떠한 통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며,

따라서 건축 전문직능에 대한 사회적 교육·학술활동을 빠른시일내 정리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여야겠습니다.

거기에 청년건축가협회등 중·소규모의 연구활동 그룹이 다수 산발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이들을 「집단화」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겠습니다.

〈대 응 책〉

1. 중·장기 학술활동의 방향

차세대 건축의 목표와 정책적인 지표

종전까지의 건축이 물량적으로는 개인성취도 위주로 개발되어 사회·도시환경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부작용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측면에서 청견협이 그 구체적인 반동으로 평가되나 8군기지와 서민주거등 정치적인 이슈에 치중하여 본래의도와 거리가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봅니다. 이를 거울삼아 학계와 「연대계휴하여 협의체를 구성」, 공동연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도시개발의 양상이 너무 상업적 자본주의 발상에 치우쳐 환경·교통영향이 악화되었으나 아무런 치유책이 없었습니다.

셋째 사협회와 가협회등 관련단체들의 역할정립과 통합된 노력이 있어야만 근본적인 건축·도시 정책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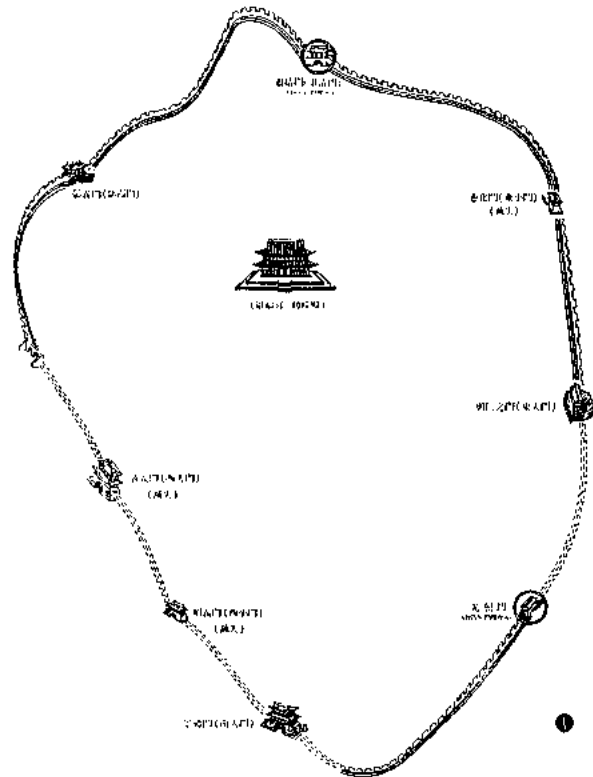
④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건축활동에 참여나 신도시 개발이 소외된 계층에게 공급되는 수준에서 건축가 개인이나 집단적으로 개발계획에 참여할때 도시(환경개선)계획 자체내에서 건축계 전체의 사회적역할이 인정되고 그런 후에야 우리 모두 건축능력이 「사적·현실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朝鮮時代의 建築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Chosun Period

張慶浩/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1. 시대의 개관

태조 李成桂는 위화도와 회군을 계기로 실권을 잡아 구세력을 몰아내고 1392년 7월 開京 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고 신왕조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고려의 舊都를 벗어나야 되었다. 곧 태조3년에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었고 국호를 朝鮮이라 하였다. 고려 말년에 많은 피해를 가져온 불교를 억제하고 儒敎를 숭앙하여 국민의 교육과 정치이념의 근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불교는 탄압을 받아 많은 佛寺가 헐리고 폐사되어 산간으로 옮기어 세간에서 멀어져 그 명맥을 유지할 정도였지만 그런 중에도 오래된 古刹들은 조선시대에 많이 重創 重修, 또는 보수공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남아있는 유구들로 보아 알 수 있다.

한편 태조는 새로 발기한 조선의 立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明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등 사대주의적인 정책을 펴 나갔다. 그러나 초기에는 왕권의 기반을 확립하지 못하고 '왕자의 난'과 같은 살육의 화가 일어나고 단종과 같은 어린 왕의 왕위를 찬탈하는 등 기풍의 혼란이 없지 아니하였지만 세종, 성종 등 이진 왕도 있어 왕권의 기틀을 잡고 빛나는 치적을 쌓기도 하였다.

또 시대가 내려 오면서 많은 토지와 권세를 행사하는 勳舊派에 불만을 가진 新進士類들의 충돌로 잦은 土禍가 일어나 이에 패한 진사들은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

내려가 교육과 학문연구에 이바지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라 書院과 鄉校의 조영이 점차 興해가고 그들의 活動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나중에 사류들간의 당쟁때도 있어 이들 서원은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지방의 절대적인 세력을 행사하고 넓은 토지를 소유하며 끊임없는 당쟁의 기반이 되는 등 폐단이 많았다. 또 16세기말 국내가 이렇게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중 설상가상으로 선조25년(1592)에는 인진왜란이 일어나 7년간의 전화를 겪어 국토는 황폐되고 백성은 비참하게 죽어가며 국가의 재정은 고갈되어 사회는 파탄에 빠지게 되어 국가정책에 국민들은 불신과 반감을 갖게 되었다. 丙子胡亂 이후 청나라를 통하여 들어온 실리추구와 考證學 및 서양문물의 영향을 받은 실학사상이 대두되게 되어 학문을 비판하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공헌을 하였다. 이런 틈을 타서 천주교가 전래되었으나 신한 박해를 당하였다.

실학자들은 정치·사회·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기술학 부분에서도 현실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결론을 얻는 태도였다. 이러한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아 건축되었다고 믿어지는 수원 성곽은 18세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축성한 模範城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때에 기록으로 남긴 '華城城役儀軌'는 체계적인 공사의 기록서로서 기술직 혹은 전문적인 사항도 기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건축사를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이후 내외의 정치적인 불안과 급변 등으로 조선말 고종때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말미암아 丙寅·辛未兩洋擾를 겪고 결국은 운양호사건으로 부득이 일본과 강화도 수호조약을 맺게되어 1910년에는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건축으로는 이태조가 건국의 의지로 천도한 후 대대적으로 영건한 궁궐과 도성건축이 있고 유교건축으로서 成均館과 文廟·향교·서원 등의 건축이 있다. 또 비록 억불정책으로 그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지만 불교건축이 많이 남아있고 민속적인 제단 및 사당건축이 있으며 양반의 財力과 권력으로 크게 발전시킨 상류 민가 주택건축과 정자 등이 성행하고, 한편 규모나 품격으로는 보잘 것 없지만 작고 검소한 대로 아가자기하게 생활철학을 나타낸 서민의 주택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조건축들은 임진왜란 등의 大戰亂으로 불타 없어지고 재건된 것들이어서 초기의 것보다는 후기의 것을 더욱 흔하게 볼 수 있다. 목구조의 조선초기 형식으로는 주심포계와 다폍계와 외공계 그리고 지방적인 특징을 갖는 주삼포계 형식이 많이 건축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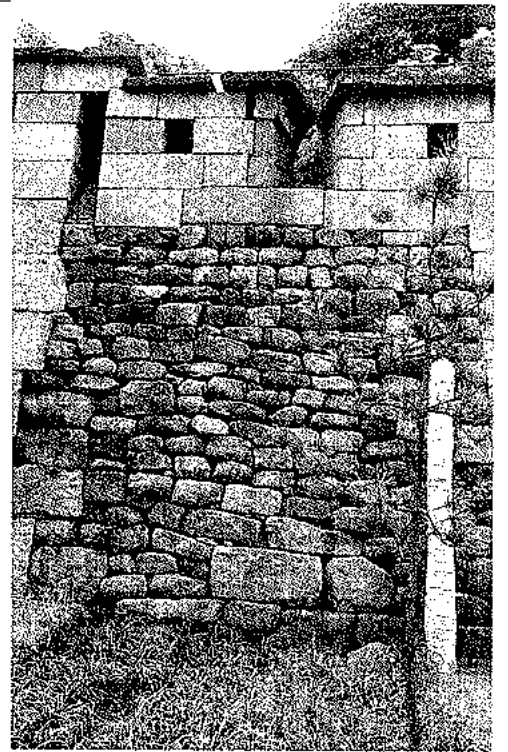
한편 석조건축으로는 그리 많지 않은 석탑과 석종형 무도 성곽 등이 있고 석빙고 등도 특이한 건축이라 할 수 있다.

2. 서울 都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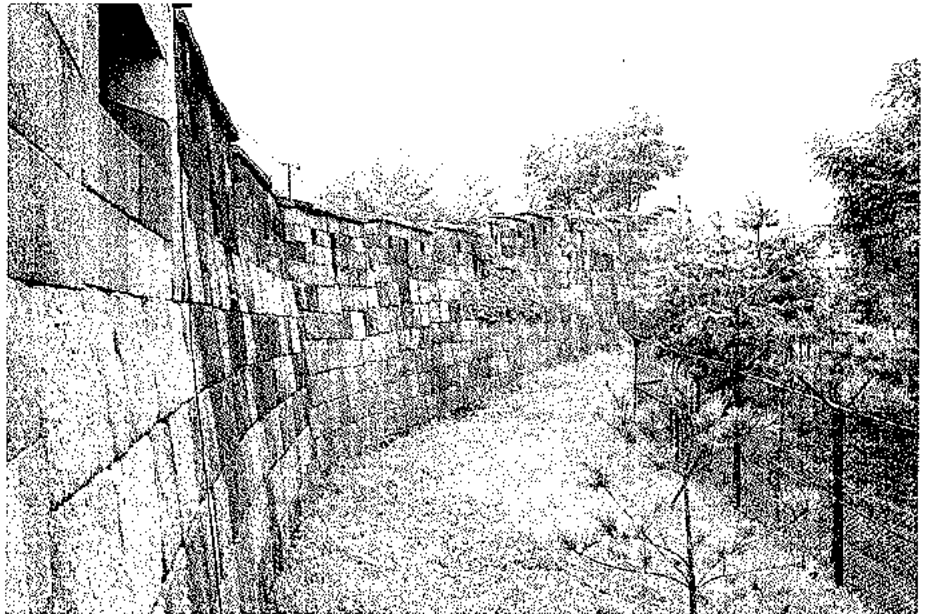
이태조가 무학대사의 조언과 중의를 들어 漢陽에 遷都한 것은 1394년 10월이었는데 이듬해 漢城으로 고쳐 부르게 됐다. 1395년에 경복궁과 종묘 등 궁궐과 사직단을 세운 후 都城造築都監을 설치, 정도전에 의하여 北岳·駱山·南山·仁旺 등 네 산을 연결하는 등근 모양의 성으로 쌓기 시작하였다. 다음 해부터 전국의 민간과 병정 118,070명을 동원하여 축성공사를 시작하였는데 59,500尺의 城基를 한 구간 600尺씩 총 97 구간으로 나누어 축성하되 2개의 구간마다 判事·부판사 각 1명씩과 使·副使·判官 등 12명을 배치하여 감독케 하였다.¹⁾ 또 각 구간마다 번호를 매겨 공사를 하였는데 天字文의 글자 순서대로 하여 현재 경복궁 북쪽에 있는 白巖山 동쪽의 한 구간을 '天'자로부터 시작하여 순서에 따라 97번째인 '吊'자에서 끝나게 되었다 한다.²⁾

처음에 쌓은 성곽은 49일간이란 짧은 기간 내에 지형이 높고 험한 곳에는 연장 19,200尺, 높이 15尺 되는 석성을 쌓았고 평지와 낮은 산에는 높이 25尺 되는 토성을 총 길이 43,000尺을 쌓았다. 그러나 이것은 7월 장마에 밋 곳이 무너져 朴子靑·권중화 등을 築城都監提調로 하여 무너진 곳을 다시 쌓고 일부 토성을 석성으로 고쳤으며 낮은 석성을 높였다. 그리고 四大門과 四小門을 세움으로써 1398년 2월에 일단 3년만에 도성을 준공하게 되었다. 이후 토성 25,535尺, 석성 3,952尺이 허물어져 세종4년(1422) 도성수축도감을 두어 대대적인 수축공사를 착수하여 토성을 모두 석성으로 고쳐쌓고 성첩과 여장을 꾸미었다. 또 동대문 부근에 水口 2칸을 더 늘리고 서대문(西箭門)을 약간 그 남쪽으로 이설하였다. 성높이는 16尺, 20尺, 23尺 등으로 당초보다 높이었고 성의 안·밖에는 넓이 15尺의 순라길을 내어 순찰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성의 총길이는 당초보다 길어 60,892尺으로 약18km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동원된 영조적 인원은 약 30여만명에 달하고 석회가 9,610包, 부처가 약 10만餘斤이었다 하며 북악과 남산의 남북이 약 5.8km이고 동대문과 서대문간이 약 3.9km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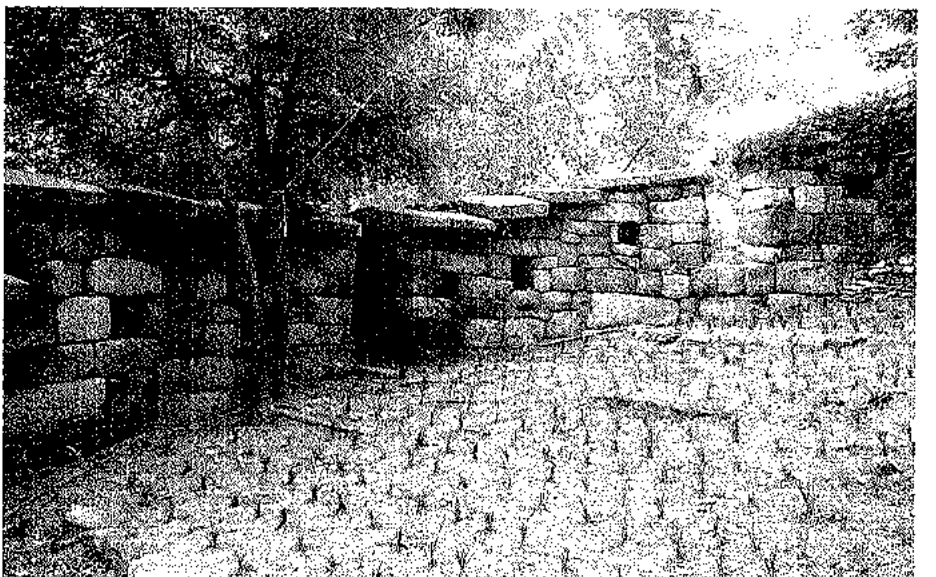
- ◎ 서울 都城
- ① 門樓 配置圖
- ② 都城 詳細
- ③ 影義一肅靖門間 都城
- ④ 女牆詳細
- ⑤ 都城 銘文
- ⑥ 正面(上) 및 斷面圖(下)



2



3



4

한성의 대소 8문으로는 남쪽에 崇禮門(남대문), 동쪽에 禮興仁之門(동대문), 서에 西箭門(敦義또는 서대문), 북에 肅靖門, 동북에 弘化門(해화문 또는 동소문), 동남에 光熙門, 서남에 昭義門(서소문), 서북에 彰義門 등이다. 서울의 도성은 그 후 임진왜란을 비롯한 정묘·병자호란 등의 난으로 관리가 미치지 못하여 여러 곳이 훼손된 것을 숙종년간에 다시 수축공사가 이루어졌고 영조때에도 40여개소가 수축되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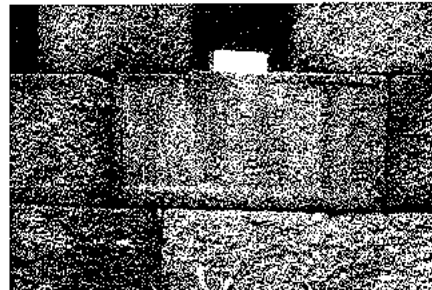
이렇게 한성의 축성은 태조·세조·숙종 세 왕대에 가장 큰 공사를 한 것인데 지금도 그 시대적 구조특색을 볼 수가 있어 태조때에 시공된 성벽을 보면 대체로 가공하지 않은 크고 작은 자연석을 불규칙하게 혼용하여 쌓았으며 기초석에는 특히 장대한 돌을 사용한 곳이 많다. 벽면은 대체로 수직면을 이루고 쌓는 방법이 거칠고 사이사이 작은 돌을 끼워서 쌓았고 그 당시 공사분담 구역을 나타내는 천자문의 표시가 새겨져 있다. 지금 백악의 배후에서 성북동에 이르는 곳 몇 개소와 남산 동울의 성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세종대에 시공된 것은 성곽 여러 곳에 점철되어 있고 그 특색은 장방형 또는 방형의

가공한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기부는 대석을 사용하고 중간이상은 차차 소석을 사용하여 성벽면 중앙부가 조금 밖으로 나오게 쌓았다. 이때 수축된 성벽에는 여기저기 공사를 담당하였던 州郡名이 새겨져 있으며 백악에서 앵봉에 이르는 사이와 동소문에서 낙타산에 걸친 성벽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숙종조에 수축한 것은 석재가 上下 모두 약 2尺의 방형이고 석재간에 간격없이 쌓아 매우 발달된 축조법을 썼으며 동대문, 광화문 부근 및 백악 동측 성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성내에는 역대 왕대에 조양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 종묘, 사직단, 문묘 등이 배치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과 그 지류 그리고 水標橋, 長通橋, 大廣橋 등의 석교들과 望遠亭,



濟州停 등의 정자들과 민가들이 있어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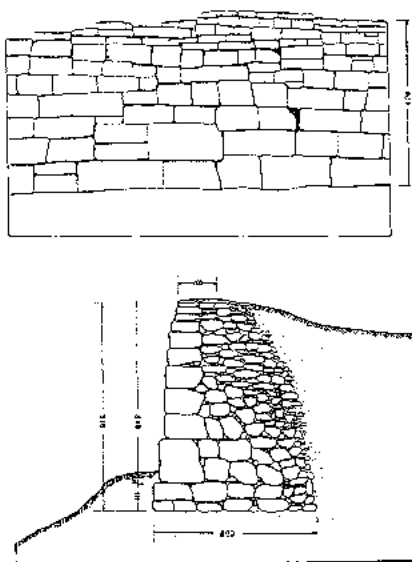
또 성내에는 원래 성의 수비를 위한 구역분담 개념으로 구획된 部·坊·契로 나누어 예를 들어 고종때 洞이 생기기 전에는 5부, 47방, 339계로 구획하였다.⁵⁾ 또 經國大典 工典橋路에 의하면 조선초기 대로의 폭이 56尺이고 中路가 16尺, 小路는 11尺으로하고 그 양쪽에는 側溝를 두었다. 도로의 거리표시는 周尺(0.66곡척)6척이 1步, 360步를 1里, 30里를 1息으로 하였다 한다.

한편 현재 남아있는 한성의 門樓로는 광희문이나 숙정문 등 근년에 복원된 것을 제외하고 남대문과 동대문 그리고 창의문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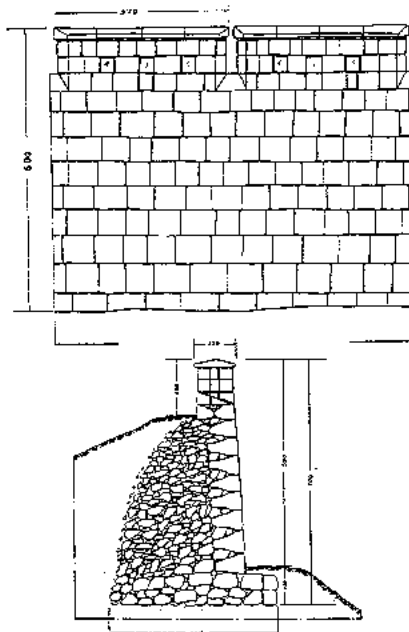
1. 남대문(崇禮門)

이 문은 경복궁 남쪽에 위치한 首都의 관문으로서 도성 8문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문이다. 太祖5년(1396)1월에 시작하여 9월에 준공하였다. 1962년 남대문을 중수할 때 上樑日字가 목서로 쓰여진 것을 발견하였는데 「洪武二十九年丙子十月初之日上樑」이라 되어 있고 또 세종대에 改修된 것과 성종대에 개수된 것 등이 발견되었다.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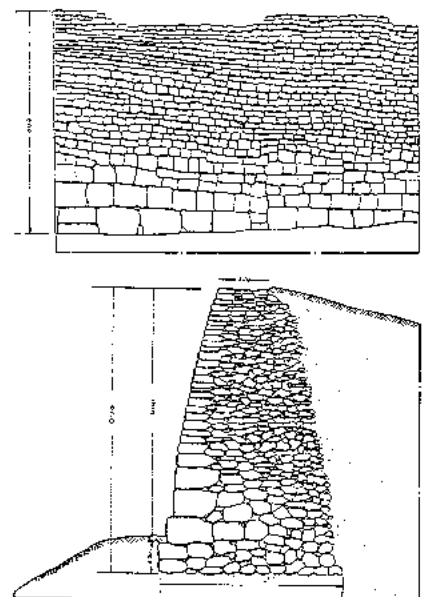
●驕山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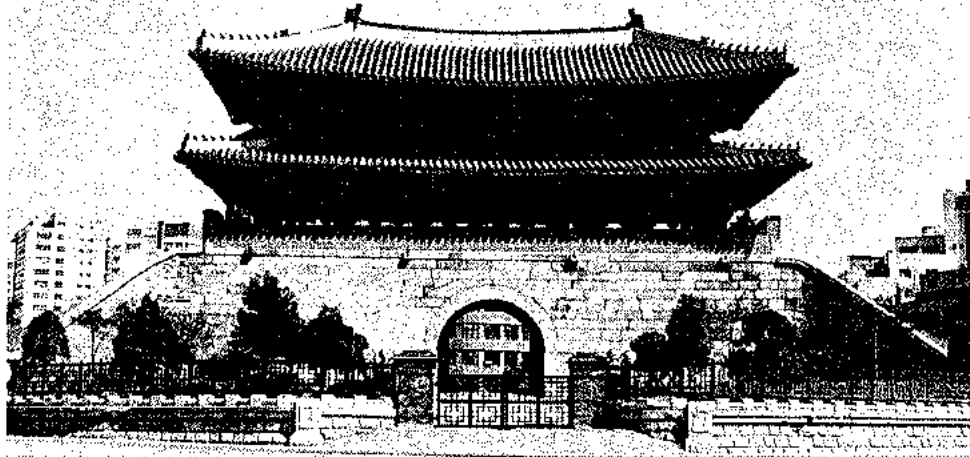


●北岳山 지역



●獎忠洞부근





◎ 南大門

⑦ 全景

⑧ 側面

⑨ 後面 拱包와 女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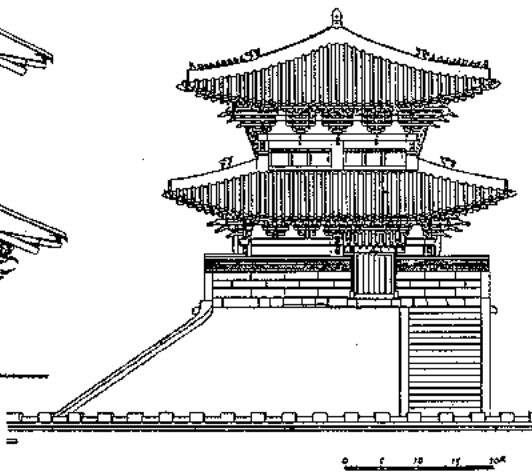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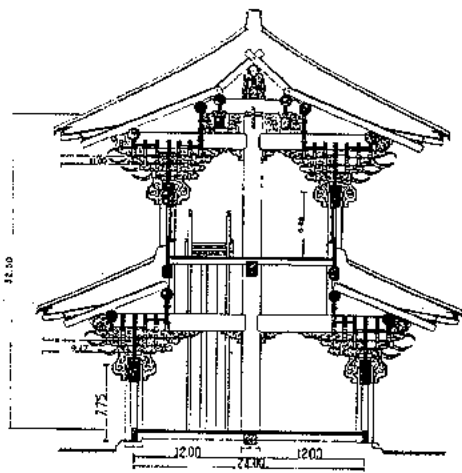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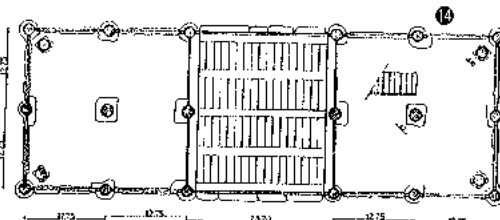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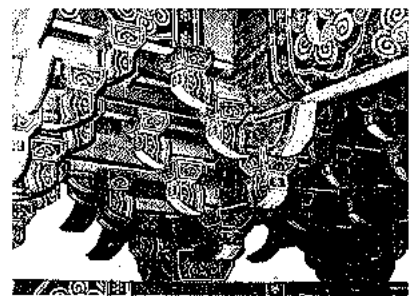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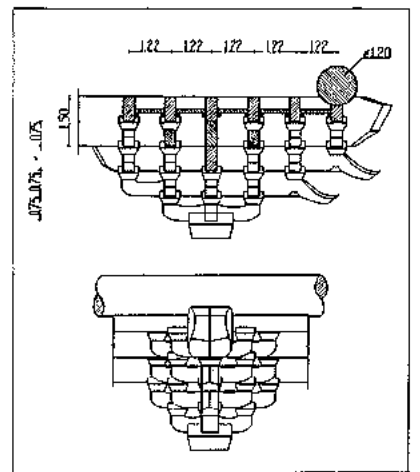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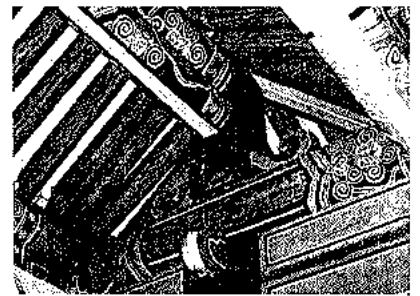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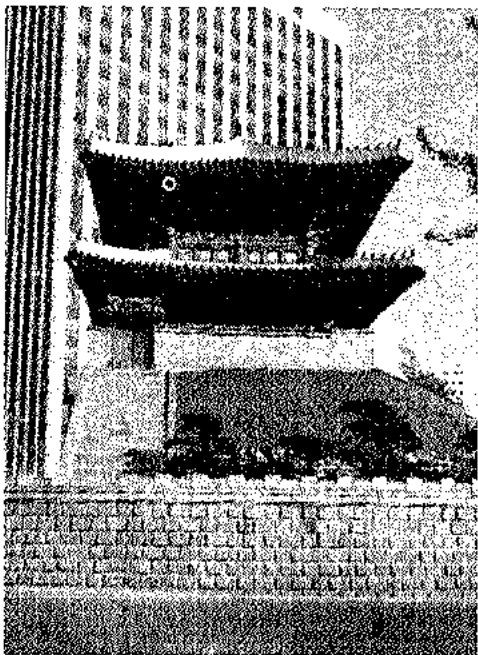
⑩ 縱斷面圖(左)와 東側面圖(右)

⑪ 內部 架構

⑫ 上層 拱包詳細

⑬ 下層 拱包詳細

⑭ 下層 平面圖



◎ 東大門

① 東大門 및 變城 全景

② 縱斷面圖

③ 上層內部 架構

④ 下層內部 架構

⑤ 下層 平面圖(上) 및 下層 拱包詳細(下)

⑥ 前面 拱包 ⑦ 귀拱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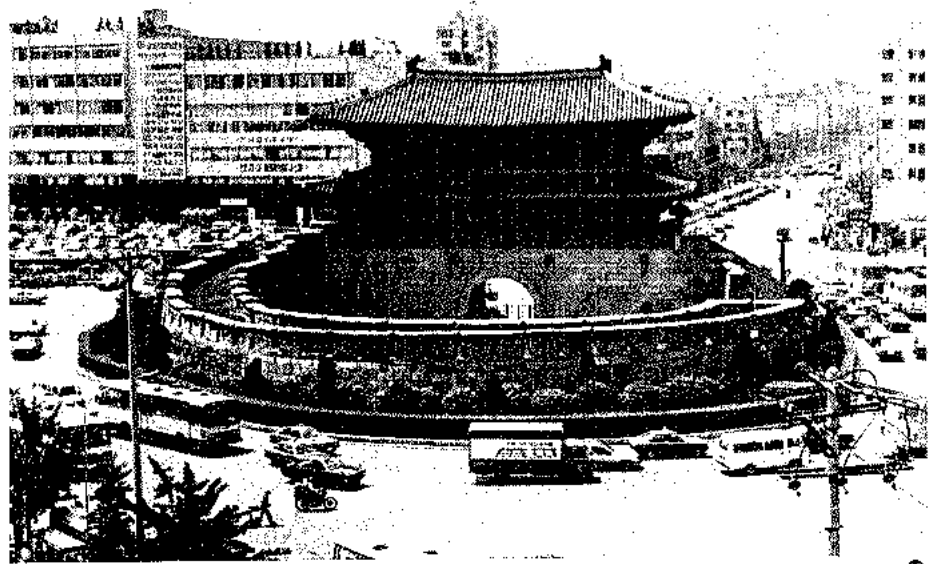
◎ 彰義門

⑧ 側面 ⑨ 翼工詳細 ⑩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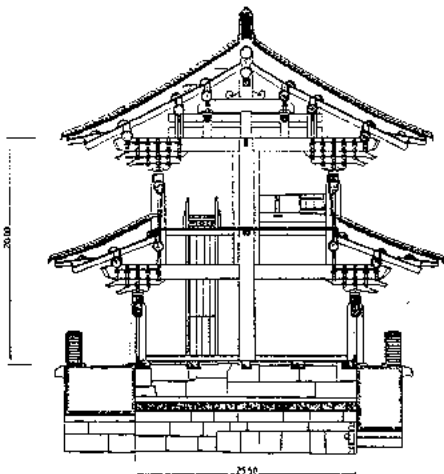
⑪ 위로부터 平面, 正面, 橫斷面, 翼工詳細圖
(대한건축학회지 70년3월호에서 전제)

◎ 肅靖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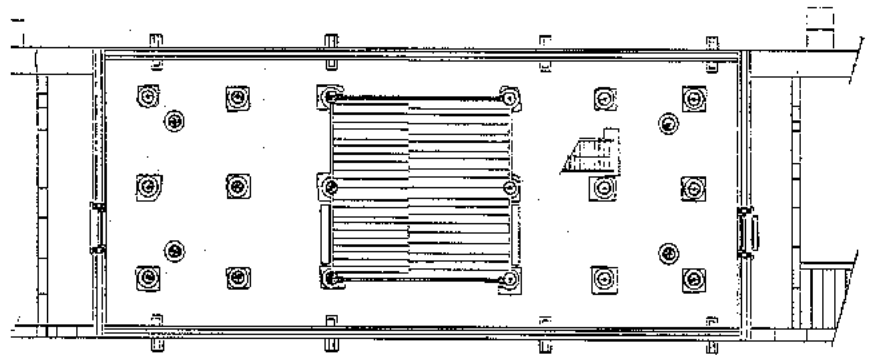
⑫ 翼工詳細 ⑬ 흥여部分 ⑭ 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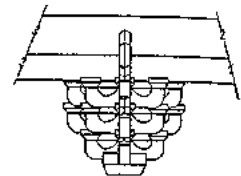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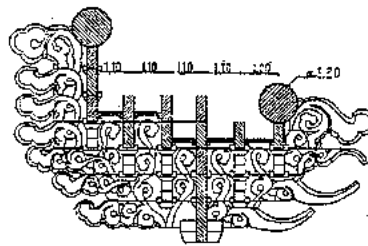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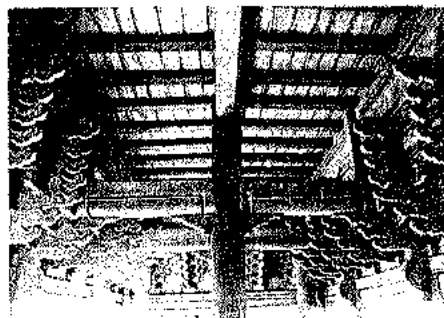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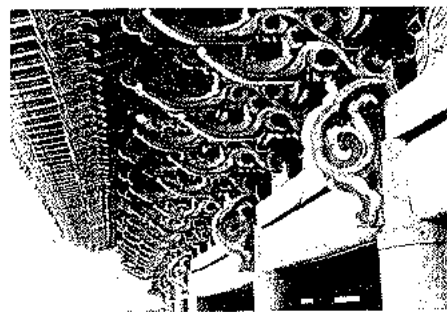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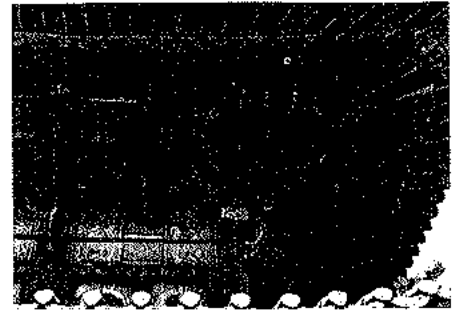
②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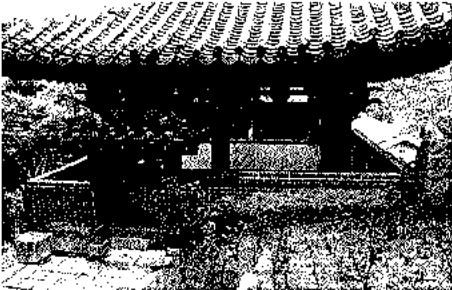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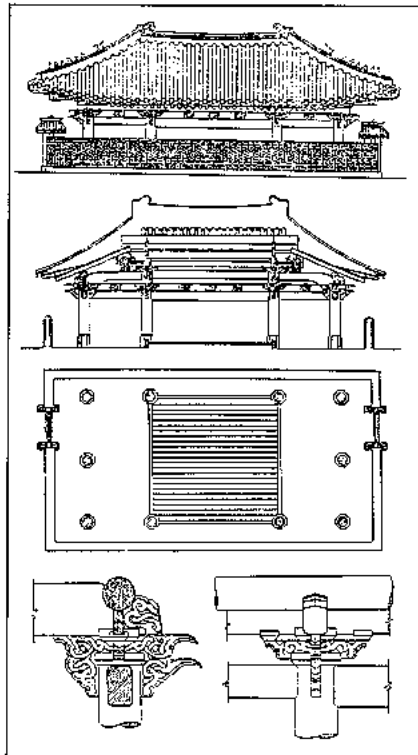
⑦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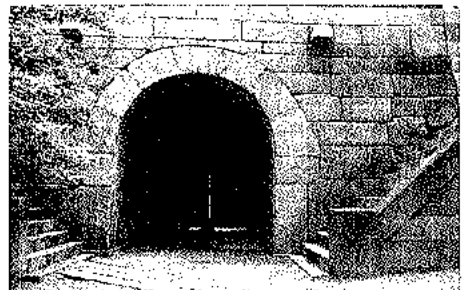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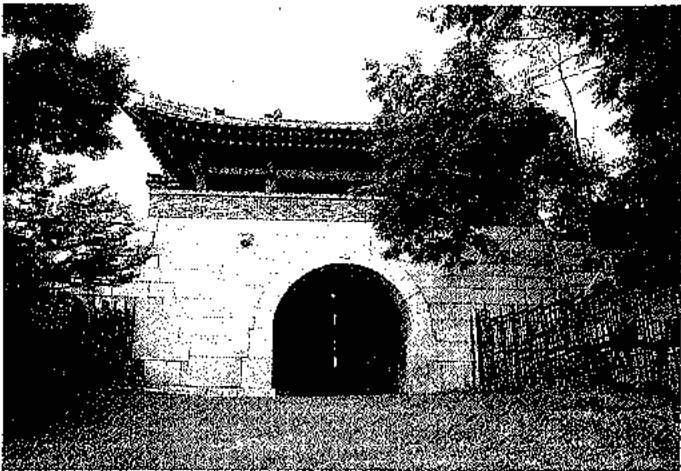
23



24



25



26



27

세종30년(1448) 지대가 낮아 볼품이 없고 풍수설에 맞지 않는다 하여 개축을 하였는데 그 후 32년이 지나 문루가 기울어져 다시 개축을 한 것이다."

이 문 주위에 성체는 이미 일정시대에 헐리어 대로를 통하게 하였고 1962년에는 홍예와 문루를 해체복원하였다. 문루의 건축형식은 정면5칸(하층)측면 2칸의 중층 우진각 多包系 건축으로 개성 남대문과 평양 보통문 등과 같이 조선초기의 구조적 특징을 나타낸다. 문의 기층에는 화강석으로 무사석을 짜아 중앙에 아치를 틀고 이곳으로 출입할 수 있게 문짝을 달았으며 그 위에 2층의 루건물을 세웠다. 하층평면 중앙에는 마루를 깔고 그 밑은 아치의 반자가 되도록

꾸였고 양측칸은 무사석 위에서 바닥을 흙으로 다지고 초석을 배열하여 기둥을 세웠으나 외벽없이 밖에 둘러쌓은 여장을 바로 대하게 하였다.

또 1층 귀기둥 내측으로는 2층의 컷기둥까지 통으로 고주를 이루는 기둥이 각 1개씩 있다. 그리고 동측에는 2층으로 오르는 나무로 짠 계단이 있다. 기둥의 상부에는 창방과 평방을 걸고 그 위에 공포를 짜았는데 전후 중앙칸에는 4조씩, 양협칸에는 2조씩, 그리고 측면에도 2조씩 공간포를 배열했다.

공포는 내외 2출목인데 쇠서는 다포초기 형식인 하향된 부리를 가졌으며 내부 끝도 첨차와 같이 교두형으로 되어 있다. 2층건물 바닥은 널마루이고 가구는 내목도리를

포함하여 7량기를 짜고 山형의 대공과 화반은 초기적 수법이다. 외벽 쪽으로 창방과 중방 사이는 널판문을 달아 화살을 막을 수 있게 하였다. 2층 공포는 내2출목 외3출목으로 다른 다포계 공포에서 내출목이 외출목보다 수가 많은 것과 다른 특징을 보인다.

2. 동대문(興人之門)

동대문은 당초 태조때 도성과 함께 세워졌지만 1451년에 개건되고 1453년에 중수하였다. 그러다가 고종6년(1869)에 다시 개건하였다. 1958년 동대문 보수공사시 상량문이 발견되어 1869년 定礎를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대문 중에 유일하게 甕城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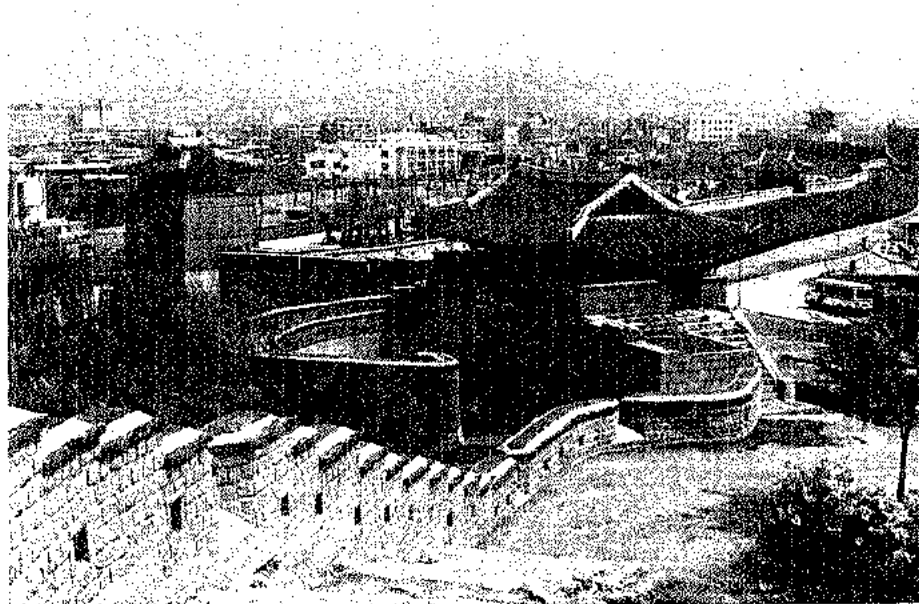
두고 있는데 이것 역시 고종때에 새로 쌓은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 문의 구법역시 남대문과 같이 기층에는 중앙에 아치를 두어 문을 단 무사석 구조로 되어 그 위에 중층의 문루를 세운 것이다. 가구법도 남대문과 거의 같으나 공포에 있어 하층에서 내3출목, 외2출목이고 2층에서 內外3출목을 꾸몄는데 기둥 상부에 안초공을 두고 삼미의 바깥 끝이 뾰족한 仰舌과 垂舌과로 되어있었으며 내부 끝은 雲工으로 되어 장식이 복잡하고 細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문은 창건 당시부터 지반이 저습한 곳으로 기초가 침하할 우려가 많아 항상 고심을 하던 것이라 도중에 이 부근에 수구문을 증설한 기록이 나타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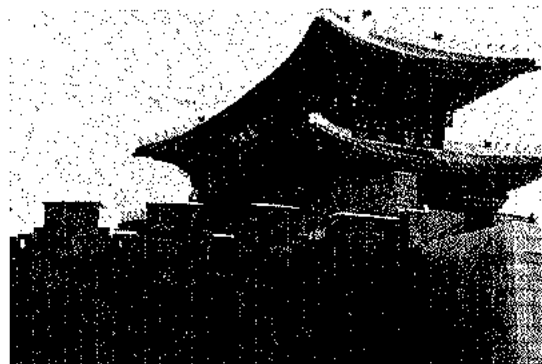
3. 조선시대의 邑城

거주주체가 왕으로서 성안에 궁과 종묘 그리고 사직을 위한 시설이 있는 것이 郡城이고 이러한 것이 없어 그 군, 현, 주민의 보호와 군사적 행정적 기능을 함께 한 성을 읍성이라 한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읍성은 중국과 일본 동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읍성은 언제부터 시설하였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부터는 일부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며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방에서 전란에 대비하여 요로의 고을마다 읍성 축조를 활발히 하였다. 읍성은 주로 평지에서 고을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러한 평지성의 형태는 보통 조선초기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종때에 읍성의 수는 190개소나 되었다 한다.⁷⁾

읍성의 평면형식은 방형과 원형 그리고 부정형이 있는데 보통 4방향에 따라 성문을 두고 문루를 세웠으며 방어를 위한 女牆, 雉, 鋪舍, 角樓 등을 두고 밖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앞에 甕城도 둔다. 성의 외벽 밖에는 塹壕 즉 人工壕字를 만들어 물을 담아 적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시설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발달되어온 것이다. 읍성 안에는 그 고을의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官衙 즉 관청을 두게 마련인데 여기에는 東軒, 客舍, 鄉廳, 訓練院, 中營, 軍器庫 등이 배치된다.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조사된 읍성 또는 그 터는 109개소나 되는 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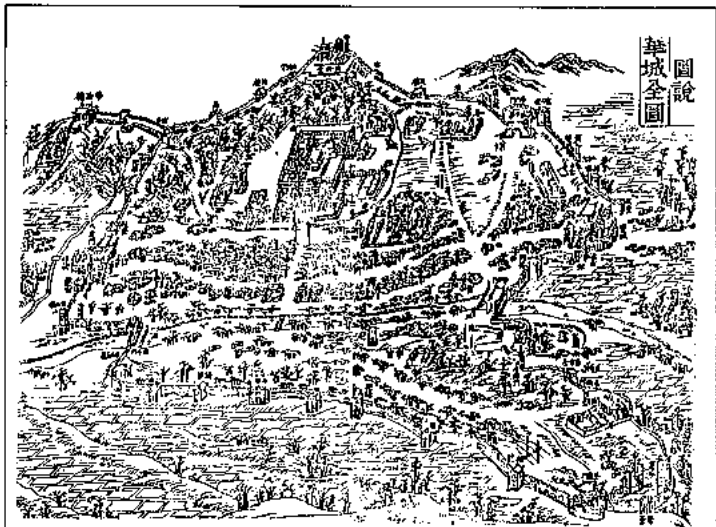


㉠ 水原城
㉡ 華西門 및 西北空城
㉢ 長安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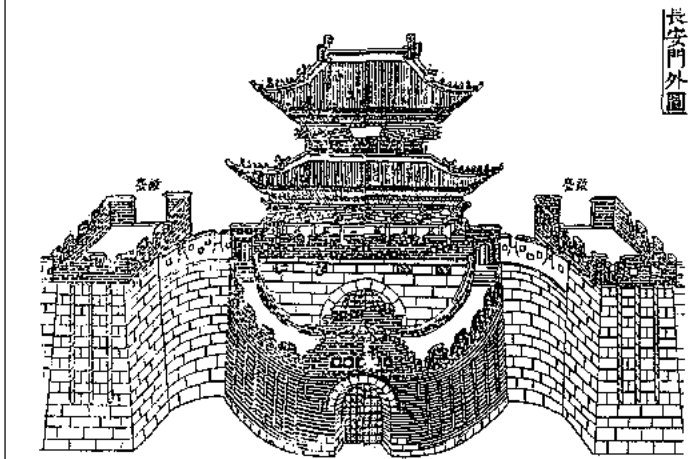


㉣ 調査된 邑城名

1. 東平邑城 2. 東萊邑城 3. 東萊古邑城 4. 大邱邑城 5. 華城(水原邑城) 6. 水原邑城(古邑城)
7. 喬桐邑城 8. 江陵邑城 9. 杆城邑城 10. 襄陽邑城 11. 三陟邑城 12. 淸州邑城
13. 忠州邑城 14. 永同邑城 15. 黃澗邑城 16. 錦山邑城 17. 鴻山邑城 18. 舒川邑城
19. 韓山邑城 20. 庇仁邑城 21. 保寧邑城 22. 藍浦邑城 23. 洪州邑城 24. 結城邑城
25. 大興邑城 26. 德山邑城 27. 瑞山邑城 28. 泰安邑城 29. 海美邑城 30. 唐津邑城
31. 鴻川邑城 32. 全州邑城 33. 南原邑城 34. 古阜邑城 35. 高敞邑城 36. 茂長邑城
37. 興德邑城 38. 扶安邑城 39. 扶寧邑城 40. 萬頃邑城 41. 沃溝邑城 42. 臨陂邑城
43. 龍安邑城 44. 光州邑城 45. 順天邑城 46. 羅州邑城 47. 求禮邑城 48. 光陽邑城
49. 樂安邑城 50. 興陽邑城 51. 寶城邑城 52. 兆陽邑城 53. 長興邑城 54. 康津邑城
55. 海南邑城 56. 靈岩邑城 57. 務安邑城 58. 靈光邑城 59. 珍島邑城 60. 慶州邑城
61. 安東邑城 62. 永川邑城 63. 玄風邑城 64. 義城邑城 65. 盈德邑城 66. 寧海邑城
67. 長川邑城 68. 長川舊邑城 69. 興海邑城 70. 迎日邑城 71. 迎日古邑城 72. 淸河邑城
73. 慶山邑城 74. 淸道邑城 75. 星州邑城 76. 善山邑城 77. 尙州邑城 78. 醴泉邑城
79. 順興邑城 80. 蔚珍邑城 81. 平海邑城 82. 蔚山邑城 83. 普州邑城 84. 鎭海邑城
85. 熊川邑城 86. 金海邑城 87. 宜寧邑城 88. 咸安邑城 89. 漆原邑城 90. 靈山邑城
91. 密陽邑城 92. 梁山邑城 93. 機張邑城 94. 機張古邑城 95. 彥陽邑城 96. 昌原邑城
97. 巨濟邑城 98. 巨濟古邑城 99. 固城邑城 100. 泗川邑城 101. 昆陽邑城 102. 南海邑城
103. 河東邑城 104. 咸陽邑城 105. 咸陽古邑城 106. 三嘉邑城 107. 濟州邑城
108. 旌義邑城 109. 大靜邑城 (孫永植, 韓國城郭의 研究에서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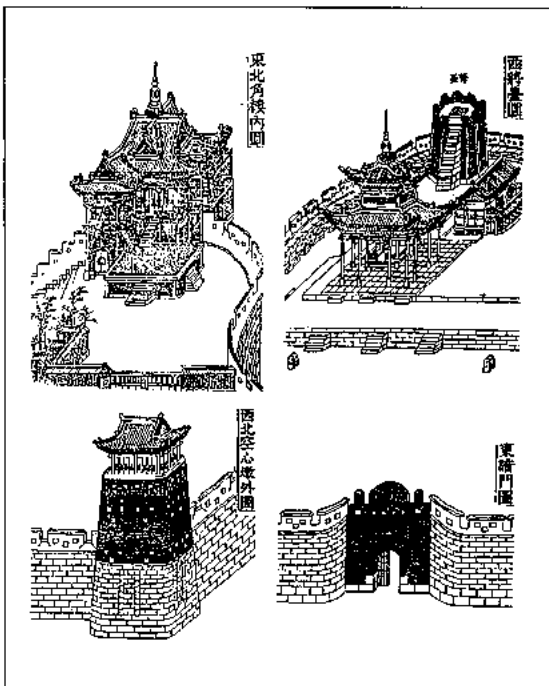


華城全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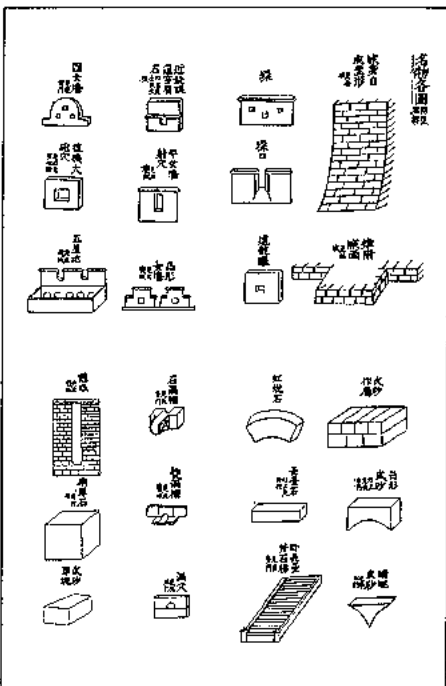
長安門外圖

- ◎ 華城役儀軌(轉載)
- ① 華城全圖 및 長安門外圖
- ② 左上부터
訪花樓柳亭內圖, 西北空心墩,
西將臺圖, 東暗門圖
- ③ 城郭 細部名稱 및 石物
- ④ 木部材 및 鐵物
- ⑤ 機具 및 道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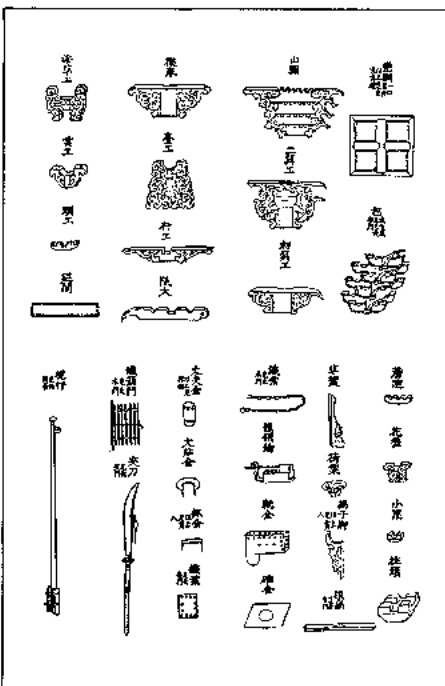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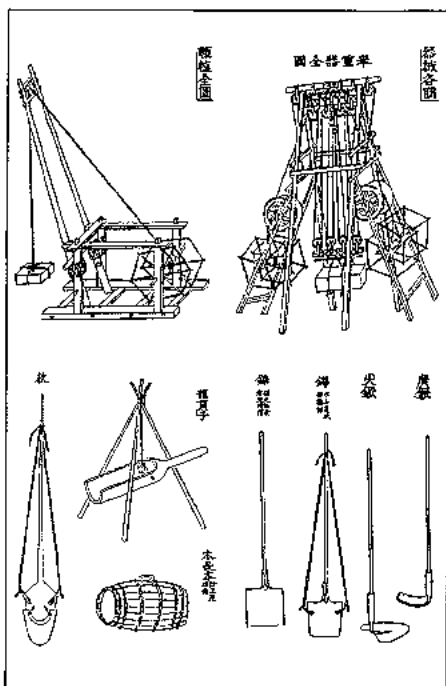
②



③



④



⑤



38



39



40



41



42

- 38 海美邑城
- 39 高敞邑城 東門 踏城行事
- 40 高敞邑城
- 41 樂安邑城 東門
- 42 濟州城址
- 43 濟州城邑 城郭



43

이중에서 화성은 정조가 1794년 비운의 죽음을 당한 그의 생부 莊組(思悼世子)의 능을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읍을 정하고 鄭若鏞의 성설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과학적인 방법으로 둘레 14,600尺의 성을 축소한 것이다. 석축과 일부 전축으로 된 이 성곽은 수원성으로도 불리우는데 평지와 배면에 팔달산을 둘러싸고 지형의 고저와 굴곡에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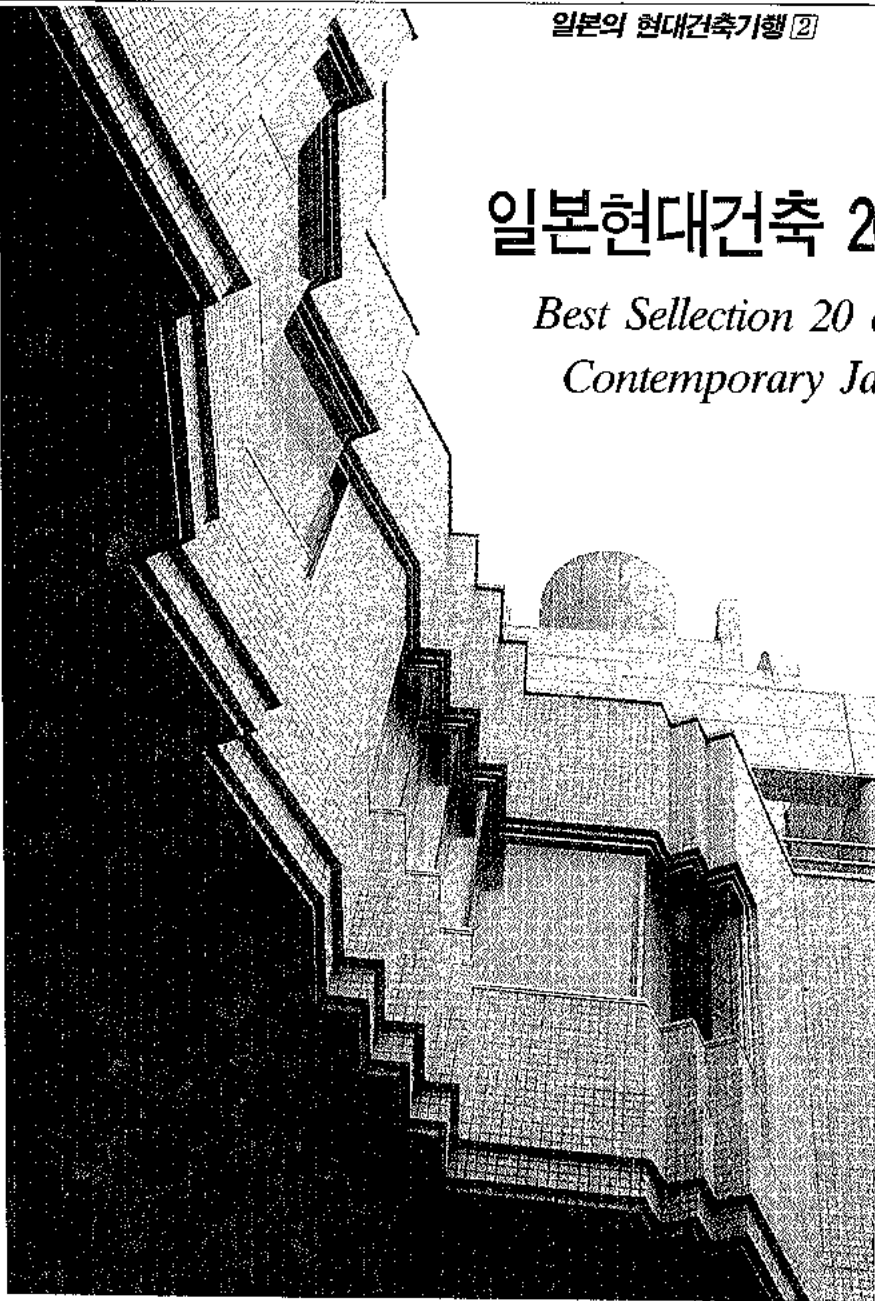
부정형의 평면으로 만들어졌다. 남에는 八達門, 북에는 長安門, 서쪽에 華西門, 동쪽에 蒼龍門 등의 4대문과 4개소의 암문, 西將臺와 東將臺, 궁심돈과 砲樓 5개소, 角樓 4개소, 치성 10개소, 돈대 2개소가 있다. 「華城城域儀軌」는 正祖20년에 이 성곽 공사의 시말을 자세히 기록한 중요한 자료라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註)

- 1) 世宗實錄 卷120, 世宗30年
- 2) 서울特別市, 서울六百年史, 1987, p. 383
- 3) 서울特別市, 서울의 전통문화, 1982, p. 295
- 4) 尹張燮, 韓國建築史, 1981, p. 206
- 5) 서울特別市, 서울六百年史, p. 412
- 6) 世宗實錄, 成宗實錄.
-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1권, 1974, p. 379

일본현대건축 20선(1945~1988)

Best Selection 20 of
Contemporary Japanese Architecture



“만약 일본에 어떠한 문화적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그와같은 일본의 역사에 때때로 일어났던 다른 문화수용의 형태에 있어서일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문명을 수용할 때 그것을 옹이하게 하고 있다. 일본문화의 다방면에 나타난 친구 혹은 내외요소가 서로 병존하는 중층성도, 이와같은 일본의 특이한 변환형태의 거듭되는 반복 속에서 점차로 조성되어 온 것일 것이다.”

오에 히로시(大江宏)

1. 일본건축의 현대화와 그 대표적 건축물들

일본건축의 현대화과정에 있어 메타볼리즘이 큰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건축가들 역시 수긍은 하고 있으나, 일본현대건축의 시작을 1960년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시각의 편차가 많다.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일본현대건축의 존재를 인지케 된 것이 메타볼리즘에 의해서이지만 일본인들의 입장은 다른 것이다.

“일본현대사”를 저술한 후지와라 아키라(藤原 彰)는 순수역사적 측면에서 “현대일본의 역사는 1945년의 패전에서 시작된다. 파시즘의 붕괴와 158년 동안의 전쟁의 패배가 현대사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현대사를

I. 제1기(1945~52) :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의 발효까지로 미국 점령하의 국가주권 상실기,

II. 제2기(1952~60) : 1960년의 개정안보조약 발효에 이르는 미일안보체제시기,

III. 제3기(1960이후) : 1960년 개정안보조약 발효 이후의 새로운 안보체제시기로 미·일군사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물론 후지와라 아키라의 구분은 건축적 측면보다는 정치사회적 측면에 치중한 것이지만, 무라마쓰(村松 貞次郎)등은 건축적 측면에서도 1945년이 일본현대건축의 시발점이란 점에 동의하고 있다.

일본의 건축잡지 “건축문화”가 1988년 6월호 창간 500호 기념특집에서 “폐허에서 포스트모던까지와 40여년”이란 제목아래 1945년에서 1988년까지에 세워진 건축물 중 수작 20선을 정한 것은 1945년說을 뒷받침하는 기획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 기획에는 45년의 패전 반년후에 창간되었다는 “건축문화”지의 발자취와 관련된 포석도 있겠지만...

필자가 일본현대사에 대한 분류보다 더 흥미를 가졌던 사실은 과연 일본인들이 현대화과정에서 대표작이라고 내세우는 건축물들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대표작들을 방문해보고 필자 자신의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대표작들의 면모를 연도순으로 열거해보면 1)리더스다이제스트 토오쿄오지사(레이몬드 건축설계사무소 : 1951), 2)카나가와현립 카마쿠라근대미술관(사카쿠라 준조 건축연구소 : 1951), 3)히로시마평화회관 원폭기념진열관(단게 겐조 등 : 1952), 4)세계평화기념성당(무라노 도고



- ① 야마토 인터내셔널 중정측 외벽디테일
- ② 히로시마 원폭기념진열관과 국제회의장
- ③ 공원 안쪽에서 바라본 중앙의 진열관과 좌측의 국제회의장
- ④ 국제회의장측에서 바라본 진열관
- ⑤ 기존 진열관과 형태적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회의장 전경
- ⑥ 선문기둥
- ⑦ 목조다테일이 석재로 치환된 형태구성을 보이는 회의장 입구부분
- ⑧ 배치 및 국제회의실 도면

등 : 1953), 5)스카이하우스(기쿠다께 기요노리 등 : 1958), 6)토오쿄오 문화회관(마에가와 구니오 건축설계사무소 : 1961), 7)가루이자와의 산장(요시무라 준조 : 1962), 8)올림픽 수영장 (단계 겐조 : 1964), 9)대학 세미나하우스(요시자끼 다카마사+U 연구실 : 1965~78), 10)국립 도쿄도 국제회관(오다나 사찌오 : 1966), 11)파레스사이드빌딩(니켄 세계이 설계공무 : 1966), 12)신화은행 본점(시라이 세이이찌 연구소 : 1967), 13)프렌드학원(오에 히로시 : 1968), 14)다이칸산 집합주거(마끼 총합계획사무소 : 1969~77), 15)반주기(反住器/모즈나 몬파 : 1972), 16)겐양(幻庵/이시야마 오사무+담난공간공작소 : 1975), 17)나고시청사(Team Zoo : 1981), 18)쓰꾸비 센터빌딩(이소자끼 아라타 : 1983), 19)야마토 인터내셔널(하라 히로시+아트리에 파이 건축연구소 : 1986), 20)토오쿄오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시노하라 가즈오 : 1987)순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 대표작의 목록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프라하 공대졸업후, 어거스트 페레에네 사사 한다음 미국으로 건너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조수로 제국호텔 건설을 위해 일본에 왔다가 그후 계속 일본에서 건축활동을 하였던 외국인 안토닌 레이몬드(Antonin

Raymond: 1888~1976)가 설계한 리더스다이제스트 토오쿄오 지사가 거론되었다는 점과 일본현대건축계의 대부분 단계 겐조가 설계한 건축물이 2개나

랭크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안토닌 레이몬드의 일본건축 현대화 과정에서의 역할과 함께 단계 겐조의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도 이 목록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20개의 건축물중 단계 겐조의 히로시마평화회관 원폭기념진열관, 역시 히로시마에 있는 무라노 도고(村野 藤吾) 등의 세계평화기념성당, 마에가와 구니오(前川 國男)설계의 토오쿄오 문화회관, 오에 히로시 설계의 프렌드학원, 하라 히로시(原 宏司)설계의 야마토 인터내셔널, 시노하라 가즈오(篠原 一男)설계의 토오쿄오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을 방문하였으며 그중 히로시마평화회관 원폭기념진열관과 80년대 작인 야마토 인터내셔널 및 토오쿄오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에 관해서 거론하고자 한다.

특히 50년대 건축물인 히로시마평화회관 원폭기념진열관을 거론하는 것은 이 건축물이 르 꼬르뷔제의 형태언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작품이며, 또한 최근 이 기념진열관에 인접해 단계 겐조가 국제회의장(1986~89)을 연결해 개축했기 때문에 단계의 형태언어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리라는 측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 히로시마 원폭기념진열관과 국제회의장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보면 누구나 과연이 도시가 1945년 원폭의 피해를 입은 도시였나하고 의구심을 가질 만큼 도심 시이를 강이 흐르는 조용한 도시이다.

원폭기념진열관이 위치한 평화기념공원은 도심사이를 흐르는 오타강의 지류인 혼카와(本川)와 모토야스(元安川)사이의 섬 북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

평화기념공원에는 평화기념관, 원폭희생자 추모비, 시민공연장이 있고 최근 진열관 좌측에 있던 기념 강당을 개축한 국제회의장이 새롭게 들어서 있다.

히로시마에는 이 원폭기념진열관외에도 원폭 폭발을 경험했던 후고 라살레(Hugo Lassalle)가 창립한 세계평화기념성당 같이 같은 맥락에서 세워진 건축물이 있고, 이외에도 유명한 건축물로 단계의 또 하나의 건축물인 후생연금회관과 구로가와와 히로시마 현대미술관 등이 있어 도시가 건축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하면 피로티로 이루어진 진열관이 공원광장의 문같은 역할을 하며 서있고 이 진열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기념관이, 우측에 국제회의장이 자리잡고 있다.

이 진열관은 강 건너 위치한 과거 산업·상업회의소의 원폭잔해인 히로시마 원폭탑과 축을 일치시켜 서있음을 알수 있어, 과거의 잔영과 진열관 축을 일치시킴으로 과거를 상기하며 평화를 기원한다는 건축적 의도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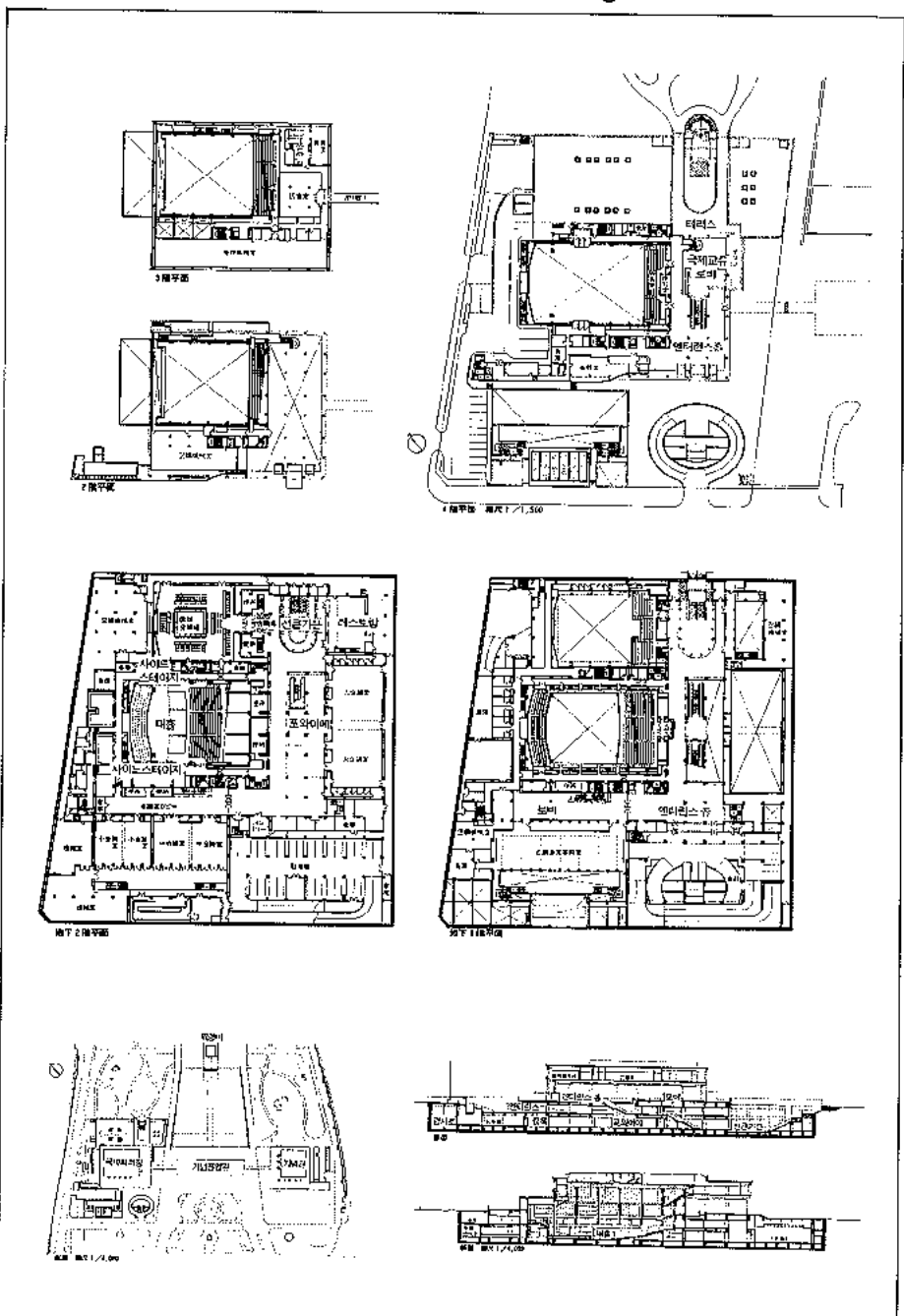
원폭기념진열관의 피로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건축물은 르 꼬르뷔제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나, 단계 자신은 기념비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세신궁(伊勢神宮)이나 정창원(正倉院)의 형태 모티브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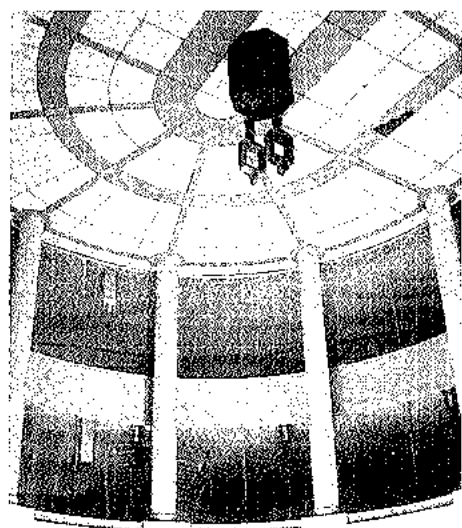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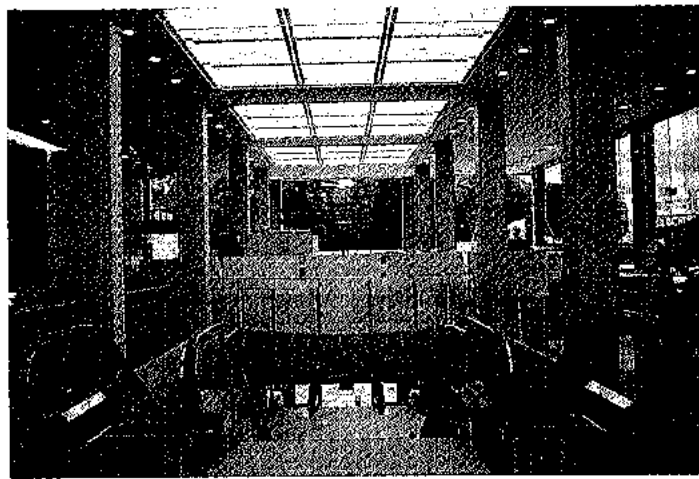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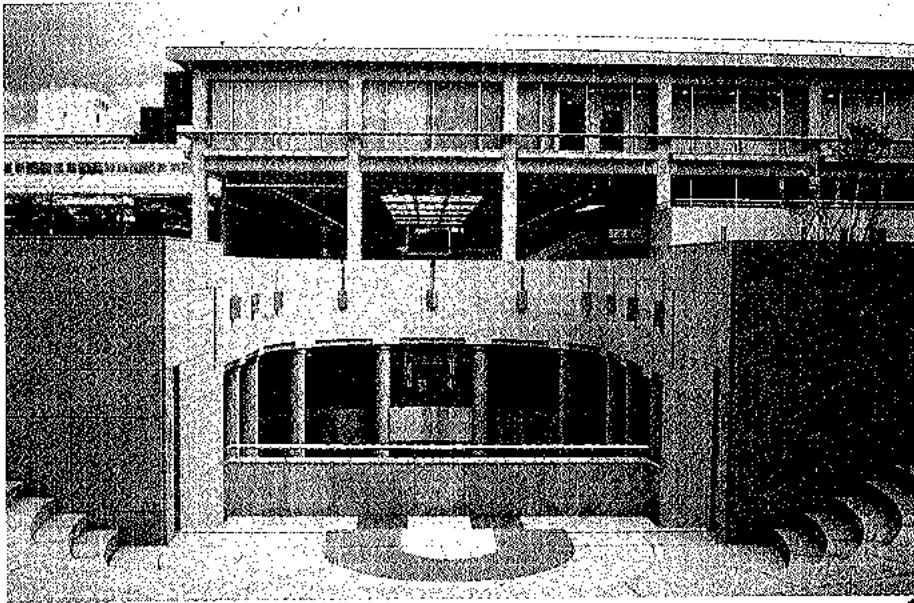
7



5



6



- ① 후면의 선근가든이 보이는 국제회의장
- ② 피로티르 구성된 원목기념진열관
- ③ 지하회의장겸 음악홀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부분 실내
- ④ 피로티와 계단부분

주장하고 있다. 이 진열관과 우측 기념관도 노출 콘크리트의 외부마감을 석재로 마감시키는 등 개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새롭게 변신한 국제회의장은 잔향가변장치를 갖춘 1,500인 수용의 음악홀 겸 회의장 등 채광이 필요치 않은 시설을 대부분 지하에 배치하고 있으며, 건축물 높이에 있어 기존 진열관과의 상징적 위계를 고려한 조치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로비 현관홀 회의운영사무국 등은 3개소의 선근가든과 인접시켜 지상과 같은 감을 주도록 고려하고 있다.

국제회의장의 건축적 구성은 기존 진열관과의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세련된 디테일과 선근가든같은 공간적 장치에 의해 단계의 건축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으나, 거칠은 노출콘크리트 마감의 건축물을 석재마감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히로시마의 악몽을 탈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저 멀리 보이는 원목탑의 동부분의 노출된 골조가 석양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서있었으며 위령비 아래에는 평화를 기원하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3. 아마토 인터내셔널

하라 히로시가 설계한 아마토 인터내셔널은 토오쿄오 남쪽의 평화의 숲(平和の森)공원이 마주 보이는 고가 고속도로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고가 고속도로의 보행자통로에서 이 의류판매회사의 사육을 바라보는 순간, 거대한 스케일과 건축형태언어의 다양함에 압도되어 버렸다. 이 건축물의 형태에서 받은 인상은 인접한 고가 고속도로의 구성이 이 건축물의 저층 형태의 골격이 되고 있다는 점과 상층에서는 이 거대한 스케일을 위압감이 없는 스케일로 분절시키기 위하여 언덕에 위치한 달동네 주택들의 지붕들이 겹쳐보이는 듯한 형태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라 히로시는 이 건축물의 입지적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평화의 숲측으로는 건축물의 시야를 개방하고 반대로 후면의 도로측은 거의 폐쇄된 벽으로 구성, 철저히 입지적 특성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형태의 기본골격도 고가도로에서 유추하는 동시에 고가도로측으로는 주랑으로 둘러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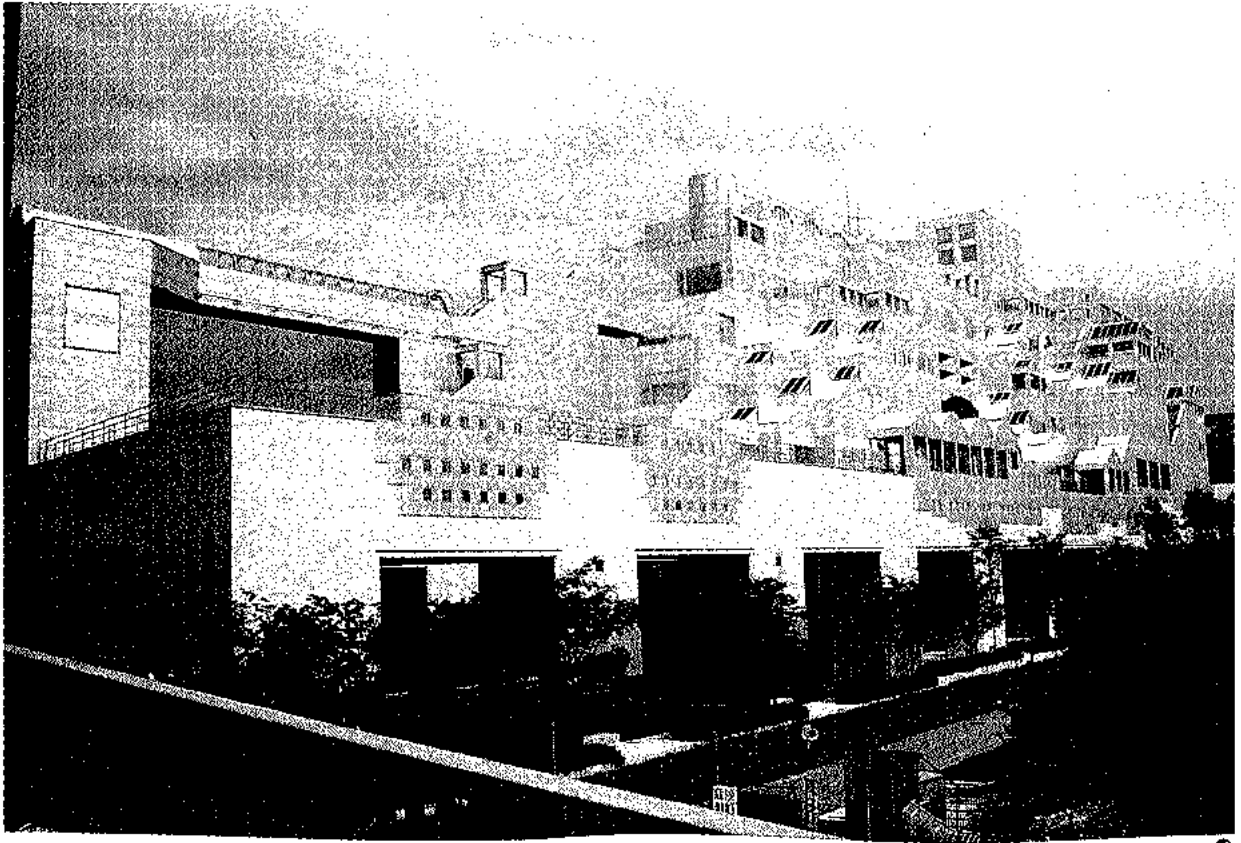
중정을 설치해 고가도로에서의 소음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 고가도로라는 형태이미지를 중정이 있는 방향으로 고가 피난용 다리를 설치해 더욱 강조하고 있었다.

하라 히로시는 사무기능과 물품유통기능을 수행하는 의류회사인 아마토 인터내셔널의 설계에 있어 여러가지 원칙에 의해 진행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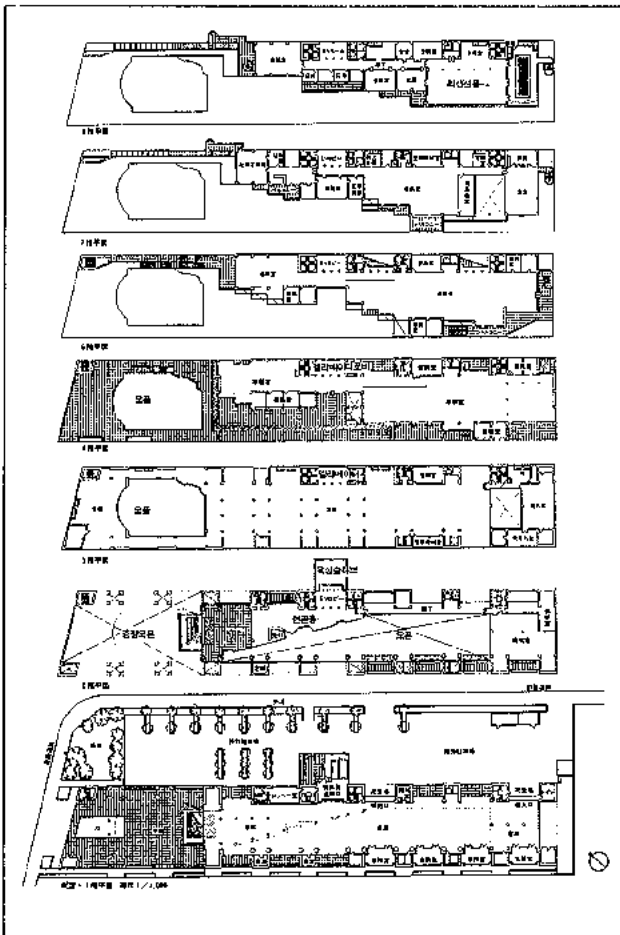
1) 기본적인 2중구조-기단/자유로운 가구체(架構體) : 기단=3층까지의 넓은 공간=물품유통기능과 상부의 자유로운 가구체=8층까지의 사무기능이라는 기본적인 2중구조 즉 기단은 인공지반으로 평행으로 배치된 2열의 코어에 의해 지지되는 3층까지의 창고공간이 상부의 자유로운 평면에 대응하는 구조체를 지지하는 골조가 된다.

2) 기단 : 부지 주변의 저해요소인 교통소음과 경관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사무공간은 상층에 설치하고 고가고속도로측으로 중정을 설치, 격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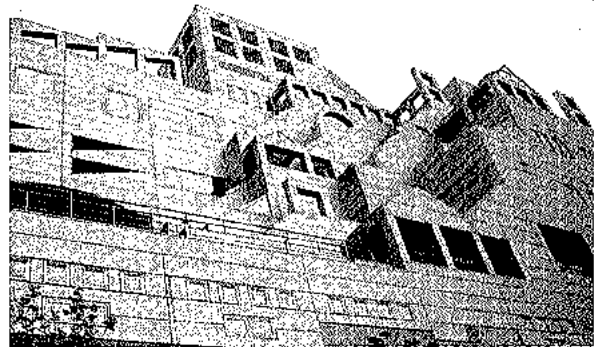
3) (기단 단부의) 전정 : 건축물이 평화의 숲 공원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 공원과 연속한



12



13



14



15

◎ 아미토 인터내셔널

12 고가고속도로에서 본 아미토 인터내셔널 전경.

고가고속도로의 형태이미지로 저층부가 구성되어 있다.

13 공원측 입면디테일

14 평화의 숲 공원측에서의 입면구성

15 각층 평면도

형의 전정을 설치,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4)기단면(4층) : 4층이 지면인 것처럼 계획하여 테라스를 설치한다.

5)자유로운 기구체와 파사드의 표면 : 3층 창고공간에 걸친 보에 상부에서는 임의의 위치에 기둥을 설치, 2열의 코어로 지지하는 구조계획을 채용하여 4~8층까지 자유로운 평면을 추구한다. 외벽마감은 알루미늄패널을 채용, 주변환경을 명확히 하고 일조상태의 미묘한 변화를 반사시키며 도로측 파사드는 “절단된 건축의 이미지”로 만든다.

6)공원측 파사드와 평면형 : 엘리베이터와 설비덕트를 공원측의 반대방향에 배치, 각층의 자유로운 평면구성과 공원측 파사드의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하게 한다. 공원측 파사드의 기본이미지인 “운모같은 건축”과 “건물안의 거리”에 의해 변화 풍부한 입면을 만들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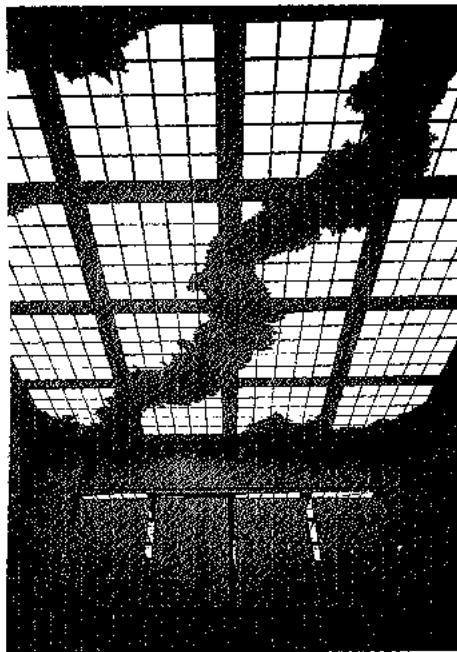
이외에 장식과 모양에서 “그룹의 형태”장식에 의한 무한한 변형가능성의 추구, 실내에서의 부분적 중첩, 파사드면을 결정하는 천창의 실내효과와 오픈이라는 재원칙들에 의해 이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을 조정하므로써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된 이 복합기능을 가진 건축물을 잘 요리하고 있다.

야마토 인터내셔널은 마치 컴퓨터에 의해 계속 무늬가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비류처럼 다원적 이미지를 표출하는 형태장치이고 다양한 공간을 체험케하는 공간장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라가 주장 했던“유공제”, “부유”,



16



17

“반사”, “다층구조”의 개념이 종합되어 완성된 것이 이 야마토 인터내셔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근대건축의 균질성에서 탈피하여 혼성적 상태로 진행되는 현대건축의 현상을 잘 표출하는 건축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거대한 130 m의 길이를 지닌 동경만에 인접해 정박한듯한 선박형 건축물이 과연 순조롭게 항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장인 하라 히로시의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 선박을 자유 자재로 조정했던 그의 능력에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21세기를 향해 항진하는 야마토 인터내셔널호를 보면서 일본현대건축의 미래는 분명히 비관적이지 아니하는 생각이 들었다.

4. 토오코오 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 시노하라 기즈오(篠原 一男 : 1925~)

일본현대건축에 있어 문외한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않은 건축가이지만, 이 건축가는 시노하라파를 형성하고 있는 일본건축계에서 상당한 비중의 인물이다.

일본현대건축계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여류 건축가 하세가와 이즈코(長谷川 逸子)를 비롯한 사카모토 잇세이(坂本 一成), 이토 토요오(伊東 豊雄)등이 바로 그의 영향을 받은 시노하라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벌써 그의 중요성을 짐작하게 되나, 그의 영향력에 비해 지명도가 낮은 것은 이제까지 주로 특이한 주택건축만을 디자인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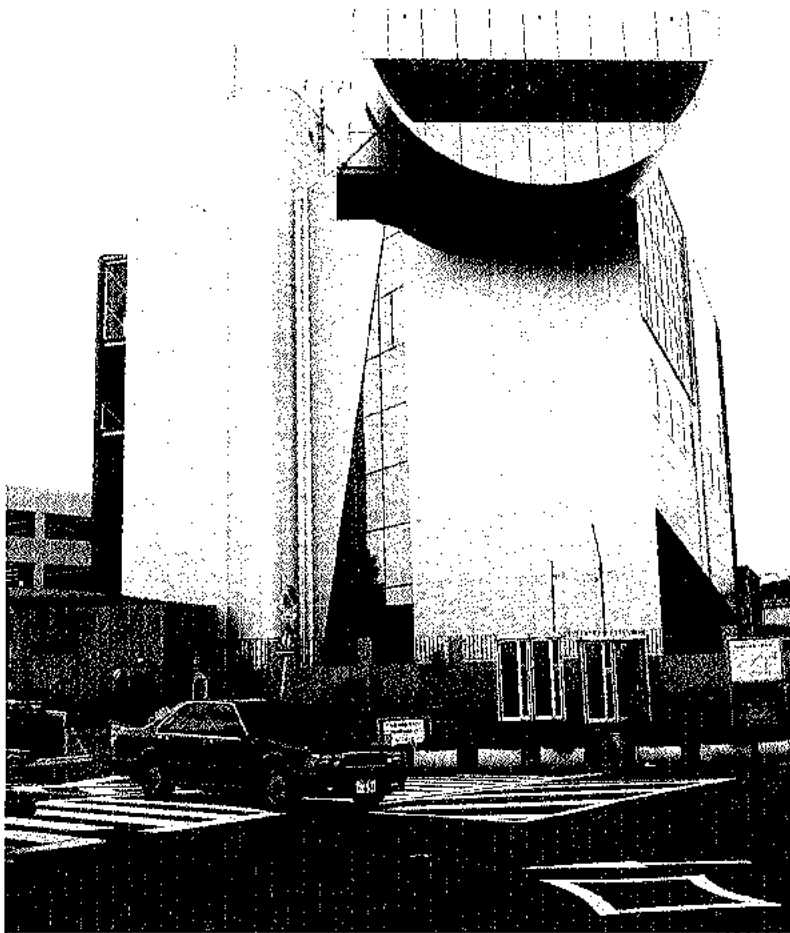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 그가 졸업하고 또한 교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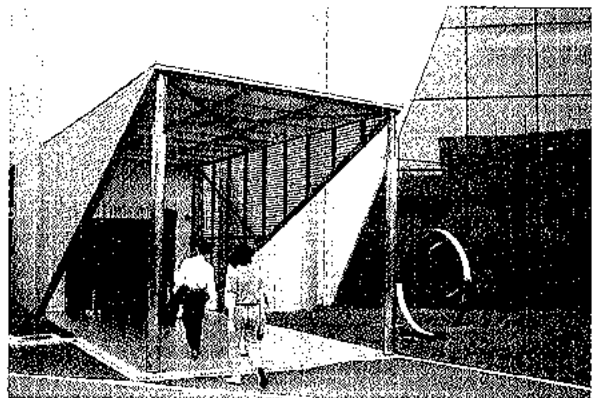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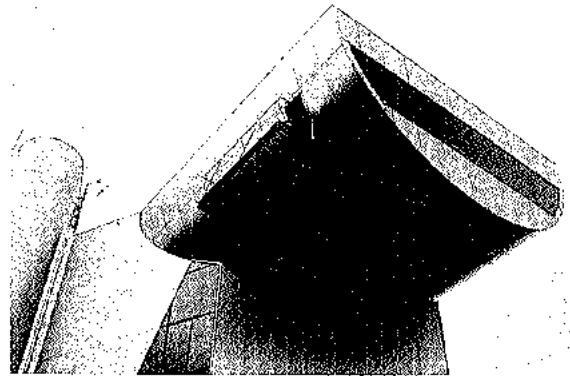
18



19



- ⑬ 공원과 연속성을 고려한 전정
- ⑭ 6층 사무실天井상세
- ⑮ 소음차단의 역할도 하는 중정. 중앙에 연못이 설치되어 있다.
- ⑯ 공원 반대측의 피난용 고가다리가 인상적인 입면



재직중인 토오쿄오 공업대학이 백주년기념관의 설계를 의뢰하면서 그가 일반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토오쿄오 메쿠로(目黒)구의 전철이 지나가는 약간은 소란스러운 거리를 따라가다 보면, 반원통의 구조체가 공중에 돌출한 충격적인 건축물과 조우하게 된다.

이 형태적 특징에서 러시아 구성주의 건축가 엘 리스츠키(El Lissitzky: 1890~1940)와 마르트 스타(Mart Stam : 1899~)에 의한 “공중도시 계획안(1924~5)”에서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이 건축물은 1층 및 지하층이 기술박물관으로 전시와 수장, 2층은 정보 교환의 장으로 몇개의 회의실군으로, 3층은 대회의실과 라운지, 4층은 레스토랑과 바의 기능을 갖춘 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이다.

이 건축물에서 시노하라의 “부유하는 기계”라는 이미지와 “랜덤 노이즈(Random Nois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불협화음적인 도시공간에서 불협화음을 의도적으로 발신하는 부유공간기계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불협화음을 고의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 있어 마가가 설계한 스파이럴(1982~83)과도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오히려 더 과격한 것이 시노하라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반원통의 레스토랑 부분이 하라의 선박형 건축물과는 또다른 우주스테이션을 연상시키는 이 구성주의의 계보를 가진 하이테크적 건축물은 현대도시에 있어 충격요법과 같은 치료제이다.

그것은 마치 마약처럼 순간적인 형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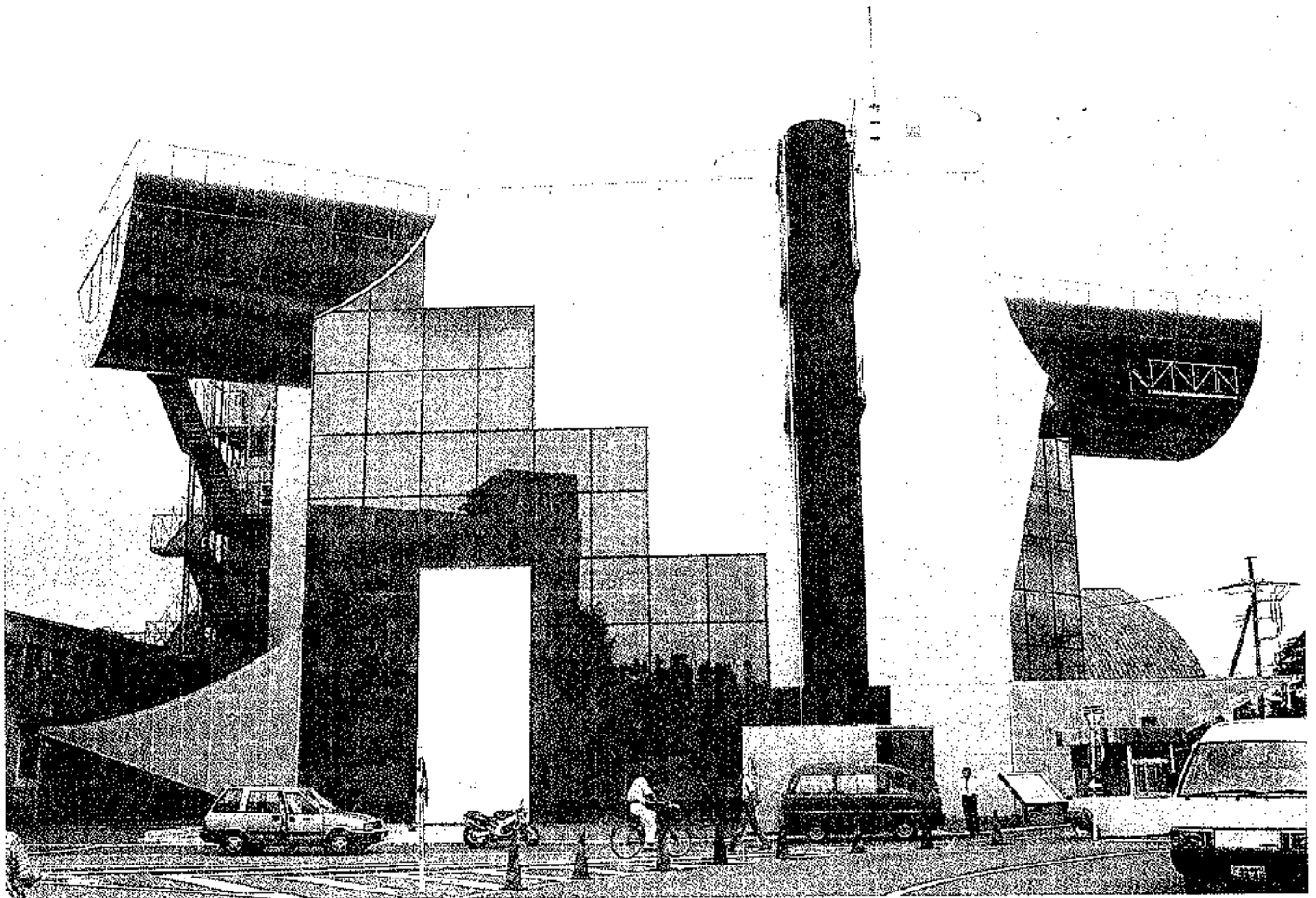
쾌락을 보장하지만, 과도하면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념관의 주출입구로 접근하면, 입구를 나타내는 편칭메탈로 마감된 뿔처럼 돌출된 구조를 통해 1층홀로 들어가게 된다. 편칭메탈이라는 구멍이 나있는 알루미늄판은 시노하라파가 즐겨 사용하는 재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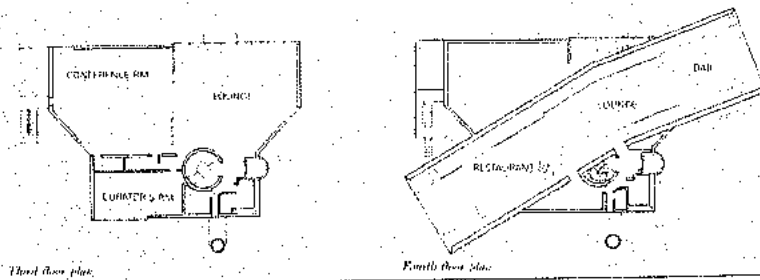
1층 전시공간은 천정부분에 덕트와 점검용 브릿지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커튼월로 구성된 외벽의 일부가 공업대학이라는 특성상 전시품이 커다란 기계일 경우를 고려하여 개폐가 가능하게 되어있고, 천정부에는 설치되어 있었다.

전시품들을 운반할 크레인

또한 로비 일부에는 원형의 주방으로 이루어진 휴게코너가 설치되어 있고 전시공간에서는 공업대학의 역사를 빼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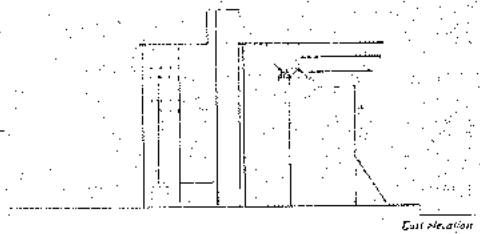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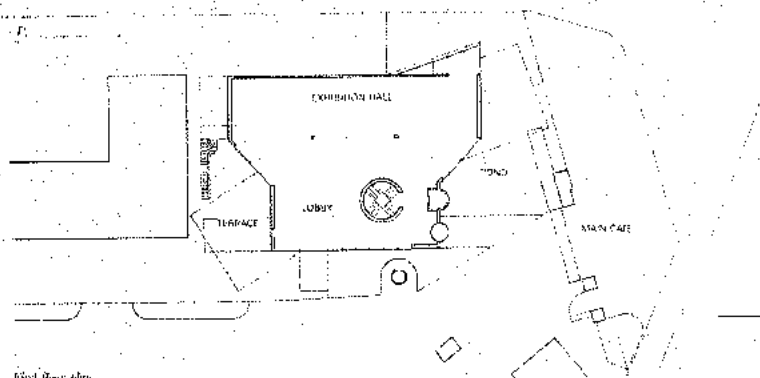


Thir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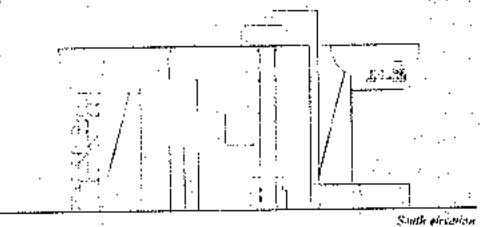
Fourth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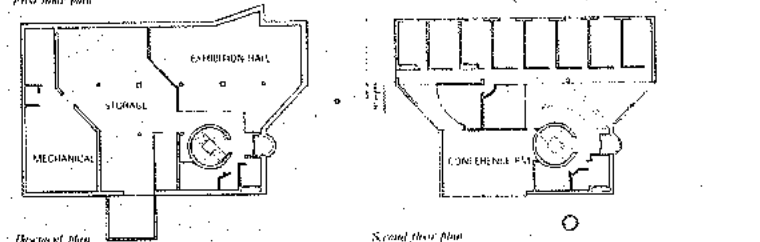
East elevation



First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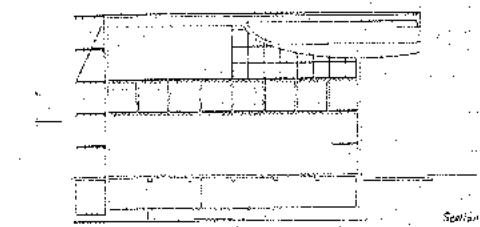


South elevation



Basement plan

Second floor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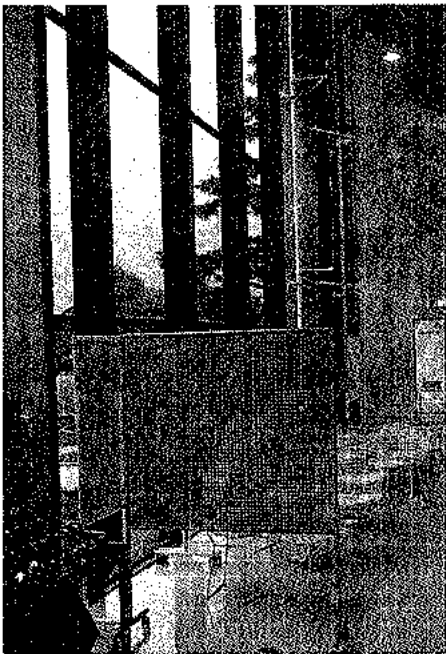


Section

21



25



26

전시하고 있었다. 벽체가 콘크리트 웅벽으로 구성된 관계로 벽면에 전시품을 매달수 있게 고안된 볼트가 매입되어 있었다.

또한 외부에서 보면 좌측에 검은 색으로 마감된 샤프트가 보이는데 이것은 상층으로 물건을 수송하는 덤웨어이다.

실내공간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는 반원통으로 구성된 레스토랑과 하부의 대회의실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벽체가 곡선으로 비스듬히 서있는 이 레스토랑 공간은 일반적인 수직수평에 의한 직교체계적 공간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① 토우요공업대학 백주년기념관

② 입구쪽에서 바라본 기념관

③ 돌출된 레스토랑부분.

공중도시계획안에의 오마주이다.

④ 핀칭테일로 외부면이 마감된 주출입구

⑤ 반원통의 레스토랑이 돌출된 기념관

우측 하부의 백색면이 전시품 반입용 개폐장치

⑥ 평면 및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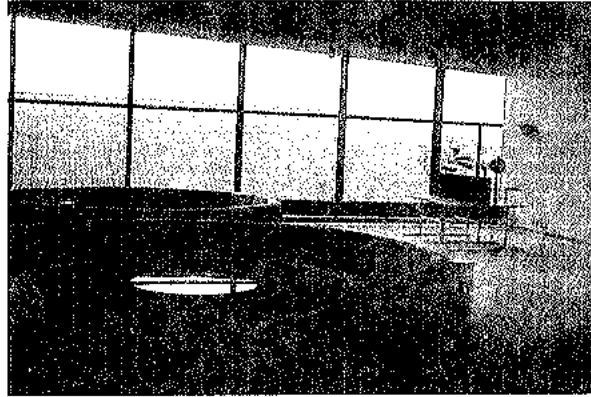
⑦ 설비 및 덕트등이 노출된 1층 로비부분
천정에 점검용 다리가 설치되어 있다.

⑧ 커튼월부분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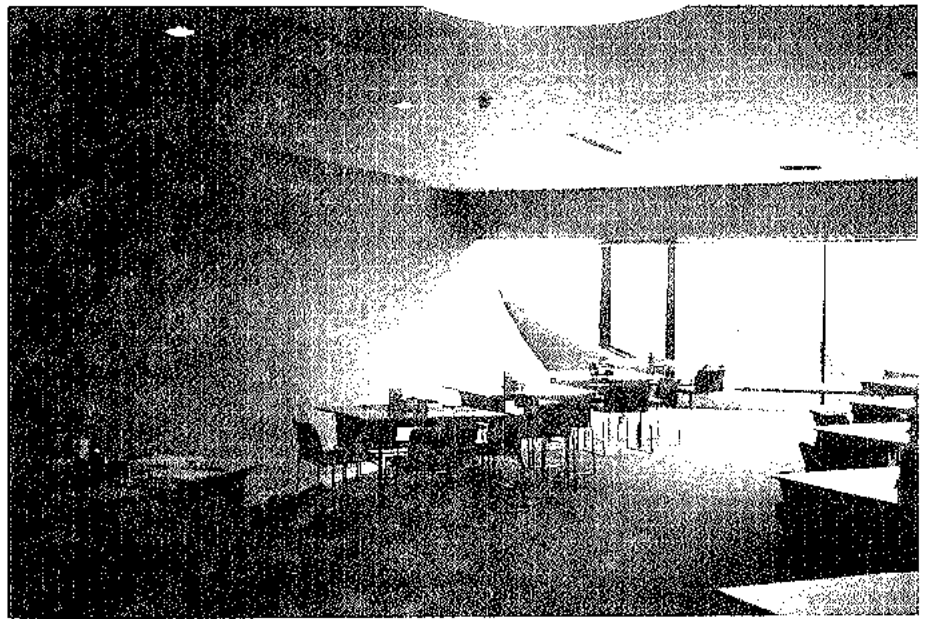
⑨ 3층 대회의실 로비

천정이 원형으로 마감되어 있다.

⑩ 레스토랑 내부에서의 조망



27



28

충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반원형장을 통하여 기존 공업대학의 꼬르뫼제풍의 건물을 내려다 보면, 마치 우주선에서 지상을 내려다 보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우주선의 터널속에 자리잡은

공간...대회의실의 천정부분은 원형으로 구성되어 또 다른 느낌을 부여한다.

기술박물관을 주제로 한 기념관의 상징성을 시노하라의 외부가 스텔레스 스틸과 알루미늄판이라는 금속성의 우주선으로 가정한 것일까?

확실히 공간과 형태에 있어 다이내믹한 이 기념관의 구성은 1945~88년에 걸친 대표작중 마지막 리스트에 랭크되게 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독립된 기능과 직접적으로 대응한 독립된 공간단위가 즉물적으로 결합될 때 그 복합물의 발생하는 상태 또는 활성이 나의 최근 중심 주제이다.”라고 피력하는 시노하라의 최근작을 또 기대하면서 공업대학 기념관을 떠났다.

複合用途 建築物의 發展傾向(Ⅳ)

—韓國의 發展內容과 장래 方向—

Planning Tendencies of Mixed Use Complex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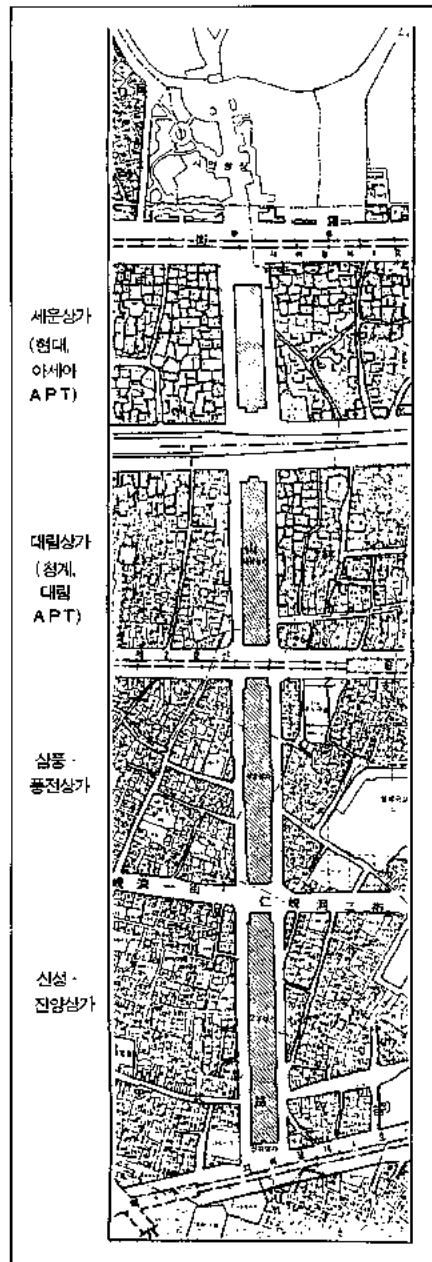
1. 머릿말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복합용도 건축물의 발전전략에 관해 검토해 본 지난 3회의 연재원고에서 우리들은 복합용도 건축물의 건립배경, 서구에 있어서의 계획내용과 변화추세 등을 알 수 있었다.

본 원고는 복합용도 Complex의 발전경향에 대한 네번째 차례로서 앞서 살펴본 미국과 서유럽지역(독일)의 발전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던 국내의 상황을 비교검토해 보기로 한다. 예전대 복합용도 Complex 부류인 60년대 후반부의 일부 상가아파트 건설에서 시작하여 70년대 말의 복합용도 재개발계획안, 80년대 중반의 메가스트럭처(megastructure)형의 Complex에 이르기까지 계획개념, 건설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살펴보고 이들을 서구의 발전 경향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 한다. 이 경우 서구의 계획패턴과 발전 내용이 최적의 발전대안이라고는 볼 수 없겠으나, 적어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반적인 경향, 당해 프로젝트 건설시기와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의 요구 항목들을 동시에 검토해 봄으로써 각 시기별 요구도의 변화와 실제 계획내용을 파악 코저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복합용도 건축물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와 보편적인 계획경향을 이해하고 우리의 지향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이 본 원고의 의의(意義)라 할 수 있다.

2. 초기(60~70년대초) : 다발형 complex와 상가아파트

1. 상가아파트의 건설과 계획상의 문제점
상가아파트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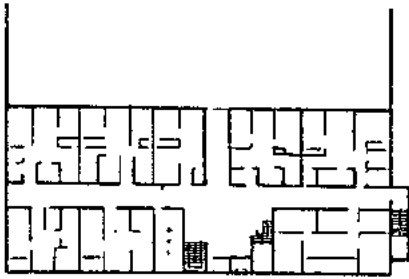


吳德成/충남대 건축과 부교수
by Oh, Deag-Seong

복합용도건축물의 출현은 같은 건물내에 주거용 아파트와 상가를 입체적으로 중첩시키는 유형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상가아파트는 시장부근이나 도시간선도로 주변에 입지하였고 기능배분은 상업기능이 중심이 되고 주거, 업무기능 등은 보조기능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표1참조)

완전한 의미의 복합용도 Complex로서 주거, 상업, 업무등 3개이상의 기능을 수용하는 프로젝트로는 60년대 말에 건설이 시작된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건물의 명칭은 같은 상가아파트였지만 당해 프로젝트내에 수용되는 기능유형이 「주거+근린상가」의 성격과는 다른 「주거+전문소매·도매상가+업무+기타(Hotel, 극장등)」를 포함하여 구조물내에서 24시간의 모든 생활행위가 가능한 이른바 유니터리 복합구조(Unitary mixed-use structure)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건설후 Complex 내 기능배치 상황은 계획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는데, 대표적인 실례로서 주거와 상업기능의 연계성을 살펴보면 건물내에 배치된 상업기능은 서울시 전역 혹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전문도매나 특수상품이었기 때문에 상부의 주거공간과 하층부의 상업공간과는 거의 연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성격상 이질적인 용도기능을 한 건물내에 묶은 것만으로도 본 상가아파트의 건설 의의를 찾을 수도 있었으나 사용자의 모든 일상 생활이 구조물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유니터리 복합구조(일종의 도시내의 독립적인 소도시 개념임)의 계획내용은 아닌 것이다.

이 모습은 1960년대 초 시행되었던 Chicago의 Marina City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도심내 양질주거와 근린상업시설, 문화 및 스포츠 그리고 부분적인 업무시설의 연계화를 통해 도심의 활성화와 거주민의



도시적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유니타리 복합구조의 성공사례와는 다소 거리가 먼 접근방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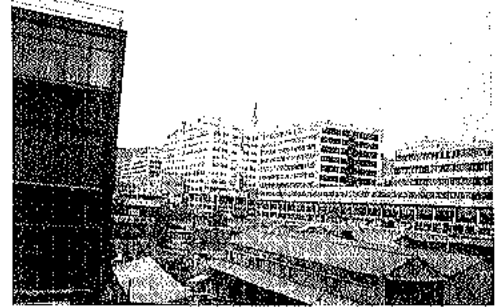
1960년대 말에 서울시의 사대문안인 종로4가에서 퇴계로를 잇는 지역에 다발형 Complex로 개발된 세운상가 아파트(그림1 총규모 153,000㎡)는 위에서 지적한 초기의 복합용도 Complex 계획 모습과 문제점을 시사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Complex는 그 건설시기가 마라니시티(marina city) 등의 미국 사례보다 늦으나 이메센터(Ihmezentrum, 하노버시)로 대표되는 서유럽의 복합용도 재개발 프로젝트와는 비슷한 시기에 계획되었다. 전체 Complex는 건설주체에 따라 세운, 대림, 삼풍·풍전상가, 신성·진양상가 아파트의 4개단위로 건설되었으며 각 단위건물의 3층 부분에는 보행용교각(Pedestrian Deck)을 설치하여 상호간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본 Complex가 시작된 60년대말의 우리입장은 복합용도 Complex의 경험축적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축물 설계에 임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적인 접근이 결여된 듯한 느낌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 원인중에는 초기계획과 건설과정의 성격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도시계획가인 Witherspoon에 의하면 대규모 Complex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수용기능의 다양성, 장기간의 건설시기, 여러 이해집단간의 충돌등으로 인하여 초기 단계의 계획안이 건설과정중에서 수정되는 수가 많으므로 단일건축물의 계획보다는 훨씬 복잡한 도시계획상의 현황분석과 계획제제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당해 지역성격의 토지이용상황, 이용자 계층의 다양한 요구등을 무리없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masterplan)상에 「총체적인 계획방향의 제시, 기본계획,



그림 1. 세운상가 아파트(1967~70)

- ① 배치도
- ② 주거층 일부(현대)
- ③ 종로측 현대아파트 전면
- ④ Pedstrian deck 상부 주거동



(표1) 70년대초 상가아파트 건설현황

건립 년도	위치	아파트 명칭	수용기능	층수	아파트 단위 세대건평	동수	아파트 세㎡	연건평	설비 및 기타 공용시설 구비
'67	종로구	낙원	주거·상업· 업무·극장	6~15	21~51	1	150	4,000	중앙난방, 공용놀이터(300평)
		현대		5~13	18.2~25.2	1	79	2,160	중앙난방, 놀이터(5층 250평)
		아세아	세운상가:주 거·상업·업 무·Hotel	5~8	12~18.4	1	100	2,538	중앙난방, 놀이터(현대의 공동사용)
		대림		5~12	17.2~21.5	1	138	4,072	중앙난방
'68	중구	정제		5~8	21~27.23	1	64	1,972	중앙난방
		신성		5~8	20~32	1	183	397	중앙난방
		삼풍		6~16	19.9~43	1			중앙난방
		진양		6~10	28.68~43.01	2	282	10,273	온수, 중앙난방놀이터(7층), 주차장(3층)
'69 '70	동대문 성동 성북 서대문 은평 용산 마포	대왕		5	26~54	1	21	867	온수, 중앙난방, 놀이터(7층), 주차장
		동대문		4	7.98~22.94	4	221	3,123	온수, 난방
		홍인		4~5	16~33.5	1	32	1,560	중앙난방
		북각	주거	2~3	8.5~25	3	86	1,421	
		삼선	+상업	3	14.6~15.6	1	38	576	
		뉴스타	업무	2~5	27~54	1	158	5,722	온수난방
		원열		3~6	18.92~24	1	40	890	온수난방
		서소문		2~7	12.7~18.3	1	120	1,700	온수난방
		유전		3~5	18~67	2	185		온수난방, 놀이터(200평)
		삼각지		1~5	9.8~21.4	1	94	1,492	온수난방, 놀이터(주차장)
		남아현		3~6	18.69~25.2	1	78	1,752	온수난방, 옥상정원, 놀이터

실시계획 및 건설, 입주 및 관리대책, 차후의 도시내 적응성강구」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때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시 최소한으로 검토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주요한 계획내용을 관찰시키고 masterplan 상의 기본방향을 유지키 위해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 메카니즘(mechanism)이 서 있어야 한다.

둘째, 계획 및 시행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집단이 참여 하기 때문에 이해집단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렴할 경우 Complex 전체 성격이 모호해진다. 따라서 계획수립과 건설, 임대까지를 책임지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며 본조직은 요구도의 조정, 이해집단의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Complex 계획, 행정, 재정 등 모든 책임을 맡도록 해야 한다.

세째, 대규모 Complex가 지녀야 할 도시적인 공익성을 제공키 위해서는 개별건물에서는 조성키 어려운 도시광장, 중정 등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공간확보와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건축주의 선각자적인 의지, 건축가의 계획능력과 함께 시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위에서 지적한 대규모 Complex 건설과정상의 문제점들이 세운상가에서도 발생하였으며 초기의 기본설계안과 건설후의 결과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78년에 당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건축가들과의 면담('78본인의 석사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당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몇분의 건축가와 세운상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 내용을 소개하면 본래 보행용 교각(Pedestrian Deck)의 하층부 (1.2층 부분)에는 임대상가를 배치할 계획이 없었으며 주차장과 보행자 몰(mall) 등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단계에서 당해 지주들의 주장과 수익성을 감안한 시정부의 의견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양보의 결과 도시 공용공간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현재와 같이 상점가를 배열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유치업종의 수용대책과 상업기능 성격유지를

위한 도시계획적인 검토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인근의 토지이용 성격에 따라 전기제품도매등의 전문품들이 입주하여 일반소매품, 근린시설등 초기에 기대했던 도심형 쇼핑물 형성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더우기 시간이 경과하면서 초기에 입주했던 수익성이 낮은 일반소매품점들은 집적이익을 기대하며 물러드는 전문품 매장과 조립공장들에게 밀려나서 상기의 문제점은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건설집행과정상의 문제점으로는 전체계획부지를 몇개의 건설회사들이 나누어서 시공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Complex 유형의 복합건축물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계획원칙들이 흩어져 버린감이 있다. 예컨대 상호기능침해를 줄이기 위한 다발형 Complex의 기본전제인 「단위건물의 기본성격을 침해받지 않은 한도내에서 가급적 한 건물내에는 단일기능만을 수용하고 저층의 기반부(Base)로 묶어서 단위건물들을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상호연결시킨다.」고 하는 계획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각 단위건물을 마다 단순히 이질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고 각 기능간의 성격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거의 없는 듯하다. 실제로 종로변에 위치한 세운상가측 현대아파트의 경우 하층부(1~3층)에 의류, 전기제품상, 시계보석상이 입지해 있으며 중층(4~5층)에는 사무실, 6~13층은 주거용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용도간의 독립성보장을 위한 코어(Core)의 분리나 매개공간의 설치와 같은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와같은 건물내의 무리한 용도 중첩이 가져오는 문제점중 가시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은 도심부의 상업·업무기능의 주거기능 침해이며 이는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개념(도심내 거주인의 존속과 도심활성화)을 흐트러뜨리게 된다. 전술한 현대아파트의 경우 총거주세대 79가구중 사무소(대리점 포함)로 용도가 바뀌어 버린것이 83년에 10세대(12.6%)였으며 87년에 79세대중 26세대(32.9%)로 주거기능의 변질화 현상은 심각하다.

한편 이들 상가아파트의 주거적합성 문제는 도심내 복합용도 Complex 건설의 타당성을 의심케하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각종 소음과 공기오염, 주변지역의 더러움, 자녀교육여건의 불비등과 같은 환경적인 문제들과 함께 건축물 계획상의 소극적 처리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 중복도형 평면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복도폭이 대단히 좁고, 채광, 통풍에 대한 고려가 약하며 엘리베이터와 주출입구등이 기타 상업기능과 혼재되어 상층부 아파트의 주거성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심지어 초기에 계획되었던 일부의 공용공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격이 바뀌어 나아가게 되는데 실제로서 세운상가아파트에 조성되었던 대림상가, 풍전상가의 공용놀이터의 경우 풍전상가아파트가 호텔로 바뀌면서 그 성격이 모호해져 버렸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사용자의 불만을 주거층 세대주들을 대상으로한 만족도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87년 조사에 따르면 세운상가아파트 거주인 의식조사에서 조사대상의 63%가 이사를 계획하거나 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본 조사결과와는 상가아파트 문제점의 심각성을 시사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된다.

2. 초기 상가아파트 건설의 실패와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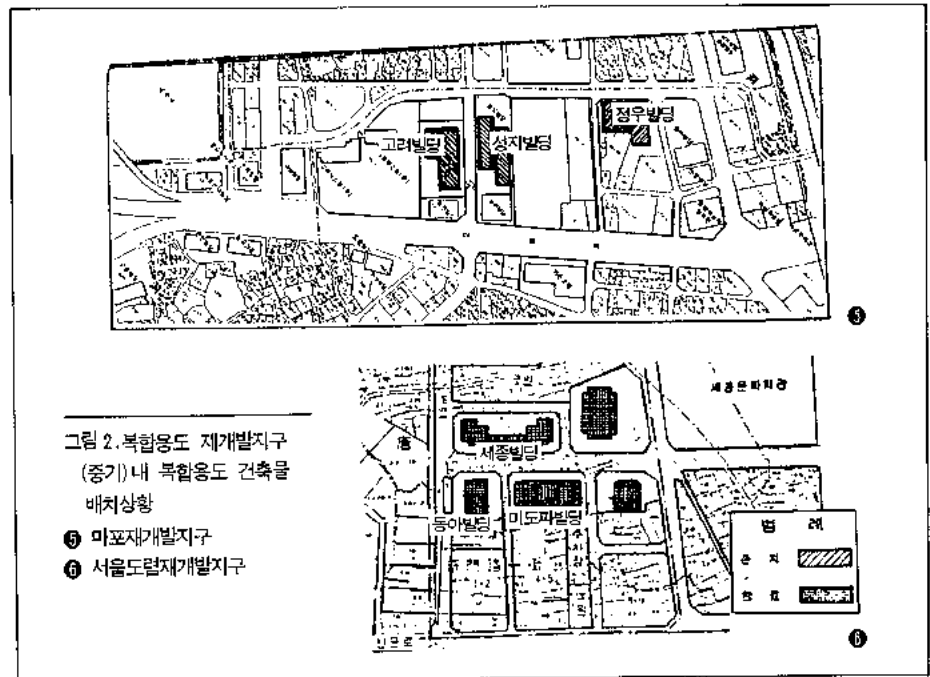
70년대초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으로 대변되는 재개발프로젝트로서의 복합용도 Complex 건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의 복잡한 문제점들이 얹혀져있다.

이에 따라 복합용도 Complex 자체의 건설타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으며 업컨테이션적으로 복합 Complex 부류로 지어진 대왕코너(청량리소재, 수용기능 : 호텔+상가+극장 및 기타 지원시설)는 두번씩이나 화재를 겪어 건물복합화에 대한 안전성까지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이들 Complex가 초기의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초기의 계획구상 단계에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간의 유리, 유지 및 관리체계, 입주방식 등을 감안치않은 채 단순히 건축물계획만으로 끝내었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실제건설이 끝난후 이질기능이 연결되어 버린다거나 오픈 스페이스들이 타용도로 전용되어버리는 등 실제적인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은

이미 기술한 바 있다. 다양한 이해집단에 따른 계획개념의 변질, 경제적인 이해만의 추구등은 최소한의 공익적인 의미를 지녀야할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에서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할 사항이나 도심지의 값비싼 땅위에 지어지는 Complex의 건설에서 뚜렷한 지원조치(incentive)가 없이 제한만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복합화와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계획가는 딜레마에 빠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초기의 복합용도

Complex (상가아파트)의 계획과 건설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은 우리건축가들이 반성해야 할 점이라 생각된다.

- 1) 새로운 복합용도 Complex가 임지할 지역의 기존성격 파악과 새로운 건물과 주변과의 연계성, 건설 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소홀했다.
- 2) 복합용도 Complex에 대한 계획상의 고려사항으로서 도시내의 적정입지, 건설과 임대대책등 Complex 계획저변에 깔린 도시계획적, 경제적인 경험의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물리적 시설계획만으로 대규모의 재개발프로젝트를 해결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 3) 건축가는 건축물의 배스와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서 건축물군의 외관형성과 과시적인 형태성 추구에 관심을 두는 만큼 재개발된 지역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요구수준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듯하다.
- 4) 이질기능의 연결에 따른 기능간의 충돌과 일부기능의 침해 등 도시기능의 입지경쟁과 경제성 추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 5) 재개발프로젝트의 주변파급효과를 단순히 신축지역에서 주위의 미개발지역으로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주변지역에서 역류해 들어오는 악영향과 Complex의 성격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하다.
- 6)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여러개의 건물들을 묶어 연계화시키는 과정에서 동선차리의 체계화와 함께 다수인의 사용자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실내외 환경의 조정이 필요하다.



(표2) 복합용도재개발(중기 70末~80初) 지구내 건축물 현황

지 구 명	건 물 명	연면적(㎡)	건물기능	주거세대
도림6·7지구	미도파빌딩	19,558	업무+주거	48세대아파트
도림 5 지구	동아생명빌딩	12,878	업무+주거	24세대 아파트
도림 6 지구	세종빌딩	24,587	업무+주거	72세대 아파트
마포지구	정우맨션빌딩	21,394	업무+주거	90세대 아파트
마포지구	성지빌딩	33,975	업무+판매+주거	84세대 아파트
마포지구	고려빌딩	21,444	업무+주거	63세대 아파트

資料 : 서울시 도시개발자료 발췌

3. 중기(70년대후반~80년대초)의 복합용도재개발

1. 도심재개발과 단위건물내의 용도복합

70년대 초반 상가아파트의 건설 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복합용도 건축물의 건설추세는 일단 주춤하였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와같이 퇴보의 추세를 걷고있던 복합용도 건축물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했던 70년대 말의 계획추세로서 초기의 다발형 Complex 건설의 경우처럼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에서 복합용도 건축물이 선택되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60년대 말의 세운상가, 낙원상가 등의 상가아파트 유형의 계획내용과 다른점은 전자가 여러개의 단위건물을 건축적으로 묶어내었던 다발형 Complex 였는데 반하여 후자는 획자마다 복합용도 건축물을 세워 올렸을뿐 건물간의 연계화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으로서 단순한 복합용도건물들의 군집에 불과했다. 이러한 계획의 변화추세를 미국과 독일의 발전추세와 비교해보면 복합용도 건축물의

발전과정을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다. 서구의 초기상황은 단일건물내의 용도중첩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점차 복합용도 건축물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별개의 기능을 지닌 몇개의 단위 건물들을 기반부(Base)로 묶고 기반부내에 반공용공간(Semi - Public Space)을 제공하는 등(Complex)화 추세로 발전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Complex)에서 단위건물내의 용도복합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이다.

중기의 대표적인 복합용도 재개발 프로젝트로는 광화문 주변의 도림지구 재개발과 마포지구재개발을 들 수 있다(표2참조).

서울 사대문안에 소재한 주거, 상업의 저층고밀도의 혼용지역을 복합용도로서 재개발하려했던 서울 도림지구 재개발계획에서는 당시의 재개발방식과 계획개념을 비교적 소상히 엿볼수 있다. 이 지역의 개발은 지구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회사가 건설자금을 투입하는 이른바 주민참여 현지개발 방식(Improvement menthod)

재개발로 진행되었다. 한편 건설회사는 개발후에 지주들에게 원래 소유하였던 토지면적의 200%에 상당하는 건축물면적(아파트와 사무실일부)을 주는 조건으로 개발에 착수했는데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잔여건축바닥면적으로 충분히 수익성을 거둘수 있다는 판단에서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주거+사무실+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이루어졌지만 본 재개발계획의 동기를 감안해 볼때 복합용도 Complex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인 공용공간의 충분한 확보, 주거층의 주거적합성 제고 등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일반고층건물의 수준으로 건설이 되었음을 쉽게 짐작할만한 사실이다.

전술한 도림지구와 마포지구내 복합용도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여 중기(70년대말~80년대초) 계획 내용과 건설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배치도 참조)

우선 단지전체로 볼때 저층고밀도의 노후주택들인 불량화, 노후화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현대적인 고층건물들로 대체함에 따라 건축면적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외관이 깨끗하여져서 단지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또한 재개발되어질

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이 도심형 혼용지역이었는데 계획단계에서 본 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을 그대로 수용하여 복합용도화 하였기 때문에 토지이용상 큰 변화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주변의 도시공간 조직과 별로 상관성을 지니지 못하는 별개의 독립된 고층건물군을 형성하여 주변 및 배후지역의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건축물의 외관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상 10~12층, 지하 2층정도의 건물내에 주거, 업무 및 상점을 수용한 이들 복합용도건물은 외형상 일반 오피스빌딩과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건축물 내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의 구획, 동선처리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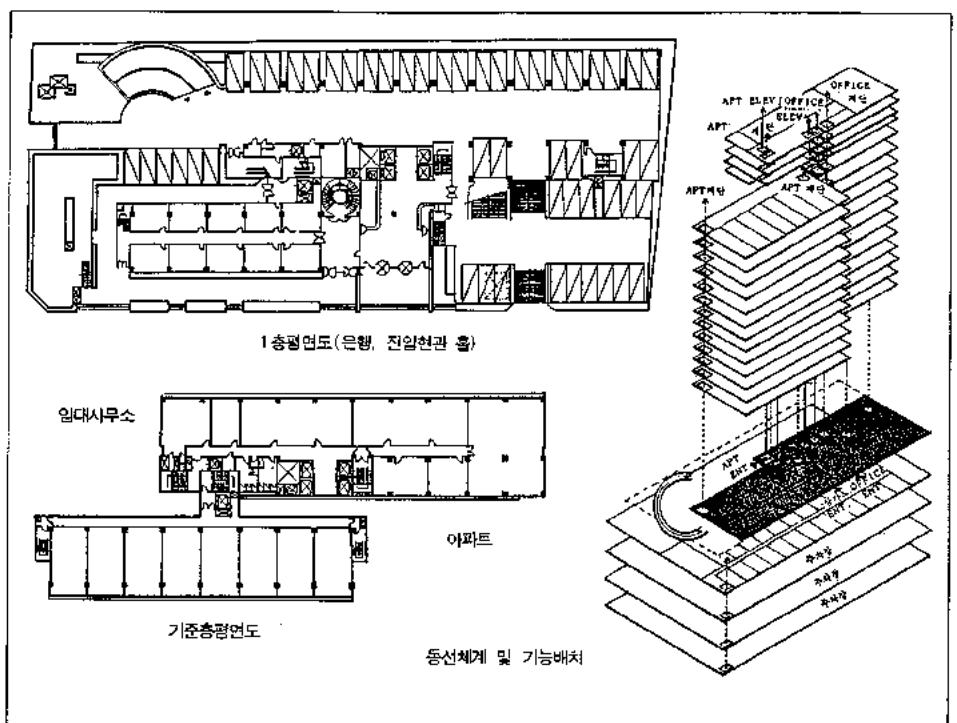
첫째는 단순중첩형으로서 주거와 기타(업무, 상업)공간을 입체적으로 중첩시켜 쌓아올린 모습으로서 2부류의 주공간 구획과 분리는 출입구처리, 동일한 구역내 엘리베이터 이용자별

조닝(Zoning) 정도에 그치고 있다. 둘째는 분리형으로서 주거공간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주거와 기타기능(업무, 상업등)을 수평적으로 분리하고 수직동선(core)도 별도로 처리해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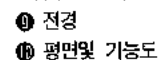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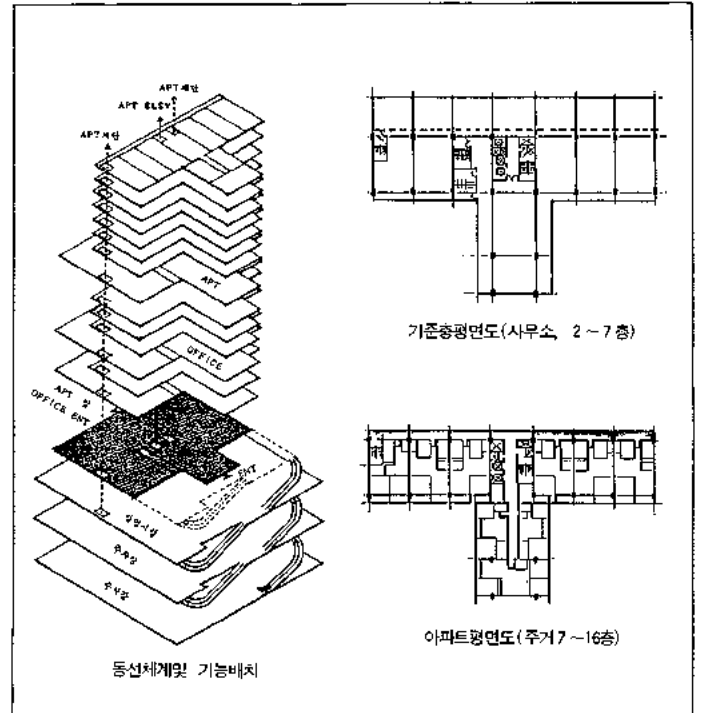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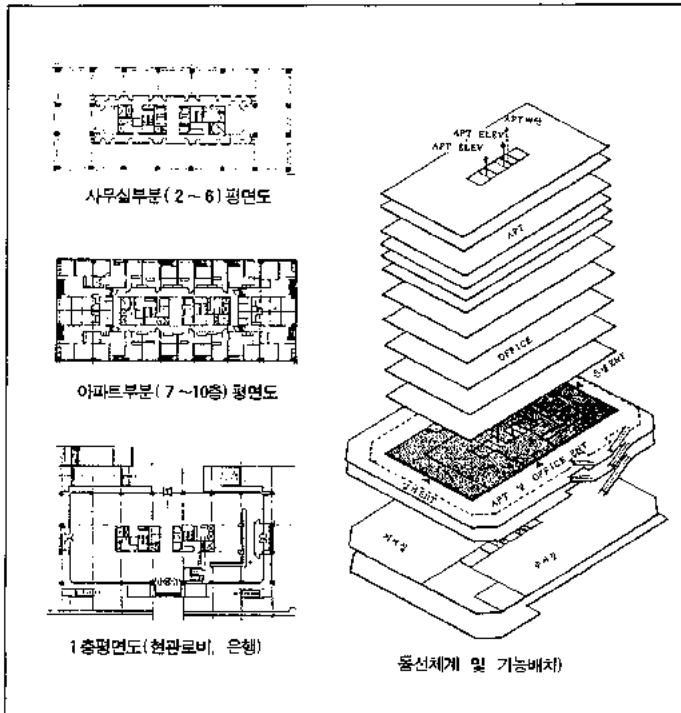
위의 두유형중에서 후자는 다발형 Complex의 구성개념을 연상시키는 데, 건축용도에 따른 공간분리를 이루기위해 한 개의 고층건물(Tower)안에 한가지 기능만을 담게하고 이들을 기반부로 묶어 연결시킨 초기의 Complex 발전유형과 유사한 모습이다. 다만 공간의 수평분리가 별개의 건물이 아닌 한 건물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다름뿐이며 이와같은 관점에서 분리형은 다발형 Complex와 단일건물형 사이의 절충모습을 띠고있다.

80대 초에 완성된 성지빌딩(그림3)에서는 이러한 흔적이 엿보인다. 성지빌딩은 퇴보성향을 보인 초기의 다발형 Complex와 중기의 단일 건물형의 중간유형(절충형)의 대표적인 실례이다. 성지빌딩의 평면형태를 살펴보면 주거와 업무기능이 중심의 코어를 사이에 두고 맞물려있는 형태로서 출입구에서 수직동선코어(Core)에 이르기까지 주거와 기타 용도간의 계획적인 동선분리가 이루어져 있다. 즉 건물전면은 업무시설의 주출입구와 지하 1~3층에 형성된 상업시설의 출입구가 있고 주거시설은 건물 서측에 별도로 위치한다. 엘리베이터의 수직동선 처리를 보면 업무용



단순중첩형의 사례는 도림지구내에 지어진 신문로빌딩, 평화문빌딩 등을 들수있었는데 두 건물 모두 오피스빌딩의 평면에 업무와 주거를 짝아 올리듯한 배열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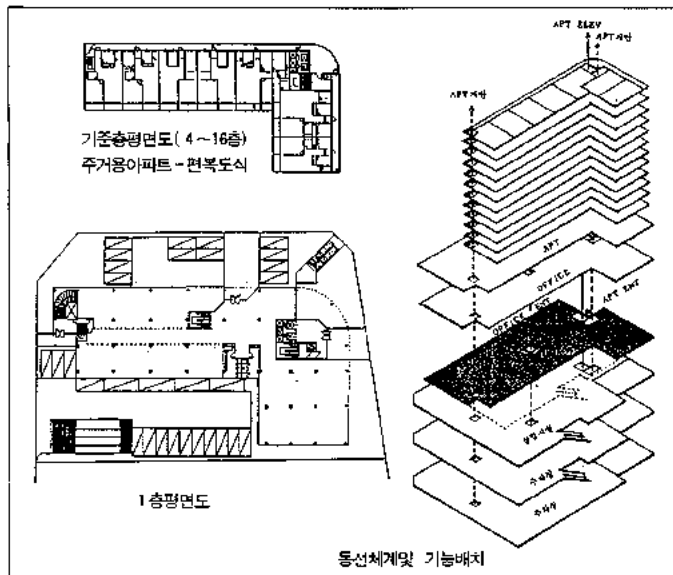




17



18



19

그림 5 도림지구 광화문(미도파) 빌딩

① 각층평면도

② 전경

그림 6 마포지구 고려빌딩

③ 각층 평면도

④ 전경

⑤ 그림 7 마포지구 정우빌딩

업무위주의 복합용도건물과는 달리 주거기능이 공간배분의 주류를 이루고있는 경우로서 3층까지만 업무시설이 들어서 있을 뿐 상층부는 주거시설로만 사용되어 위의 처리가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복합용도건물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전술한 바와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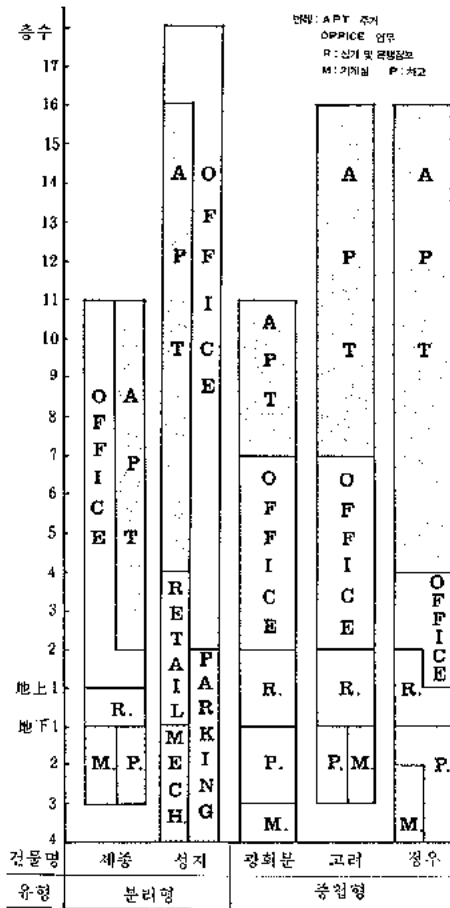
중기(70년대말~80년대초)의 복합용도 재개발프로젝트로서 건설된 복합용도 건축물들은 계획지구 전체와의 연계성, 아파트부분의 주거적합성, 계획지구내의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 처해있다. 단지 상자(Box)형의 오피스건물을 짓는 대신 같은 매스 내에 용도를 복합하여 수용기 위해 업무와 주거를 배열하고 1층은 은행점포와 매점, 지하층에는 지하상가 주차장 등을 부가시킨 방식으로서 각 기능별 이용상의 능률성이 주거공간이 수용되는 데 따른 계획적인 고려와 감도가 상당히 미흡하다(그림8 참조) 이들 문제점을 개선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프로젝트의 문제점과 계획상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이들 재개발프로젝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을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단위지구내에서 업무용건물의 기준층평면을 그대로 도입하고 단순히 수직적으로 주거용도를 복합화함으로써 각 용도가 지녀야할 특성에 대한 건축적인 해결이 미흡하다.

둘째, 건축물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사이의 반공용성을 지니는 매개공간이 확보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기존생활행태 특성과 도시공간구성 패턴 등의 흐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부 보행인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할 건축물의 저층처리「지하상가로의 개방」이라는 정도의 소극적인 처리에 그치고 있다. 동선 처리에서도 보행자 전용도로와 진입 공간, 자동차 진입도로 등 사람의 흐름과 자동차의 흐름을 계획적으로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의 혼란은 물론 진입부를 포함한 공지내 공적공간의 역할과 이용 활성화는 미흡한 상태에 있다.

셋째,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⑧ 그림 8 복합용도 건축물(중기)의 기능배치 상황

측면에서 복합용도건축물은 긍정적이기는 하나 아파트부분의 거주성이 문제가 된다. 주거의 내부공간 구성과 외관이 사무실용도의 기준층평면과 동일하게 처리됨으로서 주거용도에서 필요한 일조, 채광등의 기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발코니, 출입구의 영역, 기타 거주인을 위한 작은 모임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되어있다. 한편 수납공간과 다용도실등의 서비스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세탁물건조나 장독 등은 공용복도를 이용하게 되어 외관상이나 사용상 적합치 못하다.

네째, 대부분의 경우 서로 다른 용도간에 동선이 중복되어 방범, 사생활(privacy) 보호 업무상의 능률 등 각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개선방안이 검토될 수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고려할만한 계획상의 주안점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주안점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수합하여 일반적인 사항만을 정리해본 것으로서 장치의 복합용도 건축물 설계시 한번쯤 읽어보고 넘어가야할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업무와 주거공간 사이에 계획적인 동선분리와 공간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간기능별 진입부처리, 수직동선(Core)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아파트부분의 거주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는 각 단위 세대에서 필요한 수납공간과 발코니, 진입부의 식별성제고 이외에도 주민의 이용을 고려한 반공용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즉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놀이터 등 전용의 휴식공간과 다목적이용실이 건물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각층의 거주인을 위한 공용시설배치, 옥상층의 휴식을 위한 녹지공간 놀이터 확보, 업무공간과 주거공간 사이 매개공간의 설치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전체 계획부지의 계획과 상호관계를 맺는 단위건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해 계획단지의 녹지배분, 차량접근과 보행자동선의 분리와 진입체계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편 계획 지구주변의 상업 및 서서비스공간 배분특성과 계획부지내 동질기능과의 연계관계, 기능의 재배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네째, 일반 오피스빌딩과 달리 계획부지의 주접근이 최소한 세방향에서 이루어지는 비상업업무축(대부분 건물 전면), 주진입부 측면(주거용 진입), 기타 주차용 진입부등이 그것이다. 이와같이 건물의 3면이 교통을 위해 개방될 경우 전체 재개발프로젝트내에 입지한 건물사이의 공간은 교통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여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개발프로젝트의 배치계획과 교통체계 구상단계에서 가능한 공지를 각 건물의 한쪽으로 몰아서 그룹화시켜줌으로서

도시공간 형성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곳에는 선큰가든(sunken garden) 아트리움(atrium) 등을 형성할 수 있는바 이들은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공익성 제시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이라 판단된다.

4. 후기의 발전(80년대) : 복합용도 Complex 부류의 다양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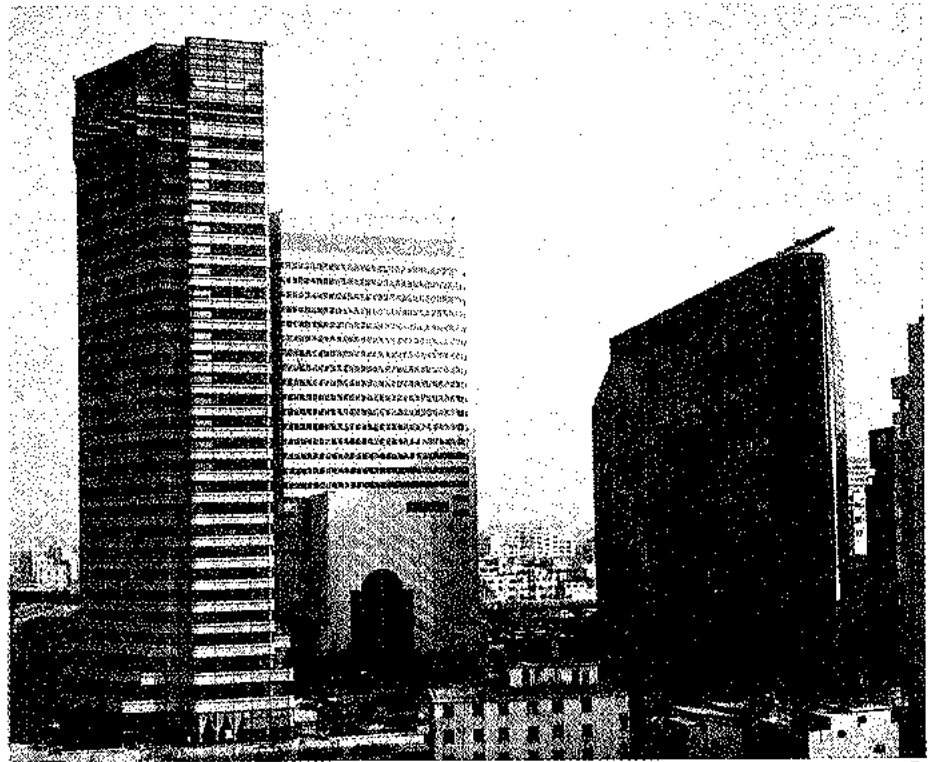
시기에 따라 각기 유사성을 지닌 개발형태를 띄었던 초기의 상가아파트 건설과 중기의 재개발지구내 단위건물의 복합용도지향 추세는 80년대 중반을 맞이하면서 매우 다양한 발전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주거+상업+업무」의 기본적인 복합용도 결합형에서 탈피하여 계획지구의 성격에 따라 수용기능의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는 바, 본 추세에서 가장 활기를 띠고 진행되는 개발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부류를 들 수 있겠다.

- 첫째, 도심 재개발 지구내 초고층 건물의 집합과 다발형 Complex 의 추구경향,
 - 둘째, 민자역사의 계획과 복합용도의 수용
 - 셋째, 도심 외곽부의 쇼핑몰(shopping mall)과 숙박, 휴게시설의 결합
 - 넷째, 메가스트럭처(mega structure)형 종합센터 개발계획
- 위의 4가지 계획유형은 80년대 초반계획되어 대부분 완성된 프로젝트들로서 현재의 복합용도 Complex 의 발전상황을 대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은 각 유형별 실례를 중심으로 계획개념과 건설후의 상황을 상술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초고층 건물의 집합과 다발형 Complex : 을지로2가 재개발

도심 공동화현상에 대한 계획적 대응과 도심내 문제지역의 갱신을 위해 시행된 도심부 재개발 프로젝트 중에서 을지로 2가 16,17지구의 복합용도 Complex 건설은 몇개의 초고층건물로 이루어진 다발형 Complex 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림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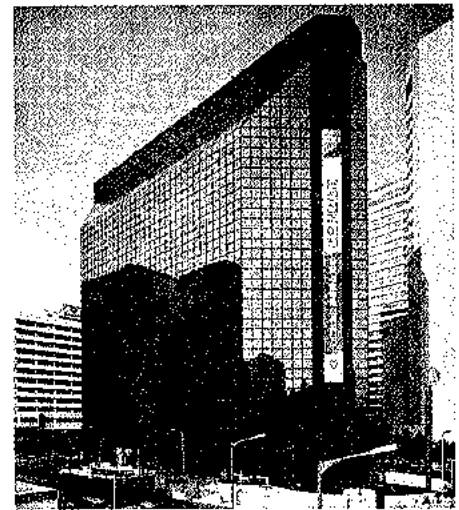
83년 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된 3개의 고층건물 설계안을 중심으로 이들을 상호 연계시켜 개발토록 설계된 본 프로젝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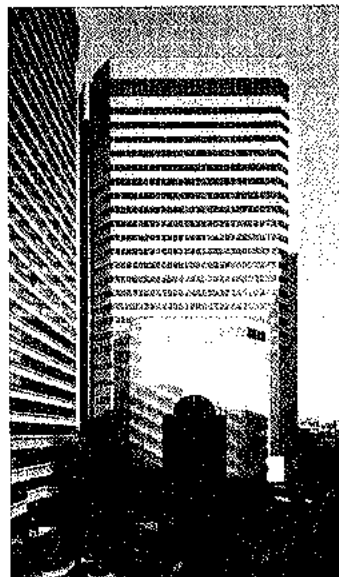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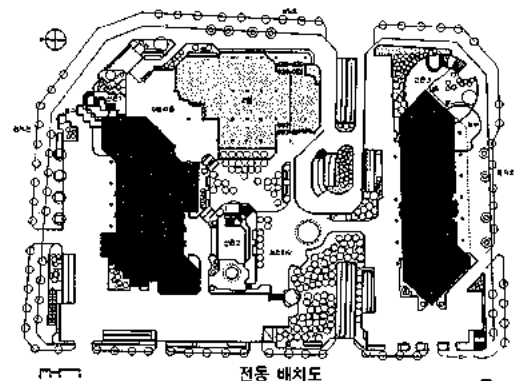
1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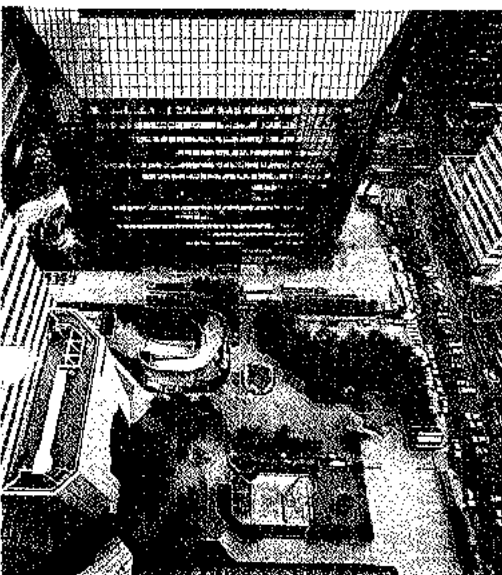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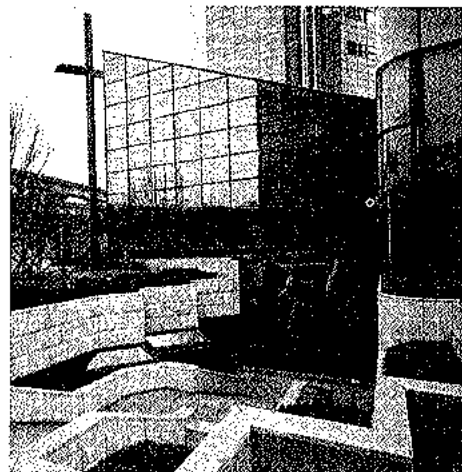


전동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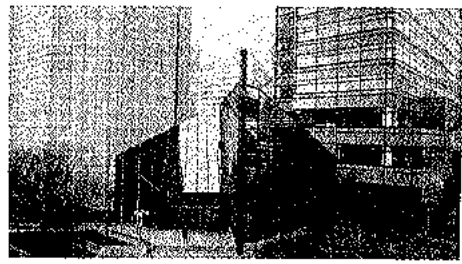
21



㉑



㉒



㉓

그림 9 을지로 2가 16, 17지구 재개발

- ㉑ 전경
- ㉒ 1동 ㉓ 2동 ㉔ 3동
- ㉕ 배치도
- ㉖ 중앙광장
- ㉗ 1·2동 연결부 선근
- ㉘ 1동과 2동 연결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재개발계획에서 공통적으로 부과된 기본원칙은 도심지 스카이라인(skyline)과의 조화를 이루되 주변건물과 형태적 균형을 꾀하고 지하철과 지상 교통인구를 부지내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기타 상업지역과의 연계성을 도모시키자는 것이었다. 배치계획은 지하, 지상의 보행인구를 단지내로 흡수함을 최우선 과제로 행하고 이를 위해 지하철과 지하배장 및 지상플라자를 입체적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부지 중앙부의 광장 및 선근가든 등 많은 녹지공간과 조경시설을 확보함으로써 건물 사용자와 도시민에게 할애된 휴식의 장소인 동시에 이곳을 축점으로 건물내부로의 동선유입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량 주진입방식도 특이하여 청계천변과 삼일로 대로변의 혼잡한 차량동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부지의 배후도로에 주진입부를 설정하고 계획지구사이의 도로는 레벨다운(level down)시켜 보행자 동선의 원활한 소동을 꾀하였다. 이상과 같은 계획의 기본원칙과 배치체계 등은 중기(70년대말~80년초)의 재개발에서 단위건물을 단순히 세울리는 결과로서 끝났던 도림지구, 마포지구의 복합용도 재개발 프로젝트와 대조되는 모습으로서 단위 고층건물의 연계화를 위한 고려의 흔적이 엿보인다.

한편 기본적인 원칙에서 단지전체의 연계화에 주력한 반면에 평면 및 입면계획에서는 각 동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구성이 연출되도록 융통성을 주었는 바 건물간의 동질성 확보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듯하다.

각 단위건물의 설계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화약(주)의 사옥으로 쓰이는 제1동의 입면계획은 저층부를 돌출시켜 보행자의 접근에 친근감을 주도록 하였고 기본모듈(3m는 다른 2동의 건물에서도 추구되었음, span : 9×11.8m)을 적용한 미적 비례와 담황색의 외장재 및 수평띠창을 통해 건물자체의 질감을 표현함은 물론 우측(2동)의 건물과 외장구성상의 동질성을 시사하려고 애쓴 듯 하다. 판매시설(백화점)로 쓰이는 제2동은 평면계획시 부지공동3m의 기본 모듈을 적용하되 층별로 스펠을

재구성하였다. (고층부 : 기본모듈 3m, span : 6m×11.5m. 혹은 6m×14m, 지하층 : 주차구획을 위해 8.5m×9m채택) 한편 일부 중앙광장과 매장의 1층 부분에는 피로티를 둠으로써 보행자 및 고객의 접근을 손쉽게하고 각 용도별로 엘리베이터홀을 별도로 구분(Zoning)하여 수직, 수평동선의 혼잡을 꾀하고 있다. 제2동의 입면계획은 용도 및 기능이 다른 복합용도 건물이기 때문에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여, 각기 용도에 맞는 외장계획에 따라 변화를 추구하였는데 상층부의 띠창은 전술한 바와 같이 1동과 연계되어 보인다.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인 제3동의 평면계획에서는 지상1층에 피로티를 둠으로써 을지로와 중앙광장사이의 보행자 동선을 연결시켜 은행입구의 흡입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동서측으로 길게 뻗은 부지조건을 소화하기 위해 평면의 양측에 코어를 두어 사무공간의 유효면적 증대를 시도하고 있는 바 1층부를 은행본점 로비 및 점포로 사용코저 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방식이라 생각된다. 입면계획에서는 은행본점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기위해 2개의 다른 건물과 대조되는 외장의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점도 특이한 내용이나 3개의 건물간의 동질성 추구에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여기에서 생각하고 넘어갈 점은 위에서 기술한 3개동의 고층건물이 각기 독립적인 계획개념의 추구하고 입면구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칫 Complex 전체의 통일성, 연계성 확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건축물 외관상의 동질성 확보에서는 초기단계의 개별건물 설계에서 이미 무리한 주문이었을 것이므로 건물간의 기능과 공간처리의 연계성확보를 위해 본 프로젝트에서는 건물군의 중심에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고 그 하부의 지하층은 3개동을 상호 연결시키도록 처리하여 지하의 쇼핑물 주차장 등을 배치하였다.

중앙광장의 처리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부의 아트리움(Atrium), 중앙광장선근 동측면의 선근 등 3부분의 공간처리를 통해 3개동의 건물사용자 및 보행자에게 공용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눈을 끄는 부분의 선근의 처리는 1동 오피스와 2동 백화점 건물 사이를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 공법을 이용해 양측의 매개공간을

만들고 매스의 측면에 선권을 도입하여 참신하게 두동을 연계화 시켰다. 긴 점과, 잣나무 숲을 통해 지하매장으로 연결되는 중앙광장 선권이다. 이부분은 도심내에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주는 한편 진입 부분을 다소 소극적으로 처리하여 출구의 느낌을 시사해 주는 처리방식으로서 매우 흥미로운 접근이다.

그러나 읍지로 2가 재개발 도시계획적 의의는 Complex 내 수용기능을 상업·업무동에 치우치게 함으로서 다소 탈색된 듯하다. 예컨대 읍지로 지구 재개발 계획의 초기계획단계에서 거론되었던 주요한 계획개념은 「도심내 주거기능의 존속과 도심 공동화 현상의 방지」라는 분명한 도시계획적 의의와 역할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건설과정에서 3차산업위주의 상업업무 및 서서비스용의 Complex로 되어 버렸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읍지로 2가 복합용도 재개발 프로젝트가 후기의 복합용도 Complex 계획과 건설에 끼친 나름대로의 의의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비록 3개동의 건물로 분리하여 별도의 설계가 이루어졌지만 최소한 부지전체를 총괄하여 Complex의 구성개념에서 건물들을 연계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건물군으로 둘러쌓인 Complex 부지의 외부공간(중정)을 도시공용의 오픈스페이스로 제공키위해 노력하였다.

세째, 지하층을 공용으로 처리하여 도시 주차수요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도시 지하철망과의 직접 연결을 통해 Complex와 도시교통망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잃지 않았다.

네째, 비싼 도심지 땅 위에 고층오피스빌딩만이 지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하에서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적 의의(도심활성화, 외부공간의 도시민제공, 도심공동화의 지양등)를 부각시켰으며 다발형 Complex의 기반부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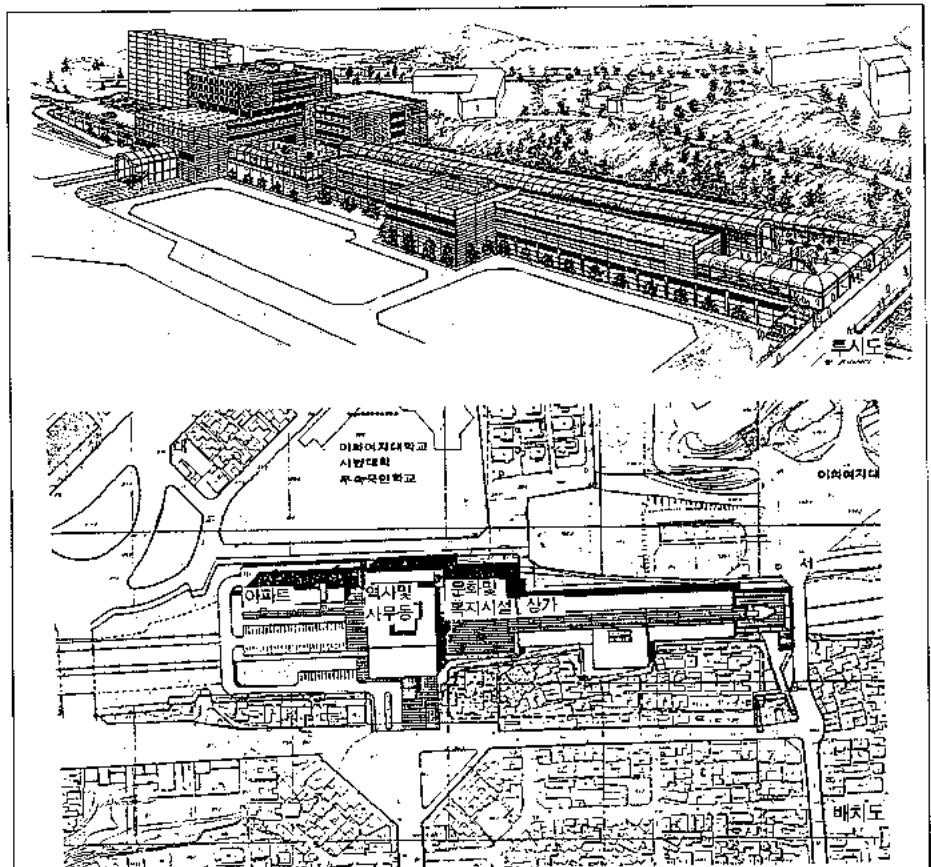
70년대 부터 부분적으로 거론된 바 있는 민자역사의 계획은 「역사+쇼핑센터+호텔 및 주거등」 다양한 복합유형으로 시도되었으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역사+쇼핑센터+휴게시설」로만 실현되어 상업 및 서비스시설의 연결정도로 그치고 말았는데 이는 서구의 역사를 중심으로한 지구개발모형과 대별되는 모습이다. 서구의 경우 도시지하철과 도시간의 원거리 고속철도의 결절점에 몇층의 레벨로 교통망을 중첩시켜 수용함으로써 이용자는 One-stop으로 자신의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본 종합 역사와 함께 쇼핑물, 호텔, 주차건물 등을 묶어줌으로써 자칫 퇴락화하기 쉬운 역 주변을 활성화 시킨 바 있다. 서독 Hannover 시의 경우는 고층 사무소동(Tower)까지 결합시켜 직장, 주거, 구매 및 휴게시설이 총망라된 메가스트럭처(mega structure)형으로 개발하였는데 이러한 모습과 우리의 민자역사 모습과는 비교되는 점이 많이 있다.

국내의 실례들 중에서 드물게 주거를

포함한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부류로서는 신촌의 민자역사 계획안(그림10)을 들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역사 및 업무지원시설, 아파트, 문화및 위락시설, 쇼핑몰이 배치되어 있다.

본 프로젝트는 당해지역 주변의 반발과 이용자의 수용여건이 조성되기 못하여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나 교통결절점에 입지한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방향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역사를 중심으로 우측에 문화위락시설과 쇼핑몰이 배열되어 있고 몰의 중심친정부에는 보울트(Valet)를 씌워 도시형 갤러리(galleria)형식으로 처리하였는 바 이용자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부여해 주려는 모습이다. 본 방식은 쇼핑물 계획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전체부지를 건축화하여 중앙방난방에 따른 실내온도의 유지는 물론 자연 채광의 인입 등을 통해 고객들이 쾌적하게 물건을 구매하며 설수 있도록 처리해준 방식으로서 대도시



도심부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한편, 민자역사 좌측의 주거용 아파트는 기존 Complex에서 분리되어 마치 일반 고층아파트 한동이 홀로 서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이것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공간배치 방식으로서 Complex의 구성단위로서 주거동 역할, 전체 Complex와의 연계성 확보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대전등 몇몇 대도시에서 새로운 민자역사건설이 거론되고있는 현단계에서 신촌 민자역사 부류의 복합용도 Complex는 복합화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표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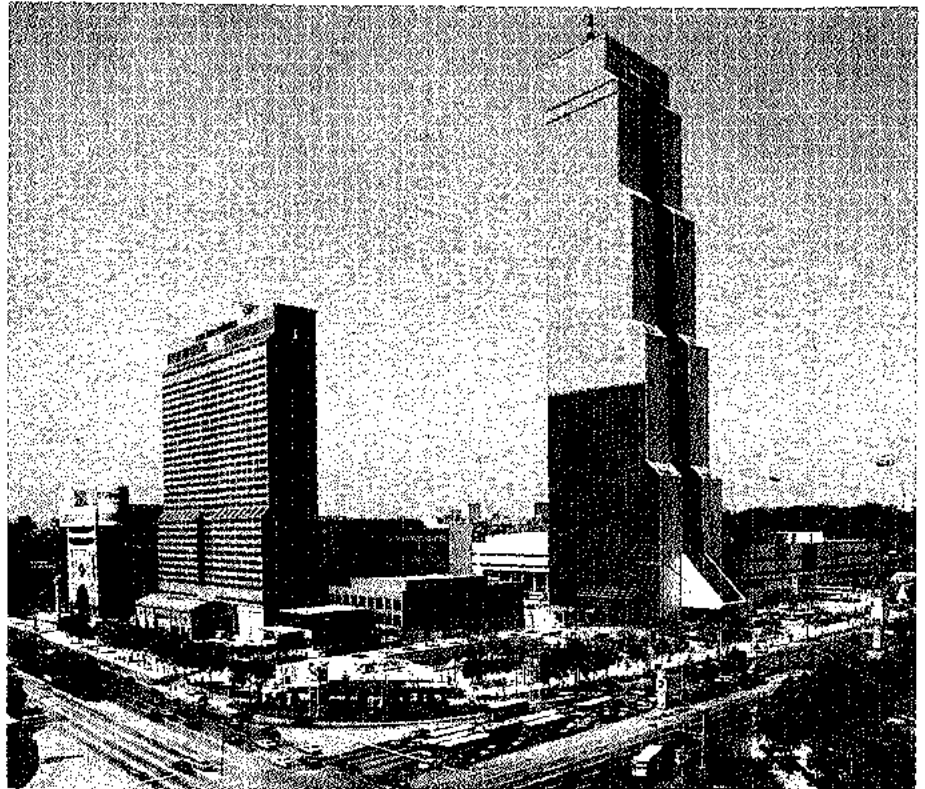
3. 메가스트럭처 : 한국종합무역센터

6만평의 대지위에 세워진

한국종합무역센터(KWTC 그림11)는 도시 속의 도시(City in the City) 개념을 수용한 메가스트럭처형의 복합용도 Complex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본 건물은 크게 두 부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 무역센터 오피스동과 전시관, 공항터미널로 이어지는 무역센터 고유 기능 건물군, 호텔 및 쇼핑센터라는 부대기능 건물군으로 양분화 되어 있으며 이들을 상호 연계시켜 하나의 프로젝트로 처리하였다.

본래 세계 무역 센터(World Trade Center)의 성격은 같은 부지 내에(가급적 한건물내) 무역관계기관, 금융, 통관기능, 기타 무역관련기관을 수용하여 무역에 관한 One-step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시, 회의, 무역클럽 등의 지원시설 등을 갖추는 복합기능의 Complex로서 한국종합무역센터에서는 이러한 계획요구가 그대로 수용되었다.

부지조건을 보면, 무역센터가 입지한 삼성동 일대는 강남의 신도심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있었음으로 해서 기존도시의 구성 맥락(Context)에 따른 계획상의 제약이 적은 입장이었고 오히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주변지역의 개발 모티브(motive)를 제공해야하는 이른바 도시설계상 강남 부도심지역의 랜드마크(Land mark) 역할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건축물의 외형상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도시적 심볼의 기능과 당해부지내 건물끼리의 동질성 확보라는



◎ 시설별 면적

구 분	규 모	면 적
종합전시장	지하 2층	167,095 m ²
	지상 4층	
무 역 회 관	지하 2층	107,709 m ²
	지상 55층	
인터콘티넨탈 호텔	지하 4층	173,950 m ²
	지상 33층	
지 하 아케이드	지하 1층	39,590 m ²
현대백화점	지하 4층	64,446 m ²
	지상 8층	
항공터미널	지하 4층	65,537 m ²
	지상 7층	

◎ 건축개요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159, 대지면적 : 198,347m², 건축면적 : 74,817m², 연면적 : 604,705m², 지하층면적 : 249,660m², 지상층면적 : 354,602m², 건폐율 : 39%, 용적률 : 186%, 주차장 : 157,426m².

④ 그림 10 신촌역 민자역사 계획안 (설계 : 서울건축)

그림 11 한국종합 무역센터

⑤ 전경

두가지의 과제가 설계시에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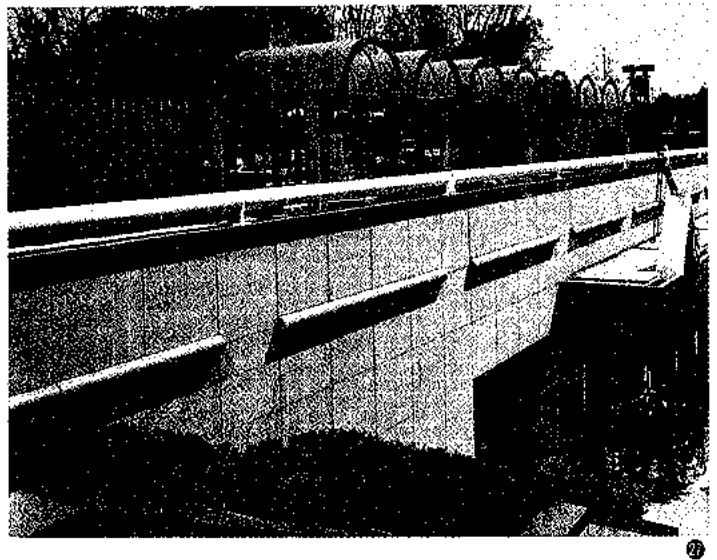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메가 스트럭처(Mega structure)형의 Complex에서는 각기 독립된 일련의 건물들이 동일 단지내에 건물군을 형성하는 경우, 이들사이에 동일감을 부여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겠다.

첫째로 매스의 형태나 규모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각 건물사이에 물리적인 연결구조물(Overbridge, Atrium, Passway)등을 도입하여 시각상의 동질성을 추구하려는 접근방식이다.

두번째 각 건물의 표면처리에서 농밀성 입면패턴, 창호처리 건물색상의 코드화 등을 시도하는 소극적인 연계처리의 경우이다.

무역센터에서는 일단 주기능 건물인 업무관리동과 전시동 매스간의 현격한 차이에서 오는 강한 수직성과 수평성의 대조때문에 첫번째 방식 추구는 어려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두번째의 소극적인 접근방식을 사용하였는바 오피스동과 전시동 그리고 공항터미널과 같은 무역센터 고유기능 건물들을 동질의 외장재(반사유리, 알루미늄 판넬)를 사용하여 시각적인 동질성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다만 호텔과 쇼핑센터와 같은 부대기능들은

- ㉑ 선문계단
- ㉒ 삼성광장
- ㉓ 삼성광장 선문
- ㉔ 삼성광장 배치도
- ㉕ 단면도
- ㉖ 배치도
- ㉗ 좌로부터
- 1층평면도
- 2층평면도
-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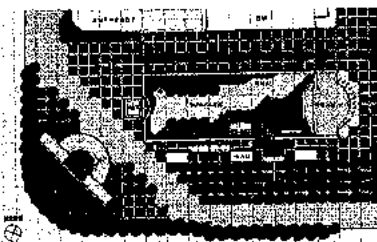
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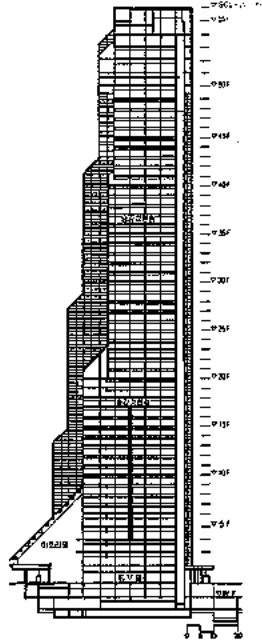
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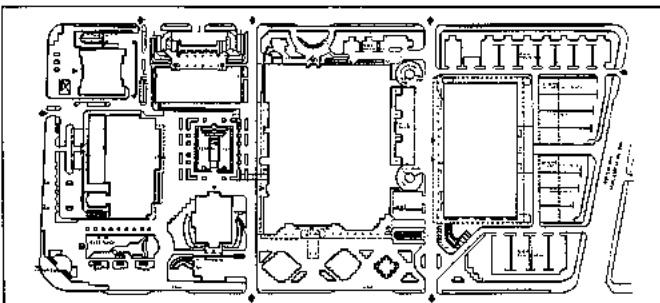
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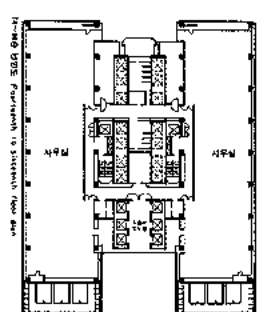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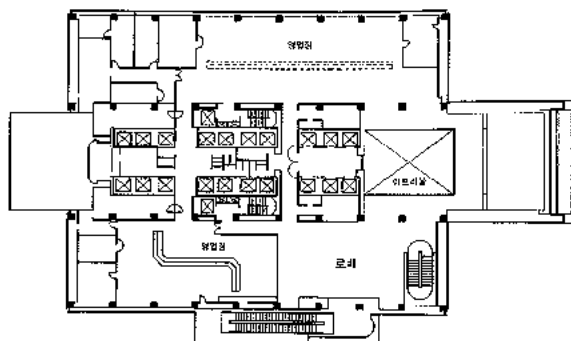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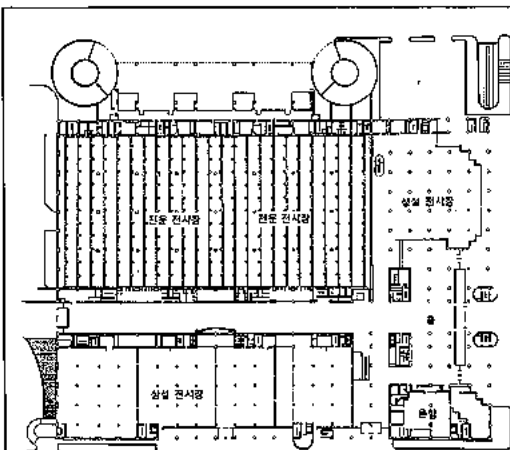
㉔



㉕



㉖



㉗

외장패턴과 색상이 전혀 다르게 처리된 있는데 이것은 본 건물들이 지니는 상업적 성격을 감안할때 이해할 수 있는 접근 방식으로써 무역센터 고유기능 건물군과 부대기능 건물군(호텔, 백화점)으로 양분력화된 단지의 구성형태에서 주기능그룹의 동질성을 확보키 위한 기본적인 바탕이 결정되었으므로 부대기능에서 일부의 변화를 주는 처리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건축물의 구성과 배치를 살펴보면 단지의 4면으로 둘러진 도로를 경계로하여 동측에는 사무동과 전시관, 남측에는 호텔과 쇼핑센터 그리고 서측으로는 공항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으며 북측 단부는 기존의 「KOEX」건물이 점하고 있다. 자칫 방만히 배치되기 쉬운 건물들 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각 단위건물들은 단지의 지하1층 레벨에서 지하철과 연결되며 두군데의 선큰가든을 통해 지하1층과 지상층의 보행동선이 유입 된다.

이 단지에 유입되는 동선의 성격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 될수 있는 바, 무역센터라는 고유기능으로부터 파생되는 무역종사자들의 출입동선과 쇼핑센터와 호텔이라는 부대시설로부터 파생되는 일반인들의 출입동선이 그것이다.

이러한 동선의 차이를 기초로하여 각 건물마다 도로에 면하여 별도의 출입구와 지하주차 경사로를 설치하였고, 교통을 분산시켜주는 동선배분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때 이들을 연결해 주는 결절점으로서 지하 아케이드와 선큰가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하 아케이드는 주로 쇼핑물로 처리되었으며 타기능과 연계되어 기능복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Complex 전체의 수익성을 높여주는 이중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 한편 중앙광장은 사방으로 도로와 면하고 있는 각 건물들의 내부적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 공간으로써 단지 외부에서 볼 때, 단지 전체를 내부에서 하나로 엮어주는 강한 구심적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중앙 광장의 역할이 원스톱 비즈니스 스테이션(One-Stop Business Station)이라는 무역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볼 때, 외부로부터의 동선처리 못지않게 각 건물간의 내부적 동선연계도 중요하며 이러한 연계성 지향화의 결과 중앙광장과 각 건물간의 동선배분은 마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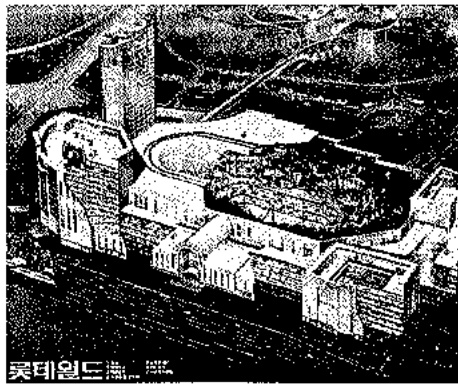


그림 12 롯데월드(설계: 黒川紀章+芸宗협건축 등)
④ 투시도

중세도시의 방사선 도로들이 도시중앙광장에서 맞물려 처리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4. 도시외곽부 쇼핑센터와 복합용도 처리: 롯데월드

제2회의 연재 원고인 미국의 발전형태에서 대도시 주변의 쇼핑몰과 연계된 복합용도 Complex 개발 모습을 소개한 바 있는데 잠실에 세워진 롯데월드(그림12)는 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지면적 128만8천㎡에 연면적 55만8천㎡에 달하는 거대한 쇼핑 몰 휴게시설의 집합체인 본 프로젝트내에는 아래와 같은 4개 부분의 용도가 수용되어 있다.

- 유통부분(Shipping mall)
- 관광 및 문화부분(미술관)
- 스포츠 및 레저(Thema Park)
- 숙박(Lotte Hotel)

롯데월드에서 유통부분의 중심기능인 쇼핑부분은 접근성과 식별성을 감안하여 주간선 도로인 올림픽대로의 송파로 변에 배치되어 있는데 외견상 입면 형태는 도심에 있는 롯데 백화점의 전형적인 형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즉 허구의 기둥, 쇼핑부분의 입면과 그사이에 광고를 걸 수 있는 벽체로 구성되어 있는 롯데백화점 파사아드의 반복은 일시적으로 채워진 백화점들이 자신의 성격을 고객에게 느끼도록 자주사용하는 방식이다. 전체 프로젝트의 랜드마크(Land mark)적 역할을 하는 호텔부분은 지상 26층의 규모로써 롯데월드의 상징적 이미지를 띠어야 하지만 이 역시 형태면에서는 명동의 롯데호텔을 그대로 옮겨 놓은듯한 단순한 기능적표현이라 판단된다.

Complex 전체의 연계성 확보차원에서 동선처리 방식의 일부가 호텔의 저층부 처리에서 엿보이는 바, 저층부는 롯데월드 전체의 저층부에 직접 연결되어 기반부(Base)의 한부분 역할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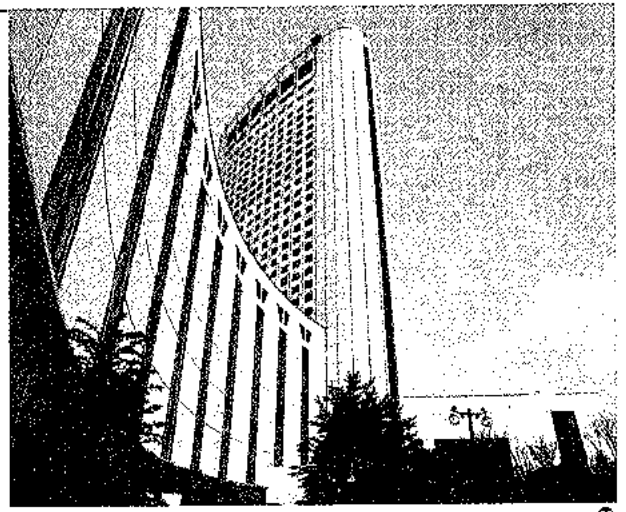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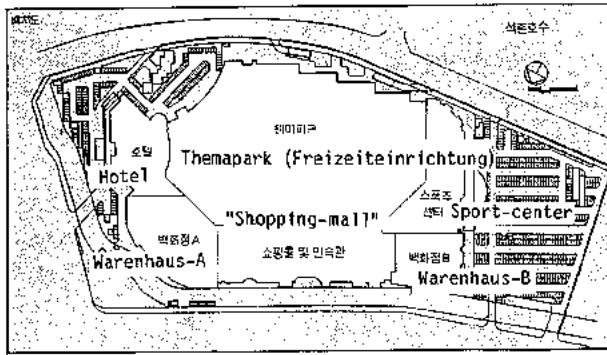
본 쇼핑센터의 발군의 모습은 테마파크(Themapark)에서 엿보이는 데 이는 롯데월드의중심기능으로서 단지의 고객 흡입력을 증가시키고 관광유통부분과 석촌호의 실외레저부분을 무리없이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다. 건축가는 이를 위해 테마파크의 위치를 계획부지 중앙부에 배치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킨 듯 하다. 이에따라 롯데월드의 상업적기능들인 호텔, 백화점 등은 주변으로 밀려난 것처럼 느껴지며 부수적 기능인 테마파크가 중심부에 등장하므로써 쇼핑센터가 문화사업에 신경을 쓰는 것과 같은 암시를 주기로 한다.

한편 롯데월드의 내부공간에 중심부 역할을 하는 테마파크는 그것과 함께 주변에 결합되어있는 상업기능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반공용공간을 제공하여 중으로서 모임과 휴식의 장소로 고객에게 개방될 수 있는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90년대말 이후 도심외곽 쇼핑센터에 오피스 빌딩, 주거용 콘도미니엄 등을 묶어 배열함으로써 직주근접의 도시구조와 상업기능의 연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구미의 재개발향과 비교해 볼때, 단순히 상업 및 서서비스업 부류만을 묶어서 상업적 이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롯데 월드의 계획은 다소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5. 결론: 종합및 제언

—美·獨·韓 三國발전경향의 비교와 우리의 方向—

지금까지 검토한 미국, 독일, 한국에 있어서의 복합용도 건축물 계획을 기본 유형별로 정리하면 (表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합용도 건축물 유형은 적어도 3가지의 큰 부류로 大別할 수 있는데 단일건물내의 용도중첩, 다발형 Complex, 블럭(Block)형 복합건축물군이 그것이다. 이들의 3개 기본유형은 성립단계의 초기유형과 후기의 발전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발전경향별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계획특성을 추려서 정리하고 3개국의 발전상황을 묶어 본 것이 (표4)로서 이 표를 통해 각유형별 계획개념, 각국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도시의 성격과 주변지역의 현황이 Complex의 형태와 계획내용에 영향을 끼쳐 계획패턴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이러한 모습이 눈에 띄이지 않는다. 즉 계획지구의 갱신 (Redevelopment)을 전제로 하는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복합용도 건축물들이 설계 되어지는 한국의 대도시 상황아래에서 당해 계획지구의 도시형성 맥락과 역사성 등이 새로운 건축물군에 수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미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기존지역의 토지이용 특성이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수용되고 있다는 데에서 복합용도에 의한 도시재개발 프로젝트의 건립의의가 나타났다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듯 하나 현재진행되고 있는 일부 복합건축물의 건설과 관련하여 최소한 계획단계에서 지양할 점을 지적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철에서도 지척한 바와같이 단일건물내의 복합용도 중첩이 가지는 문제점을 예컨대, 이질기능간의 상호장애 업무활동의 지장, 주거성침해 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단일 건물내의 용도중첩은 가급적 피하여야 할 것이다. 몇개의 다른기능을 지닌 건물들은 묶어서 처리하는 다발형 Complex, 절충형 (Complex와 복합용도건물의), 분리형의 복합용도 건축물 계획은 최소한 이와같은 문제점을 지향한 계획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때에 고려해야 할점은 단위건물의 연계성확보, 각 건물간의 공지를 묶어서 적극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려는 노력, 지하철 등 도시교통과의 긴밀한 연결등이다.

두번째 사용자들에게 도시공간의 쾌적성을 제시해주는 공용공간 즉 중정과 그 내부의

여러가지 다양한 처리방식(아트리움, 선큰가든, 보행자몰과 차량동선의 계획적 분리)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이점은 복합용도 건축물 계획이 기본적으로 계획지구의 도시설계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단위건물간의 긴밀한 연계화와 동질성 추구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복합용도 Complex 계획의 도시설계적 접근방식은 근래에 건설이 완료된 메가스트럭처 (mega-structure)형 Complex에서 그 모습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합용도 Complex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주거공간이 결핍되어 있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굳이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24시간내 Complex의 활동성을 표현할 수 있는 소극적 접근방식으로써 호텔을 중심으로 한 단순숙박 기능의 수용가치를 인정할 경우 본유형 나름대로의 건설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도시계획적인 관점에서 볼때 주거기능의 배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생각된다. 더우기 독신자, 자녀가 없는 세대 맞벌이부부 등을 중심으로 도심내 복합용도 아파트의 선호도가 적지않음을 감안할 때 복합용도 Complex에 주거공간을 배치하고 주거성을 확보키위한 최소한의 조치(별도의 접근동선분리, 수납및 반공용공간확보등)을 취할 경우 복합용도 Complex의 건립의의를 명확히 부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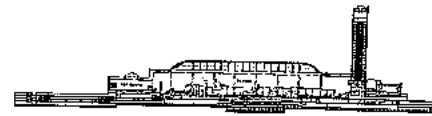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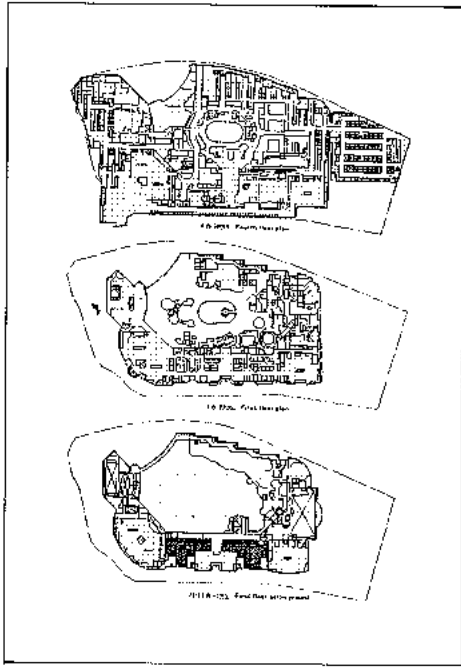
끝으로 대규모의 복합용도 Complex 이외에 우리나라의 도시공간내에 형성되어왔던 또하나의 복합용도 건축유형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인 바 주택지의 도로모퉁이 간선도로의 연결점등에 지어지고 있는 상점병용주택이 그것이다. 과거 우리의 경우 상점병용주택의 계획이 「주택+소규모 상점」정도의 단순기능 중첩에 머물러 있을 뿐 도시내 입지특성,

수용기능의 내용등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나 관심의 초점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서구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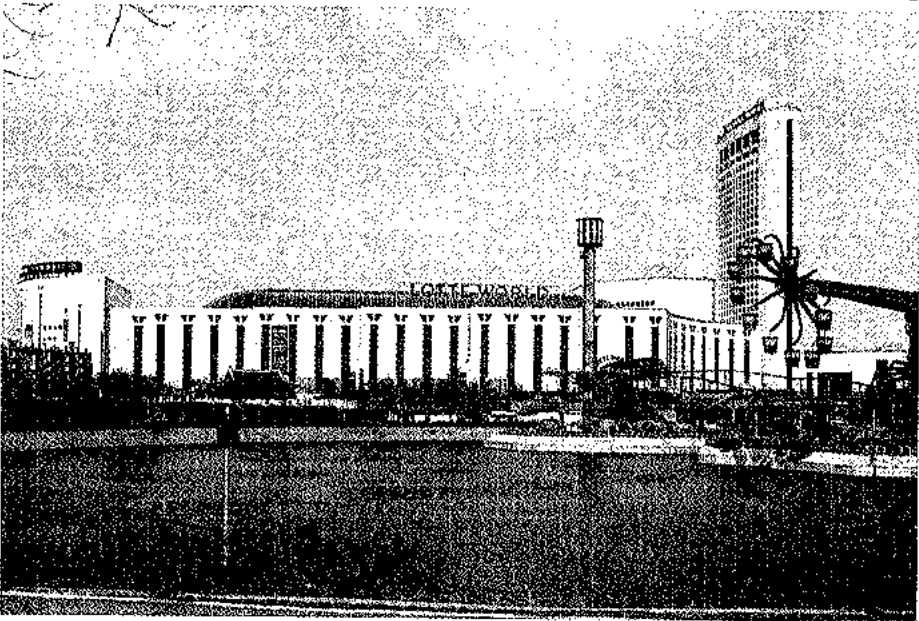
「저층블럭 (Block)형 개발유형」이 전통도시가구의 존속과 복합건물의 수용요구를 감안하여 최적의 모델로 발전시킨 방안이었음을 생각해 볼때 새로운 상업병용주택의 계획방향 모색이 가지는 역할과 기대치는 상당히 크다. 때마침 1980년대 후반부터 상업병용주택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적절한 연구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도시내의 복합용도 건축물의 계획은 아래와 같은 두부류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 바 첫째로, 도심내 재개발구역, 지하철의 연결점(역세권 구역), 신도심의 형성, 도시외곽부 쇼핑 몰 (Shopping mall) 건설 후보지 등에서 지어질 수 있는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패턴이 첫째 부류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해 본 계획 발전경향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일반주거지역 혹은 주거·상업 혼용지역(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등의 대로변, 도로결절점 등에 쉽게 건설될 수 있는 상가병용주택의 계획을 단서로 하되 최소한 도시가구 (Block) 단위에서 시작하여 건물배치와 건물간의 반공용공간확보 등을 강구할 경우 새로운 계획유형인 소규모의 복합용도건축물유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두번째 부류는 미개척 분야로써 학술적 연구와 건축실무적인 접근이 동시에 요구되는 부문이다.

이와같은 2원화의 개발유형과 도시토지이용상황을 적절히 묶어줌으로써 복합용도건축물의 발전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 도시계획및 도시 설계측면의 적극적인 협조와 검토분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⑬ 배치도
- ⑭ 호텔과 테마파크 연결부
- ⑮ 각층평면도
- ⑯ 횡단면도
- ⑰ 호텔로비
- ⑱ 전경



참고문헌

1. 김진원외, 도심지재개발지역전몰의 수용가능 결정을 위한 기초적연구, 1987
2. 김상경, 도심지 복합용도 재개발 프로젝트의 문제분석과 설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6호, 1987
3. 洪鍾浹, MXD 기법을 이용한 都市發展計劃, 1986
4. 이장중, 도심부 복합용도건물내 거주인의 주거실태분석에 관한연구, 서울대 환경대학원, 1987
5. 이강선, 서울도심 복합주거의 주거적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환경대학원, 1987
6. 任亮彬, 複合用途開發方式에 의한 都心開發計劃에 관한 研究, 忠南大大學院, 1986.
7. 吳德成, 都心部 複合用途 高層아파트에 관한 研究, 서울대환경대학원, 1979
8. 吳德成 複合用途高層아파트 居住人의 職位近接性向分析, 忠南大論文集, 1985
9. 吳德成, 複合用途 Complex 의 計劃에 관한 研究 (I),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권5호, 1989
10. 吳德成, Funktionsgemischte Komplexe, ph.D. Dissertation Universität Hannover, 1989
11. 건축과 환경 8810, 8909號, 1988.89
12. PLUS 8707號, 1987
13. ULI, Mixed Use Development Handbook, 1989. Washington D C, 1989.

(표3) 복합용도 건축물의 계획유형

발전 기본형	초 기	발 전 단 기
단일건물내의 용도복합	•기단부(Base) 상부의 복합용도 Tower: (상가, 지하주차장 및 지상시설 + 비탈 위한 수평적 확산 + 주거 + 업무)	•반공공의 가단부와 조고층 타워(마천루)의 연계: (가가수용을 위한 수직적 팽창: 상가, 지상시설, 반공공보비등 + 주거, 업무 Tower)
다발형 Complex	•단일용도의 Tower를 저층의 기단부로 묶는 방식 (기단부 + 상가 + 공용공간 + 주거 + 업무 + Hotel 등 기타 기능)	•유니타리 복합구조(Unitary mixed use Structure): 네가스트럭처형의 대규모 공간내에 상·주·업무 이외에 다양한 기능수용
도시공간 연계와 계층 개발유형	•과도기 유형: 소규모의 복합건물을 지구단위로 묶어 Complex와 하려는 시도류	•기존 도시 블록 내에 연계되던 복합용도 Complex: 전통적인 도시구성요소 (점점, 아케이드 등), Dimension, 형태 등이 Block내에 수용되어 있는 지구단위의 복합개발 유형

※ 주 : 초기는 각 유형의 시작단계에서 시도되었던 계획유형이며 발전기는 건설후의 문제점, 새로운 가능성을 감안하여 변화된 도모하는 시기의 계획유형을 말한다.

(표4) 복합용도 건축물의 유형 특성과 각국의 발전상황(총괄)

계획유형	계획특성	Complex 내외 시공간 수용	공역성 확보를 위한 조직(공동 mall 등)	기존 도시구성요소의 수용 (역사적 건물 보존수용등)	전통적 도시 Dimension 수용	다변화 하는 요구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선택의 기능성	각국의 입장
단일건물	단순기능중립 기반부 형성	●					한국(중기)
내용도복합	조고층과 주세	●	●				한국(초기)
복합용도	● 용도 Tower의 묶음	●	●				미국(후기)
Complex	● 메가스트럭처형	●	●	●			한국(초기), 미국(중기)
도시 Block 연계	● 과도기 유형	●				●	미국(초기), 독일(중기), 한국(후기)
최 저층개발	● 도시 Block 구성	●	●	●	●	●	미국(후기)의 일부 소도시에서 시도, 독일(중기)

※ 주 : 초기, 중기, 후기는 발전단계에 따라 나누어 본 것으로서 초기는 복합용도 Complex의 형성 단계, 중기는 본격적인 건설의 시기, 후기는 80년대 이후의 새로운 경향기를 일컫는다.

獨逸의 現代建築을 찾아서

독일 수공예 박물관

Modern Architecture in West Germany

1. Richard Meier에 대하여

Richard Meier는 1934년 New Jersey 근처의 Newark에서 태어났으며, 뉴욕 Ithaca에 위치한 코넬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연이어 뉴욕의 건축설계사무소인 Skidmore, Owings & Merrill과 Marcel Breuer에서 각각 건축활동을 하였으며, 1963년 이후부터는 뉴욕에서 직접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R. Meier의 초기 건축작품은 주로 단독주택; New Jersey의 Meier주택(1965), Connecticut의 Smith 주택(1965~67), Hampton의 Saltzman주택(1967~69), Michigan의 Douglas 주택(1971~73)이 중심이었으며, 비로소 1969년 그의 작품전시회와 'New York Five'에 관한 저서(1972)를 통하여 건축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미 서술했듯이 Richard Meier는 'New York Five'라는 이름을 지닌 뉴욕 건축가 그룹의 일원이며, 그는 5인 건축가 중에서 가장 생산적인 건축가였으며, 그의 건물을 철저하게 흰색으로 마무리 하는 개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이같은 특성은 후에 'New York Five'의 별칭으로써 "Whites"라 불리는 주요 이유가 되기도 했다.

그후 지금까지 그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 많은 그의 작품; 뉴욕 Greenwich마을 근교에 Westbeth 예술인을 위한 집합주택(1967~79), 뉴욕근교 Bronx의 단지계획(1976~74), Bronx Developmental Center(1970~76), 인디애나 New

Harmony의 Athenium(1975~79) 등을 실현시켜 왔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요 건축가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본 소고 가운데 소개하게 될 서독 프랑크푸르트 라인강변의 박물관 관지역에 위치한 수공예박물관(Museum for Handicrafts)은 1979년 국제초대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작품으로써 그의 대표적 작품중의 하나이다.

2. 서독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수공예박물관(Museum for Handicraf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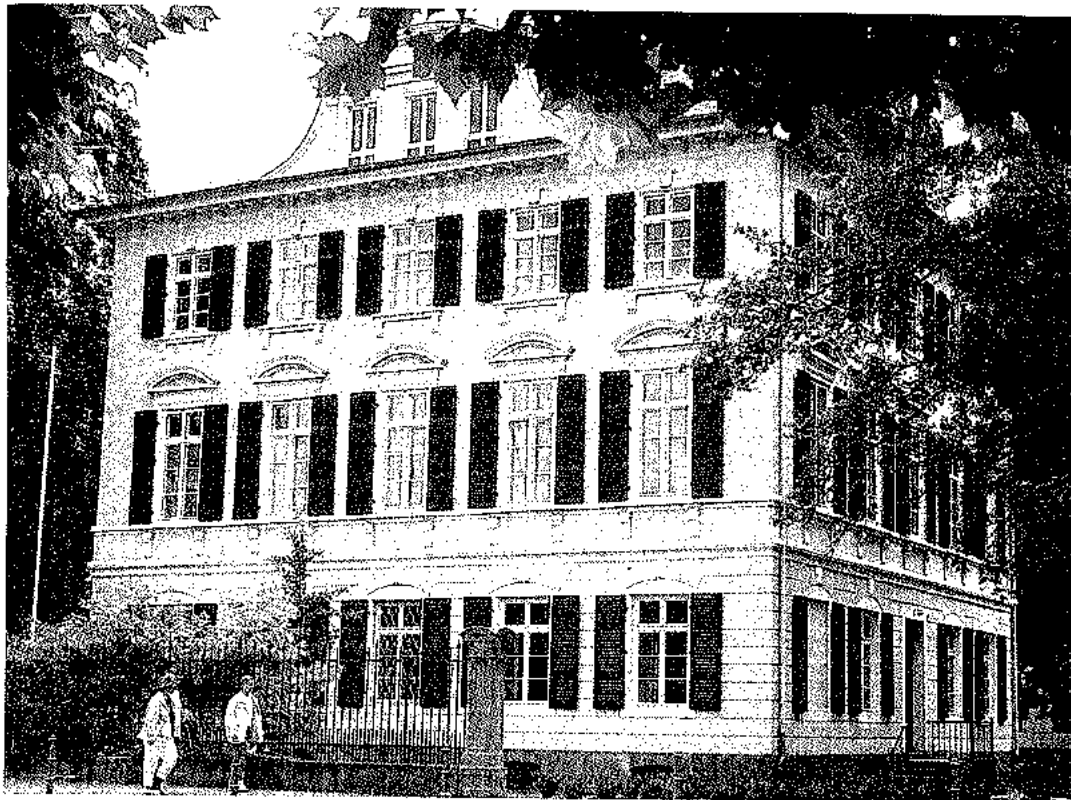
국제공모전을 위한 설계과제로써 본 박물관의 완성후 현 시점에서 그 핵심적 설계구상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건축을 통한 옛 것과 새 것의 혈연적 유대관계의 실현이다"라고 말할수 있겠다. 지금 본 박물관이 완성되어, 콘크리트, 유리, 또는 여러 공간들로서 형성된 건축대상을 순수하게 비평할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어, 이에 본 박물관에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나름대로 상이한 두 갈래의 개인적 평을 갖고 있다.

그중 한 갈래는 "어디서 많이 본듯한 건축인데..." "어머, 다른 한 갈래는 "아하! 포르튀제? 하지만 어딘지 마이어다운..." 이다. 반면에 절충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조심스럽게 할 수도 있다. 동선연결의 핵심적 기능을 지닌 "Ramp", 분리된 외벽 및 내부벽, 외부로부터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일층 입구, 정육면체 상자와도 같은 건물 메스의 조합, 고전적인 분수대와 외부 공간계획, 돌출창과 건물축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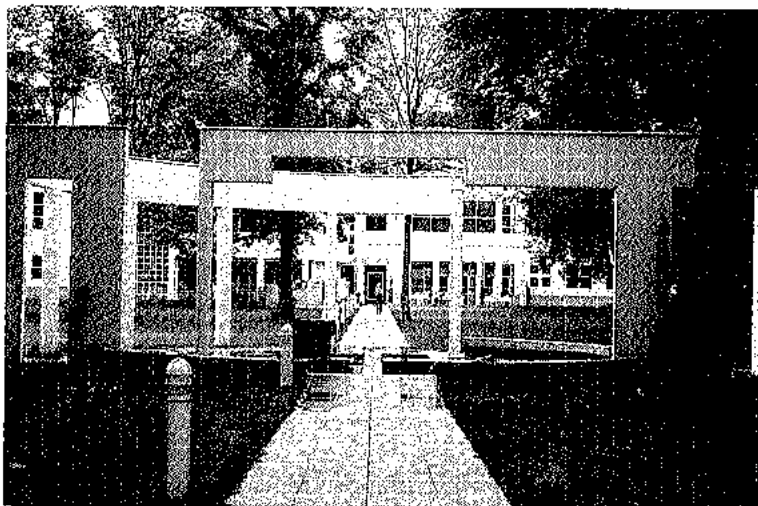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의 총합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 독특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마치 형태실리학에서 주장하는 "전체논리"에 일치하듯—"전체는 부분들의 합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체 기본구상개념을 논하면, 원래 대지에

関相忠

(주)공간연구소연구실
by Min, Sang-Choong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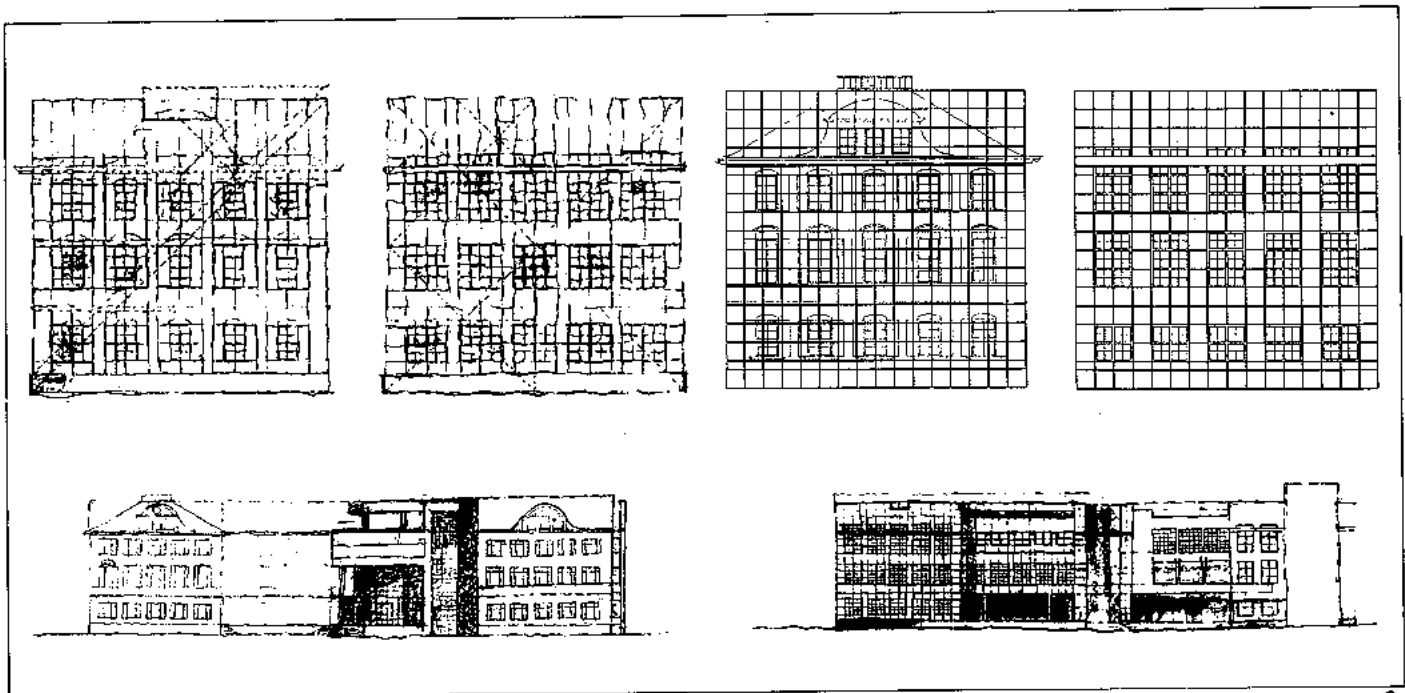


③



④

- ① Villa Metzler 전경
- ② 대지내 공원분수
- ③ 박물관 입구 전경
- ④ Villa Metzler와 신축박물관과의 Bridge 연결
- ⑤ 대지내 보도축의 동측 끝부분
- ⑥ 대지내의 공원분수
- ⑦ 건물축상에서 본 공원분수



㉑ 1층평면

- A. 입구중정
- B. 현관홀
- C. 교체전시실
- D. 레스토랑
- E. 행정실
- F. 도서실
- G. Villa Metzler

H. 중정

㉒ 2층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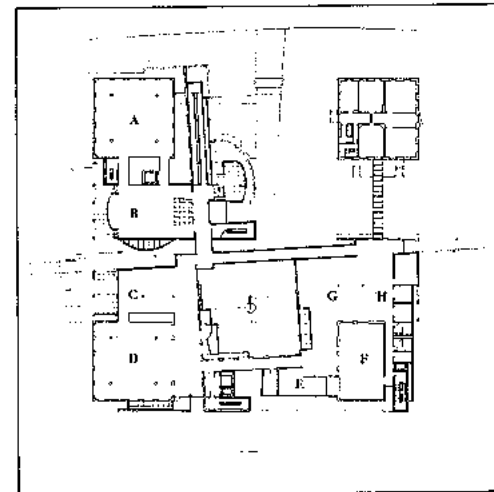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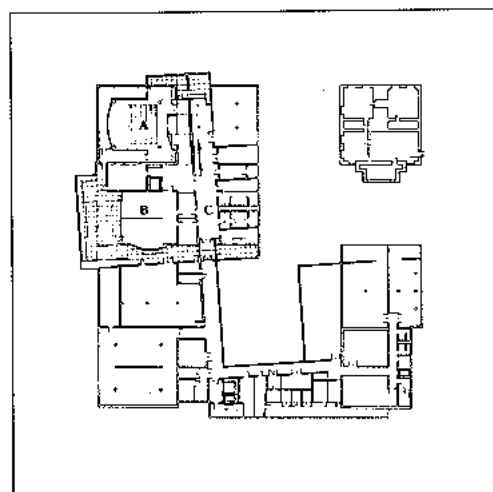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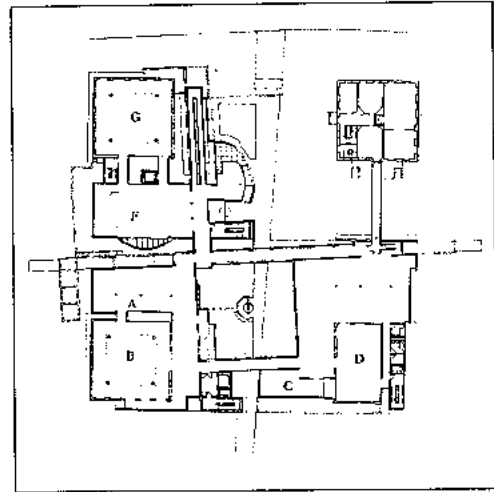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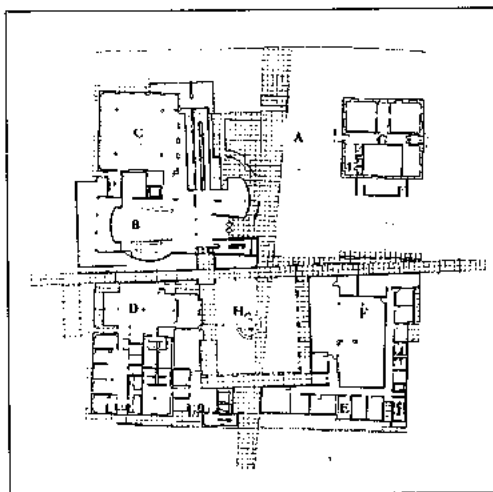
- A. 중세 전시실
- B. 르네상스 전시실
- C. 수공예기술 전시실
- D. 바로크 전시실
- E. Villa Metzler
- F. 19세기 Jugendstil 전시실
- G. 20세기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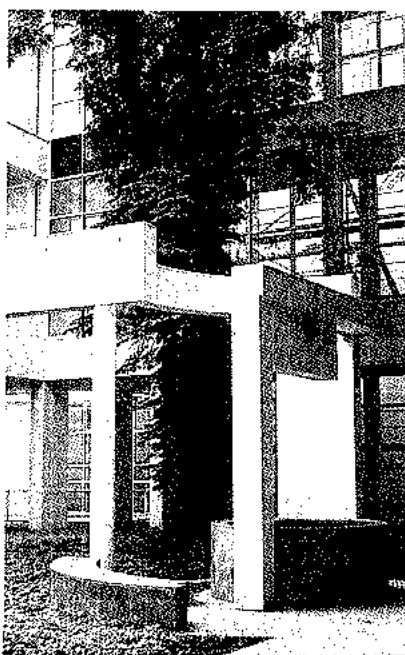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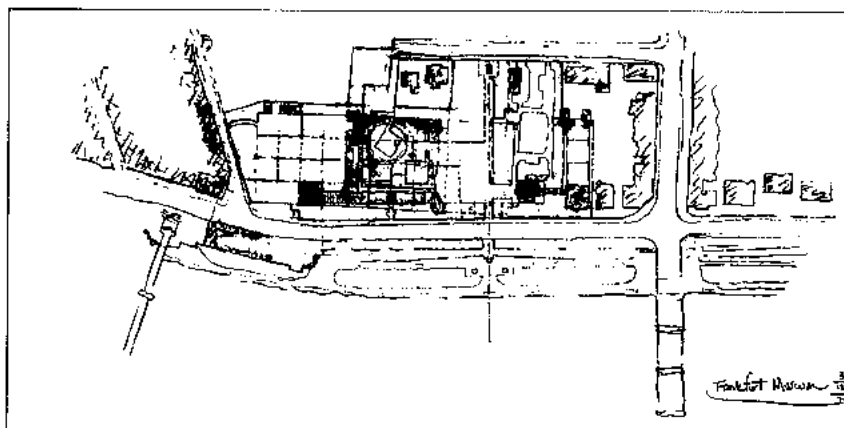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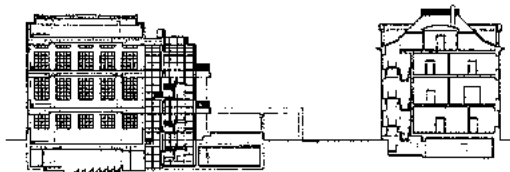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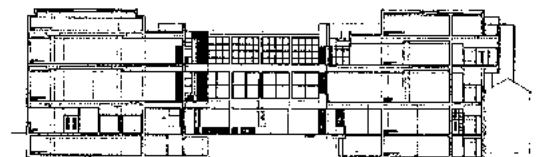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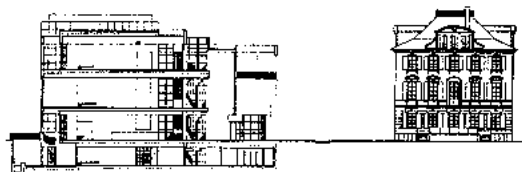
㉓ 지하층평면

- A. 강연실
- B. 박물관 교육홍보실
- C. 화장실 (장애인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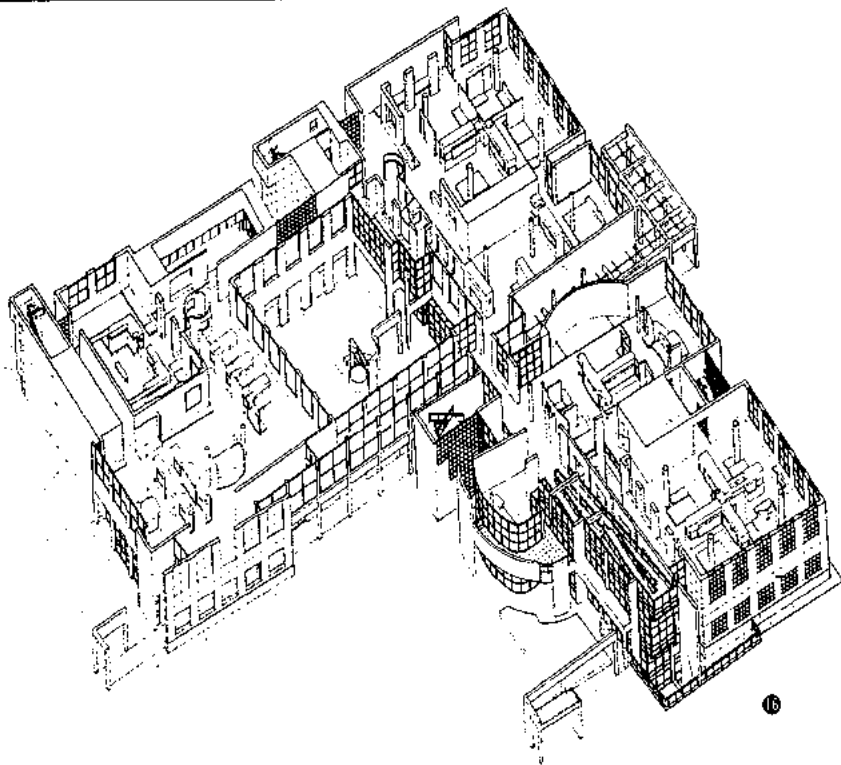
㉔ 3층평면

- A. 페르시아, 인도 전시실
- B. 터어키 전시실
- C. 중국자기 전시실
- D. 중국 도자기 및 동아시아 전시실
- E. 중국 유리공예 전시실
- F. 동아시아 전시실
- G. 동·서양 교차관계 전시실
- H. 서적출판 및 도예 전시실
- I. Villa Metzler





- 간축사 9004 83



위치한 옛 건물 “Metzler-Villa” 1로 부터 1.1m X 1.1m 정사각형의 16개 격자망으로 구성된 기본모듈의 새 계획에 의한 확장적용, 커다란 입구면적, 근접한 녹지공원, 인접한 마인강 줄기와의 일치를 위한 3.5도 건축물의 변경, “Ramp”를 통한 동선연결체계등을 들수 있다. 확실하 본 프랑크푸르트의 박물관 건축은 그의 미국

Atheneum(1979)에서의 전 건축으로부터 이어지는 발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겠으며, 이미 그의 Atheneum 건축내에 이미 본 박물관에 적용한 대부분의 그의 건축언어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아주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본 박물관에서 처럼 그렇게 그 건축표현이 확실치 못했다.

즉 본 수공예박물관에는 자기 다른 방향속에서 전형적인 독일의 완벽성이 추구되었다. 그 예로써 Meier는 마인강변측에 작게 세분된 창문의 개구부를 설정했는데, 이는 1.1m X 1.1m 기본모듈에 더욱 이상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그의 건축적 시도에 기인한다. 이로부터 요구되어진 3중창 시스템의 적용으로 1.1m X 1.1m 모듈내에서 건물의 정면을 조잡하게하고, 채광을 위한 이상적인 공간의 척도를 장애하는 맞지않는 산업 규격화 창문으로 되어버렸다. 하지만 이는 박물관으로써의 본 건물의 기능에 일치한다 하겠다. 또한 Meier는 높고, 넓은 박물관을 원했기 때문에 전시될 전시품 들을 위하여 새로운 공간척도 시스템이 필요했다.

이를 위하여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 유리 진열장, 내부통로, 칸막이

이동벽, 진열대, 기타 전시와 관련된 장소등 - 건축적 고안을 시도했다. 대부분의 창호는 정밀한 금속판으로 짜여진 창문사터를 통하여 채광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새로운 공간적 특성을 얻게 되었다.

만일 누군가 전시품이 전혀 없는 전시공간을 경험하게 된다면, 전시공간이 갖고 있는 공간의 질에 대하여 감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본 박물관을 통한 주목할 만한 건축적 시도으로써 박물관 관람자의 기억속에 건물을 프랑크푸르트도시와의 연계속에 일치시키기 위한 주변환경에로의 시각적 유도를 들 수 있다.

이는 공모전 당시 2등을 수상한 유명한 독일 건축가 Ungers의 작품속에서는 거의 고려되지 못한 도시계획적 설계개념이었다. 모든 건물의벽은 마치 구멍이 난것 같이 만들어졌으며, 또한 “Ramp”가 위치한 계단실은 유리재 외벽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물론 이는 여름철 뜨거운 태양 직사광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겠지만, 반면에 이를 통하여 건물내부와 외부에서 관람자들이 오르내리는 모습, 방향전환, 인접한 다음 전시공간으로의 진입, 외부공간 - 마인강과 도시상등, 녹지공원, 건너편 건물에 보이는 전시실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을 가능케 한다.

이같은 “스스로 열려진” 공간언어를 통한 건축적 시도는 “일련의 박물관에로의 초대”라는 건축 기호학적 의미의 건물에의 부여하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리고 본 수공예박물관은 옛 Villa Metzler와 2층 높이에서 연결다리 (bridge) - 두 건물간을 연결하는 유리 상자와의 같은

동선연결체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었다. 이를 통하여 두 건물(수공예박물관과 Villa Metzler)은 하나의 통일된 전시공간 체계가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박물관 건물은 Villa Metzler의 연결로 인하여 전체계획영역의 핵심부분을 형성한다. 새로 계획된 박물관의 모듈을 위한 기본 격자망의 크기는 옛 Villa Metzler의 격자형 기본형태에 기인하여, 이로부터 박물관 건물의 공간 비례 및 기본척도를 계획하게되었다. 이 기본 격자망은 장소에 따라 건축선 후퇴 및 건물축 등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 및 중첩되어 이루어졌다.

외부공간은 옛 Villa Metzler와 새로운 박물관, 그리고 다시 박물관과 인접 녹지공원, 또한 박물관과 도시를 전체로써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바로 전체 박물관 영역을 위한 근본적이며 독특한 건축적 요소라 하겠다. 특히 박물관의 입구영역에서 모든 통로는 서로 연결된다. 즉 건물내부의 통로와 외부 공간에서의 통로를 말한다.

본 수공예 박물관은 예술의 전당으로써뿐만 아니라 박물관 자체가 지니고 있는 방향제시의 기능 및 공간과 빛의 관계, 공간표현 및 공간구성등에 있어 마치 교과서적인 건축언어를 지니고 있는 모범적 박물관 건축으로써 박물관 자신 스스로가 제시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전시공간의 건축은 조용하고, 단순하여 전시될 대상물에 적합하다 하겠다. 각각의 전시공간내에서의 “Situation”은 독특하다. 즉 전시물과 그들의 배치는 그들 고유의 분위기를 연출하며, 이 분위기 가운데 전시물의 크기, 형태 및 재료는



스스로 변화한다. 결코 전체가 갖고 있는 유기체적인 명료성은 잃지 않고... 건축은 전시물들이 그들의 걱정된 효과를 위한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시물에 대하여 다소 겸손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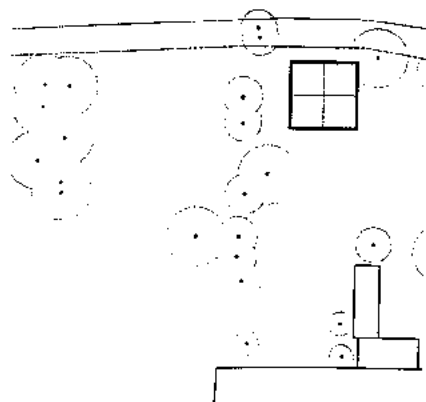
3. 건물개요

본 박물관은 1982년 2월에 공사가 시작되어 1984년 8월에 완공된 후 1985년 4월 개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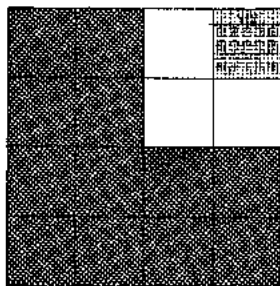
건물체적은 55,000m³, 총 대지면적은 10,000m², 전시면적은 7,200m²이다.

박물관의 전시공간 분할체계는 유럽, 이슬람 및 동아시아에 관한 수공예 작품과 서적 및 서예품을 위한 4개의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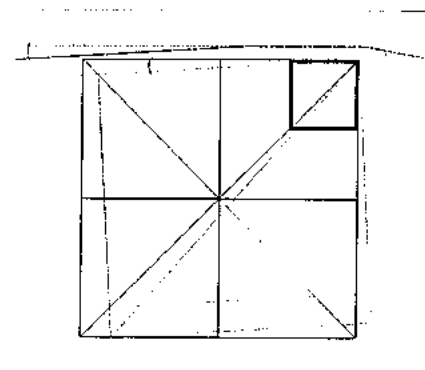
다이어그램1 : 대지내의 주어진 조건으로써 계획에 반영되어져야 할 부속건물, 즉 정방형의 Villa Metzel 위치와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위치



다이어그램2 : 박물관 신축 건물을 위한 기본 모듈은 Villa Metzel 기본평면크기(17.60m×17.60m)의 세로·가로방향의 각각 4배 연장으로부터 얻어진 정방형의 격자망에 근거한다. 박물관 신축건물 입구 입면부분의 판넬크기(1.10m×1.10m)와 각 층의 창문위치 및 분할은 Villa Metzel 정면의 개구부 면적과 그 외의 폐쇄된 면적과의 비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동시에 격자의 크기는 건물 내부에서의 기능적 구성에 따라 정해졌다. 4개층 3개의 대 격자망 면적부분이 신축 박물관을 위해 면적은 Villa Metzel과 입구중정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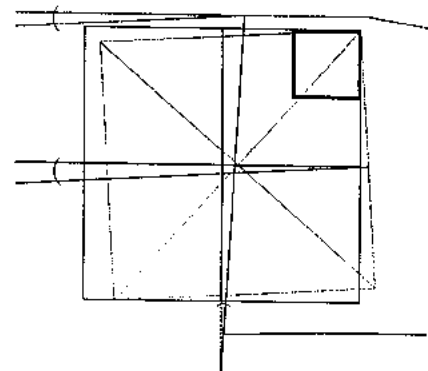
다이어그램3 : 신축건물면적 부분의 3.5°축의 변경은 Schaumainkai 도로서측에 이접되어 지어진 박물관 건물의 도로와의 평행한 건축선 후퇴를 위한 목적에서 발전되었다.



- ⑬ 엑스노메트릭
- ⑭ 현관홀
- ⑮ 건물 내부에서의 Ramp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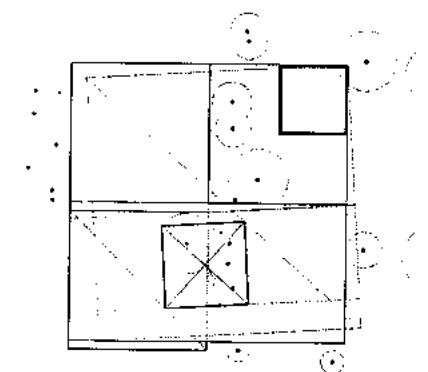


다이어그램4 : 남북대지 경계선 사이에 3.5°변경된 건물축을 따라 기울어진 대지내 보행자 통로는 Metzler도로와 Schaumainkai도로, Eisernen Steg 오솔길과의 보행자도로 연결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어 졌다.



다이어그램5 : 건물 Complex를 통한 보행자 통로축의 관입은 기본 격자망의 세분화에 도움을 주며, 오픈된 내부중정(중정의 형태는 Villa Metzler의 격자망 기본평면에서 비롯)을 형성한다.

Richard Meier는 내부중정공간을 수목의 보존과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자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동선순환체계 구성을 위한 중심 공간으로써 계획하였다.



(註)

1. 1803년 약사인 Peter Salzweber에 의해 지어진 후, 1865년 당시 은행가였던 Friedrich Georg Metzler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그가 미국 New Harmony에 설계한 "Atheneum(1979)"에서는 5의 건물축을 변경시켰다.

새로운 채광수법으로서의 아트리움(3)

—기본형태 및 채광계획—

Atrium as Emerging Daylighting System(3): Shaping and Daylighting Design

지난 회에서 개관했듯이 1970년대에 아트리움 건축이 성공을 거둔 큰 이유중의 하나는 인공에너지의 소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있었다. 그러나 초기의 아트리움 건물은 대부분 에너지 절약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때의 아트리움은 시각적 효과에 큰 역점을 두었지 아트리움과 에너지 시스템을 통합화하지 못했다. 아트리움 건축이 건축에너지의 소비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많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트리움을 설계할 때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문제가 설계과정에서 건물형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아트리움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형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즉, 아트리움을 이용하여 자연광을 실내에 충분히 유입시킬 뿐만 아니라 종래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전도·방사로 인한 열손실·열취득과 누기(漏氣)로 인한 열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을 고찰한다. 또한 태양열을 기후조건에 따라 건축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찰함으로써 아트리움을 제2의 건물외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설명하고자 한다(이 부분은 다음회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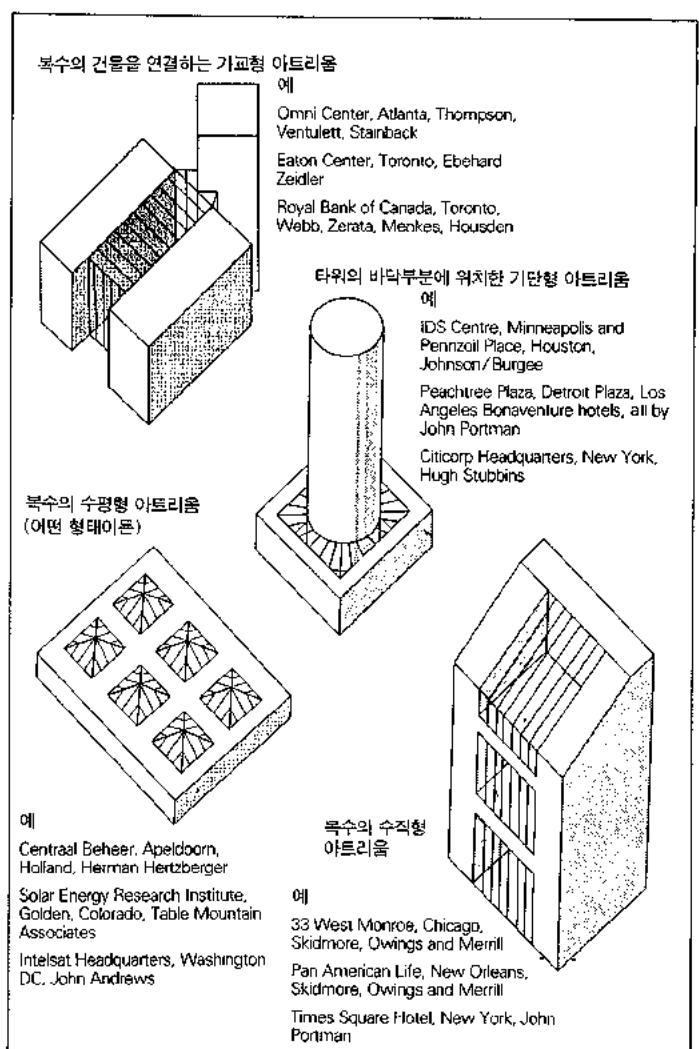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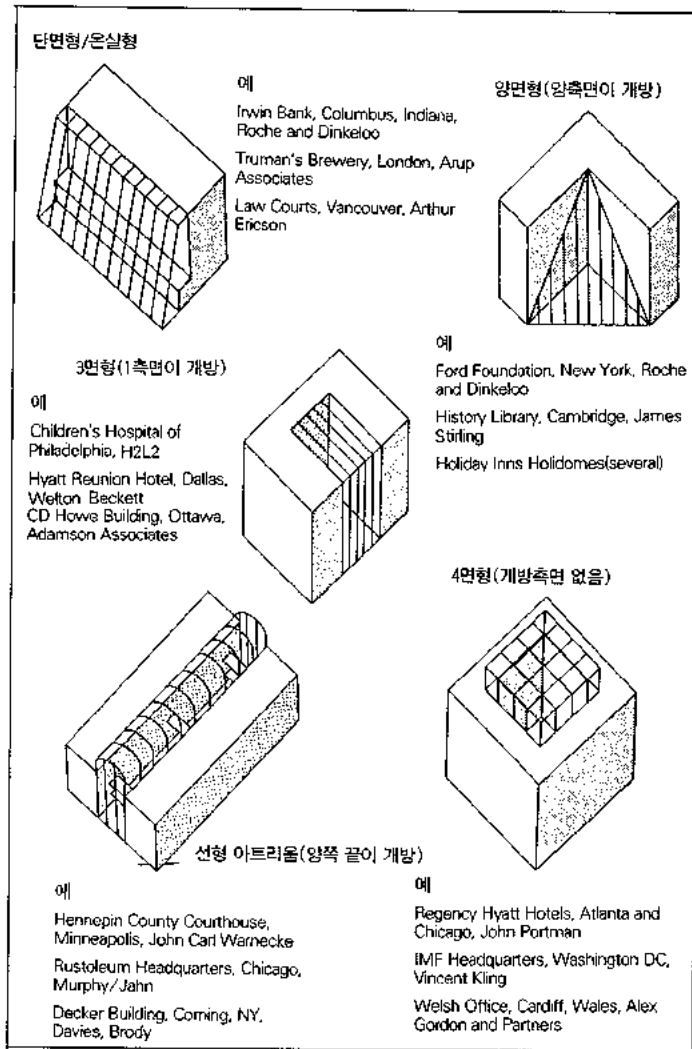
채광효과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아트리움을 일광집광(日光集光) 및 배광장치로서 고려하여 그 주위의 공간을 자연채광하기 쉽도록 배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열이나 환기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그늘을 만들거나 또는 집열하기 쉽도록 방위를 정하고 아트리움의 공간 체적을 공기조화와 연결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건물의 기본형태는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아트리움의 기본형태

● 아트리움의 평면 깊이

거주공간을 효과적으로 자연채광하고자 할 경우 비주택용 건축은 기존의 평면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갖게 된다. 이것은 평면 형태를 단순화하고 창을 작게 만들어 평면깊이를 깊게 잡은 1970년대 초까지의 일반적인 건축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 물론 현재도 많은 아트리움 건축은 기본적으로 인공조명으로 되어 있고 평면깊이가 깊어 아트리움은 채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시각적 효과(평안함을 얻음)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아트리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거주공간의 평면깊이는 얇게 하고 높이는 높게 하여, 거주 공간의 배경이 적어도 자연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밝기를 연출해야 한다. 전통적인 층고와 창으로 된 건물은 보통 12m 정도의 평면깊이를 갖고 있는데 층고를 높이고 빛반사 장치를 사용하면 자연광을 보다 더 실내 깊숙히 사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천정높이를 2.7m에서 3.6m로 증가시키면 창에서 9m 안쪽까지도 양질의 빛을 유입시킬 수 있다. 평면 깊이와 층고 사이에는 건물 전체의 일정한 용적 범위안에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 평면깊이가 얇은 공간에서는 외주부에서 자연광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정과 바닥 사이에 서비스용적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층고의 감소로 아트리움의 용적은 상쇄된다. 실내깊이가 긴 평면을 자연채광하기 위해서 천정 높이를 증가시키면 소정의 건축높이에서 취할 수 있는 층 수가 줄어들며, 공간을 환기하는데 필요한 「틈새(interstitial)」 용적도 늘어난다. 만일 실내깊이가 깊은 공간쪽이 얇은 공간보다 기능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들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검토해야 한다. 만일 모든 배경조명(ambient lighting)을 낮에는 자연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열수지(熱收支)적으로 볼때 효과가 크다. 즉 냉방부하가 대폭적으로 경감되며 난방이 필요할 경우에는 아트리움의 집열효과가 큰 도움이 된다. 또 한가지 방법은 실 깊이를 길게하되



자연광으로는 부족한 부분은 인공조명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코어부분의 남은 열은 열이 부족한 외주부로 돌릴 수가 있다. 외주부와 코어사이에 열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검토하고, 아트리움으로 열을 난방시킬 것인지 아니면 아트리움으로 열을 냉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열역학적으로 볼때 같은 양의 열을 냉방시키기 보다는 난방시키는 것이 항상 경제적이다.

●아트리움에서의 공간배치

이상과 같이 공간의 폭을 결정한 뒤에는 실제 부지에 맞추어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해당건물의 목적에 필요하거나 또는 허용되는 면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아트리움이란 어떤 공간을 연결시키거나 접치는 패턴에 의해 결정되는 빈 공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건축형태를 검토하는데 가장 적합한 창조적인 방법은 「이중 외피 (double skin)」에 대한 사고방식일 것이다. 이 경우 건물 외피는 거주공간의 패턴과는 독립시켜 생각할 수가 있으며, 외피의 바람직한 형태는 도시 디자인상의 요소와 해당부지 및 인접부지의 태양과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만들 수 있는 외피와 필요한 이용공간을 비교할 때 남은 용적이 아트리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이 된다. 이중 외피는 아트리움 개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중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거주공간이 바깥쪽까지 확산되는 부분에서 외피와 내피가 일치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된다.

아트리움의 배치는 아트리움내에서 집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열을 냉각시킬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고장의 기후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건물이 어느 위도에 위치하는가에 관계없이 빛은 위에서부터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채광상 가장 경제적인 수단은 천창채광이다.

난방을 위해 천창으로부터 태양광을 받아 들이는 것은 간단하지만, 천창을 이용하여 가장 잘 집열할 수 있을 때는 열이 가장 불필요한 여름철이다. 기후가 서늘한 지역에서는 남쪽으로 향한 유리벽이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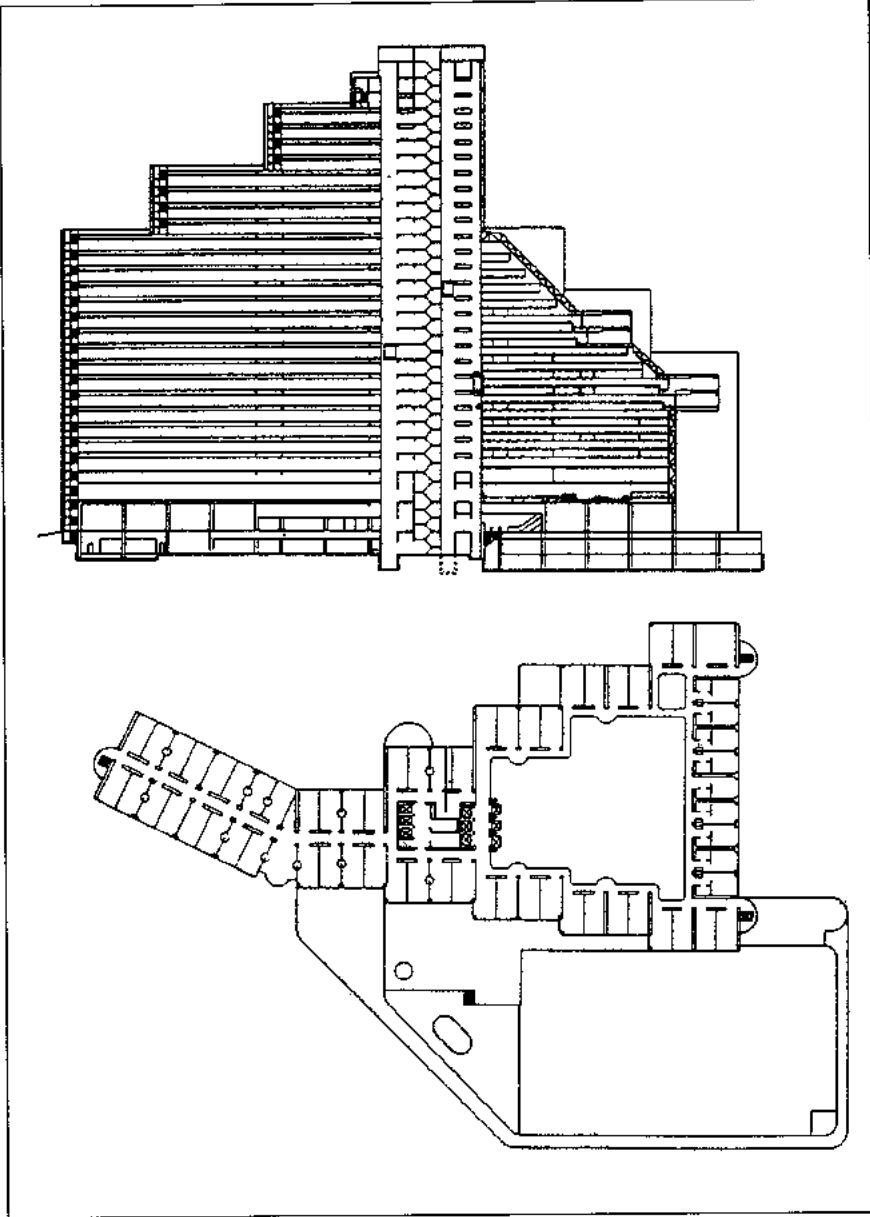
고도의 태양광을 받아들인데 바람직하다. 보다 더 따뜻한 지역에서는 수직에 가까운 남향 유리벽 쪽이 지붕 창보다 바람직할런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경우 고도가 높은 직사광선을 차단하면서도 상당한 양의 반사광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천창도 태양광을 유입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형태와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

·경치가 특히 중요하지 않다면 동서쪽을 향한 아트리움의 측면은 만들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런 아트리움은 여름철에 낮은 고도의 태양광이 들어와 차단하기가 곤란하고, 겨울철에는 남향 유리벽보다 훨씬 더 많은 열을 손실하기 때문이다.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진북향 유리벽은 직사광 없이 천공광만을 실내로 유입할 수가 있으며, 열대지역에서는 태양이 북쪽으로도 돌기 때문에 태양광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아트리움의 형태와 창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방과 창을 설계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규모가 더 커진다. 일반적으로 서늘한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유입하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태양광을 차단한다. 건물의 평면값이와 기후에

①아트리움 건축의 일반적 형태 : 단순형

②아트리움건축의 일반적 형태 : 복합형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이다. 내부의 요구조건은 건물형태의 결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된 결과, 건물형태와 도시적 맥락은 고작 적절한 재료의 사용이나 표면 처리의 조절에 불과하였다.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아트리움 건축은 그 형태와 메스를 유연하게 바꿈으로서 도시의 맥락에 응답할 수 있다. 아트리움의 기본적인 형태는 바람직한 외적 의미에 따라 선택한 후 기능적 장점을 최대한 획득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트리움 건축의 일반적인 형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 보다 더 세련되게 할 여지가 많다. 일단 거주공간의 기본형이 건물 외피와 분리되면 내부공간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더욱이 다른 건축형태에서 처럼 경제적인 영향이 발생될 위험성도 없다. 따라서 아트리움 건축이 새로운 건축형태를 만들어낼 잠재적 가능성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 일단 설계자가 아트리움 수법에 확신을 가지면 서비스상의 장점을 희생할 필요없이 독창성있는 설계를 할 전망이 충분하다.

■ 아트리움의 자연채광계획

● 아트리움은 자연채광이 열쇠

아트리움이 건축의 에너지절약에 기여할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은 자연광의 이용을 재인식하는데 있다. 인공조명의 비용 즉, 직접적으로는 전력소비, 간접적으로는 조명발열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자연채광 비용보다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간에 인공조명을 사용하는 현재의 현상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채광의 에너지비용은 유리의 단열성능과 차광성이 낮기 때문에 유리를 통하여 많은 열이 출입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만일 아트리움을 계획할 때 열적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면 자연채광은 분명히 우위에 있으면서, 대형이며 콤팩트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면길이가 깊은 계획」을 할 수 있으므로 양쪽 목적이 모두 달성되는 셈이 된다.

바람직한 자연채광이란 적절한 질의 빛이 가능한한 실내 안쪽까지 유입되는 것으로서, 양보다는 질이 문제가 된다. 즉, 클리어와 대비가 적어야 하는 등 작업공간에서

상관없이 실내가 과열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태양광을 차단시켜야 한다.

● 아트리움의 일반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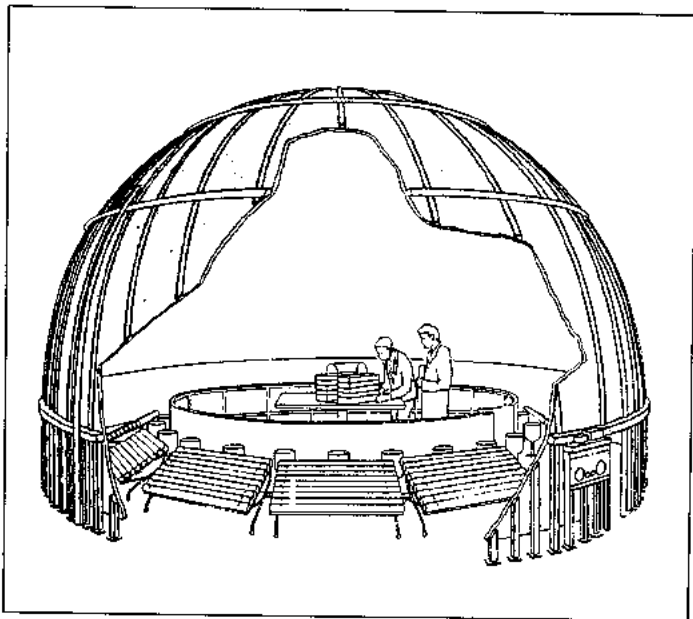
설계구상의 단계에서는 아트리움의 형태를 계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아트리움은 5개의 단순형과 4개의 복합형으로 구분한다(그림①과 그림②에 예와 실례사용된 경우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적 형태를 잘 조합하면 새로운 혼성형을 만들 수도 있다.

5개의 「순수형」, 즉 단면형에서 4면형까지와 선형 아트리움은 작고 단순한 건물에서부터 커다란 복합건물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다. 복합형은 단순형 보다 고밀도이며 대규모적인 개발에 적합하다. 매우 웅색한 부지에서는 아트리움을 선택하기 어려우며, 부지에 여유가 있으면 복수의 수평형 아트리움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아트리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대형이지만 콤팩트한 저층 복합건물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레벨에서 넓은 자연채광 공간이 이루어질 것이다. 복수의 중정형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크로스 오버버(cross-overs)」 공간은 서비스코어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용가능한 공간을 모서리끼리 연결하거나 또는 연락브리지로서 복수의 선형 아트리움을 사용하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이다. 전자의 방법은 John Andrews의 인텔사트본사(워싱턴 D.C)에서, 그리고 후자는 E. H. Ziedler의 매켄지 헬스센터(에드먼트)에서 각각 채용되고 있다.

● 아트리움에서의 형태와 자유

내부적인 요인만이 모든 건축 형태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20세기에서의 타워형(tower)이나 판상형(slab)건물이 지닌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 형태가 도시의 맥락속에서



4

- ③ 하이아트 리젠시 호텔(달라스) 켈튼 베케트 설계사무소, 1979. 일리노이주 센터와 마찬가지로 3면형 아트리움으로서, 일반적인 형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갖가지 아이디어를 주장하고 있다.
- ④ 인공천공장치 영국 세인트 헬렌즈, 필딩톤社. 아트리움이 만들어진 건물모형을 인공천공장치 안에 놓고 담천공일 때의 채광특성을 조사한다.
- ⑤ 자연광을 모으기 위한 아트리움의 지동형태
- a 구름이 많고 온화한 기후에서의 랜턴 라이트
 - b 태양빛이 풍부한 우난한 기후를 위한 틈남지붕
 - c 태양빛이 풍부한 온난한 기후를 위한 북향의 틈남지붕
 - d ~ g 테네시주 차타누가의 TVA 본부빌딩을 위해 고안된 설비형 차양을 가진 지붕창. 4가지의 작용상태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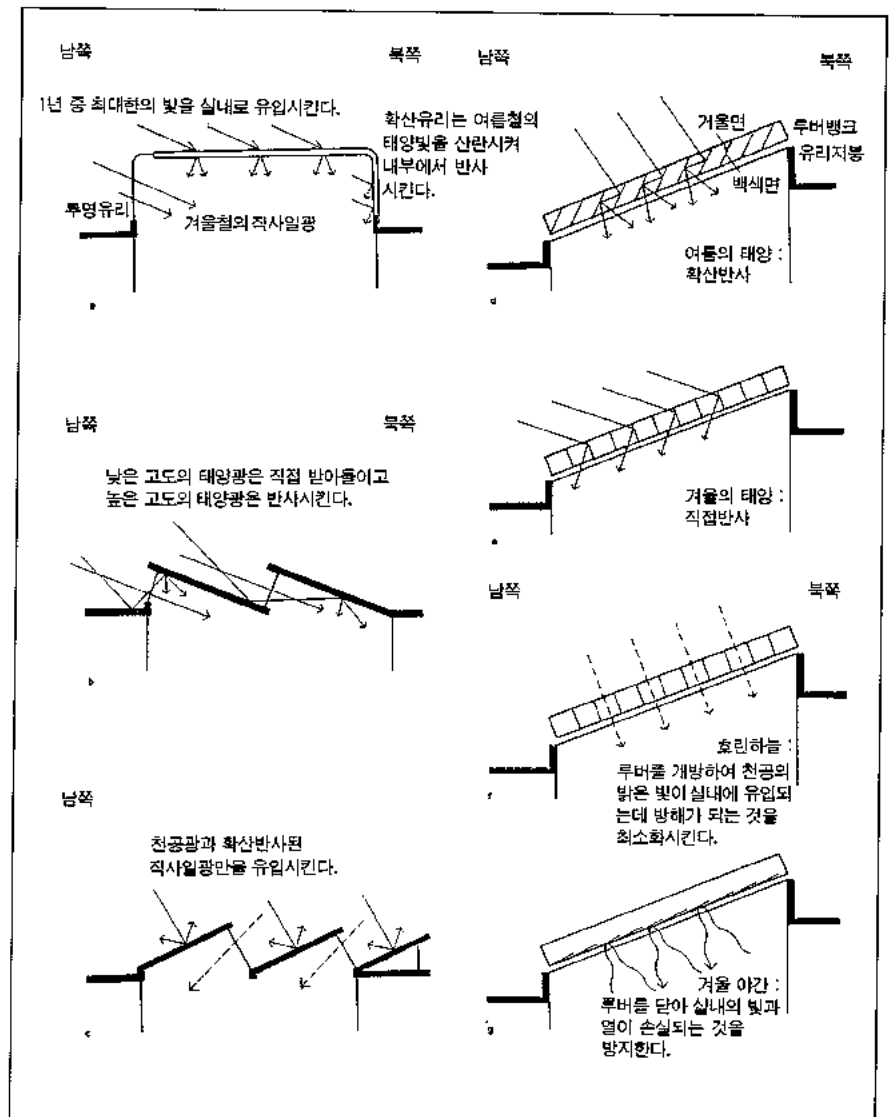
나타나는 빛의 질이 가장 큰 과제이다. 한편 주택건축이나 레저건축에서는 빛의 요구조건이 훨씬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성능보다도 공간의 성격을 부여하는데 빛을 이용하고 있다. 사무실형 공간에서는 빛과 질에 대한 요구가 변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오피스 일렉트러니스(오피스 오토메이션)의 진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빛은 엠비엔트 라이트(배경광)와 데스크 라이트(작업광)의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조합함으로써 보다 쾌적하고 기능적인 조명환경을 연출한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데스크 라이트란 작업면을 중심으로 작업에 가장 적절한 밝기를 제공되는 빛을 말하고, 엠비엔트 라이트란 배경조명을 의미한다. 배경과 작업면 사이의 밝기 대비가 너무 지나치게 크면 대비상 문제가 발생된다. 배경조도는 작업면의 $1/2 \sim 2/3$ 가 이상적으로서 사무실의 경우에는 $300 \sim 500$ 룩스 정도를 의미한다. 잘 설계된 건물에서는 이에 상당한 부분은 자연채광으로 달성된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사용되는 전자화된 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작업조명 기구가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작업대상 그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배경조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화면에 반사되는 밝은 광원은 작업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천정에 부착된 조명기구나 창 위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채택한 작업공간을 위해서는 간접광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일반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자연채광의 계산방법이 확립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아트리움 건축에 적용할 수가 없으며, 아트리움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법은 아직 개발중이다. 일반건물에서 사용되는 예전의 수법은 직사일광과 직사일광으로 인한 실내에서의 반사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트리움 건축에서 실내로 입사되는 빛은 아트리움 내부표면에서의 2차 또는 3차 반사 산란광이다. 언젠가는 컴퓨터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복잡한 빛의 거동이 재현되겠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적합하게 아트리움의 채광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물리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즉 설계된 아트리움과 각 방의 축척모형을 「인공천공」 상태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공천공은 유리회사의 연구소, 건축학과, 에너지연구소 등에 있다. 우리나라에는



5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일본에서 제작한 半球型 人工天空 돔이 있어, 각종 설계안의 자연채광 성능을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전설기술연구원의 김강수 박사팀이 사각형 인공천공을 연구용으로 제작하였다. 이 테크닉은 품과 비용이 많이 들 것처럼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큰 프로젝트에서는 반드시 실시할 가치가 있다. 모형실험수법을 사용하면 설계자는 아트리움의 채광에 대한 3가지 요소를 조절할 수가 있다. 즉, 어떻게 아트리움으로 빛이 유입되는가, 아트리움 안에서 어떻게 빛이 반사하여 구석구석에 까지 이르는가, 그리고 아트리움 주변의 공간에 어떻게 자연광이 유입되어 「작업면」에 도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아트리움의 자연광 유입방법

아트리움에 빛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지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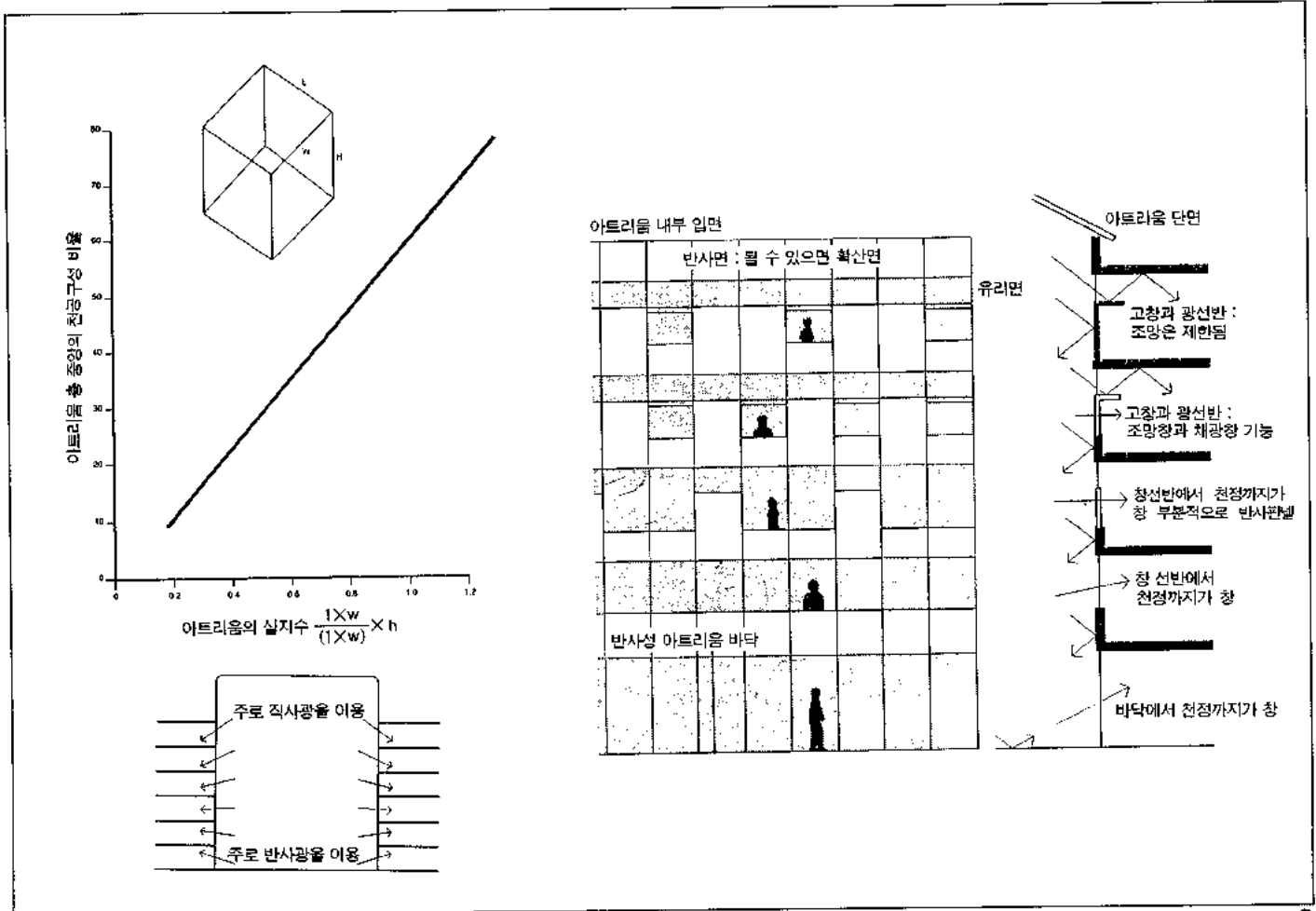
기후이다. 흐린 하늘(담천공)이 많은 지역과 거의 맑은 하늘(청천공)이 많은 지역은 서로 다른 어프로치가 요구되며, 또한 기온이 균질하고 온난한 기후인 곳과 일교차나 연교차가 큰 지역은 어프로치에 큰 차이가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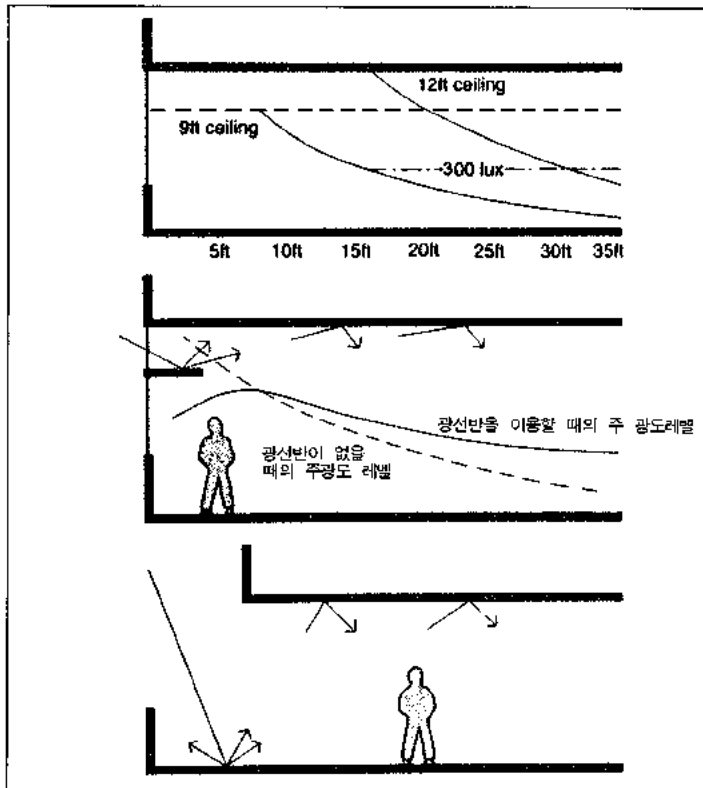
온화하며 담천공이 많은 영국이나 북유럽 나라들에 있어서 주광(晝光)은 담천공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실제로 표준담천공(CIE-국제조명위원회-天空)이 자연채광의 계산과 모형실험에 이용되고 있다. CIE 담천공의 평균조도는 5,000룩스이지만 천정(天頂)은 수평선 보다 밝다. 이런 환경에 이상적인 아트리움은 천창채광 형식으로서 되도록 빛을 실내에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 차폐물이 없는 투명한 유리지붕을 사용한다. 그렇게 하면 하늘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확산광이 아트리움으로 입사하게 된다. 직사광이 비칠 경우에는 아트리움의 웅덩이쪽이 되는 각 실에도 빛이

분산 전달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맑은 날씨(청천공)가 많은 지역에서는 직사광으로 자연채광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직사광은 지나치게 강할 뿐만 아니라 그림자의 농도가 너무 분명하여 차양으로 차단하거나 확산광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만일 흐린 날씨라도 하늘이 통상적인 밝기라면 북향의 지붕창이 충분한 확산광을 실내로 받아들여 준다.

「툽날」지붕을 사용하면 태양광을 북향 유리로 반사시켜 북향 유리로부터 태양열을 제외한 태양광만 유입시킬 수도 있다(그림 ⑤의 C 참조). 평소에 구름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천공으로부터 모여지는 빛은 거의 없으므로 일광을 포착하여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연형이나 설비형 차양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자연형 어프로치에서는 태양방향으로 유리를 가까운 톱날지붕을 사용하며, 여름의 직사광은 외부에 고정시킨 차양으로 지붕면의





⑥ 주광의 배분

a 아트리움 바닥에 이르는 직사광의 양은 아트리움의 프로포우선에 달려있다.

아트리움 층 중앙의 천공구성비율(%) : 아트리움의 설치수

b 거주공간으로 자연광을 유입시키는 방법은 아트리움의 층에 따라 다르다. 주로 직사광을 이용 주로 반사광을 이용

c 아트리움 하층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반사광의 양은 각 레벨에서의 벽 디자인에 따라 증가된다.

아트리움 내부 입면

⑦ 거주공간의 자연채광계획

이용할 수 있는 자연광의 실내부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천정 높이이다. 천정높이가 2.7m에서 3.6m으로 증가되면 이용할 수 있는 배경조도의 레벨이 확보될 수 있는 실 깊이는 두배가 된다. 실 안쪽에서는 창 높이가 낮아도 별로 빛의 감쇠상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광선반은 직사광에 유효하다. 광선반은 빛을 창가에서부터 안쪽으로 재배분하고, 동시에 대비를 약화시키며 열위도를 감소시킨다.

바닥을 스텝보양으로 돌출시키면 아트리움과 마찬가지로 각 층으로부터 스카이라이트가 보인다. 최하층의 바닥재료가 반사성이면 빛이 실내쪽 깊숙한 곳까지 이르게 된다. 광선반을 이용할 때의 주광조도레벨 광선반이 없을 때의 주광조도레벨

안쪽으로 반사시킨 뒤 아트리움으로 유입시키고, 거울의 일광은 직접 지붕 밑에서 반사시켜 아래쪽으로 유입시킨다.

설비형 차양은 온난한 기후 지역이나 계절 변동이 심한 지역에 적절한 수법이다. 차타누가의 TVA 빌딩에서는 자연채광을 위하여 작은 외부용 차양배인(vane)이 검토되었다. 이것은 전통으로서, 태양추미(太陽追尾)의 광전판과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제어된다. 배인의 한쪽면은 거울로 되어있고 반대면은 백색으로 되어 있으며, 각 계절마다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양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빛을 확산시켜 아트리움으로 보내고, 거울 야간에는 셔터 역할을 한다(그림 ⑤의 d ~ g 참조).

매우 뜨거운 사막지역에서는 적절한 주광레벨을 확보하는데 아주 약간의 빛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지역에 있어서 대부분의 태양광은 차단시키고 실내로 유입되는 빛은 확산광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5~15% 정도의 일광을 담천공과 같은 확산광으로 변화시켜 통과시킬 수 있는 천으로 만든 지붕이 효과적이다.

태양광과 함께 실내로 유입된 열은

지붕아래에 따뜻한 공기층을 만든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붕로부터 분리시켜 들어올리는 랜턴(頂塔)이나 모니터형으로 만듦으로써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그림 ⑤의 a 참조 옆에 대한 전략은 다음 회를 참조). 랜턴은 측면으로 사입되는 빛을 모으는데도 효과적이지만 특히 북방 기후에서 효과적이다. 측면의 유리는 지붕면의 유리보다는 창틀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담천공 일때는 밝지 않지만 청천공일때의 일광은 아트리움으로 쉽게 입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거주공간의 지나치게 따뜻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차양은 아트리움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아트리움 지붕 자체에 차양을 설치하면 담천공일때 확산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아트리움 내부의 자연광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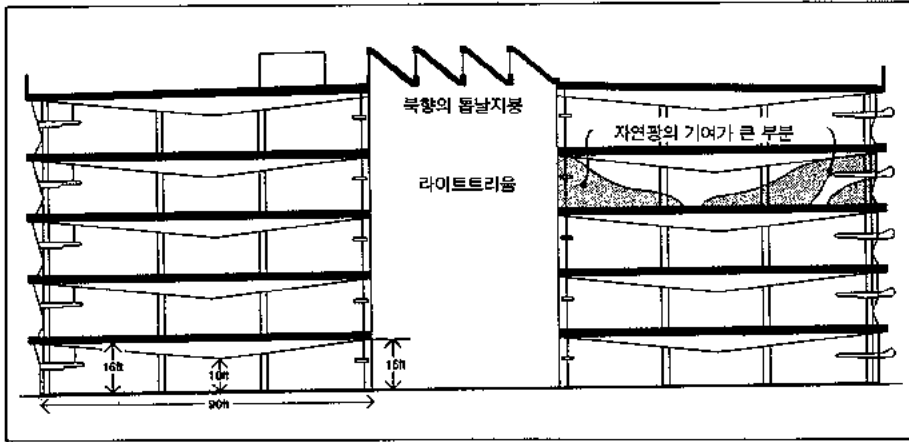
아트리움은 「광덕트」의 역할을 하면서 아트리움의 덕트 벽에 따라 실제로 아트리움의 바닥부분이나 건물의 최하층에 빛이 도달된다.

아트리움 내부의 자연광 배분에 있어서

첫번째 디자인 프로세스는 우선 중정 자체의 프로포우선-어스팩트比-를 결정하는데서 시작된다. 가로 세로의 높이 비율에 따라 중정에서의 빛의 감쇠율이 결정된다. 하늘이 별로 밝지 않을 경우 중정이 충분히 넓지 않으면 실용에 적합한 자연광이 최하층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트리움 내부 측벽의 반사율도 중요하다. 벽이 어느 정도 반사하는가에 따라 아트리움의 성능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아트리움에 의해 밝아지는 하층부에서 「천공」에 상당하는 것은 그 반대쪽 반사벽이다. 만일 벽이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유리이거나 또는 전부 개방되어 있다면 반사하여 하층부로 도달하는 빛은 적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개구부가 전혀 없고 벽표면의 반사성이 높으면 빛은 감쇠되지 않고 마치 광 화이버를 통과할 때처럼 덕트 안을 전달하여 아래까지 도달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빛은 각 층에서 필요한 만큼 유입시키고 나머지는 반사시켜 아래쪽으로 전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와 같이 생각할 때 각 층에서의 창 의 비율은 서로 달라지게 된다. 즉, 최상층에서는 작은 창과 집광장치로 효과를



내고, 아래로 갈수록 유리면적이 늘어나 최하층에서는 전체면이 유리가 된다. 이것은 방위에 따라 입면의 창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전혀 다를 바 없다. 기후에 민감한 건축은 그것을 계산에 넣어 설계가 되어야 한다. 위에서 아래까지 벽의 창을 점차 늘린 예는 <그림 ⑥>과 같다.

각 층마다 유리면적을 달리하는 대신 유리의 종류를 달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즉, 반사도가 서로 다른 유리를 사용하여 최하층에는 일반 투명유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겨울엔 반사는 덕트를 통해 빛을 아래로 유도하는데 별로 효과적인 수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백색타일, 바름벽, 금속 또는 적층(積層)표면에 의한 확산반사쪽이 더 효과적이다. 확산반사유리도 빛의 일부를 반사하고 일부를 투과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아트리움의 위에서 아래에 걸쳐 확산유리와 투명유리의 비율이 바뀌게 된다.

아트리움 안에 식재하는 것은 자연채광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발코니마다 식재할 경우 반사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아래까지 도달될 빛을 흡수해 버리고 만다. 식재는 아트리움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빛의 감소를 되도록 억제하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아트리움 층에서는 별로 빛을 손실하지 않고서도 식재할 수 있다. 식물 그 자체는 고조도의 빛을 필요로 하지만 주위 공간을 자연채광할 목적으로 설계된 아트리움에서 식재가 문제를 야기시켜서는 곤란하다.

●거주공간에 자연광을 집중시키는 방법

종래의 창이나 유리가 없는 개구부로부터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양은 실내로 들어갈수록 급속히 저하된다. 일반적인 천정 높이의 방에서 창으로부터 4.5m 이상

떨어지면 자연광으로 실용적인 밝기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특히 그것은 창에서의 밝기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오히려 단지 창이 밝다는 것은 글래와 상대적으로 캄캄한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도 된다. 이상적인 것은 창을 통해 바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로 들어오는 빛의 대부분을 천정에 반사시켜 보다 실내쪽으로 빛을 전하여 대비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것은 반사를 이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아트리움 건물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빛은 이미 지붕이나 측벽 상부에서 반사된 빛이다.

실의부와 아트리움에 광선반을 사용함으로써 「광선반(light shelf)」에 관한 아이디어는 재인식되고 있다. 광선반이란 창면에 부착된 수평 또는 기울어진 바플판으로서, 눈 높이보다는 약간 높고 천정에서는 되도록 떨어지게 부착된다. 광선반을 이용하면 직사광과 확산광이 창가의 바닥면에 직접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에 반사되어 실내의 빛 분포가 균일해지며 창 상부로부터의 눈부신 경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다(그림 ⑦ 참조).

광선반에는 여러 가지 형태와 마감이 있다. 백색 매트마감의 수평선반은 확산광을 효과적으로 산란시키고, 각도가 있거나 또는 곡면으로 된 거울면 반사판은 직사광을 실내 깊숙한 안쪽까지 전달한다—그러나 이야기를 확산광에 한정시키면 백색 매트마감의 표면에 비해 나머지는 별로 두드러진 효과가 없다.

아트리움 지붕은 밝은 광원이기 때문에 각 광선반을 아트리움 지붕부분에 대응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다. 많은 아트리움은 스텝형태로 된 단면으로 되어

있어 중정 바닥으로 내려 갈수록 아트리움에 면하는 부분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각 층은 아래층에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서도 빛을 유입시킬 수 있는 돌출된 창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아트리움의 벽으로는 효과적인 반사가 거의 기대되지 않을 때 도움이 되지만, 밝은 곳은 방의 창가쪽 뿐이다. 이 경우 광선반을 병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스텝형태의 단면은 불리한 면도 있다. 왜냐하면 아트리움 바닥으로 접근함에 따라 평면깊이가 길어지게 되고 바닥쪽에서는 빛을 충분히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광의 이용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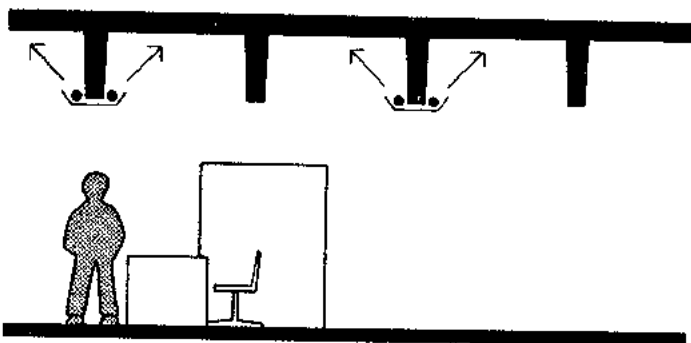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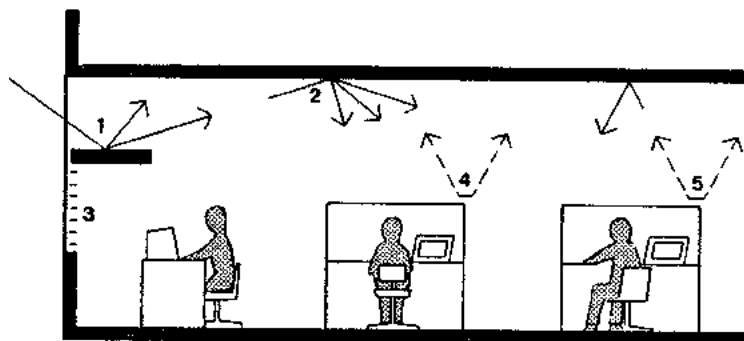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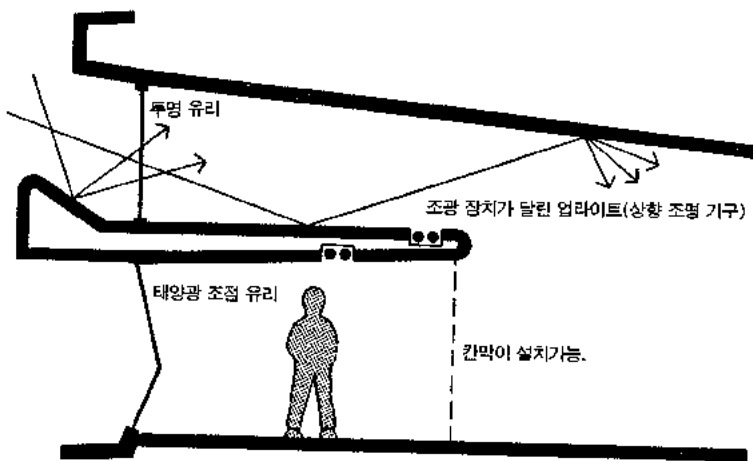
아트리움의 내부에서는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당히 복잡한 형상의 채광창을 만들 수 있다. 아트리움 내부의 창은 비바람을 막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막이 정도의 유리 1장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연채광을 위해서는 반사면과 투과면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그다지 중대한 문제는 아니다. 광선반이나 아트리움의 창 등은 외부에 있는 창보다도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기가 용이하다. 물론 인공조명 시스템도 그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자연광과 인공광의 통합

인공조명시스템과 거주공간의 내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자연채광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자연채광의 사고방식에서는 확산면을 수평이나 천정으로 향하게 설치하여 작업면에 도달하는 빛은 반사광을 이용하고 있다. 인공조명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천정은 양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상황조명, 즉 빛을 광원으로부터 직접 작업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천정에서 반사시키는 조명방식을 적절하게 설계하면 직접조명과 같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천정의 반사율은 확산이나 루버의 이용으로 생기는 손실을 충당해 준다. 평평한 매트마감 천정을 백색으로 깨끗하게 유지하면 반사율을 높일 수 있으며



텍스처가 있는 천정은 효율을 떨어뜨리지만 반사는 균질적인 것이 된다. 격자 천정이나 조각된 천정은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효율이 저하된다. 상향조명은 구조를 거의 노출시킨 천정에 흔히 이용되는데 이 경우 설비는 이중바닥 안에 설치 된다. 플랫 솔라브구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를 창과 직각으로 설치하여 창으로부터 방의 안쪽까지 방해없이 빛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성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채광과 인공조명을 제어시스템으로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자연광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위해 일부 인공조명은 계속 켜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연채광으로 계획된 건물에서는 적어도 작업공간의 절반정도는 자연채광으로 배경조명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인공조명에 의해 보조하도록 해야 한다.

저녁이 되어 일광이 약해지거나 또는 날씨가 나쁜 날에는 인공조명이 점차 방의 중앙뿐 아니라 창가에서도 필요하게 된다. 작업 조명은 이용자 개인이 조절하는 것이 좋지만 배경조명은 자동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명기구는 창과 평행인 뱅크마다 통합하거나 또는 센서로 개별

⑧ Lockheed Missiles and Space Company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 Leo. A. Daly
설계사무소, 단면에서 보듯이 실 깊이가 긴 평면을 높고 경사진 천정과 광선반에 의해 효과적으로 자연채광하고 있다. 이용되는 빛의 90%는 고풍과 광선반으로 얻는다. 아트리움은 외기로 면한 외벽의 내탁 절반 정도의 빛을 제공해 주고 있다.

⑨ 고성능 광선반의 개념(특히드 빌딩) 특별한 형태의 광선반을 이용하여 외주부와 같은 사무실을 조성하였다. 일단 실내로 들어온 자연광은 아무런 손실없이 실내부로 유입된다.

투명유리 태양광 조절유리 간막이설치 가능
조광장치가 달린 업라이트(상향조명기구)

a배경조명에 자연광과 인공광을 병용한다.

1. 대부분의 자연광은 주로 고풍으로부터 유입시키고 광선반을 이용하여 실내로 반사시킨다.

2. 최저 85%의 반사율을 가진 천정, 히트싱크(heat sink)로서의 구조가 바람직하다.

3. 조광용 창은 자연광이 VDT(전자영상단말장치)로 반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차양설비를 한다.

4. 주광 레벨에 따라 밝기를 바꿀 수 있는 자동조광장치부착 업라이트

5. 실 안쪽에서 배경의 밝기를 유지하기 위한 업라이트 심한 천공회도가 없이 모든 각도에서 빛이 유입되는 아트리움에서는 광선반이나 창에 차양설비를 할 필요가 거의 없다.

b창과 평행인 단면-자연광이 유입되는 방향으로 큰 보를 이용한 장판, 배경조명용 업라이트를 바닥 대신 보에 설치한 예, 자동조광장치를 사용하면 자연광의 정도에 따라 인공조명의 밝기를 바꿀 수가 있다.

작동시켜도 된다. 물론 인공조명을 빈번하게 점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경이 쓰일 뿐만 아니라 비록 조명레벨은 「충분」하더라도 스위치가 켜졌을 때 어두컴컴하게 느껴진다. 또한 방전조명은 종류에 따라서 밝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오늘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덕분에 조광기(調光器)가 크게 진보되어 정교하게 발전되었다. 각 조명기구가 오프에서 온까지 무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채광과 전력에너지의 균형을 잘 유지시킬 수 있다. 채광기술을 잘 이해하여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자연채광으로 건축을 마음대로 설계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런닝 코스트를 절감하고 실내의 공간성격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설비기술자, 구조기술자 그리고 코스트 컨설턴트와 계획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면 아트리움의 잠재적 가능성을 충분히 끌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대邱지부 徐輔光회원 博士학위 취득

도시가로경관에서의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

대邱지부 徐輔光회원(동서종합건축사사무소)이 대구지역의 건축물 외부 색채계획을 중심으로 색채반응 조사분석 등을 통해 Computer Simulation 기법을 적용한 각종 대안을 제시한 "都市街路景觀에서의 建築物 外部色彩 計劃方法에 關한 研究"로 영남대 대학원에서 博士학위를 취득하였다. 다음은 서보광회원의 박사학위 논문의 요약이다.



대구지부 서보광회원

색에 관한 연구는 그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으며, 인간·환경의 관련적 측면에서 시각적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실험적,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하여 오늘날의 색채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물리적, 사회문화적 환경의 특성에 종속되어 그 자체의 체계와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시가로공간의 환경색채는 도시를 구성하는 가로, 광장 및 기타 시설물 등의 물리적 계획이 우선됨으로써 인간 생활환경의 시각적 환경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오늘날 도시가로공간의 건축물 외부색채는 가로공간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체계적으로 조절되고 통제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로 공간의 환경적 요소 가운데 건축물을 전체적인 가로경관의 특징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건축물 외부색채는 가로경관의 환경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건축물 외부색채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 외부색채의 단순한 심리적 효과에서부터 가로경관의 색채분포와 그 심리적 효과, 컴퓨터 시뮬레이션(Computer Simulation) 및 슬라이드에 의한 가로경관 이미지 평가의 과정 및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 도시가로의 색채분포와 심리적 효과에 관하여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표준색 설정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 도시환경의 색채환경을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도시가로공간의 시각적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표준색의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의 방법을 제시하고 사례연구를 통하여 그 방법을 검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설정하였다.

1. 표준색의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 외부의 사용색채 범위 설정 및 색채반응조사에 의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2. 사용색채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현황분석의 결과와 색채반응 조사결과를 비교하며,

3.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의 체계적 모델 설정 및 사례연구를 통한 효용성 검증과 색채계획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색채와 관련된 이론들을 문헌적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고 색채반응조사, 건축물 외부색채 선호도 조사, 도시가로의 색채현황조사의 실험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계획과정 모델을 설정하여 그것을 전개하는 과정에 컴퓨터를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관찰자에게 쉽게 지각되는 도시가로의 건축물 전면을 대상으로 색채와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변화에 따른 개인별 주관적 반응의 특성, 유행 등은 환경에 대한 시지각의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건축물 외부색채와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연구에서 수용하기에는 매우 방대한 실험적 연구의 새로운 자료가 요구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진행과정에서 기초적 단계에서 이론적 자료와 함께 색채 반응조사 등과 같은 실험적 자료들을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을 검토하여 건축설계에 대한 체계적 접근에 따르는 외부색채 계획과정의 주요문제들을 추론하여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색채계획과정의 모델을 설정하고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내부색채와는 달리 관찰자에게 '보여지는' 시각대상의 구성요소로서 어떠한 공간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건축물 자체가 도시가로의 입면을 구성함으로써 도시가로경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색채반응조사의 결과에서 단색선호의 경우 무채색과 난색 계열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현황분석의 결과에서 나타난 무채색과 R, YR 계열의 난색의 빈도가 높은 것과 일치된다. 또한 색채조화에 있어서 색상차에 의한 것보다는 유사색상의 명도, 채도차에 의한 조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건축물 외부색채 계획과정상의 주요문제에 있어서 통제수단은 지역사회와 문화적 측면과 관련되어 일정한 수준의 가로환경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색채계획의 방향, 구체적인 심의 기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4. 현황분석의 결과에서 보면 각 가로별 색채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용도별 분석에 있어서 극장 건축의 경우 사용색채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재료별 분석은 도료를 제외한 다른 재료의 경우 무채색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용색채의 범위는 설계자의 창조성을 저해하는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없으며 색채반응조사와 건축물 외부색채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빈도가 높은 색채들을 공유하고, 설정된 사용색채들 사이의 조화관계가 성립되어 보다 합리적인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본 연구에서는 사용색채의 범위를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설정하고 활용함으로써 계획과정 모델의 체계성을 도모하였다. 계획과정 모델의 전개에 있어서 사용색채의 범위에 의하여 대상지 중심의 부분과 대상가로 전체에 대하여 고려함으로써 도시가로경관의 부분과 전체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사용색채의 범위와 계획과정 모델을 건축물을 포함한 도시가로환경에 대한 인간의 미적 측면의 요구를 보다 객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건축설계 전반에 걸쳐 체계적 접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척다리에서

종일을 떠돌다 온
서녘 하늘을 이고
목척다리 위에 서면
가랑비처럼 와 닿는
설레임이 있다.

몇 몇 그리운 이름과
송사리 미꾸라지며
빨래터와 곡마단과
달과 별과
햇빛 쏟아지는 돌판과

바라보면
어째고 오늘이다.

늘 여기에 남겨 있던
숨결이
봄이 오기도 전에
도시를 떠나도

물결따라 가는
세월의 저 너머에서
누구였을까
바람 앞에
저녁 목척다리 위에
나를
가로등 처럼 남게한 이는.

李東海

영진속서사무소

1990년 2 월분 도서신고 현황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増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89년도	1990년도	증 ·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1,512,160	2,212,719	700,559	46.33%
	부산지부	517,624	1,374,021	856,397	165.45%
	인천지부	322,089	477,248	155,159	48.17%
	광주지부	184,018	262,401	78,383	42.60%
	경기지부	1,092,955	1,801,397	708,442	64.82%
	강원지부	149,842	495,906	346,064	230.95%
	충남지부	234,360	311,987	77,627	33.12%
	전남지부	213,384	272,463	59,079	27.69%
	경남지부	757,543	839,642	82,099	10.84%
감소지역	제주지부	48,049	78,022	29,973	62.38%
	대구지부	574,321	499,033	(75,288)	-13.11%
	대전지부	448,956	199,153	(249,803)	-55.64%
	충북지부	480,241	289,079	(191,162)	-39.81%
	전북지부	411,818	180,113	(231,705)	-56.26%
합	계	7,443,722	9,700,571	2,256,849	30.32%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2 월분 7백44만3천7백22㎡보다 30.32%(2백25만6천8백49㎡) 증가한 9백7십만 5백71㎡의 실적을 보였다.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2월분 누계 1천1백59만6천4㎡보다 35.63%(4백13만2천3백98㎡) 증가한 1천5백72만9천3백2㎡의 실적을 보였다.

다. 전월비 1월분 6백2만8천7백31㎡보다 60.91%(3백67만1천8백4십㎡) 증가한 9백7십만5백71㎡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増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	별	'90년 1 월분	'90년 2 월분	증 · 감	비율(%)
단	독 주 택	706,470	1,592,360	885,890	125.40%
다	세 대 주 택	226,691	441,381	214,690	94.71%
연	립 주 택	77,499	99,698	22,199	28.64%
아	파 트	1,988,656	2,959,229	970,573	48.81%
근	린 생활 시설	1,267,343	2,375,322	1,107,979	87.43%
종	교 시 설	51,791	62,285	10,494	20.26%
의	료 시 설	13,374	36,145	22,771	170.26%
교	육 연구 시설	71,240	140,409	69,169	97.09%
업	무 시 설	361,078	404,736	43,658	12.09%
숙	박 시 설	138,015	300,367	162,352	117.63%
공	장	774,135	879,041	104,906	13.55%
기	타	352,439	378,957	26,518	7.52%
계		6,028,7321	9,669,930	3,641,199	60.40%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2 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8,092	8,196	3,344,578	117	124	57,655	2	2	1,781	8,211	8,322	3,404,014
부산지부	1,631	2,112	2,071,494	289	333	67,843	96	98	104,794	2,016	2,543	2,244,131
대구지부	1,243	1,315	622,757	408	438	67,216	53	53	16,766	1,704	1,806	706,739
인천지부	983	1,130	656,617	63	77	30,702	42	46	12,307	1,083	1,253	699,626
광주지부	534	621	546,884	135	148	22,207	33	33	10,115	702	802	579,206
대전지부	588	588	345,386	48	48	10,707	89	89	30,700	725	725	386,793
경기지부	5,129	5,469	2,678,005	320	369	208,992	142	142	130,296	5,591	5,980	3,017,293
강원지부	534	698	545,102	110	139	29,719	34	38	8,411	678	875	583,232
충북지부	824	927	326,168	122	156	68,206	46	51	14,504	992	1,134	408,878
충남지부	524	547	404,268	107	113	32,534	40	40	9,230	671	700	446,032
전북지부	495	552	267,814	121	145	51,859	47	47	9,448	663	744	329,121
전남지부	632	748	361,611	244	296	73,909	28	28	10,819	904	1,072	446,339
경북지부	1,031	1,229	584,886	205	233	119,677	44	44	49,297	1,280	1,506	753,860
경남지부	1,688	1,986	1,368,549	450	512	154,722	62	62	75,364	2,200	2,560	1,598,635
제주지부	330	380	123,085	41	41	2,318	0	0	0	371	421	125,403
합 계	24,258	26,498	14,247,204	2,780	3,172	998,266	758	773	483,832	27,796	30,443	15,729,302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1月~2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5,485	5,556	2,170,422	78	84	40,516	2	2	1,781	5,565	5,642	2,212,719
부산지부	939	1,203	1,268,032	175	203	41,171	48	48	64,818	1,162	1,454	1,374,021
대구지부	859	913	448,050	204	222	44,323	25	25	6,660	1,088	1,160	499,023
인천지부	700	826	451,507	48	58	17,216	28	30	8,525	776	914	477,248
광주지부	378	411	240,507	98	108	15,521	21	21	6,373	497	540	262,401
대전지부	400	400	180,539	32	32	7,899	41	41	10,715	473	473	199,153
경기지부	3,194	3,376	1,590,287	210	223	134,304	71	71	76,806	3,475	3,670	1,801,397
강원지부	347	470	480,692	69	74	10,364	16	17	4,850	432	561	495,906
충북지부	580	644	230,740	89	117	50,610	29	29	7,729	698	790	289,079
충남지부	397	399	282,000	77	82	26,357	17	17	3,630	491	498	311,987
전북지부	324	365	149,125	76	92	25,788	25	25	5,200	425	482	180,113
전남지부	399	487	230,859	151	178	34,953	17	17	6,651	567	682	272,463
경북지부	760	888	344,859	145	158	49,791	21	21	12,737	926	1,067	407,387
경남지부	1,028	1,169	714,309	281	309	102,903	37	37	22,430	1,346	1,515	839,642
제주지부	102	121	46,027	25	25	1,354	0	0	0	127	146	47,381
합 계	15,892	17,228	8,827,955	1,758	1,965	603,070	398	401	238,905	18,048	19,594	9,669,93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2 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8,459	8,581	1,534,894	738	752	56,560	22	22	906	9,219	9,355	1,592,360
다 세 대 주 택	1,617	1,707	431,448	100	100	9,633	3	3	300	1,720	1,810	441,381
연 립 주 택	68	96	98,152	3	3	1,392	1	1	154	72	100	99,698
아 파 트	180	733	2,942,754	12	22	14,055	4	4	2,420	196	759	2,959,229
근린생활시설	4,387	4,459	2,196,246	385	398	97,262	205	206	81,814	4,977	5,063	2,375,322
종 교 시 설	86	99	40,562	42	51	21,089	4	4	634	132	154	62,285
의 료 시 설	10	14	22,585	2	3	10,061	4	4	3,499	16	21	36,145
교육연구시설	26	43	62,695	42	52	65,024	28	28	12,690	96	123	140,409
업 무 시 설	137	139	377,306	42	42	19,976	11	11	7,454	190	192	404,736
숙 박 시 설	91	106	241,915	24	24	6,667	9	9	51,785	124	139	300,367
공 장	380	648	606,712	196	295	221,029	44	44	51,300	620	987	879,041
기 타	451	603	272,686	172	223	80,322	63	65	25,949	686	891	378,957
합 계	15,892	17,228	8,827,955	1,758	1,965	603,070	398	401	238,905	18,048	19,594	9,669,930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1月~2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12,321	12,499	2,214,850	1,042	1,063	76,288	42	42	2,326	13,405	13,604	2,293,464
다 세 대 주 택	2,478	2,615	653,333	151	151	12,284	7	7	494	2,636	2,773	666,111
연 립 주 택	108	164	166,406	3	3	1,392	1	1	154	112	168	167,954
아 파 트	332	1,219	4,900,826	23	35	31,271	5	5	2,449	360	1,259	4,934,546
근린생활시설	6,700	6,813	3,354,508	635	651	147,238	376	379	129,513	7,711	7,843	3,631,259
종 교 시 설	129	150	88,346	56	70	24,519	8	8	1,140	193	228	114,005
의 료 시 설	14	18	28,261	10	11	15,079	8	8	6,179	30	35	49,519
교육연구시설	48	77	115,597	57	70	72,041	56	57	23,553	161	204	211,191
업 무 시 설	244	250	720,060	60	61	33,717	19	19	9,827	323	330	763,604
숙 박 시 설	178	197	327,380	37	37	11,507	17	17	99,495	232	251	438,382
공 장	662	1,139	1,062,512	376	612	426,120	96	103	161,469	1,134	1,854	1,650,101
기 타	816	1,098	538,065	314	392	145,846	125	129	47,233	1,255	1,619	731,144
합 계	24,030	26,239	14,170,146	2,764	3,156	997,302	758	773	483,832	27,552	30,168	15,651,280

질의회신

거주중 내부결함으로 인한 하자의 감리자 귀책은?

■ 질의요지

일반공사감리 대상건축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공처리되어 3년 이상의 기간을 거주한 후 동건축물 내부의 결함(건축재료의 부식과 노후로 인한 연탄가스 누출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리자의 귀책여부는?

■ 회신내용

공사감리라 함은 건축사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의 구분, 대상, 방법 및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착공신고서에 서명날인한 건축사가 그 건축공사의 감리를 담당하지 않을 것임에 허가청에 신고하지 않는한 준공검사를 필할때까지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상의 성실등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공사감리의 종류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도 또는 규모에 따라 종합·상주 및 일반공사감리로 구분되며, 종합 및 상주감리는 설계도서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와 자재선정 및 공사의 지도확인 등을 그 업무범위로 하고,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는 것을 말하고, 일반공사감리는 설계도서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만을 그 업무범위로 하며, 또한 수시 또는 필요한 경우에만 감리하는 것을 말하며, 비교적 소규모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면적이 2백㎡ 이상 5천㎡ 미만인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 있어서 감리자는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하지 않으므로, 시공상 세부적이거나 밀폐되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까지는 사실상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업무범위가 건축허가시 법령에의 적합여부가 기 확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이 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므로,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도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귀 문의와 같이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필한후 3년 이상의 기간을 거주한 후 동 건축물의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의 건축재료의 부식과 노후로 인한 연탄가스누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책임은 수시 또는 필요한 때에 동부분에 대한 감리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에 동부분의 상세한 도면이 표기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적법하게 준공된 동건축물에 거주하는 소유자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재료의 부식이나 노후로 인한 균열 등에 대하여 선량한 유지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균열등에 대한 보수·재료교체 등)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신중히 검토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공사에서 시공부실여부에 따른 책임은 일차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시공자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준공후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사의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것인지, 준공후 건축물의 사용방법, 재료의 노후로 인한 것인지를 판별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하자보수책임기간(예로서, 종합공사감리대상인 아파트의 경우는 3년 이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별표3)을 됨으로써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공자책임을 면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2차적 책임을 지는 감리자의 경우도 시공자와 마찬가지로 시공자가 책임지는 하자보수기간을 감안 감리 책임기간의 한계를 인정하여, 감리자의 책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심의대상 “구조안전”의 “구조계획”변경사유는?

■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11층이상의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바, 동 규정을 '90. 1. 18. 개정시 “구조안전”을 “구조계획”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를 개정한 사유는?

■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8호 규정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시 11층이상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만을 보는것이 아니라 일반 건축심의와 같이 전반적인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며,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계획(구조계획) 도서만을 제출토록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을 검토·심의하면 되는 것임.

유원지의 기타 건축금지 여부는?

■ 질의요지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에서 “도로의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41조 제1항과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보는 바,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를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는?

■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를 포함하는 것임.

아파트 건축선의 띄는 거리는?

■ 질의요지

아파트(공동주택)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표”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지가 접한 도로의 갯수에 관계없이 폭 15미터이상의 도로의 경계선(건축선)에서만 6미터이상(복합용도인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까지의 띄어야할 거리를 말함)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임.

마주보는 부개부구 사이의 띄는 거리는?

■ 질의요지

하나의 공동주택내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 부개구부와 부개구부사이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질의 공동주택의 부개구부와 부개구부사이의 측벽폭과 당해 공동주택 높이의 2분의 1중 작은 것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물 신축,
개축시 상수도 배관은
내식성(녹방지)이 강한
배관자재를
(동관, 스테인레스관)
사용합시다.”

’87.6.1부터 서울시가 자체 시공하거나 승인하는 공사로서 구경 50mm 이하의 급배수관에 대하여는 관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식성 자재인 동관, 스테인레스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기존 수도용 아연도강관은 7~10년동안 사용하면 적수현상(녹물발생)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급수(음용수)가 되지 못하고 관의 내부스케일(물때등) 발생에 따른 관의 단면적축소로 물이 잘 안나오며 관부식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사례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1920년경 이후부터 동관, 스테인레스관등 내식성 배관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일본의 동경도는 스테인레스관 사용을, 호주의 멜보른, 시드니에서는 동관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特別市

1990年度 제 1 회 臨時總會 開催

1990년도 제1회 臨時總會가 3월 22일(목) 오전 10시 한국종합전시장(KOEX) 국제회의실에서 재적대의원 3백43명중 3백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90全國建築士大會에 앞서 개최된 이날 臨時總會는 宋基德회장의 成員報告에 이어 국민의회, 건축사헌장낭독, 개회사, 추대회원 추대보고, 제24회 정기총회 회의록승인, 주요업무보고, 부의안건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되어 만세삼창으로 폐회되었다.

이날 심의되었던 부의안건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附議事項〉

- ◆89회계년도 일반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승인
- ◆89회계년도 특별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승인
- ◆89회계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승인
- ◆89회계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결산 승인의 건
- 승인
- ◆건축사연금규정 개정(안) 승

인의 건

- 기본연금회비 부족액 납부시기를 익년 2월말에서 5월말까지로 조정하고, '89년도의 연금회비는 기본 연금회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승인
- ◆91회계년도 실적회비 전국징수를 결정의 건
- 0.8%로 할 것을 승인
- ◆임원 선임의 건
- 오운농 감사의 사퇴를 반려함

한편 '89회계년도 수지결산을 위한 각 市·道支部 臨時總

회는 각지부별로 開催, 3월9일 서울시지부를 마지막으로 마칩으로써 '89회계년도 수지결산 및 '90회계년도 추경 예산의 승인을 완료하였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각지부별 감사보고와 결산(안) 처리뿐 아니라 전라북도건축사신용협동조합 설립 운영 결의(全北支部), 도서김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실시(서울支部), 신입 대의원 선출(大田支部-김종민, 慶北支部-김상열, 허필로)등 지부별 주요안건처리가 병행되었다.

'90 第 1 회 臨時總會

開 會 辭

오늘 1990年度 第 1 회 臨時總會를 맞이하여 歷代會長님과 各市道支部會長을 비롯한 代議員 여러분을 健康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代議員 여러분!

올해로 本協會는 創立 스물다섯돌을 맞이하였습니다.

4半世紀의 긴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協會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成長을 거듭하여 온 결과 이제 15個 市·道支部에 3千3百餘 많은 會員을 包容하고 있는 큰協會로 자라왔으며 이 社會속에서 그 어느 團體보다 앞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歷代會長님과 任員여러분, 그리고 代議員 여러분을 비롯한 會員 모두가協會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음은 勿論, 恒常 많은 關心속에 아낌없는 支援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眞心으로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습디만 本人은 그동안은 우리協會가 外形的인 成長속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하여 基本的인 틀을 다지기에 注力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속에 潛在해 있는 無限한 힘을 일깨워 會員을 위한 일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能力있는協會로 변모시켜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本人은 그러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本人을 비롯한 任員들과 各 市·道支部會長들을 비롯한 支部任員, 그리고 바로 代議員 여러분의 役割이 실로 크고 重要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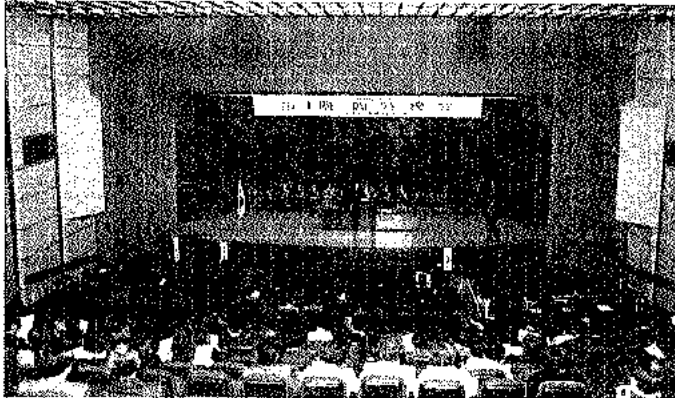
따라서 本人은 앞으로 남은 잔여 任期동안 보다 많은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最善의 努力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代議員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主人意識을 가지고協會일에 보다 더 能動的이고 積極的으로 參與해 주실 것과 우리 執行部의 하는 일에 지나친 批判보다는 새로운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聲援과 激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代議員 여러분!

本人은 會員間의 人和團結을 통한 힘있는協會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本協會會長으로서의 就任意志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우려속에서도 작년 3월에는 全國會員이 參與하는 全國建築士大會를 開催하였고 많은 成果를 거두었다고 自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이總會가 끝나고 午後에는 '90年度 全國建築士大會를 開催하여 우리 모두가 專門人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가지고 스스로의 權益을 지키고자 하는 團結된 意志를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될 것이며, 서로가 한마음이 되어 웃고 즐기는 가운데 友情을 다해가게 될 것입니다.

本人은 이렇듯 全會員이 心心團結할 때만이協會의 發展은 勿論 우리 建築士의 權益伸張과 社會의 地位를 向上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축매제 役割을 해주게 될 이 全國建築士大會가 해

協 會 消 息



'90년도 제 1회 임시총회

임시총회의 개최사를
낭독하는 송기덕회장

를 거듭할수록 더욱 알찬大會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代議員 여러분의 積極的인 協調를 當付드립니다.

代議員 여러분!

本人은 우리의 團結된 힘이 얼마나 重要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작년 가을에 開催되었던 第24回 定期總會에서 우리는 建築行政事項中 建築許可와 竣工檢査時 現場을 確認하여야 하는 調査·檢査業務를 公務員을 代身하여 遂行하다가 그에 따른 責任까지 짊어지고 많은 會員이 어려움을 겪는데 대하여 이의 改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90年 2月 1일부터는 同業務를 遂行하지 않기로 決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다행스럽게도 關係당국인 建設部가 自發적으로 앞장서서 본 協會와 함께 그 方案을 多角度로 檢討하고, 法改正이 先行되어야 可能한 部分을 除外하고는 우선 行政措置에 의하여 改善하도록 措置한 바 있으며, 나머지도 關係法改正時 積極 改善해 나가기로 協議되었기에 調査·檢査業務의 代行을 계속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면서 본인은 일부회원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전국 건축사의 명예나 단결력을 파시하여야 할 때에 고질적인 비관이나 갈등의식으로 협회 전체의 의사를 저버리고 調査·檢査業務에 관한 나머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2월 1일 이전에만 조사검사 업무를 하겠다고 등록하는 등의 행위는 더 잘해 보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사업의욕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건축사의 명예나 권익을 찾기는 커녕 추락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權益을 찾으려면 전체의 結集된 사고력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今年 1月 政府發議에 의하여 建設業免許制 導入을 위한 公聽會가 開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든 工事に 있어서 設計와 工事, 監理를 一括受注토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建築設計가 높은 技術과 藝術性을 함께 요하는 것 일 뿐만아니라 그러한 制度를 導入한다는 것은 우리 社會에서 指彈을 받고 있는 財閥企業의 門閥發式, 企業擴張行態를 政府가 助長하는 結果가 되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將來는 어둡게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反對意思를 分明하게 表한 바 있습니다.

니다. 뿐만아니라 各 政府要路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入場을 밝히는 建議書를 提出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本人은 지난 公聽會場에서 歷代會長님과 任員을 비롯한 많은 會員들이 參席하여 주시고 특히 民 地方에서까지 올라와 함께 걱정하며 이의 沮止를 위해 努力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며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問題 또한 우리의 이와 같은 努力의 結果로 政府에서는 이의 施行을 長期的 研究課題로 두고 留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問題들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合心하여 우리의 權益擁護를 위해 努力한 結果라고 생각하며, 이렇듯 우리 모든 會員이 團結하여 努力한다면 앞으로도 무수히 다가오게 될 어떠한 難關도 능히 克服할 수 있다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代議員 여러분!

저는 大韓建築士協會 會長으로서의 所任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協會를 중심으로 會員을 위하여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비경제적인 비판이나 혈투음 보다는 발전적인 격려나 積極參與하는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탐하는 勢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지키고 우리의 勢를 키우는데 여러분의 진정 團結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代議員 여러분!

오늘 이 總會를 통해서도 예전과는 다른 보다 成熟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함께 協會發展을 위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意見을 改進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실 것과, 오늘 午後부터 開催된 '90 全國建築士大會를 成功的으로 이끌 수 있도록 代議員 여러분들께서 積極 協調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앞날에 舞窮한 發展과 幸運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開會辭에 告음합니다.

感謝합니다.

1990. 3. 22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90 全國建築士大會 開催 結果報告會

본협회에서는 지난 4월12일 (목)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역대회장단 및 본부임원, 각 시도지부 회장, 집행위원회 위원, 특별찬조회원, 협찬업체 대표 및 언론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건축사대회 개최 결과 보고회를開催하였다.

이날 보고회는 宋基德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朴成圭 집행

위원장의 대회 結果報告가 있었다.

또한 본대회의 성공적 開催를 위하여 수고한 집행위원장에 게 공로패가 수여되었으며, 아울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준 특별찬조회원 및 협찬업체 대표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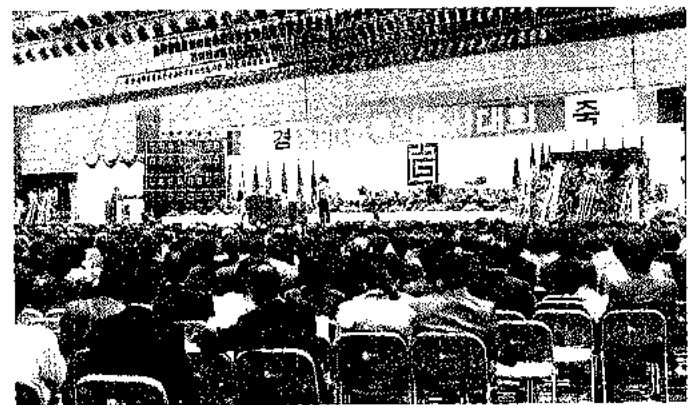
대회행사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90전국건축사대회 결과보고회

대회 추진 현황

일 자	추진 내용
'90. 1. 10	장소 사용 신청 (KOEX)
1. 16	대회기본계획 수립
1. 17	전시장 임대차 계약 체결
1. 17	일본 대표단 및 참관단 초대서신 발송
1. 19	제1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1. 23	제2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1. 24	홍보용 포스터 디자인 의뢰
1. 25	건설부에 후원명칭 사용 협조 의뢰
1. 30	회의실 사용료 납부
2. 5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 5	진행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 5	축연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 6	제3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2. 8	축연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 9	경찰악대 공연 협조 요청
2. 9	참가자용 명찰 제작 의뢰
2. 13	제4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2. 13	건설부로부터 후원명칭 사용 승인
2. 14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 15	제5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2. 17	축연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2. 17	'90 우수건축기·자재 및 CAD 동평회 개최 통보
2. 17	각 시·도지부에 결의문 작성에 따른 의견 제출 통보
2. 21	서울시에 육교현판 설치 승인 신청
2. 21	건설부에 국무총리 치사양청 협조 의뢰
2. 21	건설부장관 격려사 양청
2. 21	국무총리 치사 양청
2. 21	국회건설위원장 축하 양청
2. 21	각 시·도지부에 배우자 참석 통보
2. 22	대회 초청장 제작 의뢰
2. 23	건설부에 대회 개최 보고
2. 26	제6회 집행위원회 회의 개최
2. 28	서울시로부터 육교현판 설치 허가



'90전국건축사대회

일 자	추진 내용
2. 28	대회 홍보책자 제작 의뢰
3. 2	새경영원 협의회 개최
3. 6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3. 6	강남경찰서에 집회계 제출
3. 6	경품권 제작 의뢰
3. 9	각 시·도지부에 준비사항 통보
3. 9	전국회원사에 포스터 및 진행계획서 송부
3. 12	전국대회 대책 간담회 개최
3. 12	육교현판 설치
3. 14	KOEX에 부스 자체시공 통보
3. 15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3. 15	홍보 포스터 시내 게시
3. 15	'90우수건축기·자재 및 CAD 동평회 부스 지정
3. 16	축연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3. 16	KOEX로부터 부스 자체시공 승인
3. 16	지부별 대회가 제작
3. 19	행사 안내요원 선발
3. 19	지부별 강기자랑 상금 및 상품 결정
3. 29	인사장 발송

協會消息



연단을 가득매운 내빈들



권영각
건설부장관을
대신해
축사를 낭독하는
김보근 선도시기계획실장



민자당
김종필
대표최고위원의
축사를 낭독하는
박준병 사무총장

대외인사 대회 참석현황

직책	성명	직책	성명
건설부선도시기계획실장	김보근	평민당 총재	김대중
민자당 사무총장	박준병	평민당 경제과학위원장	윤준상
민자당 국회의원	서정화	평민당 노동위원장	한광욱
민자당 국회의원	김영선	평민당 대변인	김태식
민자당 국회의원	이해구	평민당 국회의원	신기하
민자당 국회의원	이민섭	평민당 국회의원	이원배
평민당 국회의원	김영도	평민당 국회의원	김주호
평민당 국회의원	이철용	평민당 국회의원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윤성	일본 건축사회 부회장	熊谷兼雄
(주)금강 대표이사	석강봉	일본 건축사회 이사	久慈次男
중소주택사업협회장	허석	일본 건축사회 사무국장	上口隆
서울대 교수	윤장섭	기후시 주택국 차장	岩尾儀一
연세대 교수	이경희	기후시 건축과장	深貝悦夫
한양대 교수	이리형	한양대 교수	문태섭
대전공전 교수	임남재		



즉석연설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



일본 건축사연합회
熊谷兼雄 부회장

축하 화환 및 축전 접수현황

직책 또는 상호	성명	직책 또는 상호	성명
민자당 최고위원	김영삼	민자당 최고위원	김종필
민자당 최고위원대행	박태준	평민당 총재	김대중
국회 건설위원장	오용운	서울특별시장	고건
민자당 국회의원	김택룡	민자당 국회의원	이해구
민자당 국회의원	최이호	민자당 국회의원	이인구
평민당 국회의원	신기하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윤도근
대한건설협회 회장	조남욱	중소주택사업협회 회장	허석
한국투자금융 대표	윤병철	제일은행장	송병열
(주)금강 대표	석강봉	금성투자금융(주)	박병희
강원도지사	이상룡	부산시 주택국장	박치권
부산시 건축과장	차성준		





대성황을 이룬
참여업체 전시장

찬조회원 및 협찬업체 현황

찬 조 회 원	협 찬 업 체
건축사 동우회장	(주)주택문화사 (주)옥일주택
은평 건축사 구인회	(주)벽산 제일은행
한종언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주)코얌 조흥은행
금성	(주)대우 신한은행
오수영 / (주)교우종합건축사	쌍용건설(주) 주택은행
사무소	현대건설(주) 서통 AI 사업부

전시 참가업체현황

참 가 업 체	참 가 업 체
서통 AI 사업부	(주)주 일
태일 시스템	한국 CAD 엔지니어링
건 CAD 시스템	어플라이드 엔지니어링
창원 석재(주)	(주)금 강
기린 산업	한국 물가 협회
금성 제전	(주)크란 시드
이삼사	(주)주택문화사

지부별 장기자랑 순위

순 위	지 부	출 연 자
최 우수	경기지부	최승국, 정이남, 송정순, 자영미, 임국희, 김현철, 이은정, 정선자, 정미정, 김승희, 이서운, 김해란, 박순애, 이경주, 전경숙, 박현숙, 이봉자, 오인숙, 이현정, 나양자, 이순주
우 수 상	부산지부	남진관, 김지탁, 안광모, 이성우, 이상도, 한기종, 심종남, 최윤경, 배기수, 김성길, 이동길
	광주지부	김상준, 선재규, 박현석, 윤익상, 유준호, 박인전, 문성식, 이승준
장 려 상	대전지부	원유택
	전북지부	김종선, 정동언, 김기철
	제주지부	강요준, 강승협, 이길형, 김석윤, 김유봉
참 가 상	대구지부	심상화
	인천지부	이환일
	충북지부	유익선
	전남지부	양동범
	경북지부	이영기

“건축사의 노래”에 부쳐

崔承國 / 국제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 건축사협회가 창립된지도 어느덧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우리의 노래가 없었다.

지금쯤은 우리의 노래가 있을만한 때라고 생각한다.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애국가를 부를때에
그리고 감격스러운 장면과 함께 애국가가 연주될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진다. 슬픈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고 기쁜
노래를 부르면 어깨춤이 질로 난다.

그렇다, 국가는 동족의식을 교가는 농민의식을, 군가는
전우의식을 심어준다. 우리도 건축사의 노래가 있어 이 노래를
즐거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동료의식이 깊어질 것이다.

몇년전에 안양분소 관내의 건축사사무소 여직원들이 합창단
조직을 위하여 회원들이 동의를 얻어 여직원합창단을 창설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몇몇 회원이 건축사의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작곡해 보라는 권유가 있어 곡을 만들어 건축사의 노래를
완성하게 되었다.

부족한 솜씨지만 내가 지은 이 건축사의 노래가 여러 회원들에
의해 채택되어 우리 건축사들에 불리워지게 되고 이 노래가 우리
건축사에게 동료의식을 갖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다면
내 생애에 큰 보람이 되리라 생각한다.

건축사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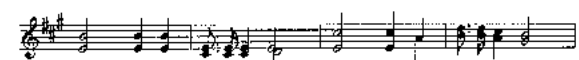
최 승 국 작사
최 승 국 작곡



1. 아 몸다 운 금수강 - 산 은 세 계 의 자양이 - 라
2. 편 처가 라 원한만 - 개 빛 난 역 사 전동위 - 애



번 일하 는 이 땅 위 에 빛 난 역 사 이룩하 - 리
우 리손길 이 묻 곳 에 민 족정 기 빛나리 - 라



창 조 의 역군이 라 우 리 의 가산인 세



선 진조 국 창조하 는 건 축사 의 합창대 바

建築關聯公務員 招請 懇談會 開催

本協會는 지난 13일 최근 기
구개편으로 인사이동을 가진 건
설부 도시국장, 주택국장, 건축
기획관 및 건축관련부서 과장
등을 초청, 본부임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가진후
건축계 현안에 대한懇談會를

개최하였다.

방배동 소재 함지박에서 개최
된 이날 간담회에서 본협회는
건설부 주택국장으로서 그동안
본협회 발전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조덕규 주택국장에게 감
사패를 전달하였다.



任員協議會 開催

協會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를 위한 本協會 任員協議會가
지난 6일(금) 宋基德 회장을 비
롯한 협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
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
다.

이날 協議會에서는 '90全國
建築士大會 결과보고 및 협찬

자·유공자의 포상에 관한 협의
를 통해 모두 25명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수여키로 하였으며
직원 승진임용에 관하여 총무과
장직무대리(3급을)에 李默, 기
술과장직무대리(3급을)에 吳漢
祿을 각각 임용키로 협의하였
다.



건축인의 빙행시중 건축사의 노래를 합창하는 경기자부 여직원일동

釜山直轄市支部(會長 金伸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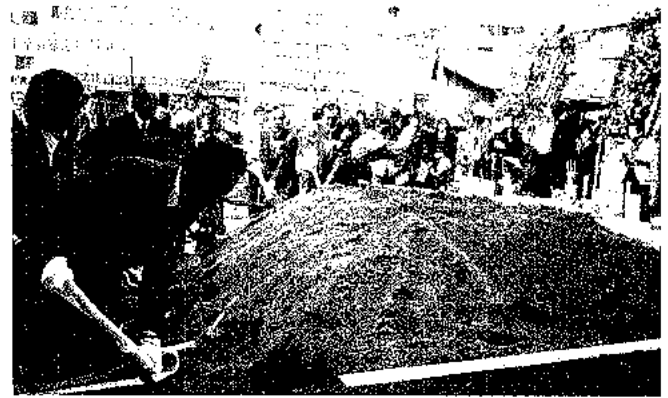
부산 建築士會館 기공식

釜山지부(회장 金伸幸)는 지
난 16일 부산진구 범천동소재
회관신축부지 현장에서 釜山建
築士會館의 起工式을 가졌다.

부산 회원들이 숙원사업인 건

축사회관은 '88년 설계경기를
통해 당선된 자유·동서 종합건
축사사무소의 李鍾玟회원의 설
계로 지하2층 지상1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부산지부 건축사회관 기공식



부산시 색채환경 개선연구 보고회

釜山지부(회장 金伸幸)는 지
난 19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지부 임원진 및 부산시 관계공

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색채환경 개선연구 보고회를 개
최하였다.

건축사 순회작품 釜山展 개최

제15회 건축사설계작품 순회
전 및 제4회 신인·학생설계작
품 공모전의 부산지역전시회가
지난 3월12일부터 일주일간 부
산상공회의소 전시장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부산지역 전시회에는 건
축관련인사 학생 1천2백여명이
관람하였다.



부산지부
색채환경개선 연구보고회

光州直轄市支部(會長 宋良漸) 會員親睦行事 실시

光州지부(회장 宋良漸)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회원친목행사를 실시했다.

다. 설악산, 경주동지에서 2박3일간 실시된 이번 행사에는 지부 회원 63명이 참석하였다.



忠淸北道支部(會長 李容鐵) 건축사보 및 건축직 공무원 교육

忠北지부(회장 李容鐵)는 '90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청원군청 회의실에서 건축사

보 1백89명과 건축직 공무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사보 및 건축직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忠淸南道支部(會長 李甲俊) 건축사보 직무교육 실시

忠南지부(회장 李甲俊)는 지난 29일 온양시청 회의실에서

지부소속 건축사보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 '90 건축업무 연찬회 개최

全南지부(회장 金仁模)는 지난 16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도내 건축관계 공무원과의 建築行政發展方向 研鑽會를 개최하였다.

도내 건축관련공무원 50명과 지부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연찬

회는 순천대 서치상교수의 "한국불사건축"에 관한 강의에 이어 道 주택과 주택행정계장의 '90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지침 시달, 협회현황설명 및 건의사항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봄맞이 대청소 실시

全南지부는 지난 3월10일 봄맞이대청소기간을 맞아 관내 순천분소에서 회원 및 보조원 4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지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 정정합니다 □

지난 8903호 협회소식증 경북지부 崔鍾培회장이 제작상의 착오로 경남지부의 김봉준회장명으로 바뀌어 수록되었는 바 정정합니다.